2013 정책개발 – 03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gender analysis)

책임연구원: 손문금(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초빙연구원: 이선영(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장미현(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강사)
위촉연구원: 윤 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SWF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1990년대에는 OECD와 UNhabitat가 도시공간의 이용자와 계획자로서 여성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캐나다와 유럽각국은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성평등을 도시계획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성인지적 도시개발이 시민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접근틀을 제공하고, 시민을 도시발전의 기획자로 참여시키며, 물리적 도시개발을 넘어서서 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원리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은 20년 후 서울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자, 토지이용·주택·교통·공원녹지 등 관련 공간시책에 큰 틀을 제시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원칙을 개발하여 2030서울플랜에 적용하여보고, 2030서울플랜의 공간구조구상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평등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시범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2030 서울플랜에 적용되어야 할 성평등 도시공간 구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 합니다. 일·생활통합, 커뮤니티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안전성 강화, 이동의 연속성 확보,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계획, 성평등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 구속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 서울플랜에 반영되어야 할 구체적인 성평등 도시계획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틀에서 자유로운 복합개발공간구성방식 채택, 대규모 고밀복합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근거리에서 작은 규모로 커뮤니티 활동 거점장소의 확보,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공공의 시선(public eye)을 통한 일상생활의 안전성 강화, 장소성과 주민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출, 도시계획위원회의 여성전문가

참여,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공간사용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주신 이선영교수님, 장미현박사님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가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서울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수립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서울시정의 성 주류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0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Contents

Ⅰ 서론 _ 0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9
1. 연구범위 ····· 9
2. 연구내용 ····· 10
3. 연구방법 ····· 14

제3절 연구방향 ····· 15
1.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의 성평등 주류화 방식 변화 유도 ····· 15
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및 특징 ····· 17

Ⅱ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가이드라인 _ 21

제1절 도시공간과 젠더이슈 ····· 23
1.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연구와 젠더이슈 ····· 23
2. 국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의 젠더이슈 ····· 34
3. 젠더이슈 종합 및 시사점 ····· 43

제2절 성평등 도시공간의 개념과 구성원칙 ····· 49
1. 젠더화된 도시공간 ····· 49

Contents

2. 젠더관점에서의 도시계획상 현안들 ····· 55
3.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 67

제3절 도시기본계획 대한 성 분석 가이드라인 ····· 71
1.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 방향 ····· 71
2.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 ····· 74

Ⅲ 2030 서울플랜(안) _ 81

제1절 2030 서울플랜(안) 개요 ····· 83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체계 ····· 83
2. 2030 서울플랜(안) 수립 개요 ····· 85

제2절 2030 서울플랜(안) 추진체계와 주요내용 ····· 90
1. 2030 서울플랜(안) 추진체계 ····· 90
2. 2030 서울플랜(안) 주요 내용 ····· 97

제3절 2030 서울플랜(안)의 특징 ····· 107

Ⅳ 도시공간환경 요구와 성평등 미래상에 대한 성별 차이 _ 109

제1절 조사개요 ····· 111

제2절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 ····· 117
1. 일·생활 통합 ····· 117
2. 열린 커뮤니티 ····· 122

3. 생활안전 ····· 126
4. 이동 ····· 129
5. 다양성 ····· 136
6. 참여와 제도 ····· 137

제3절 서울시 성평등 수준 및 도시생활 이슈 ····· 140
1.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 140
2. 서울시 도시생활 이슈 ····· 151

제4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 159

V 2030 서울플랜(안) 성 분석 결과 _ 167

제1절 일·생활 통합(Integration) ····· 169

제2절 열린 커뮤니티(Access) ····· 176

제3절 생활안전(Safety) ····· 184

제4절 이동성(Mobility) ····· 192

제5절 다양성(Diversity) ····· 196

제6절 참여와 제도(Participation & System) ····· 202

제7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 218

Contents

Ⅵ 결론 _ 225

제1절 2030 서울플랜 반영 성평등 제언 사항 ····· 227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진 사항 ····· 238

참고문헌 _ 242

영문초록(Abstract) _ 247

부 록 _ 249

설문지 ····· 251

Table Contents

표 목차

▌표 Ⅰ-1▐ 2030 서울플랜의 연구대상 범위 ····· 9
▌표 Ⅱ-1▐ 도시개발 및 도시시설 설치 사업 관련 젠더 이슈 ····· 29
▌표 Ⅱ-2▐ 베를린시의 도시개발과 젠더이슈 ····· 35
▌표 Ⅱ-3▐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과 젠더이슈 ····· 37
▌표 Ⅱ-4▐ 런던시, 런던플랜의 분야별 과제 ····· 39
▌표 Ⅱ-5▐ 런던시, 성평등계획(2012-2013) ····· 42
▌표 Ⅱ-6▐ 국내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사업의 젠더이슈 연계 ····· 44
▌표 Ⅱ-7▐ 여성의 일상과 도시 내 물리적 공간의 연관관계 ····· 54
▌표 Ⅱ-8▐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요구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의 관점 ····· 54
▌표 Ⅱ-9▐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 68
▌표 Ⅱ-10▐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지침(2013년) ····· 71
▌표 Ⅱ-11▐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 방향 ····· 72
▌표 Ⅱ-12▐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안) ····· 78
▌표 Ⅲ-1▐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 83
▌표 Ⅲ-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경위 ····· 85
▌표 Ⅲ-3▐ 2030 서울플랜(안)의 범위 ····· 86
▌표 Ⅲ-4▐ 2030 서울플랜(안)의 수립방향 ····· 87
▌표 Ⅲ-5▐ 참여자 구성 및 역할 ····· 91
▌표 Ⅲ-6▐ 서울플랜(안) 수립절차 ····· 93
▌표 Ⅲ-7▐ 도시계획사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 ····· 95
▌표 Ⅲ-8▐ 복지·교육·여성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 99
▌표 Ⅲ-9▐ 산업·일자리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 101
▌표 Ⅲ-10▐ 역사·문화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 102
▌표 Ⅲ-11▐ 환경·안전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 103
▌표 Ⅲ-12▐ 도시공간정비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 105
▌표 Ⅳ-1▐ 조사개요 ····· 112
▌표 Ⅳ-2▐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표본 할당 ····· 112
▌표 Ⅳ-3▐ 성별 연령별 취업상태별 표본할당 ····· 113
▌표 Ⅳ-4▐ 주요 조사 내용 ····· 114
▌표 Ⅳ-5▐ 응답자 특성 ····· 115
▌표 Ⅳ-6▐ 성별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필요사항(1순위+2순위 상위 5개 %) ····· 118

▌표 Ⅳ-7▐ 성별 연령별 거주지 선택 요인(1순위 상위 5개 %) ····· 126
▌표 Ⅳ-8▐ 성별 취업상태별 외출 시 주이용 교통수단(%) ····· 130
▌표 Ⅳ-9▐ 성별 시설별 방문여부 ····· 133
▌표 Ⅳ-10▐ 성별 방문시설 수(곳) ····· 134
▌표 Ⅳ-11▐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전체) ···· 134
▌표 Ⅳ-12▐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
(방문한 사람의 평균 횟수) ····· 135
▌표 Ⅳ-13▐ 성별 연령별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정보 획득 경로(%) ····· 139
▌표 Ⅳ-14▐ 성평등 수준과 정책운영과정에 여성고려 중요도와의 관계 ····· 141
▌표 Ⅳ-15▐ 성별 연령별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현상(1순위 상위 5개 %) ····· 153
▌표 Ⅳ-16▐ 성별 연령별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156
▌표 Ⅳ-17▐ 성평등한 서울의 현재 모습 및 2030년 예측 ····· 163
▌표 Ⅴ-1▐ 전문가 자문단 운영 내용 ····· 203
▌표 Ⅴ-2▐ 서울플랜 토론한마당 운영 내용 ····· 204
▌표 Ⅴ-3▐ 성별 계층별 시민참여단의 구성 ····· 206
▌표 Ⅴ-4▐ 성별 연령별 시민참여단의 구성 ····· 206
▌표 Ⅴ-5▐ 시민참여단의 시민제안서 내용 ····· 209
▌표 Ⅴ-6▐ 청소년 참여단의 구성 ····· 210
▌표 Ⅴ-7▐ 청소년참여단의 청소년제안서 내용 ····· 211
▌표 Ⅴ-8▐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 조사개요 ····· 212
▌표 Ⅵ-1▐ 2030서울플랜(안) 성 분석결과 반영 제언사항 ····· 228
▌표 Ⅵ-2▐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 237

Picture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Ⅰ-1▐ 서울시 계획수립 체계 ····· 8
▌그림 Ⅰ-2▐ 연구내용의 체계 ····· 13
▌그림 Ⅱ-1▐ 여성친화도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관계 ····· 26
▌그림 Ⅱ-2▐ 토지이용계획상의 분리된 도시공간과 여성의 일상활동 ····· 57
▌그림 Ⅱ-3▐ 복합용도개발 ····· 61
▌그림 Ⅱ-4▐ 압축적인 복합사용 결절점 개발 ····· 62
▌그림 Ⅱ-5▐ 대중교통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압축적인 복합사용 결절점 ····· 62
▌그림 Ⅲ-1▐ 도시계획 체계 ····· 84
▌그림 Ⅲ-2▐ 2030 서울플랜(안) 구성안 ····· 89
▌그림 Ⅲ-3▐ 서울플랜 참여단의 협업체계 ····· 92
▌그림 Ⅲ-4▐ 핵심이슈를 도시공간계획으로 실현하는 2030 서울플랜 구성 ····· 108
▌그림 Ⅳ-1▐ 성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필요사항(1순위+2순위 %) ····· 118
▌그림 Ⅳ-2▐ 성별 돌봄활동지원 필요사항(1순위 %) ····· 119
▌그림 Ⅳ-3▐ 성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1순위 %) ····· 120
▌그림 Ⅳ-4▐ 성별 희망하는 직장 위치(%) ····· 121
▌그림 Ⅳ-5▐ 성별 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공간(1순위 %) ····· 123
▌그림 Ⅳ-6▐ 성별 주거지역 생활환경 만족도(5점 만점) ····· 124
▌그림 Ⅳ-7▐ 성별 거주지 선택 요인(1순위 %) ····· 125
▌그림 Ⅳ-8▐ 성별 전반적인 안전의식 평가(5점 만점) ····· 127
▌그림 Ⅳ-9▐ 성별 안전한 공간 확보 필요 사항(%) ····· 129
▌그림 Ⅳ-10▐ 성별 외출 시 주이용 교통수단(%) ····· 130
▌그림 Ⅳ-11▐ 성별 교통수단 선택 요인(%) ····· 131
▌그림 Ⅳ-12▐ 성별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사항(1순위 %) ····· 132
▌그림 Ⅳ-13▐ 성별 도시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5점 척도) ····· 136
▌그림 Ⅳ-14▐ 성별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5점 척도) ····· 136
▌그림 Ⅳ-15▐ 성별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에 양성 동시 고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37
▌그림 Ⅳ-16▐ 성별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정보 획득 경로(%) ····· 138
▌그림 Ⅳ-17▐ 성별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평가(5점 만점) ····· 140
▌그림 Ⅳ-18▐ 자립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 142

▌그림 Ⅳ-19▐ 자립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 142
▌그림 Ⅳ-20▐ 자립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 143
▌그림 Ⅳ-21▐ 안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 144
▌그림 Ⅳ-22▐ 안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 144
▌그림 Ⅳ-23▐ 안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 145
▌그림 Ⅳ-24▐ 돌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 146
▌그림 Ⅳ-25▐ 돌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 146
▌그림 Ⅳ-26▐ 돌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 146
▌그림 Ⅳ-27▐ 소통 및 다양성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 147
▌그림 Ⅳ-28▐ 소통 및 다양성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 148
▌그림 Ⅳ-29▐ 소통 및 다양성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 148
▌그림 Ⅳ-30▐ 참여 및 제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 149
▌그림 Ⅳ-31▐ 참여 및 제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 150
▌그림 Ⅳ-32▐ 참여 및 제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 150
▌그림 Ⅳ-33▐ 성별 서울시의 가장 큰 도시 문제(1+2순위, %,) ····· 151
▌그림 Ⅳ-34▐ 성별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 (1순위 %) ····· 152
▌그림 Ⅳ-35▐ 성별 중요한 시민제안 이슈 (1순위 %) ····· 154
▌그림 Ⅳ-36▐ 성별 복지, 여성, 교육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155
▌그림 Ⅳ-37▐ 성별 역사, 문화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157
▌그림 Ⅳ-38▐ 성별 환경, 안전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158
▌그림 Ⅳ-39▐ 성별 도시공간정비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158
▌그림 Ⅴ-1▐ 일-생활통합 부문 분석결과 종합 ····· 175
▌그림 Ⅴ-2▐ 열린 커뮤니티 부문 분석결과 종합 ····· 183
▌그림 Ⅴ-3▐ 생활안전 부문 분석결과 종합 ····· 191
▌그림 Ⅴ-4▐ 이동성 부문 분석결과 종합 ····· 195
▌그림 Ⅴ-5▐ 다양성 부문 분석결과 종합 ····· 201

▌그림 Ⅴ-6▐ 서울플랜 수립 TFT 운영 체계 ····· 205
▌그림 Ⅴ-7▐ 2030 서울플랜 수립계획서 검토항목 ····· 216
▌그림 Ⅴ-8▐ 집중의 원칙 ····· 219
▌그림 Ⅴ-9▐ 네트워크의 원칙 ····· 221
▌그림 Ⅴ-10▐ 오픈스페이스의 안전성 ····· 222
▌그림 Ⅵ-1▐ 성평등 도시공간구조 및 세부계획 ····· 229
▌그림 Ⅵ-2▐ 커뮤니티 허브 구축 방안 ····· 231
▌그림 Ⅵ-3▐ 일상생활의 안전성 확보 방안 ····· 233
▌그림 Ⅵ-4▐ 이동의 연속성 확보방안 ····· 234
▌그림 Ⅵ-5▐ 다양한 주거의 제공 방안 ····· 235
▌그림 Ⅵ-6▐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개선 ····· 236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의해 법률상 수립근거가 있는 3년 이상 주기의 모든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임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승인하는 정책계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계획임

□ 서울시는 '도시공간 및 시설 등에 성평등 관점 적용'을 성평등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분야의 성평등 주류화 필요

○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핵심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개발하여 서울시 최상위공간계획, 서울플랜에 반영

○ 도시공간과 시설은 여성도 당연히 당당하게 이용하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경험과 조건을 가진 도시생활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2030서울플랜(안)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내용 마련

○ 2030서울플랜(안)에 성평등 관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제언하고자 함

□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시범사례 제시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도시공간과 관련된 젠더이슈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도출

○ 국내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 나타난 젠더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도시공간과 관련된 젠더이슈를 제시함. 이러한 젠더이슈를 바탕으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 도출

□ 서울시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불편·요구 사항과 서울시 성평등 상태에 대한 시민의견 파악

○ 도시공간계획에서 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얻고, 서울시민이 성불평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부분을 도시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임

□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 도출 및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성 분석 실행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지침)을 도출하고자 함. 그리고 2030 서울플랜(안)의 추진절차, 5개 분과별 이슈와 과제, 관련법령에 대해 성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을 실행함

□ 2030 서울플랜(안)에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 및 성 분석 결과의 반영방안 마련하고 행정과 협의

2) 연구방법

○ 기존 연구자료, 행정자료, 법령자료 등 문헌분석

○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 젠더전문가,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행정전문가 등 자문회의

3. 연구방향

○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 내에서 성 평등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낮음. 여성가족정책실 사업을 넘어서서, 도시공간 관련 행정부서가 스스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성평등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자 함

○ 현재 서울이 가진 여성관련 도시공간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20년 후 서울시가 성평등한 도시공간을 가지기 위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함

○ 여성과 남성의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의 차이뿐 아니라, 여성의 다양한 인구집단과 생활방식에 대해 고려하고자 함

○ 사업에 대한 성 분석이 아닌 계획에 대한 성 분석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이슈와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닌 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그 이유는 도시공간구성 및 도시계획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별영향보다는 도시공간구성 및 도시계획에 필요한 젠더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Ⅱ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가이드라인

1. 도시공간과 젠더이슈

1)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연구와 젠더이슈 특징

□ 도시공간과 젠더에 대한 기존 사회의 가정에 도전하였지만, 정책실천과정에서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보호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정책실천과정에서 제시된 과제는 대부분 CCTV설치, 가로등설치, 어린이집 설치, 하이힐과 보도블럭, 스커트와 계단 등 물리적 공간과 시설의 구축방안 제시 그리고 여성을 분리시켜 보호하는 과제제시에 그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관련 젠더이슈와 여성의 평등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과제의 혼재

○ 이는 도시공간구성이 단순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까지가 고려된 도시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바램이 혼재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 보편적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젠더이슈의 등치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젠더이슈를 보편성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적인 조치들인 무장애설계(barrier free), 범죄예방설계(CPTED), 친환경설계(ESSD) 등과 등치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성평등한 도시공간을 유니버설하고 보편적인 원리로 이해하는 것은 여성이 취약계층과는 다른 차원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고,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임

□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인 시설설치사업에서 시민의 평등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간개발로 인식이 변화 중에 있음

○ 공간을 구조화하는 정책이 단지 토지를 구획하고 건물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사회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변화 또는 고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성평등 도시공간계획 및 도시개발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성장과 삶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젠더이슈

○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젠더이슈를 종합하면, '일자리, 돌봄, 일-삶의 조화,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 공동체와 소통, 여성참여' 등으로 정리됨

2) 국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의 젠더이슈 특징

□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서 성 주류화 의미

○ 도시개발 과정 및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성 주류화란 '시민의 개별적인 생활상황, 이익 추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 '주민을 정책의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닌 도시발전의 기획자로 바라본다는 것', '도시개발을 물리적인 전략을 넘어서서 지역을 보완하고 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는 것'임

□ 도시개발에서의 성 주류화 목표

○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의 성 주류화 목표는 첫째,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배치 및 개발을 철폐하고, 둘째, 시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환경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간 선택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젠더이슈

○ 제시된 젠더이슈는 공공공간을 다기능 도시공간으로 계획하여 한 가지 기능

으로만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양하고,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시민을 분절화 시키지 않고 통합시키는 도시, 서로의 자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지역의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도시, 돌봄 문화를 공공생활로 통합하는 도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에서 가족생활과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도시,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간 이용 가능성을 증진하는 도시 등임

○ 이렇게 국외정부가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지침에서 젠더이슈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별차이 및 소속된 사회그룹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공간사용방식과 요구를 동등하면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또한 성평등한 도시계획을 단지 여성의 도시공간사용방식에 대한 고려를 넘어,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도시민들의 차이를 고려하는 기초적 가치로 표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3) 젠더이슈 종합

□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성별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 관련 젠더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접근의 문제**: 여성이 도시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EU의 여성들은 안전, 커뮤니티 서비스, 보육서비스, 환경의 질, 교통, 자원에 대한 접근, 일에 대한 접근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간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을 때 도시환경에서의 성평등성은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동의 문제**: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복합적이고 다양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교통정책은 일상의 영위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다양한 이동수단의 집결지가 일상의 커뮤니티 내 액티비티 허브와 통합되는 방식이 교통과 관련한 공간정책에서 꼼꼼히 다루어져야 함

○ **안전의 문제**: 도시에서의 여성은 생활안전에 항상 약자로 존재하며 남성들에 비하여 도시의 더 많은 장소를 가로지르며 경험하는 사회적 역할과 일상적인 출퇴근시간대에서 벗어난 파트타임이나 야간작업이 많은 연유로 더

많은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일터와 주거, 오픈스페이스 등 일상공간의 안전과 이들 공간 간 이동 동선상의 안전은 여성의 도시생활의 영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이므로 도시 내 여성과 관련한 안전은 자연감시가 가능한 공간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돌봄의 가치실현**: 개인이 가족과 일터, 커뮤니티라는 생활공간 내에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는 다양한 차원의 돌봄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 이러한 돌봄의 가치는 대부분 여성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공간상 고려가 한 사회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일과 생활의 통합**: 도시라는 범주 내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생활공간의 구축은 시민의 일과 생활의 병행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도시공간의 편성으로만 가능하며 접근성, 안전성, 이동성이 보장된 여성의 일상의 요구를 반영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음

○ **참여와 제도의 문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련된 사업기획 과정에 여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참여한 시민의 의견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또한 이러한 과정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2. 성평등 도시공간의 개념과 구성원칙

□ 도시계획에서의 성평등이란?

○ 개인이 도시환경 내에서 기본욕구를 실현하고자 할 때 개인, 가족, 일, 커뮤니티 등의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양태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도시계획에서 성평등 문제의 핵심이 됨

○ 따라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이란 여성과 남성의 도시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반영한 도시공간 배치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의 공간선택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개인, 가족, 일, 커뮤니티 등의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인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생활공간 계획은 참여가 핵심

○ 개별성을 갖는 여성이 도시환경에서 기대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의는 열려있어야 함. 하지만 계층, 라이프스타일, 생업, 혼인여부, 육아여부 등 개인적인 상황에 주목하여 전개되는 논의는 공간의 실천문제로 고려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고려는 적절하지 않음. 이러한 맥락에서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공간정책은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의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만 함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원칙
일·생활 통합 (Integration)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	•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열린 커뮤니티 (Access)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커뮤니티 허브를 통한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
생활안전 (Safety)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	•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집중
이동성 (Mobility)	일상의 영위를 위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마련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계획	• 근린 규모로 분절된 커뮤니티 서비스의 제공
참여와 제도 (Participation & System)	다양한 공간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 지원	• Public Eye를 통한 일상공간의 안전성 확보

3.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 가이드라인(지침)

□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제도적 인프라와 도시공간의 두 범주로 구분됨

○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생활

통합(Integration), 열린 커뮤니티(Access), 생활안전(Safety), 이동성(Mobility), 다양성(Diversity)의 다섯 가지 목표로 구성됨

○ 제도적 인프라는 도시공간정책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Participation)와 소통을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젠더이슈을 고려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System)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분	목표(가치)	전략 (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원칙	지침
도시 공간	일·생활 통합 (Integration)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 공적인 공간계획이 돌봄활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허브의 구축	• 주거,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커뮤니티 허브가 구축되어 있는가? • 커뮤니티 허브를 통해 일상 활동 공간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있는가? •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위계와 연계되어 구조화되고 있는가?
	열린 커뮤니티 (Access)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집중	• 커뮤니티 허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커뮤니티 서비스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집중되어 있는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계획	• 커뮤니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 커뮤니티 허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활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근린 규모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복합개발을 통해 제공되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근린의 규모로 분절되어 있는가?
	생활안전 (Safety)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일상공간의 안전성 확보	• 공공공간이 Public Eye를 통한 자연감시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구분	목표(가치)	전략 (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원칙	지침
도시 공간		공간 구조		• 공공공간은 다양한 안전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 철거지역, 공사예정지, 공사지역 등 비활성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동의 안전성 확보	• 다양한 이동수단, 이동시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버스쉘터, 지하철 역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이동성 (Mobility)	일상의 영위를 위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교통수단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커뮤니티 허브가 연결되고 있는가? • 여러 교통수단 간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 시스템	• 주거, 업무, 쇼핑, 여가 시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가능한가? • 공공 서비스 시설에 접근하는데 특정 교통수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교통시스템이 다양한 이동요구(이동수단, 이동경로, 이동시간)를 반영하고 있는가? • 제한된 이동수단에 의존하는 그룹이 존재하는가?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계획	• 토지이용계획이 다양한 라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있는가? •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니버설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다양한 주거공간의 제공	•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생활 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주택시설의 다양화)하고 있는가? • 적정 임대 비율을 유지하고 주거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 공공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특정 이용자 그룹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구분	목표(가치)	전략 (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원칙	지침
도시 공간			시설 및 오픈 스페이스	• 공공 서비스 시설이 특정한 그룹의 특정한 이용방식(어린이, 아동동반,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 공원 등 공공 오픈 스페이스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가?
제도적 인프라	참여 (participation)	공간 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 지원	도시공간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	•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절차와 과정에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절차와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통계가 작성되었는가? • 시민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성인지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 성평등 인식을 위한 참여인력에 대한 성평등 훈련이 실시되었는가?
	제도 (system)	법적 구속력 확보	성평등 도시공간 조성 기반 구축	• 성별 할당 또는 성별 동등에 대한 조항내용이 있는가? • 도시공간조성과 관련된 성인지적 법령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 도시공간조성과 관련된 지침,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성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가?

Ⅲ 2030 서울플랜(안)

1. 2030 서울플랜(안) 개요

□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면서, 20년 후 서울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며, 공간계획이자, 행정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책계획임.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공간계획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시울시의 부문별 법정계획, 실국별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

□ 2030 서울플랜 추진 경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법령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되는 계획임

○ 서울시에서는 1990년 최초계획 수립 후 총3회 수립되었음

□ 2030 서울플랜 수립 개요

○ 2030 서울플랜의 의미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으로 '시민과 함께 만든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2030 서울플랜의 범위

- 2030 서울플랜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를 포함함. 내용은 서울의 미래상(비전)과 핵심이슈, 부문별 계획, 권역계획, 모니

터링과 현실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030 서울플랜 수립방향

- 2030 서울플랜은 사람중림의 인문사회적 가치를 담고, 시민·전문가와 함께 계획의 내용을 선택하며, 서울의 미래 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최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음

2. 2030 서울플랜(안)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수립절차

○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을 위해 첫째, 계획수립준비로 미래구상 및 계획수립 방향을 설정하고('12. 6~7), 둘째, 미래비전을 설정하였으며('12. 7~8), 셋째,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12 .9~11), 넷째,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단계('12. 12~'13 .7)를 거치고 있음. 이후에는 공청회, 중앙부처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함

□ 주요 내용의 구성

○ 2030 서울플랜(안)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울의 미래상과 비전, 핵심이슈 및 분과별 계획, 공간구조구상과 토지이용계획,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및 실현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9월 시장보고 이전 2030서울플랜(안)의 전체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분과별 계획에 대한 내용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임. 본 연구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개발하여 반영하고자 하지만, 2030 서울플랜(안)의 공간계획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짐.

○ 5개 분과의 구성은 시민참여단의 '시민제안서'에서 제시한 주요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과의 구성과 순서를 정한 것임. 즉 시민참여단은 복지·교육의 과제를 1순위로, 일자리문제를 2순위로, 역사문화보존과 경관관리의 문제를 3순위로, 환경과 안전문제를 4순위로 그리고 도시개발 문제를 5순위의

과제로 제시하였음. 이에따라 2030서울플랜에는 복지·교육·여성분과, 산업·일자리분과, 역사·문화분과, 환경·안전분과, 도시공간정비분과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과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

Ⅳ 도시공간환경 요구와 성평등 미래상에 대한 성별 차이

1. 조사개요

○ 만20세 이상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현재와 20년 후 서울시의 성평등 상태의 변화정도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고자 실시함. 이를 통해 2030서울플랜(안)의 도시공간과 관련된 내용 중 성별 차이를 인식하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하고, 20년 후에도 성평등 도시 서울이 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기초정보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2.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

□ 일·생활 통합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여성 취업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특히 4~50대 여성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또한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25.4%)이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일·생활 양립을 위한 직주근접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 및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여성은 지역특성과 연관 있는 소규모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반면,

남성은 첨단산업, 대규모산업, 서울시 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열린 커뮤니티

○ 남성은 주거지역을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취업지원시설, 주민소통공간, 노인복지서비스 공간, 건강증진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또한 거주지 선택 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 및 치안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생활편의시설이나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특히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공간으로 남녀모두 40대에서 의료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으며, 20대 여성은 치안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또한 여자 30대에서는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생활안전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물리적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두려움 외에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험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려운 것과 집에 혼자 있을 때 위험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비교적 크게 나온 것은 이웃과의 교류부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기에, 안전정책에서 이웃과의 소통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 및 공간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여성은 CCTV, 비상벨, 가로등과 같은 시설보다는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공사장이나 빈 공터 등의 관리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공간정책에서 단순히 안전관련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공간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함

□ 이동

○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내/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은 지하철과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교통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이동시 걸리는 시간(34.0%)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집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37.6%)를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함

○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의 이용 시설 및 횟수는 남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쇼핑/장보기, 음식점, 치료, 자녀관련시설, 세탁소 등 들르는 곳이 많았고, 또한 들르는 횟수도 남성에 비해 많았음. 이는 도시 내 여성의 이동동선이 남성에 비해 더 복잡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의 동선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함. 즉, 생활시설 및 공간의 배치가 단순한 편리성이 아닌, 여성의 생활주기와 관련된 동선을 고려해야함

□ 다양성과 참여

○ 도시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의 반영 중요도 및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두 영역 모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음. 반면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고 평가함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여성은 도시공간정책관련 위원회나 협의회에 여성의 참여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제고와 성평등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또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에 대한 정보의 획득 경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으로 나타남(34.2%)

3. 서울시 성평등 수준 및 도시생활 이슈

□ 서울시 현재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평가

○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점수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84점으로 남성 3.25점보다 낮음

□ 서울시 현재의 성평등수준에 대한 평가와 2030년 성평등수준에 대한 예측

○ 자립, 안전, 돌봄, 소통 및 다양성, 참여 부문에서 현재 서울의 성평등 수준과 2030년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음. 그 결과 현재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남녀 모두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이 5점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모두 2030년에는 현재보다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030년에는 성평등 수준의 개선정도가 더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 수준 3.35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 3.66점, 의회의원 등 정치권에 여성참여비율 3.77점, 정부 및 시구청등 행정에서의 여성고위직 비율 3.79점,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3.79점 등의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자립부문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수준 5.21점, 남녀 간 공정한 경쟁수준 5.13점 등임

○ 2030년 성평등 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수준 5.39점, 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 수준 5.56점으로 사람들 간의 연대와 신뢰수준에 대해서 암울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30년에 가장 큰 개선정도를 보일 것으로 평가한 항목은 현재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던 여성대상 폭

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수준(3.07점 향상),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3.03점 향상),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3.04점 향상) 등임

□ 서울시 도시생활 이슈

○ 서울시 도시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20.2%),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 15.1%, 다양한 계층의 갈등문제 13.4%, 범죄문제 12.9%, 교통문제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젊은 여성은 범죄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남자 60대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로 여성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여성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옴. 또한 서울시 도시생활에서의 우선시 할 이슈로 여성 30대의 경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견이 많고, 환경·안전 분야에서 여성은 생활에서의 범죄 및 위험에 따른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음

V 2030 서울플랜(안) 성 분석 결과

□ 역세권 중심의 입체화 고밀복합 개발 방식의 개선과 일상활동 공간의 집중

○ 자원 및 교통에너지 절약을 위한 역세권 중심 대규모 복합고밀 도시공간구조를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도시공간이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근거리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지원하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는 필요 시설 간의 이동의 증가를 야기하여 토지자원과 교통에너지의 절약에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다양한 돌봄 및 가사활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현실에서 이동 동선의 확장은 여성의 도시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돌봄과 가사로 인한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남성에 비해 비정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고, 일과 돌봄의 병행이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과 생활의 영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활동 거점이 도시 공간 속에 촘촘히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근린 장소에서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병원, 자녀의 학교, 녹지 공간, 소규모의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커뮤니티 공간이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작은 스케일로 구축되고,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보행자 우선 배려 및 대중교통위주의 토지이용 추구를 넘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및 커뮤니티 허브 간 이동 네트워크의 구축

○ 보행자 우선 배려 및 대중교통위주의 토지이용을 추구하되, 근린에서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커뮤니티 허브 구축이 필요함. 보행자의 우선적 배려와 대중교통위주의 집약적인 토지이용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효율 및 공간과 건물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임. 여성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고, 보행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위주의 토지이용은 여성들의 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하지만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되 보행이동이 가능한 거리 안에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근린 규모로 개발하고,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계획을 우선시하면서 환승 등을 통한 자동차 관련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됨

□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구조 창출

○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개념을 도입하여 서울시 도시 및 건축의 공간 물리적 환경을 설계함에 있어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Public eye를 통한 일상공간에 대한 자연감시,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이동수단·경로·시간대 등에 따른 이동안전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CPTED를 적용하여 밝고 넓은 통로나 길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공간은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생활가로 상에서 가시적인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시선(Public eye)이 존재할 때 도시공간의 안전성이 높아지므로 시설들은 시간대별로 이용에 끊어짐이 없도록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상업시설, 24시간 시설, 치안시설등)을 집약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서비스 시설이 집중된 커뮤니티 허브 속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의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지역 내 일자리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커뮤니티 허브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통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장소성과 주민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 창출

○ 대규모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장소성과 주민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출은 주거에 대한 다양한 그룹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특히, 여성가구주, 모자가정, 여성 독거노인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음. 이러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에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역세권에서 먼 거리에 거주할 수밖

에 없음. 이에, 임대주택의 공급시 적정 임대 비율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고려한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함

□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 사회적 합의 도출

○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이해당사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임. 도시공간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임. 이용자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한 이용 그룹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성별, 연령, 계층,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지닌 공간이용자들이 모두 수월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대부분의 도시공간 조성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또한 전문가들의 구성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다양한 공간이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 따라서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성별, 연령, 계층,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됨

□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법규 마련

○ 근거 법규의 내용은 공간정책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을 제공함.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도시공간정책 및 도시계획의 개선안은 대체로 성인지적 내용을 도출하게 되고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는 도시공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두 법규 모두 여성의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집단의 참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사회 각 계층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 및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위촉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위원이 40%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여성이 참여할 때에는 항상 여성이나 복지계의 여성을 찾고 있지만 건축,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 등의 분야에서 여성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

○ 또한 도시공간구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양성간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결핍과 차별을 채워나가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요구를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도시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I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방향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률상 수립근거가 있는 3년 이상 주기의 모든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임[1)]**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별칭 : 2030 서울플랜, 이하 2030 서울플랜으로 칭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2)] 근거하여 특별·광역시장·시도지사가 5년단위로 수립하고 승인하는 정책계획임. 따라서 2030 서울플랜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계획이며, 2012년부터 서

---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울시 기획조정실이 주축이 되어 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 등을 중심으로 계획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과 성별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특히 2030 서울플랜은 토지이용·공원녹지·교통 등 부문별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비·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공간계획임. 따라서 2030 서울플랜의 도시공간 계획내용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검토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추진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주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음

□ **서울시는 '도시공간 및 시설 등에 성평등 관점 적용'을 성평등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분야의 성평등 주류화 필요**

○ 서울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12. 3. 6.)에서는 '도시공간 및 시설 등에 성평등 관점 적용'을 성평등 핵심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이러한 과제의 구체적 구현물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성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함[3)]

○ 올해에는 '도시공간 및 시설' 분야에서 성평등 주류화를 위해 마곡지구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 즉,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핵심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도록 제시하여, 도시계획 및

---

3) 민선4기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교통, 주택 등 여성친화적 도시시설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던 경험이 민선5기 도시공간 및 시설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 연구와 사업을 통해 지속적 지원을 수행함. 2007년 '서울숲 조성 및 운영 정책 성별영향평가', 2008년 '주차장 안전성, 편리성 및 쾌적성 현장 실태조사', '서울시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여자화장실 안전실태', '서울시 공영주차장 및 지하보·차도 조사', 2009년 '서울시 자전거친화타운조성사업 성별영향평가', '여성행복시설 가이드라인 개발-여행길,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여행공원, 여행아파트, 여행기업 매뉴얼-', '여성행복시설 현장평가실시', 2010년 '일반건축물 여행매뉴얼 개발', '여성·아동 안전지도 제작 매뉴얼 개발', '여성행복시설 현장평가실시', 2011년 '여성·아동 안전지도 연구용역 및 환경개선', '여성행복시설 현장평가실시', 2012년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구축', '여성이 안전한 공공원룸주택 연구', '여성행복시설 현장평가실시' 등을 연구·지원함

도시개발을 담당한 일반 행정부서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정책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성평등 정책이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도이며, 성평등 이슈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류화되어 고려되도록 하기위한 시도라 할 수 있음

○ 이는 주류 정책의 주변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서울시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성평등 가치와 정책목표를 가시화하여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간정책 프레임 내에서 성평등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을 제고하는 과정이 될 것임

□ **도시기본계획에서 여성과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시설, 시민의 일상이 반복되는 모두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과 서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계획초기부터 시민과 함께, 공동체 등 인문사회적 요소를 반영하여 수립하겠다고 제시함(http://www.seoulplan.re.kr). 하지만 2030 서울플랜에 왜 시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왜 인문사회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인문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철학은 무엇인지, 인문사회적 가치가 도시공간 구축과정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등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서울시의 2030서울플랜 수립과정을 보면 물리적 공간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시민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읽힘. 헌데 그러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지가 바로 성평등 도시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닿아 있음. 즉, 도시기본계획에 여성이 참여하고, 성평등이라는 인문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기존 전문가 및 남성이 주도하여 효율성과 규모성을 강조한 경제기능을 창출하는 물리적 도시공간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조건을 가진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과정의 시발점이기 때문임

2. 연구목적

□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사례 선도**

○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4]가 시행되지 않음. 이에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실행하여 시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함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개발하여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에 반영**

○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조성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연구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인지적[5] 시설설치 방법이 많이 제시되어 왔음. 하지만 이 연구들이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형태와 방법 측면의 개선안 제시에 치우치면서 공간을 통해 젠더불평등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간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화된 도시공간의 의미와 성평등 도시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개발하여 2030 서울플랜에 반영하고자 함.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이 도시공간과 시설 구축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과 같은 취약계층과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함. 즉, 도시공간과 시설은 여성도 당연히 당당하게 이용하고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경험과 조건을 가진 도시생활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4)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부, 2013)

5) 성인지(性認知)는 여성과 남성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 태도, 성역할, 가치 등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경험, 정책에 대한 요구와 필요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임

□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 가이드라인(지침)을 개발하고, 2030서울플랜(안)에 적용하여 분석**

○ '사업'에 대한 성 분석 지침과는 다른 '계획'에 대한 성 분석 지침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걸맞는 성 분석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그리고 이 지침을 적용하여 서울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장기 발전계획인 2030서울플랜(안)에 대한 성인지 관점 분석을 시행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존 지침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제시된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항목을 참고하고자 함. 하지만 2030 서울플랜이 도시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만으로 분석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을 시도할 때 응용할 수 있는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연계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지침을 2030서울플랜(안)에 적용하여 기존 계획안에 성평등 관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자 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30 서울플랜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평등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제시하고 행정에 제언하고자 함

□ **서울시의 모든 부서들이 성평등 도시공간 정책 실행에 대한 책무를 공유하는 기반 마련**

○ 다음 <그림 Ⅰ-1>의 서울시 계획수립체계에서 보듯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시정운영계획, 성과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매해 실·국·본부 업무계획 작성에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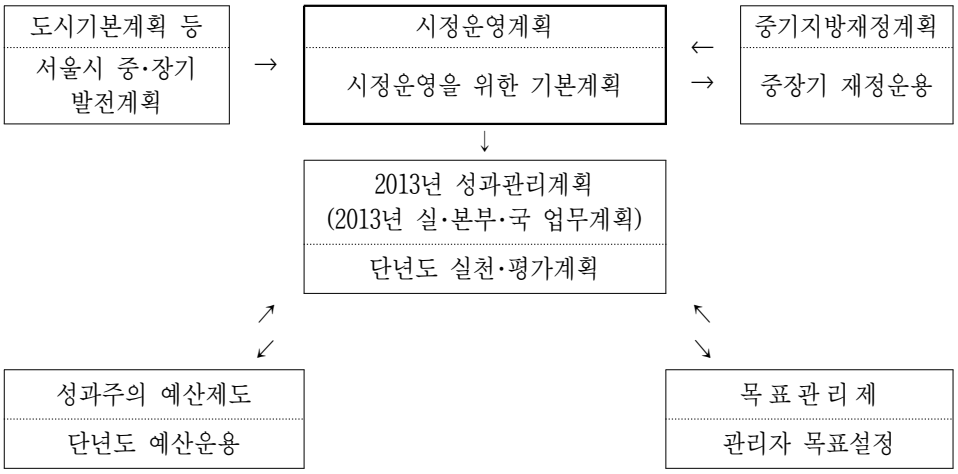
○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성평등 가치와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성평등을 서울시정 목표의 중심축으로 제시하고 여성정책부서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정책을 실행하는 모든 부서에 대해 성평등 주류화[6] 책무의 보편적 공유기반을 마련하

6) '성평등 주류화'란 모든 생활(정책)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이 보편적 의사결정 요소가 되는 상황을 의미함. 따라서 도시공간 구성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 성평등을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시의 성평등 목표가 도시 공간 구성 및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유될 뿐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고자 함

○ 특히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도시공간 정책 실행의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임

▌그림 Ⅰ-1▐ 서울시 계획수립 체계



자료: 서울시 시정운영계획(2012.1.9)

(손문금 외, 201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공간적, 대상적 범위**

○ 시간적 범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수립된 2030서울플랜(안)의 내용

○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전체

○ 연구대상범위: 2030 서울플랜(안) 수립 추진체계,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 계획의 내용 등

▌표 Ⅰ-1▐ 2030 서울플랜의 연구대상 범위

구분		연구대상	분석내용
추진체계	참여자	시민(시민참여단, 온라인참여단, 청소년참여단), 전문가(전문가자문단, MP(Master Planner)단, 토론한마당, 서울연구원)	참여자의 성별비율 참여자의 성평등 논의·발언내용
	수립절차	미래구상 및 계획수립방향설정, 미래비전 설정, 비전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안) 마련, 전체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및 확정	성별 및 소수자집단의 계획에의 정보접근성과 참여가능성 여성의 요구파악 노력 및 의견반영 여부
관련법령 및 행정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도시계획조례 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계획서 등 행정서류	주요 조항 및 행정 지침 내용의 성인지적 요소 분석
2030 서울플랜(안)		도시공간과 관련된 각 분과별 이슈 및 과제(계획의 기조, 미래상, 공간구조구상, 계획의 실현 부분은 미공개로 분석 불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분석 지침에 따른 점검 각 분과별 이슈 및 과제에 대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과제 분석

2. 연구내용

□ **도시공간과 관련된 젠더이슈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도출**

○ 도시공간구성의 젠더이슈 도출

- 우리사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례에서 나타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과정의 젠더이슈, 국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 나타난 젠더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도시공간구성과 관련된 젠더이슈를 제시함

○ 성평등 도시공간에 대한 개념정의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도출

- 기존연구에서처럼 교통, 공원 및 녹지,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과 같은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해 점검지표를 나열하고, 각 지표의 수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성평등한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도시공간이 성평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내리고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도출하며, 최상위 도시공간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 성평등 도시공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그에 내재한 사회적 관념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것임
- 성평등 도시공간 개념에 대한 사고는 도시공간과 개별 시설물들에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가치들이 구현되어 있으며, 도시에서 생성되는 권력관계와 문화가 응집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임. 즉, 도시공간과 시설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관계의 상징이며, 형태이고, 삶의 방식의 집합체임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임(이상문 외, 2006; 김양희 외, 2008)

□ **서울시 도시공간에 대한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과 서울시 성평등 상태에 대한 시민의견 파악**

○ 만20세 이상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서울시의 현재 성평등 상태와 미래 2030년 성평등 상태에 대한 평가의견을 도출하고, 도시공간 및 생활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이는 2030년에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어느 정도나 형평성을 획득하고, 평등한 환경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성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서울시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성별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의 차이를 파악하여 도시공간계획에서 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임. 특히 서울시민이 성불평등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자 함

○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 및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성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 도출 및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성 분석 실행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연계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 가이드라인(지침) 도출

- 앞에서 도출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세부 지침을 도출하고자 함
- 도시기본계획의 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2030서울플랜(안) 모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성평등한 '도시공간구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분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지도록 할 것임

○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성 분석 실행

- 목표 및 전략, 미래상, 계획의 실현 방안, 추진절차, 5개 분과별 (복지·교육·여성분과, 산업·일자리분과, 역사문화분과, 환경안전분과, 도시공간정비분과) 이슈와 과제에 대해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관련된 성 분석 지침에 따라 성 분석을 실행하고자 함
- 목표 및 전략, 미래상, 계획의 실현 방안, 공간구조구상, 생활권계획 등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서울시에서 그 내용에 대해 공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실행할 수 없었음

□ **2030 서울플랜(안)에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 및 성 분석 결과의 반영방안 마련하고 행정과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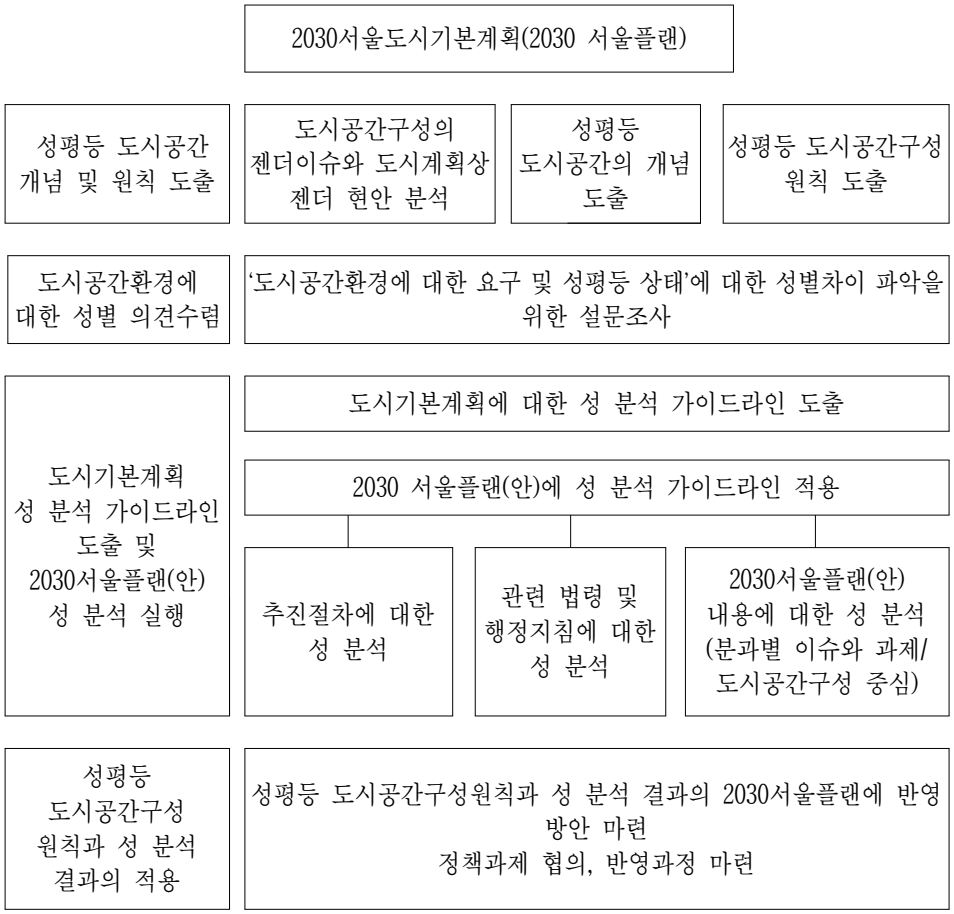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행된 2030서울플랜(안) 성분석 결과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함

- 분석결과 도출된 정책제언사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은 정치적인 협상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임. 이에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지정을 통해 반영방법 마련
- '13년 9월 2030서울플랜(안) 발표 예정임. 현재 초안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개입을 통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간의 시민의견수렴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무리임.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제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첫째, 연구과정에 서울시 여성정책부서, 기획조정실 및 도시계획국 관련 행정가, MP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함. 또한 이를 통해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제언사항을 2030서울플랜(안) 수립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함. 둘째, 공문을 통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및 도시계획국에 정책제언 내용을 전달하며, 셋째, 공청회 및 기자설명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넷째,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2030서울플랜 사후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하여 annual report에 반영되도록 함

○ 이외에도 협의 반영과정으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활용방안을 검토함

□ 연구내용의 구성

○ 앞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Ⅰ-2▐ 연구내용의 체계

3. 연구방법

□ **기존 연구자료, 행정자료, 법령자료 등 문헌분석**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및 체계, 관련 법령 검토, 2030서울플랜(안) 관련자료 검토

○ 국내·외 국가 및 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 반영된 젠더 이슈와 성평등 과제 검토

○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존 연구자료 검토 등

□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 20세 이상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현재 성평등 상태와 미래 2030년 성평등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해 조사함

○ 이를 통해 성별 성평등 상태 평가 및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성불평등이 심한 부분, 성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성 과정에서 성형평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 **자문회의**

○ 대상: 서울플랜 수립과정 참여자, 젠더·도시계획·행정 전문가 등

○ 내용: 연구내용 및 체계,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 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제3절 연구방향

1.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의 성평등 주류화 방식 변화 유도

□ **성평등 주류화의 방법**

○ 성평등 주류화의 전략은[7] 첫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전략과, 둘째,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전략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성평등 증진과 여성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OECD/DAC, 1998). 전자인 주류 발전계획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전략은 다시 두 가지 접근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음. 하나는 정책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접근으로, 성별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등은 이러한 접근방법에 기초를 둠. 다른 하나는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아젠다 세팅 접근(the agenda-setting approach)으로, 이 접근은 주류 발전정책의 비전과 주요 목표 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에 초점을 둠. 한편 후자의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전략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사업들을 발굴·추진하여 성 주류화를 꾀하는 것임(손문금·강선미, 2010)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을 위한 성평등 주류화 접근은 주류 정책과 프로그램의 주변에 여성대상 사업들을 덧붙이는 방식, 도시시설과 관련된 여성관련 사업 실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임. 즉, 도시공간의 성평등 주류화를 위해서는 도시공간구성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들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구성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

7) '성 주류화' 개념은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정책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에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개발의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말함

□ **서울시의 성평등 주류화 방식**

○ 서울시는 전문연구자들의 정책개발연구와 거버넌스 위원들의 자문 등을 통해 도출된 성평등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존의 여성정책 범주를 넘어서는 모든 일반 사업 분야에서 여성 대상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여 성평등 주류화를 추동하는 방식을 택해 왔음. 예를 들어 '여성안전대책', '여성1인 가구 지원정책' 등이 그러함. 즉, '여성안전대책' 사업들로 제시된 '여성안전마을',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지원', '여성안심택시' 등의 사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행정부서에서 사업이 개발·시행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주류 정책의 주변에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덧붙이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평등 주류화 접근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음. 또한 서울시의 여성정책 범주를 넘어선 일반사업 분야의 성평등 정책들은 시장의 방침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며, 아직까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성평등 주류화를 리드할 만한 위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서울시 성평등 정책의 낮은 위상, 도시공간 정책에서의 성평등 주류화 방식 변화 유도**

○ 서울시의 전반적인 정책 프레임 내에서 성평등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낮음.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대상 사업을 발표하는 것 이외에 일반실국이 성평등 목표나 사업을 받아들여 업무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 상황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정책부서에서는 부서 간 협력이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류정책 주변에 여성정책을 덧붙이는 방식은 성평등 주류화를 추진하는 데에 한계를 가짐. 이에 비엔나시는 성 주류화 프로젝트 사무소를 시장산하 행정기구로 설치하고, 성 주류화를 시범프로젝트에서 행정부서의 일상적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이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비전'

을 통해 '도시공간 및 시설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성평등 핵심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지만, 도시계획국 등 관련부서의 업무계획서나 홈페이지 등 어디에서도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발하거나 실행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주관하는 성평등 주류화 사업을 넘어서서, 일반행정부서가 스스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성평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갈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분석과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에 대한 적용은 바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정책과 사업에 성평등 원칙을 적용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임

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및 특징

□ **현재 서울이 가진 여성관련 도시공간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20년 후 서울이 성평등 도시공간을 가지기 위한 방향과 지향점 제시**

○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성 분석은 향후 20년간 서울시 여성과 남성의 관계 변화를 염두에 두고, 바람직한 서울의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을 설정하고자 함. 즉, 20년 후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불평등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 도시공간 구축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함. 이는 미래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관점에서(변미리 외, 2012) 성평등한 도시공간을 가진 서울이 되기 위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물론 2030년 서울의 성평등한 도시의 모습은 서울시가 당면한 성평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시공간구성 원칙이 함께 제시될 때 가능함. 따라서 2030년의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은 현재 서울도시가 가진 도시공간의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할 것임

□ **젠더와 다른 차별 요소의 교차지점에 대한 분석**

○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은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여성이 아님.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여성은 혼인상태, 연령, 소득수준, 직업유무, 자녀유무, 장애여부, 국적, 섹슈얼리티 등에 따라 도시공간 사용에서 느끼는 필요요소와 불편요소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의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의 차이 및 도시서비스 이용의 불균형을 분석할 뿐 아니라, 여성의 다양한 인구집단과 생활방식에 대해 고려하고자 함. 즉 성인지적인 도시공간구성을 위한 분석과정에서 젠더와 연령, 취업유무, 혼인상태 등의 요소들을 교차·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함

□ **사업에 대한 성 분석이 아닌 계획에 대한 성 분석의 차이점 제시**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수립과정에 여성의견반영 정도, 사업내용의 성별고정관념 및 성별 형평성 정도, 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음.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계획의 내용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성별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계획의 경우 사업과 다르게 비전, 목표, 전략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달라질 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과 별반 다른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계획의 경우 장기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모아진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항목과 방법, 내용이 다르게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도시공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

○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도시의 미래상과 계획목표를 공간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하고자하는 공간계획이라는 점(변미리, 2012)에 초점을 두고자 함. 즉 본 연구는 각 분야에 반영되어야 할 성평등 점검사항을 도

시공간구성 및 도시계획 차원에 한정하여 제시하고자 함. 이는 삶의 전반에서 성평등 실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성평등 목표와 과제를 개발하여 2030서울플랜에 반영하기보다는,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이슈와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닌 성 분석(gender analysis)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난 1995년부터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정책과정에 도입되어 제도화되기 시작했음. 동 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시하고, “정부 및 기타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인지 관점을 주류화 하는 능동적이며 명시적인 정책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강선미, 2011). 이에 따라 2013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일반정책에 대해 사업 수혜에서의 성별 영향,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영향, 사업수행방식에서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3)

○ 정책에 대한 성 분석(gender analysis)은 정책에 젠더(gender)[8] 관점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젠더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 정책분석이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성 분석은 특히 정책개발에 필요한 젠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김재인 외, 2001). 따라서 성 분석은 사업수혜, 예산배분, 사업수행방식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기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고정관념(stereotyping), 그리고 성 불평등이 어떻게 특정 정책과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특정 정책분야에서 여성과 남성들의 요구와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에 일차적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음

8) 린다 멕도웰(2010)은 젠더를 ‘여성과 남성이,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인정된 속성들이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정의되는 다양한 방식’ 이라고 정의함. 즉 젠더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관계의 집합이자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해 사고하고 재현하는 방식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구성적 개념이라는 것임

○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닌 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계획에 대한 분석인 만큼 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비전, 중점추진사항의 젠더와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계획인 만큼 여러 가지 사업이 종합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수혜대상이나 예산배분, 정책수행방식 등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 셋째,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공간계획이라는 점에서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의 성별관련성과 성별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II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1절 도시공간과 젠더이슈

제2절 성평등 도시공간의 개념과 구성원칙

제3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 가이드라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1절 도시공간과 젠더이슈

1.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연구와 젠더이슈

1) 의미와 한계

□ **의미: 도시공간과 젠더에 대한 기존 사회의 가정에 도전**

○ 도시공간과 시설을 젠더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들은[9] 도시공간이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혹은 도시공간에 내재된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칙과 체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음. 즉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를 재조명하여 보고, 여성의 삶이 도시공간에서 어떻게 배제되어 왔고, 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밝히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도시공간내 거주자로서 여성의 도시공간에 대한 권리와 도시공간 구성 과정에의 참여과정을 밝히고자 하였음

○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도시정책가들에게 도시공간을 사용하는 시민은 정상신체의 아이가 없는 노동자 남성이며, 여성이 고려될 때에는 사적영역에서 아이

9) 관련연구에 대한 목록과 자세한 사항은 손문금 외(2012),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연구' Ⅱ장 참조

를 돌보고 가사를 담당하는 자로 고려됨. 즉 여성이 고려된다고 하여도 여성은 전통적 성별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일 뿐임. 이에 일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돌봐야 하는 여성들, 전형적 가족에서 벗어난 1인가구, 한부모가구, 노인가구, 장애인 등은 도시공간 사용자로서 고려되지 못하고 도시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요구로서 고려되지 못했음. 그 결과 도시에서 제공하는 도시서비스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간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도시공간은 불편하고 불안한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임(오미란, 2011).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시민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성별 차이에 따라 그리고 시민의 계층별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형평성이 증진된 도시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음

□ **정책현장에서의 실천**

○ 도시공간과 시설을 젠더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자 했던 시도는 우리사회에서 2002년 창립된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음. 이들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세미나를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우리사회에서 도시공간과 시설을 성인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서울시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의 도시공간에 대한 젠더관점을 받아들여 정책현장에서 '여성행복프로젝트'를 실행한 첫 정부라고 할 수 있음. 즉 서울시는 '도시공간, 특히 공적 공간에서 여성의 도시 사용권을 확대하고 도시 여성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여성행복프로젝트를 2007년부터 실행하여 왔음. 여성가족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 현재까지 지속추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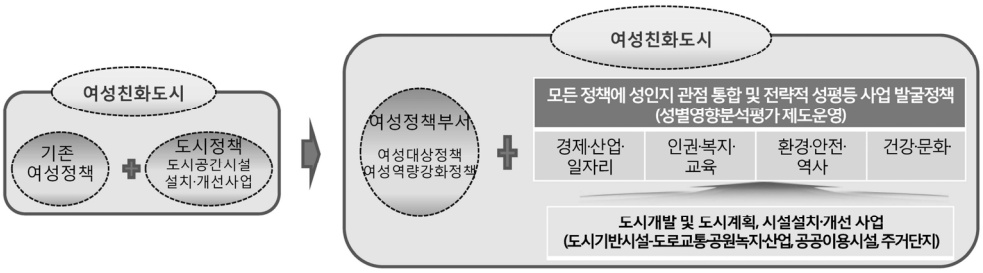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에는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발점으로 2006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보면, 시설설치·개선사업이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 명시되어, 꾸준하게 분석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관계

○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정책을 포괄하는 '도시정책' 영역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지방정부 여성정책을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0). 하지만 기존의 여성정책에 시설설치·개선 사업을 포함한 경우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인지, 아니면 성인지적 시설설치·개선 사업만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여성정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대상사업 이외 시설설치·개선, 경제활동, 건강, 복지, 안전, 돌봄, 교통, 환경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계획,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의 성 주류화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관계규정이 일차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들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음.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여성정책이 확대되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시설설치·개선사업만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영역으로 한정하는 제도운영을 벗어나, 모든 일반부서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들과 기존 여성정책 부서에서 실행하던 여성대상 정책을 모두 종합한 정책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때 시설설치·개선사업은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이므로 성평등과 관련된 건강·문화, 경제·일자리, 인권·복지, 역사·환경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의 성 주류화 사업은 성평등한 도시공간을 구축하여 도시서비스의 형평성을 획득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의 도시공간 인프라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10]

10)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도시정책' 영역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지방정부 여성정책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여성정책사업들을 협소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무리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 지역여성정책'으로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는 보통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기존

▌그림 Ⅱ-1▐ 여성친화도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관계



□ 한계

○ 하지만 도시개발 및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와 정책실천들이 충실하게 도시공간에 내재된 우리사회의 성별관계와 권력, 규칙을 밝히고, 이론화하고 주류화 하는 데 성공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음. 위의 연구와 실천들이 1970년대 중반 학계에 등장하여 '공적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적 차원에서 여성이 어떻게 배제되어 있고, 여성의 공간이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페미니스트 지리학(박경환, 2009)을 차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정책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접목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서 사업영역의 하나로 기존의 인권, 복지, 참여, 경제활동 등 여성정책영역 이외에 도시정책 영역으로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의 조성 및 운영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음(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2012). 서울시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도시공간에서 여성의 편의성과 안정성 증진사업을 '도로, 교통, 건축, 문화, 환경 등 시정 전 분야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배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서울시 내부자료, 2010). 하지만 '배려'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정, 상황 등을 미리 헤아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윤리적·도덕적 행동기준임. 따라서 배려를 하는 사람이 주체의 입장에 있음. 하지만 성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

의 여성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가시화시키기 쉬운 시설설치개선사업만이 부각될 우려도 있음

사회가 추진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 따라서 여성이 '도시공간 사용권'에 대해 배려를 받아야 하는 수혜자 입장인지, 성평등을 쟁취하여야 하는 주체적 입장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실제 정책실천과제들을 보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배타적으로 여성을 분리시켜 보호하는 가부장적 온정주의 내용이 많다는 점임. 즉, 하이힐과 보도블록, 지하철 공기통 위의 보행위험, 스커트와 계단, 아이를 데리고 쇼핑하고 주차하는 데 편의성을 제공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여성을 행복하게 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님. 그렇다면 문제는 하이힐-스커트 문화 코드와 여성의 유모차-기저귀교환대 코드를 어떻게 여성성의 왜곡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음(김영화, 2010)

○ 이러한 한계를 성평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개념을 가지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임. 서울시의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모델 구축 연구에서는 성평등 도시개발이란 '여성이 참여하여 성별 도시공간 및 시설 이용행태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도시서비스의 성 불균형을 시정하고, 도시시설에 긍정적인 여성성을 고려한 감성품질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정의함(손문금 외, 2012). 즉, 성평등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공간의 확장된 의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다양한 시민이 도시공간의 이용주체로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이한 조건 속에서 차별 없이 도시공간과 공공영역의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2) 젠더이슈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연구개요**

○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과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근거로 시행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김포신도시, 대구혁신도시, 광교신도시, 서울시 마곡지구 등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와 문화시설, 체육시설, 재래시장, 공원, 자전거도로, 유비쿼터스 구축 사업 등 '개별 시설물'에 대한 분석평가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관련 연구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 내 다양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성별 이용현황과 정책적 요구사항의 차이를 밝히고, 이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임(손문금 외, 2012). 또한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정부 단위에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도시공간과 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현장과 주민의 일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분석평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임

○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관련연구는『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여성친화도시조성매뉴얼』등 전체 방향을 가이드 하는 연구와『세종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경북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내포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등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과정에 여성친화요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로 나뉨(손문금 외, 2012). 이 연구들의 특징은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범주별(주거시설,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여성친화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범위로 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단위는 익산시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를 범위로 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2009년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2010년 이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젠더이슈

○ 그동안 도시개발 및 시설설치 사업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의해 추진된 도시개발 및 시설설치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제시된 젠더이슈를 종합하면 다음 <표Ⅱ-1>과 같음.[11] 젠더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시 도시기반시설(교통·공원녹지·산업단지),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에 성평등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중간 매개변수가 바로 젠더이슈라는 점 때문임. 즉 각 시설들이 설치되는 방법이 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성평등의 지표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계와 설명을 가지는 점이 바로 젠더이슈임. 젠더이슈가 제기되지 않는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 사업은 해당 사업이 우리사회의 성별 관계나 성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사회구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 이야기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장미현 외, 2011)

▌표 Ⅱ-1▐ 도시개발 및 도시시설 설치 사업 관련 젠더 이슈

구분	젠더이슈	의미
한국여성건설인협회 여성친화도시	안전성	- 장소와 시간대에 따른 범죄로부터의 여성 안전 확보
	접근성	- 아이를 동반한 여성, 일시적 신체적 제약을 지닌 여성과 노인의 이동성 보장
	편리성	- 가족 동반자에게 불친절하고 불편한 시설 개선
	쾌적성	- 청결, 심미성, 쾌적한 환경, 심리적 안정감
서울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안전성	- '여성의 삶'이 편안해지는 도시: 여성편의성 확보, 사람중심의 도시시설물 정비 권장, 필요공간의 효율성과 질서 확립
	접근성	- '여성의 마음'이 살아있는 도시: 이동약자를 생각하는 도시환경 조성, 공공교류기능의 확대, 도시기능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
	편리성	- '여성의 꿈'이 지켜지는 도시: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와 환경의 안정성확보, 범죄의 예방과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쾌적성	- '여성의 감성'이 만드는 도시: 경관과 시설요소들의 조화로운 구성, 경친화적인 도시조성,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형평성	-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발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11) 2012년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모델 연구'의 내용에서 표를 일부 수정함

구분	젠더이슈	의미
	돌봄	- 전통적 성별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며 사회가 돌봄을 적극 분담하여 일-가정양립의 환경을 촉진함
	친환경	-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함
	소통	-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운영 시스템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및 일-가정양립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 및 경제활동기반을 갖추고, 가정과 사회의 공적인 일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성	- 여성, 아이, 약자들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려
	편리성	- 여성이나 청소녀 등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시설의 배치
	친환경성	- 어린이, 여성, 활동반경이 넓지 않은 노약자 등이 생활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
	여성의 참여	-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차이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고려
세종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포괄성	- 건축이나 공간차원만이 아닌 일자리 등 여성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도시
	다양성과 공동체적 삶	-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들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접근이 있는 도시
	안전과 접근성	- 여성의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여성친화적 도시기준을 달성한 도시
	돌봄	- 여성과 남성의 취업활동과 가족의 다중역할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시
	여성참여	- 도시계획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고려하고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익산시 여성친화 도시	안전성	- 도시환경의 안정성 확보 - 위해 및 장애요소 제거 - 범죄예방 및 보호
	편의성	- 도시기반시설 이용의 용이성 - 이용자 중심의 도시시설물 - 주변 환경과의 연계
	고유성	- 익산시의 역사적 특성 반영 -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구분	젠더이슈	의미
서울시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	자립하는 도시	- 여성이 도시의 생활인이며 사회주체자로 존중되는 도시
	안전한 도시	- 도시공간 시설구축과정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도시
	편리한 도시	- 여성과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편의가 제공되는 도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 여성의 감성을 반영하여 쾌적성이 증대되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도시
	함께 돌보는 도시	- 여성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고, 남성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도시
	권익지원 도시	- 도시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보장하고 성평등 제도를 구축하는 도시
	역사를 담은 도시	-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성평등 상징성을 강화하는 도시

자료: 손문금 외(2012)에서 수정·구성

□ 행정적 실행과정에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젠더이슈와 성평등 관계를 지원하는 사회정책적 젠더과제의 구분 필요

○ 위에 제시된 젠더이슈의 실행과정을 분석하여 보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물리적 환경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젠더이슈와 지역여성의 평등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젠더과제가 혼재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물론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및 시설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젠더이슈인 안전, 접근, 편리, 쾌적, 환경, 돌봄, 소통, 형평성과 참여, 자립과 일-가족양립지원, 다양성과 공동체적 삶 등은 지역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이라는 사회정책적 과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하지만 연구보고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 도시개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간과 관련된 젠더이슈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정책적 과제가 혼재되어 나타남. 예를 들어 자립과 일-가족양립을 위해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직주근접도시 구현, 보육시설 설치,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설치, 여성인업지원센터 설치 등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하지만 이와 함께 기존연구에서는 기업의 고용촉진방안 수립, 여성기업 매출확보 방안 마련,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등과 같은 과제가 같이 제시된다는 것임.

- 이렇게 혼재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도시공간구성 및 시설 설치가 단지 물리적 건축설계에 한정되지 않고, 물리적 공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도시서비스 및 도시시설 프로그램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이는 도시공간구성이 단순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까지가 고려된 도시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바램이 혼재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또한 도시공간이 단지 물리적인 시설 및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일상생활을 영위한 거주자들의 생활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의 경우 도시공간 및 시설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안할 경우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성평등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해 제시할 때에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과 물리적 공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물론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성평등하게 바꾸어가고자 하는 제안은 그 안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안될 수 없음. 따라서 성평등 도시개발에서 물리적 환경의 구축방향에 대한 제언자들은 바로 성평등 가치와 물리적 도시공간을 연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편적인 도시공간구성원리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원리의 차이 제시 필요

○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성친화도시 연구를 통해 제시된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쾌적성, 친환경성' 등의 젠더이슈는[12] 공간정책가들에게 여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도시공간이 유니버설하고 보편적 원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보편성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적인 조치들인 무장애설계(barrier free), 범죄예방설계(CPTED), 친환경설계(ESSD) 등이

12) 안전, 접근, 편리, 쾌적 등의 요소를 말할 때에는 여성의 남성과는 다른 일상생활양식에 대한 고려가 있음.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성친화적인 안전한, 접근성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에 대해 말할 때에는 보통 CCTV의 설치, 가로등의 밝기, 가시성 확보, 걷기 좋은 보도 등과 같은 시설설치 요소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고 있음

실현되면 여성친화적이고 성평등한 도시공간이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임. 하지만 무장애설계, 범죄예방설계, 친환경설계 등에서는 임산부나 돌봄이 필요한 이를 동반하지 않는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성평등한 도시공간을 유니버설하고 보편적인 원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취약계층과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함을 간과한 것임. 따라서 공간정책에서 물리적인 편의성, 접근성이 아니라 당연히 도시공간에서 여성이 누려야 할 권리의 강조, 생업과 가족을 위한 이동 등 취약계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 즉, 여성과 남성의 생활이 다름에 따라 똑같은 공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사용한다는 측면이 부각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적인 물리적인 시설설치사업에서 시민의 평등한 생활을 지원하는 공간개발로 변화 필요**

○ 앞의 젠더이슈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의 주요 근간이 되었던 성장, 생산성, 효율성 목표는 조화로운 사회 환경, 일부에서는 질적 수준이 높은 도시환경 만들기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도시공간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젠더이슈는 과거에는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등과 관련된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설과 관련된 이슈에만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도시공간은 토지와 건물이 위치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곳에 사는 시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하고, 도시공간은 물리적, 사회적, 생태학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평등 도시공간계획, 여성친화적인 도시개발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성장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이상문 외, 2006; 김양희 외, 2008). 즉, 도시공간은 사람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곳에는 기억되고 있는 것,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유형의 표현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임(이상문 외, 2006)

○ 따라서 도시공간계획에는 사회적 목표설정과 정책적 행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도시공간계획과 같이 공간을 구조화하는 정책은 사회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변화 또는 고착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는 공간정책과 성평등이라는 사회정책은 통합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도시공간계획정책은 기본적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어야 함(김양희 외, 2008)

2. 국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의 젠더이슈

□ 베를린, 도시개발에서의 성 주류화

○ 베를린 시 정부가 인식하는 도시개발 과정 및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성 주류화란 '시민의 개별적인 생활 상황, 이익 추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함. 즉,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지하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공간사용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시민들이 살만한 가치(worth living)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의 성 주류화라고 정의하고 있음[13]. 또한 도시 및 지역계획에서의 성 주류화의 목표는 ①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배치 및 개발을 철폐하고, ② 시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환경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간 선택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음(손문금 외, 2012)

○ 결국 베를린시는 성차에 기반한 도시계획(gender planning), 성평등 도시공간을 실행한다는 것은 시민 개별마다 다른 공간 요구, 자원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성평등 도시공간이란 성별, 소속된 사회그룹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공간사용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기존의 사회그룹에 따른 '전형적인' 공간배치를 지양하며, 시민들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도시계획과정에 적용하는 대신 성차 및 타겟그룹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을 통해 도시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베를린시의 성차에 기반한 도시계

13) 1999년 독일연방정부는 성 주류화 정책을 모든 정책의 기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 독일연방 「건축법」에서는 '제1장(일반도시건축법) 제1부(건축지도계획) 제1조 건축지도계획의 과제, 개념, 원칙에서 고려할 사항' '3.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 특히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욕구,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르게 미치는 영향 및 교육체제와 스포츠, 여가, 휴식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음(김양희 외, 2007).

획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음[14]

○ 이렇게 베를린 시가 도시공간구성과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는 이유는 성평등이란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성별로 다양한 이익추구와 생활유지 방식들에 대한 고려를 증진하는 행위로, 사회문화적 배경, 성별, 나이 등 도시민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접근틀을 성평등 관점이 제공하기 때문임

○ 베를린 시는 이러한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계획과정, 도심개발, 주택, 상업공간, 공공시설, 교통, 야외공간 등에 대한 성평등 도시개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베를린, 2011, 자세한 사항은 손문금 외, 2012 참조). 또한 베를린의 도시개발에서의 성 주류화 지침에서 성평등 도시개발의 주요 이슈는 참여증진, 공간의 다양성과 유연성, 소통공간마련, 안전감 강화, 일과 가족의 조화,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의 공간 이용 가능성 증진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Ⅱ-2▐ 베를린시의 도시개발과 젠더이슈

젠더 이슈	의미
참여증진	도시계획 시 정보획득, 자문 및 결정과정에서 여성 영향력 확대
공간의 다양성과 유연성	다양한 사회그룹의 각자 다른 시간대의 도시공간 활용 선택지 만련
사회적 이용의 다양한 선택지 마련	정형화된 성별 인식 및 성 역할의 영구보존을 지양하는 공간활용방안 마련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 마련	커뮤니티 빌딩의 마련
일과 가족의 조화	일과 가족의 양립 환경 조성
안전감 강화	건축 및 공간구조 마련 시 안전감 강화 및 범죄 위험 최소화 시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보존 강화	자연 채광 및 천연재료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강화

자료: www.stadtentwicklung.berlin.de/soziale_stadt/gender_mainstreaming /index.shtml

14) 베를린 시는 성차에 기반한 도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함. 다른 환경에 놓인 시민들은 자신의 상황을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역계획 수립 시 고용창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가족 돌봄의 균형을 위한 고려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소통을 위한 내·외적 공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생활환경 속에서 각 시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어떤 시점에 도시계획 과정에 연관되었는가?, 시는 중요 결정을 내릴 때 관련 지역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쳤는가?, 계획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포함되었는가? 비주류의 요구도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로 고려되었는가? 등

□ **바르셀로나, 성 인지적 도시계획**

○ 바르셀로나 시는 도시공간사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차이는 돌봄 역할 책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라고 봄. 이러한 차이에 기반 하여 바르셀로나 시는 도시개발에서 젠더를 고려하고, 모든 시민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원리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시 역시 베를린 시와 마찬가지로 성인지적 도시계획을 전체시민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원리이자 주민을 정책의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닌 도시발전의 기획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원리, 도시개발을 물리적인 전략을 넘어서서 지역을 보완하고 주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전략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주는 원리라고 간주하고 있음

○ 또한 바르셀로나 시는 도시의 발전이 세부적인 사항들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즉, 이웃 간의 친밀감, 여성과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 공공의 사결정에 모든 주민이 가진 지식, 자원, 기술이 투입되고 결정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뿐 아니라 바르셀로나 시는 성인지적 도시계획 지침을 통해 성인지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공간분야별(도심개발, 주택, 상업공간, 공공시설, 교통, 야외공간 등) 성평등 실행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젠더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시가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적 도시계획의 젠더이슈는 공공공간을 다기능 도시공간으로 계획하여 한 가지 기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공간을 지양하고,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시민을 분절화 시키지 않고 통합시키는 도시, 서로의 자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지역의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도시, 돌봄 문화를 공공생활로 통합하는 도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에서 가족생활과 경제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도시 등임. 각 젠더이슈에 대해 바르셀로나 시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 표와 같음

▌표 Ⅱ-3▐ 바르셀로나시의 도시계획과 젠더이슈

젠더이슈	의미
일상생활을 위한 공공공간의 이용	- 교통시스템에 의해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도시기반시설, 직장, 보육, 쇼핑 시설 등을 안전하고 쉽게 그리고 빈번히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주거, 업무, 쇼핑, 레저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다기능 도시공간 구성
모두를 위한도시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확장에 취약한 거주자를 포함하고, 다양한 거주자를 분절화 시키지 않는 도시 - 세대 간에 분절과 구획화를 시키지 않고 도시가 이동성에 의존하여 이동이 제한된 그룹을 구조적으로 제외시키지 않는 도시
참여의 권한	- 주거지에서 서로 다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그들의 자원과 자본(시간, 돌봄, 기술, 사회, 문화 등)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원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	- 지역의 사회적 연대와 네트워크는 도시마을에서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 제공 업무확산의 기회를 만듦 -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돌봄 문화를 공공생활로 재통합	- 공공공간은 개별화된 가족과 이웃들 간에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며, 이웃은 소외, 고립, 개별화 등 현대사회 문제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
시민연대와 통합	- 작은 규모의 공공공간은 시민의 참여뿐 아니라 상호간의 네트워크 생성을 지원함.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공공공간은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과 자원을 기부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공공생활을 확장시키게 함
지역경제활성화와 일가족양립	- 지역경제 시스템은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에게 비공식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줌. 또한 지역경제시스템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자원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산업노동자와 산업노동시장에서 제외된 노동력 사이에 연계역할을 수행함

자료: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soziale_stadt/gender_mainstreaming/download/gender_broschuere_englisch.pdf

□ 런던, 런던플랜

○ 런던플랜(공식명칭은 Spartial Development Strategy,공간개발전략)은 월드시티 런던의 도시계획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이자 런던의 도시개발 정책임. 런던플랜은 런던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담고 국가의 도시계획 정책을 토대로 그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2004년 2월 첫

번째 런던플랜을 발표한 이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매년 런던플랜을 평가, 재 반영하여 현재 2011년 런던플랜이 발행되어 시행중에 있음(손문금 외, 2012)

○ 런던플랜의 수립절차는 기존의 '조사(survey)-분석(analysis)-계획(planning)'의 방식이 아닌 '조사-목표수립-모니터링-관리-평가와 재 반영'이라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어 상시 수정보완체계를 갖추고 있음. 즉, 런던플랜은 매년 모니터링(Annual Report)을 통하여 다음해의 정책들을 조율하고 수정하고 있음. 이러한 모니터링과 검토-반영체계는 런던플랜이 "증거중심"의 주민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 또한 런던플랜은 계획-실행-수정 전반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인 도시개발의 모델이라 평가받고 있음(양도식 외, 2008)

○ 2011년에 발표된 런던플랜의 2030년까지의 비전은 활력·역동성·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임. 또한 전략적 목표는 경제 및 인구 성장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도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성공적인 도시, 감성을 충족시키는 도시, 자연환경 보존 및 개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도시, 도시 내의 다양한 시민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임. 이러한 목표 하에 '사람(people), 경제(economy), 기후변화대응(climate change), 교통(traffic), 생활 장소 및 공간(living place and space)' 등의 분야로 나눠 각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런던플랜은 명시적으로 성평등 도시계획 이슈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 보장', '강하고 다양한 경제와 기업정신에 기반한 활력 창출', '건강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 '도시 내의 모든 거주자, 노동자, 방문자, 학생들에게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런던의 이웃 공동체 형성', '장애, 나이, 성, 민족, 경제 사정 등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15] 환경 구축', '범죄예방 설계' 등 성평등 도시공간요소와 관련된 이슈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

15) 정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들에 대한 정책영향을 고려, 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말함

▌표 Ⅱ-4▐ 런던시, 런던플랜의 분야별 과제

분야	분야별 과제
사람	- 모두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 보장 - 건강개선과 의료 불평등 해소 - 주택공급의 확충, 연간 32,210호 공급 - 주택잠재력의 최적화(도시 내 다양한 장소에 주택물량의 효율적 확보) - 주택개발 시 각 지역공간의 질 개선을 목표로 시행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을 배려하여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어린이 및 청소년 놀이 및 휴식 시설 확보 -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색과 시민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이웃공동체의 활성화를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또한 계획 수립 시 지역적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 참여 - 모든 시민에게 적정가격, 규모, 형태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환경확보 - 가계수입 및 주택보유의 형평성 증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도입 및 저렴주택 공급량 확보를 위한 각 자치구별 중·장기계획 수립, 연간 최소 13,200호 제공 보장 - 인구변화의 다양성과 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구조의 개선 및 확충 - 인구성장 및 변화에 적합한 양질의 건강 및 사회복지시설 제공 - 성장인구의 요구에 맞춰 교육시설 제공 및 특히 교육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교육기회 확충 - 참여증진, 접근불평등 해소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그룹별로 시민들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시설 공급
경제	-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다양성이 증대되는 경제개발유도 - 사무공간(오피스)의 복합용도개발 및 재개발, 제반관리지원을 통해 시의 경쟁력 강화 - 시내 지역별로 특성화된 형태의 현행 오피스 단지의 유지와 중앙지역 및 북부지역의 사무실 용적률 증대 - 향후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산업용 토지 및 부지관리 - 런던방문객을 위한 인프라로 2031년까지 40,000실 이상 호텔객실 증설 - 예술·문화·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 및 기업의 지원 - 마을중심부에서의 소매업, 상업, 문화, 레저분야 개발 및 역량강화 - 시민의 수요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을 중심부를 중심으로 한 소매업 영역의 활성화 지원 - 소매업 발전 및 개발을 위해 각 소매점포 및 소매상의 여건개선지원강화 - 새롭게 생성되는 경제영역들에 대한 지원 - 모두를 위한 기회 향상을 위해 지역에서의 고용, 기술개발 및 훈련기회 지원
기후변화 대응	- 2025년까지 런던의 탄소배출량 60%이하로 감축 추진 - 에너지의존 최소화, 에너지효율성 극대화, 재생에너지사용으로 탄소배출의 최소화 - 지속가능한 설계 및 건축에 대한 최상의 표준치 달성 - 지속가능한 설계 및 건축 기준에 따라 기존시설물의 개·보수 - 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5%를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발생시킴 - 재생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비율 증대

분야	분야별 과제
	- 탄소배출량 및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혁신에너지 기술 개발지원 - 도시 내 각 장소에서 과열 및 냉각 관리 - 공공장소(도로 및 광장 등)의 화단 및 가로수 확충으로 도시녹화 - 녹색지붕 및 벽면 설치가 가능한 곳을 최대한 많이 확보 - 홍수 위험 관리 - 지속가능한 배수시설 관리(빗물저장, 지하수 활용 등) - 인구성장 및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질과 폐수 관련 인프라시설 구축 - 물의 이용 및 공급을 위해 광역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자원 확보 노력 - 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시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관리 - 새로운 폐기물 처리능력 개발로 폐기물 처리능력 개선 - 건설관련 폐기물 관련시설은 부두를 포함한 기존 부지에 설치 권장하고, 위험폐기물 처리 전략 마련 - 건설관련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권장하고, 오염된 토지의 복구지원과 재활용 방안 개발 - 위험물질 및 시설
교통	- 공공 대중교통 역량강화 및 운송을 위한 토지 보장 - 지역수준에서 대중교통망에 관한 평가 및 안전성 평가 - 런던의 교통연결성 강화 - 전략적 주요 교통 인프라(crossrail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국제적 접근성을 갖춘 경쟁력있는 공항의 확보 - 더 나은 도로와 지상 교통 제공(광역런던권의 버스, 버스환승, 전차 서비스의 질 개선) - 대형버스 교통망 및 런던 시내 접근성 고려 - 런던 내 자전거 이용율 2026년 까지 최소 5% 향상 - 도로 공간의 단순화 및 복잡성 해결로 보행환경의 질 개선 - 교통흐름 원활화 및 체증 대비 - 기존 도로망의 개선 혹은 확충으로 도로능력 개선 - 자전거이용,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 강화로 주차문제 해소 및 전기자동차, 장애인 주차공간, 자전거 주차공간, 배달 및 운송서비스 관련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 - 교통체증완화를 위한 철로를 이용한 화물운송 시스템 지원 - 전략적 철도 화물수송 지원(철로와 소도로사이의 연결성 강화, 화물수송관련자의 숙박시설 지원 등)
생활 장소 및 공간	- 시민들이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런던의 이웃 공동체 형성 - 포괄적 환경 구축 : 1) 장애, 나이, 성, 민족, 경제사정 등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3)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범죄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하고, 적절한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 - 개발은 지역의 구조, 장소, 도로와 규모, 주변 건물의 밀도, 기능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지역적 특성이 약한 경우 그 지역의 미래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분야	분야별 과제
	있도록 개발 - 런던의 공공영역은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고, 포괄적이며, 연결성이 높고, 유지하기 쉬우며, 지역적 맥락과 연관될 수 있도록 개발 - 건축을 통해 공공영역, 거리경관 및 광역 도시경관에 긍정적인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고층건물은 반드시 계획에 기반하여 변경 혹은 설계 필요 - 문화유산과 건축은 반드시 파악하여, 도시경관에 생산적으로 활용 - 문화유산의 이용 및 가치보존을 고려하여 재생계획 수립 - 세계문화유산지역 및 인접지역의 개발은 유산의 고유성, 중요성,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행 - 런던조망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개발 시 고려 - 개발은 랜드마크적 요소와 관람자의 조망권을 보존하도록 실행 - 런던시는 긴급상황(불, 홍수, 날씨, 테러 등)에 탄력적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대기질 개선 - 소음감소 및 사운드 스케이프(Sound Scape, 음 풍경)의 강화 - 현재 런던의 그린벨트 유지 및 노지(metropolitan open land) 보호 - 지역의 열린 공간 보호 및 지역적 부족 해결 - 생물다양성 보호 및 자연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지질학적 보존, 나무와 숲의 보호 및 유지 - 도시 내 농업 지원 - 장례 공간 보호 및 새로운 매장 공간 확보

자료: London, UK : Greater London Authority, 2011, http://www.london.gov.uk/priorities/planning/london-plan

○ 베를린이나 바르셀로나 시와 다르게 런던플랜에는 직접적인 젠더이슈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유는 런던시의 성평등 계획안에 도시공간과 관련된 과제가 연계되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임. 즉, 런던시의 성평등계획(2012-2013)을 보면 주택 및 도시계획, 교통과 관련된 분야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성평등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런던플랜은 이러한 런던시의 성평등 계획이 가진 과제들이 런던플랜의 분야별 과제에 흡수되도록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Ⅱ-5▐ 런던시, 성평등계획(2012-2013)

성평등 이슈	과제
빈곤	- 가족, 장애인, 노약자 및 보호자 등 사회적 약자에 권리인식 증진 캠페인 실시 및 복지권에 대한 인식 강화 - 돌봄노동자문단의 작업 계획 실행 지원 - 도시최저생활임금을 반영한 임금책정독려 및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가계수입 수준 강화
고용 및 비즈니스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모고용 방안 확보 -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여성의 자립 및 성장 지원 - 아프리칸, 아시안, 소수민족그룹 및 장애인, 한부모 등의 고용 격차를 19.4%에서 16% 수준으로 감소 - 남녀 장애인의 고용기회 증진
교육 및 기술	- 적정비율의 여성에 훈련 지원 프로그램 혜택 부여 - 청년층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로 시 노동시장에의 성공적 참여 지원 - 고용, 교육,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 범죄경험이 있는 여성청년에 대한 지원 및 고용 증진 - 견습직에 적정한 비율의 여성참여 보장
폭력 및 안전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강화 - 성폭력 위기대응센터 3개소 신설 - 여성 위협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여성안전 캠페인 실시 -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시민모두에 '성적 동의' 개념 정착 - 시내 안전한 장소 및 공간 설계를 통한 안전 증진 - 광역경찰서비스 및 대중교통 시스템 등 관련 기관과 협의
교통	-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교통경찰 배치 및 심야 안전 여행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 - 노인, 아동,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할인 - 보행 및 자전거 친화 도로 조성
주택 및 도시계획	- 도시계획 시 여성 및 아동의 요구사항 고려 - 공공임대 및 유관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양질 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을 준수하도록 보장 - 다양한 시민을 위한 '런던주택전략' 실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50,000호 공급, 가족이 거주 가능한 크기의 저렴주택 공급, 생애주기 반영, 휠체어 이용 가능한 설계, 단기 거주 가구 절반 수준으로 축소 등)
건강	- 성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행안 마련 - 탄력근무시간제에 초점을 둔 건강한 노동 캠페인 활성화 - 모든시민에게 신체활동 및 스포츠를 누릴 권리 보장

자료: London, UK : Greater London Authority, Equality Life Chances for All Londeners-Gender Equality

3. 젠더이슈 종합 및 시사점

□ **국내외 성인지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나타난 젠더이슈 종합**

○ 국내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젠더이슈를 종합하면, '일자리, 돌봄, 일-삶의 조화, 안전성, 이동성과 접근성, 환경, 공동체와 소통, 여성참여' 등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음. 또한 국외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지침에 제시된 젠더이슈를 종합하면 '다기능 도시공간 구성', '다양한 시민을 통합하는 도시', '여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증진하는 도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도시', '돌봄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도시', '범죄위험을 최소화한 안전한 도시', '지역경제활성화로 일-가족양립환경을 조성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도시'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러한 젠더이슈는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별화된 이용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차별화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인간의 기본적 요구인 안전, 관계, 성장, 참여 등의 가치, 그리고 라이프밸런스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 가족, 일, 커뮤니티 등의 도시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는지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각각의 젠더이슈는 도시마다 그리고 연구마다 제시되어 왔지만 그 기저에는 성평등을 위해 도시공간이 지원하여야 하는 도시서비스의 내용과 도시공간이 구축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경제적 자립의 문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문제, 동등한 의사결정권의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안전의 문제, 다문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의 문제,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문제, 환경관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발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요구와 문제를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국내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젠더이슈를 연계하여 정리·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Ⅱ-6▐ 국내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사업의 젠더이슈 연계

성평등 이슈	과제
경제적 자립	지역경제활성화로 일-가족양립환경을 조성하는 도시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일-생활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환경, 접근성	범죄위험을 최소화한 안전한 도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쾌적성, 감성, 편리성	지속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도시
환경과 지속가능성	
건강증진	
돌봄	돌봄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도시
소통, 지역공동체, 작은 규모의 공공공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도시
다양성, 통합 다기능 도시공간	다기능 도시공간 구성
시민연대와 통합	다양한 시민을 통합하는 도시
참여증진, 거버넌스 동등한 의사결정, 형평성	여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증진하는 도시
성평등 도시 제도 확보(입법) 성역할의 변화, 고유성, 역사성, 성과평가	

□ 젠더이슈 종합

○ 젠더이슈는 도시의 공간관련 정책에서 무시되어 왔던 여성과 남성의 공공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를 나타내는 이슈,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서로 다른 공간사용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젠더이슈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이슈로 집중되어 정리하여 볼 수 있음

- 접근의 문제

- 도시환경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도시에서의 권리가 평등하게 접

근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는 바 유무형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는 배제의 기제로 작동함.

- 여성이 도시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EU의 여성들은 안전, 커뮤니티 서비스, 보육서비스, 환경의 질, 교통, 자원에 대한 접근, 일에 대한 접근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공간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을 때 도시환경에서의 성평등성은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있음. 즉 개인의 주거와 일터라는 생활의 거점에서 일정 반경 내에서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수용 불가능할 때 공간계획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됨
- 물리적 장애는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되는바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의학적 유형과 교정이 힘든 사회 및 환경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유형으로 나뉨.
- 건조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장애인을 고려하고 이 범주에서 벗어난 주변인에 대하여 고려를 하지 못할 때 건조환경은 일련의 장애물로 경험되므로[16] 도시의 공간을 정상적 신체조건의 남성에 맞추어 계획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고려범위에 들지 못한 이용자들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공간은 진정성 있는 공공성을 가지지 못함.
- 공간의 사회적 이용을 연구한 윌리엄 화이트(William H. Whyte, T 1980; 1988)는 도시공간에 있어 사람들의 선호도에 주목한 특정연구에서 여성이 더 까다롭게 공간을 선택하며 주목을 끄는 자리를 선호하는 남성과 달리 프라이버시를 추구한다고 밝히면서 어떤 공간에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 공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음(강홍빈 역, 2010). 결국 장소로서의 도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양성의 차별화된 요구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성되어야만 본래의 계획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여성의 시각을 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음.

16) Imire와 Hall 의 연구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장애인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을 영국의 예에서 밝히고 있음. Carmona et.Al, Public Places Urban Spaces 강홍빈 외 역, 도시설계:장소만들기의 여섯 차원, pp239-240

• 이동의 문제

- 성 평등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논할 때 접근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이동성으로, 일상의 영위에 개인의 이동권은 필수적이며 특히 도시의 일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이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도시에서의 권리가 크게 훼손됨
-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의 교통인프라와 생활공간의 연계는 성평등적인 시각이 가장 집중되어야 할 부분임. 여성은 보행, 자전거, 버스, 지하철, 승용차등 다양한 이동방식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이는 나이, 건강상태, 주거의 형식과 지리적 위치, 일의 성격, 일터의 위치, 근무시간, 가족의 생애주기와 생활패턴에 따라 영향 받게 됨. 이러한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복합적이고 다양한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교통정책은 일상의 영위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므로 다양한 이동수단의 집결지와 일상의 커뮤니티내 액티비티 허브와의 통합문제가 교통과 관련한 공간정책에서 꼼꼼히 다루어져야 함.[17]
- 시간의 효율적 이용에 있어 자동차가 여성에게 많은 유연성과 자유, 안전까지도 주었다는 사실은(강홍빈 역, 2010) 자동차중심의 이동성과 성평등 논의를 좀 더 복잡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의존이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간분리를 가속화시키고 이제 이러한 정책방향이 여성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이 되었다는 사실임. 해결책은 자동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연속성 있는 매끄러운 연결인 바 보행자위주의 계획,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계획이 우선시되고 이와 함께 연계되는 자동차관련 계획을 통합하는 방향이 성 평등적이라는 결론이 가능함.[18]

• 안전의 문제

- 도시에서의 여성은 생활안전에 항상 약자로 존재하며 남성들에 비하여 도시

17) 자동차에만 의존하여 접근되는 환경은 여성과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존하는 이동성과 접근성이 낮은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적인 장소로 인식되기 힘듦

18)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를 조사해 볼 때 여성의 자동차이용률이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론을 강화시킴

의 더 많은 장소를 가로지르며 경험하는 사회적 역할과 일상적인 출퇴근시간대에서 벗어난 파트타임이나 야간작업이 많은 연유로 더 많은 일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이동시간상의 예외성이나 이동장소상의 예외성이 도시계획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아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여성의 특성상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일상적인 활동시간대의 자연감시가 많은 장소만을 고려하는 정책상의 사각지대에서 성적인 희생을 당하기 쉬운 신체적인 이유도 있으나 활동시간대를 벗어나 도시의 외곽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 경제적인 이유, 차량을 보유하지 못하여 개인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주거, 일터라는 기본적인 생활공간 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이라는 제 3의 지대를 오가는 여성에게 대중교통시설 및 주차시설, 보행로 등의 일상의 이동공간에서의 안전은 자연감시가 가능한 공간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일터와 주거, 오픈스페이스 등 일상공간과 이동 동선상의 안전은 여성의 도시생활의 영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임.

• 돌봄의 가치실현

- 개인이 가족과 일터, 커뮤니티라는 생활공간 내에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는 다양한 차원의 돌봄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중요한 가치는 대부분 여성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남성과 사회가 돌봄의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상 고려가 한 사회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 도시공간은 이러한 가치가 가장 집약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며 여성의 일상공간에서 돌봄이라는 가치가 장애물 없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와 인프라가 개인의 일상생활과 함께 유연하게 통합된 공간계획이 필요함.

• 일과 생활의 통합

- 도시라는 범주 내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생활공간의

구축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과 생활의 병행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도시공간의 편성으로만 가능함. 그런데 일과 가족의 이중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근성, 안전성, 이동성이 보장된 여성의 일상의 요구를 반영할 때에 비로소 일과 생활의 통합이 도시계획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

- 제도와 참여의 문제
  -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련된 사업기획 과정에 여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참여한 시민의 의견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참여의 과정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고려하는 과정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하여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제2절 성평등 도시공간의 개념과 구성원칙

1. 젠더화된 도시공간

1)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성별 사회적 관계

□ **물리적 공간의 이용은 사회적 관계의 규제와 연결됨**

○ "...도시는 위생, 유틸리티라인, 토지이용, 주거, 교통측면에서 복합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집중개발을 통해 도시거주민과 비즈니스의 상호관계를 지원하며 그 과정에서 양측에 혜택을 가져온다. 대도시 혹은 광역도시 (메트로폴리스)는 교외(suburb)및 준 교외지역(exurb)과 대개 연계되어 있다. 그러한 도시들은 대개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도심지역으로 연계되어 수많은 생업을 위한 도심으로의 출퇴근자들을 만들어 낸다..." (도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상의 정의)

○ 이와 같은 도시에 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는 일이 있고 이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얽혀 일자리가 있는 도심으로의 출퇴근을 가정하여 교외와 도심의 이분화를 당연시하고 있음. 이러한 도시의 전제조건이 성평등적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시의 기능에 부응할 수 없는 성차별에 대한 극복,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연적임

○ 도시계획상 성평등 담론은 도시의 공적공간이 남성으로 대변되면서 여성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도시의 권리가 핵심임. 포괄적인 공간으로 포장된 도시의 공적 영역이 사실은 특정한 남성적 공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성이 사실은 여성경험의 일부를 배제한 것이라는 사실이 페미니스트 비판지리학자들의 주장의 핵심임. 이러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이분법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즘운동에서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가장 근본적인 이슈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적인 여성의 공간이동 경험을 연구하는 이들은 여성과 사적영역을 연결하는 이데올르기가 공적 공간내에서 여성들의 이동을 제약한다는 것을 비판의 출발점으로 삼음(Gillian Rose, 1993)

○ 하비는 특정사회, 공간구조에서 어떤 장소를 특정집단에게 지정하는 것이 그 사회질서 상 규정된 특정한 역할, 행동 가능한 범위, 접근권한의 지정과 동일시한 바 있음(D, Harvey, 1990). 물리적 공간의 이용은 전형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규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R.L.Coser의 글에서도 시사하는 바와 같이 특정성이 도시계획상의 부적절함으로 도시에서 기대하는 권리를 못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성평등성의 문제와 공간재편의 문제를 논해야 함

□ **불평등한 젠더관계는 도시공간 속에서 재구성되고, 도시·건축공간의 성형평성은 사회의 성형평성 개념에 따라 영향을 받음**

○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공간이 젠더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밝혀왔음. Massey는 공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물질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임을 밝혔음(Massey, D., 1994). 즉, 공간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성되며,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가 도시공간 속에서 재구성됨. 따라서 도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기저에 놓여있는 사회·정치·경제·문화적 구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임.[19] 또한 도시·건축공간의 성형평성은 그 사회가 인식하고 공유하는 성형평성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임(장미현, 2013)

2) 도시계획에서의 성평등이란?

□ **도시 공공영역의 대표적 사용자를 여성으로 보지 않는 전통적 시각을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공공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에 대한 차이 인식 필요**

---

19) 유럽의 성주류화 프로젝트들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도시계획 모델의 개념을 성인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도시·건축공간을 물리적 형태와 그 이면의 구조를 함께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주의적 조경계획 평가('Structuralist Landscape Planning Assessment: SLA')의 개념을 활용하였음. 이를 통해 성별통계, 장소에 대한 분석, 장소와 영역의 이용성 분석,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규칙, 계획과정에서의 책임 등을 파악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성주류화 전략의 요구들을 적용하였음. - 장미현, 도시 및 건축 분야의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박사학위 논문

○ 도시에서 일상의 삶은 개인의 욕구와 도시환경이 만나는 장에서 촉발되는 만족의 정도가 올라갈 때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K. Lewin은 인간행동을 규정하는 환경은 물리적 지리적 환경이 아닌 심리적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심리적 환경을 생활공간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 한 바 있음[20]. 개인이 도시환경 내에서 기본욕구[21]를 실현하고자 할 때 개인, 가족, 일, 커뮤니티 등의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양태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서 성평등 문제의 핵심이 됨.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생활환경을 기획하는 도시계획에서 남녀차를 인식하고 이들의 개인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환경내 성평등 문제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중심이 됨

○ 더 많은 도시의 구성원에게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도시계획정책은 구성원들의 도시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는 문제일 수 밖에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도시정책이 도시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공영역의 대표적 사용자를 여성으로 보지 않는 전통적 시각으로 인해 공간관련 정책상 여성은 항상 다른 사회적 주변인들과는 별도의 위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50%가 넘는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그동안 정규직이라는 카테고리가 지배적인 정책의사결정에서 대부분 허수로 취급되어 왔음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이란 여성과 남성의 도시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반영한 도시공간 배치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의 공간선택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개인, 가족, 일, 커뮤니티 등의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음**

---

20) 어떤 특정개인의 생활공간은 행위의 주체인 그 자신과 관련된 여러 영역(인물을 포함, 행동의 대상, 목표가 되는 사물 및 도구 또는 장벽이 되는 것 등)의 수와 연결방식에 따라 그 구조의 복잡성이 결정되며 이 생활공간에서의 생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체제화된 장(field)의 성질을 띰

21) A. Maslow의 기본욕구이론에서는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사회적 욕구-자긍심 욕구-자아실현의 욕구라는 5단계로 이를 설명한 바 있다.

○ 국내외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 나타난 젠더이슈에서 명확해지는 바는 도시공간을 성평등하게 구축한다는 것은 다양한 시민의 공간사용방식을 고려하여 공간선택과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는 점임. 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성평등한 도시공간이란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여성에게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만 수행되는 역할로 강화하는 도시공간배치와 개발을 수정해나간다는 의미임

3) 어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인가?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생활공간 계획 필요**

○ 남성과 다른 여성의 요구의 실재를 도시계획상 성평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때 어떤 여성이냐의 문제는 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개인적인 라이프사이클에서 어떤 시점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여성을 대변하느냐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음

○ 주어진 물리적 환경과 조건에서 특정한 어떤 그룹에 혜택이 가는 공간계획이 누군가의 자원과 영역을 상대적으로 박탈한다는 개념은 적어도 도시계획에서는 유효하지 않음. 어떤 라이프사이클상의 어떤 상황의 여성에게도 혜택이 되는 도시계획이라면 이는 여성 아닌 남성에게도 또한 주변화된 약자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가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임.

○ 개별성을 갖는 여성이 도시환경에서 기대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의는 열려있어야 하며 근린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생활공간에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과 라이프사이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여성성의 주입은 공동체주의가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결국 계층, 라이프스타일, 생업, 혼인여부, 육아여부 등 개인적인 상황에 주목할 수 밖에 없으나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로 설명되지 않는 개별성에 주목하여 전개되는 논의는 결국 공간의 실천문제로 넘어가야하므로 도시계획의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음.

□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고려하기 위한 공간정책은 참여의 문제가 핵심**

○ 앙리 르페브르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추상적 도시공간의 동질성이 다양한 거주민의 공간적 실천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Henri Lefebvre, 1991) 다양성을 끌어안는 차별화된 공간의 출현을 제안한 바 있음.

○ 데이비드 하비의 Space of Hope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르페브르가 언급한 것은 추상적 공간의 대립뿐이라고 비판하고 전통적인 건축 공간모형으로부터의 유토피아적 공간형태에서는 촉발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형태의 문제보다는 유토피안적 절차를 요청함(Richard Milgrom, Lucien Kroll , 2000).

○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라이프사이클과 라이프스타일 상의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공간정책은 참여의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만 함.

4)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요구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의 관점

□ **여성의 일상적 하루일과를 도시공간과 일대일 대응시키는 작업을 통해 도시공간 사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 발견 가능**

○ 도시공간의 사용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의 문제는 여성의 일상적인 하루일과를 도시공간과 일대일 대응시키는 지리학측면의 작업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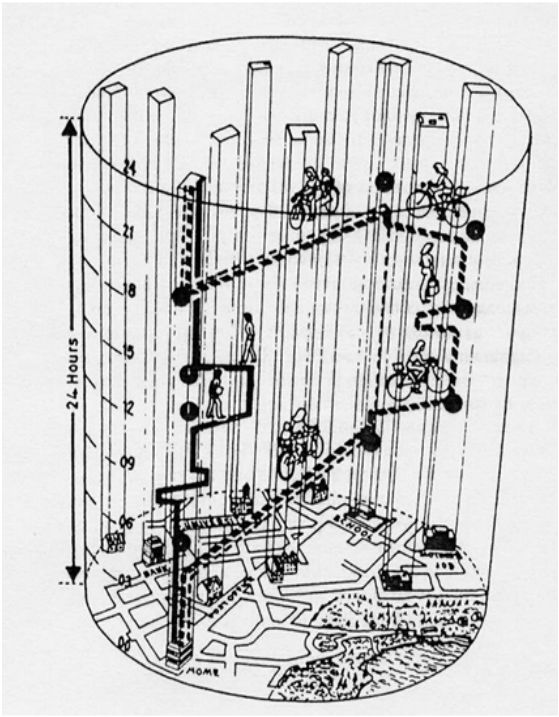
○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일터와 집을 단순히 오가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라는 부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학교-일 - 쇼핑 -학교-집 등 물리적으로 매일 경험해야 하는 공간들이 다양하고 복잡함

○ 결국 이러한 일상의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이 여성의 삶을 지원 할 때 비로소 도시공간정책에서의 성평등 주류화는 가능해짐

□ **여성의 일상과 도시 내 물리적 공간의 연관관계**

○ 여성의 일상과 도시 내 물리적 공간의 연관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RTPI, 2007)

▌표 Ⅱ-7▐ 여성의 일상과 도시 내 물리적 공간의 연관관계



<그림> Gillian Rose,
Women and Everyday Space, Feminism & Geography

1. 잘못된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분리시키며 이러한 정책은 여성의 이동성에 더욱 치명적임.
2. 여성은 보육시설, 학교, 직장, 판매시설과 관련된 일상적인 이동으로 인하여 활동반경이 남성에 비하여 훨씬 더 복잡한데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아이의 등하교에 책임을 갖기 때문임.
3. 버스를 이용한 이동의 75%는 여성승객임.
4. 일과시간중 개인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은 30%에 불과함.
5. 대중교통수단의 미비와 직장 가까운 위치의 보육시설과 판매시설의 부족은 여성의 노동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함.
6. 밤 시간 외부공간에서 혼자 있는 여성은 특히 도심과 임대주택에서 남성에 비하여 안전에 더 취약하게 느낌.

○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요구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은 다음의 관점을 수용하여야 함

▌표 Ⅱ-8▐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요구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의 관점

- 여성의 이동패턴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노선
- 공공공간의 야간 안전에 대한 확보
- 지역적 판매시설,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지역적인 고용기회증대-복합개발의 증가
- 여성대상 고용, 직업훈련, 여가에 대한 보장
- 경제적 개선기회의 증가
- 포괄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효율성 지원

2. 젠더관점에서의 도시계획상 현안들

□ **젠더관점 도시계획의 키워드**

○ 성평등한 도시계획은 선진국에서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미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신체조건에 대한 공간적인 배려를 담을 수 있는 유니버설 개념이나 CPTED와 같은 보편적 공간설계의 가치가 다룰 수 없는 여성이라는 관점의 도시계획상의 현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집약될 수 있음.

○ 조닝(Zoning)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정책, 교통정책, 도시복합용도개발, 도시재생, 도시주거정책, 도시계획과정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성평등과 관련한 주요주제이며 젠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책은 여성의 도시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22)]

○ 남성위주의 도시계획이 도시 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 (Stimpson et al 1981; Matrix,1984: Greed,1994; Little,1994; Booth et al, 1996; Darke et al, 2000)는 남성대비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숫자나 돌봄이 필요한 나이대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의 비율,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참정권 비율까지 고려할 때 더 이상 소수의 주변적인 그룹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논의를 확인하여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도시정책과 관련된 여성의 시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인종정책등 기존의 도시계획상의 중심이 되어온 경제활동 중에 있는 장년층 남성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인적 구성중 최소의 우선권을 가지는 그룹으로 분류되어 왔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

---

22) Clara Greed et. al, Report on gender auditing and mainstreaming, 2002. 영국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성취를 평가하고자 평가툴 (www.lg-employers.gov.uk)을 개발하여 도시계획을 진정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이 참조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유럽의 맥락에서 성주류화의 문제를 도시시각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도시계획전반에서 성주류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폭 넓게 다루고 있음.

○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이들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소외된 인적 그룹을 대변한다면 이는 사회의 대다수의 요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들의 차별화된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도시계획상의 오류를 개선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1) 토지이용계획에서의 성평등

□ **지역의 활동거점장소(activity hub)에 대한 필요는 토지이용계획의 틀에서 자유로운 복합개발공간을 통해 가능**

○ 도시계획상의 전통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조닝(zoning)은 일, 주거, 여가를 분리하여왔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분리는 여성의 일상을 운용하는 데에 불필요한 구분을 만들어 왔음. 도시공간 내 일상적인 공간경험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생활공간의 차이에 의해 드러남. 가족의 돌봄과 의식주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여성은 이에 관련되는 일상의 주요 공간들 즉, 아이의 보육시설, 학교, 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쇼핑공간, 생업으로서의 일터가 일정 교통수단에 의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이동이 힘들 때 고스란히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배상받을 방법이 없음.

○ 토지이용계획상의 조닝개념은 이러한 일상의 애로를 가중시키는 주범이며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때 생업이 파트타임으로 축소되기도 하며 개인의 수면시간을 잠식당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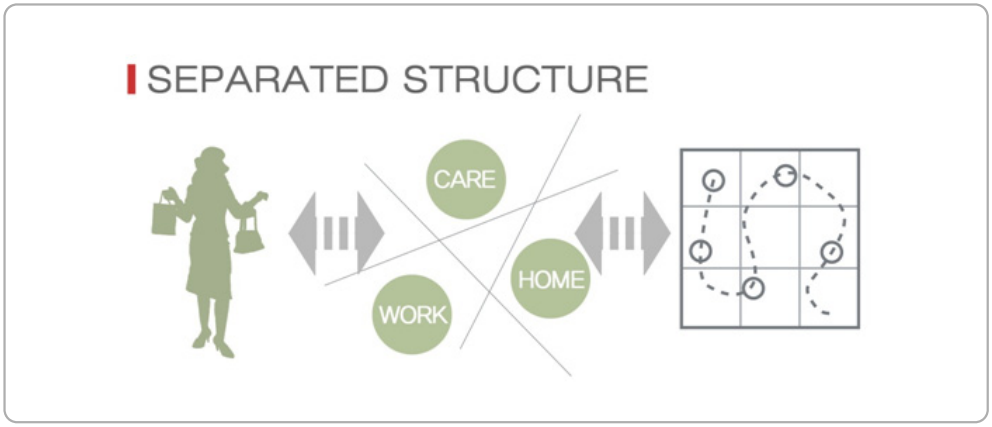
○ 매일 경험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돌봄과 의식주의 영위에 해당하는 그밖의 필수적인 시설, 즉 병원, 은행, 관공서와 같은 시설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들 즉, 체육관, 도서관, 공원, 문화시설들이 일정반경 내에 접근가능한 교통수단이나 지불능력내의 교통비 혹은 합리적 운영시간 및 운행간격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시간과 노력, 재화를 통하여 개인적 희생이 담보되어야 함.

○ 결국 이러한 일상의 다양한 물리적 공간들이 적정스케일로 분절되어 네트워크 내에 들어오지 않게 될 때 이를 매일 접하는 여성은 삶의 질을 포기하거나 개

인의 성취나 때로는 삶을 위한 기본 생업도 위협을 받게 됨

○ 미래의 도시환경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성의 시각 특히 개인의 주거를 재택근무, 돌봄, 휴식 등의 다기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하여왔다는 것이 통설임

○ 일상의 덫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오피스, 보육, 서비스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활동거점장소(activity hub)를 절실히 원하는 바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과 육아와 일상의 볼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며 이는 토지이용계획이라는 틀에서 자유로운 복합개발공간에 의해 가능함.[23]



▌그림 Ⅱ-2▐ 토지이용계획상의 분리된 도시공간과 여성의 일상활동

2)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에서의 성평등

□ **TOD 개발과 대중교통수단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서비스의 통합**

○ 도시민에게 교통시스템의 이슈는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간과되기 쉬운 사안이며 젠더이슈와는 거리를 둔 중립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음. 그러나

23)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효율적으로 편의성, 건강을 보장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조닝이라는 굴레는 출퇴근을 위한 교통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차 없이는 보육시설의 이용, 쇼핑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루기 위한 차량이용에 대한 제한은 이를 더 힘들게 함

도시의 교통시스템은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한 사회의 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슈임.

○ 성평등 주류화를 도시교통과 연결시키게 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은 안전, 신뢰성, 편의성임. 여성의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성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은 생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안전을 위하여 저비용을 포기하는 경우 생계에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도시민의 삶에 교통시스템관련 정책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

○ 특히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대를 벗어난 파트타임 일이 많은 여성의 경우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고비용의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대안적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남성이 교통수단의 선택에서 속도, 정확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잣대로 모터사이클, 자전거, 자가용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다양한 대안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여성은 일과 돌봄의 사회적 역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 남성에 비하여 더 다양한 목적으로 더 많은 행선지를 왕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임

○ 이러한 성별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에 있어 주로 집중해야하는 주제는 교통관련 비용문제와 스마트서비스 문제임. 시간과 비용이라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주어진 교통시스템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서민이 부담가능한 교통수단을 적절한 루트로 제공하느냐의 문제는 도시의 일상의 영위에 있어 성평등 이슈를 대변하는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의 큰 주제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안임

○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자동차억제정책이 도시의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 옮겨가려면 사회적인 인프라[24]를 제공하여야 함.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대도시의 차량사용 억제정책은 성평등의 측면에서 검토된 바가 없으며 이는 전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

○ 버스, 지하철 등 대도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현 녹색정책은 돌봄을 전제로 하는 여성의 일상적인 활동반경을 대중교통수단의 혜택과 함께 계획한 바 없

24) 아기와 함께 사용가능한 공중화장실부터 보육시설, 대기장소, 안내원이 있는 정류장 등

으므로 성평등 문제를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과 연결시킬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피크타임을 피하려는 여성들의 요구는 파트타임 직업으로 여성들을 몰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업무외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특히 개인적인 안전문제는 민감해짐.[25] 차량을 1대 보유한 집이 대부분이라면 이 경우 낮시간 동안 차량의 이용권은 여성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보도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여성이 훨씬 앞서고 있으며 녹색정책에서 거론되는 자전거 등의 대안적 교통은 육아부담이나 쇼핑을 맡게 되는 여성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이동수단임

○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교통수단집결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개념은 성평등적인 도시계획에서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대중교통수단 주변에 집중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커뮤니티서비스를 이와 통합시키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고 일상의 효율성이 높아 질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교통수단의 독려와 사적인 차량사용억제가 반대급부로 여성의 일상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생기며 이러한 비판은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음

○ 첫째, 대다수의 여성취업자들의 직장과 주거는 상당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에 의존하기에는 돌봄과 생업의 병행이 불가능한 일자리에 여성들이 포진하여 있다는 사실임.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의 성격상 여성들은 교통수단 이용상 피크타임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지역차원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 자본주의논리로 개발이 진행중인 도심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외곽에 자리잡게 되는 가족 혹은 여성가장이 보육시설과 쇼핑 직장을 오가면서 대중교통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이와 더불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도심 진입 부담비와 주차비는 의사결정권

25) 여성들이 많이 가지는 직업군(콜 센터 등)이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일상적인 업무시간에 기반하여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단순히 집과 일터를 오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만들어진 교통계획들은 업무 외 시간에 개별적인 루트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업에 나서는 여성들에게는 비효율적임

자의 남성위주의 정책판단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여성인력의 취업시장진입에 장벽을 제공하고 있음. 주거의 위치선정에 남성가장의 직장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데이터와 가구당 차량대수의 데이터에서 여성의 차량이용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좀 더 세심한 정책과 전략을 요청하고 있음.

○ 둘째, 업무시간위주의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계약직에 종사하는 여성일자리의 성격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의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정책상의 맹점이 있음. 돌봄 산업과 유지관리산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인구의 꾸준한 증가는 토지이용계획에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해당산업의 위치결정 또는 남성과는 차별화된 여성이용 차량에 대한 차별화된 부과요금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3) 복합용도개발과 관련한 성평등

□ **기능분리형 지역지구제 및 단일용도개발과는 차별화되는 보행통행위주의 지속가능한 개발형태인 복합용도개발**

○ 전통적인 지역지구정책이 2차세계대전후 많은 나라에서 사라졌음에도 토지용도의 공간적 분리를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은 지속되면서 사회, 제도, 금융, 정치적 보수주의, 사회차별, 시장분화, 제품의 차별화, 부동산 가치 등에 얽힌 이해관계로 인한 기능상의 엄격한 분리주의 용도지역지구제가 미국의 경우는 그대로 고착, 물리적 사회적으로 매우 분리된 환경을 만들었음. 이러한 맥락에는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의 이해의 공유가 있음.

○ 그러나 상황에 따라 공공부문의 힘이 있을 때엔 일정부분의 토지를 보호하며 개발과정에 개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복합용도개발 개념은 미국의 Urban Land Institute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26)]

- 독립적 수익성을 지니는 3가지 이상의 용도를 수용
- 혼란스럽지 않은 보행동선체계로 모든 동선을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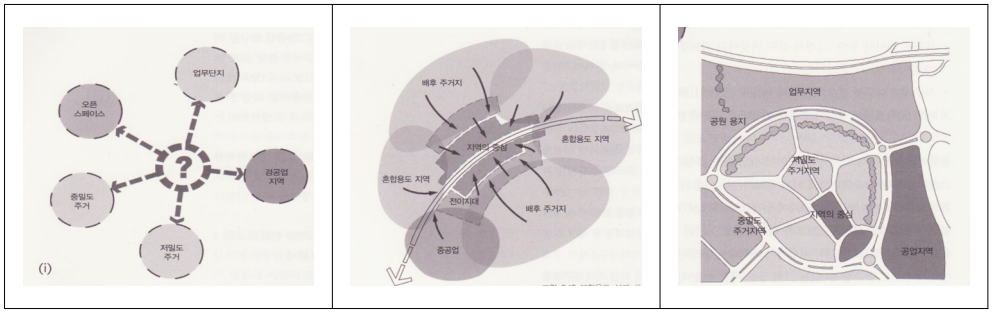
---

26) 서울 도시계획포털 www.urban.seoul.go.kr

- 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한 일관성 있는 개발

○ 자동차의존도를 높인 기능분리형 지역지구제 및 단일용도개발과는 차별화되는 보행통행위주의 지속가능한 개발형태로 평가받는 이러한 복합용도개발의 이점을 르웰린 데이비스(Llewelyn Davies, 2000, p39)은 아래와 같이 정리함(강홍빈 역, 2010)

-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통근환경의 혼잡감소
- 사회교류의 기회증대
- 자연감시로 인한 안전성확대
- 에너지효율과 공간과 건물이용도의 증가
- 라이프스타일, 입지, 건물유형의 다양성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 도시의 생동감과 거리의 활력 증가
- 도시시설의 경제성 제고 및 중소기업의 사업기반 개선



▌그림 Ⅱ-3▐ 복합용도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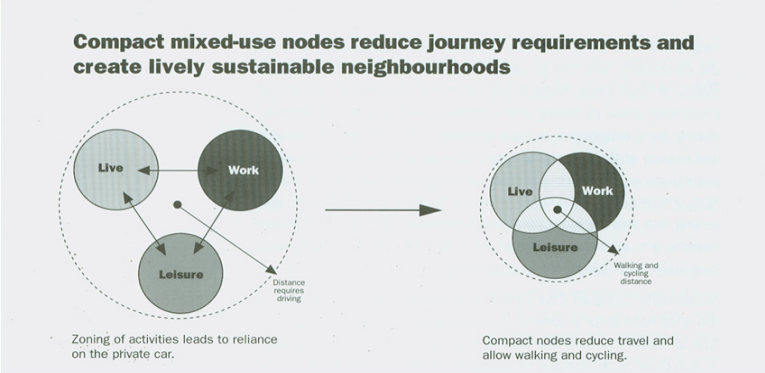
□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합용도개발 필요

○ 여성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복합용도개발에 대한 시각은 우호적이나 여성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때 이러한 개발방향은 오히려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음. 복합개발성격의 개발프로젝트는 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 서로 윈-윈인 경우에 한하여 공감을 끌어내고 일관성을 가진 계획으로 운영되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체화를 통한 밀도 높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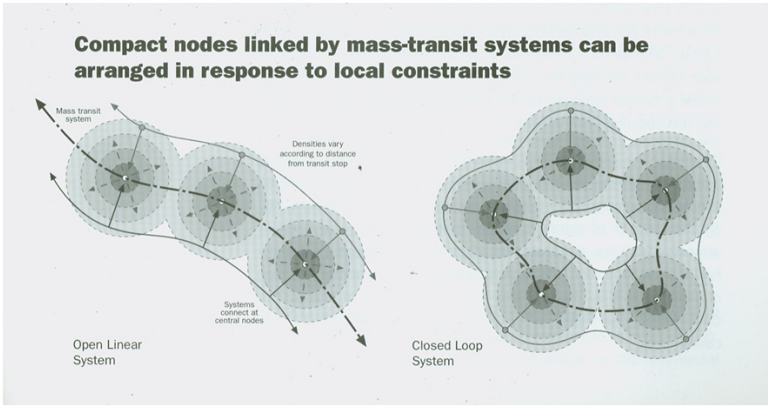
가 일반적임

○ 그러나 이러한 입체화가 이용자의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간이 될 경우 교통과 보행의 분리, 입체 차도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에게는 주변의 퍼블릭 아이를 통한 충분한 자연감시를 보장받지 못하는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적인 출퇴근시간의 많은 통행량을 기준으로 세워진 기준은 많은 여성들이 속한 파트타임 생업의 스케줄과는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대중교통수단과 연동된 공간계획을 포함한 복합개발공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김. 이러한 입체적인 복합개발은 성평등의 시각에서 볼 때 어느 시간대의 어느 레벨에서도 장애가 없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퍼블릭 아이를 수용하는 CPTED로 기획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림 Ⅱ-4▐ 압축적인 복합사용 결절점 개발



▌그림 Ⅱ-5▐ 대중교통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압축적인 복합사용 결절점

4)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과 관련한 성평등

□ **경제적 개발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도시재생 필요**

○ 도시의 유기적인 변화에 있어 도시 내 저소득층 집결지인 불량지역 및 노후쇠퇴지역의 재생은 성평등과 관련한 도시계획정책에 있어 양면성을 가질 수 있음.

○ 도시재개발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도심공동화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시재활성화)[27]을 성평등 입장에서 보면 도시 저소득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삶의 근거지 파괴로 인한 일과 가정, 돌봄의 네트워크 붕괴를 초래함. 이는 도시 내 빈곤층 여성의 생활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생계의 위협으로 작용함.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주거비용 상승으로 기존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막게 되어 이들의 도시외곽으로의 이주문제를 가져옴. 적절한 사회인프라의 지원 없이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적절한 스케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복합용도로 조절되지 못할 때 자연감시를 통한 공공공간의 활성화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가시적인 피해자는 여성임. 여성의 경우 일자리와 주거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돌봄의 지원이 가능한 기존의 시설과의 연계가 일정 거리 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생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특히 외곽의 주거로부터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거리와 시간, 교통수단간의 연계성이 여성개인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합되지 못할 때 도시재생은 개인의 삶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도시계획에 있어 경제적인 사회적인 재생계획은 젠더문제가 가장 중심이 됨. 토지이용계획은 하나의 도시공간의 기획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여성과 남성의 공공공간의 이용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함에 가장 기본이 됨.[28] 많은 여성들이 정작 여성의 삶과 현실성과는 괴리된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성 등 성평등 주류화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아젠다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바 전통산업의 쇠퇴가 가져온 경제적인 구조조정맥락

27)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도심에 가까운 낙후 지역에 고급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로 형성되는 변화
28) Good practice note on Gender and Spatial Planning, RTPI 2007

에서 볼 때 도시재생의 논의는 해당지역 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유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됨.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축을 담당할 지역 내 서비스인력의 충당문제 미해결로 하드웨어는 만들어지되 소프트웨어는 미비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역여성인력의 유인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도시재생과정의 의사결정단계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사회적 인프라와 어메니티가 증대되며 자연스럽게 가로의 안전성 및 만족스러운 수준의 지역적 서비스가 지원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

5) 도시주거정책과 성평등

□ **빈곤여성, 돌봄역할수행 시민을 위해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이 아닌 자립적인 주거 공급 필요**

○ 지역지구제로부터 비롯된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에 대한 분리는 여성을 교외의 사적영역의 덫에 가두게 된 결과를 낳았고 도시의 공적영역으로부터 여성을 분리해 낸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은 도시와 여성을 연관 짓는 담론에 핵심이 되어 왔음. 일자리가 있는 도심과 주거의 물리적 거리는 여성의 이동성, 접근성문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가 되었음.

○ 도시 내 여성과 관련한 도시주거정책은 다양한 도시주거의 공급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주거의 위치, 주거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특히 빈곤층에 독거여성이나 아이양육의 책임이 있는 여성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은 이러한 주거가 도심의 일자리와 병존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은 생계와 관련된 일을 병행하려면 주거와 일자리의 합리적인 거리와 사회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 동시에 지원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거가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함.

○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경제활동비율이 낮으며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은 도시의 삶의 터전이 되는 주거문제에서 성적 평등이 더욱 여성의 요구에 민감해야 함을 시사함. 도시계획에서 성적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장의 경우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가장이 필요로 하는 저가의 임대주택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주거정책의 입안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며 장애인, 독거노인문제를 포괄적으로 끌어들여 이들이 사회복지 차원의 시설에서 자립적인 주거로 옮겨갈 수 있는 루트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6) 도시계획 거버넌스와 성평등

□ **젠더문제를 도시공간계획의 프로세스 전반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공식화 필요**

○ 성평등과 관련한 사안들은 그 스케일에 있어 광역을 넘나드는 주제부터 일상의 사소한 편의성문제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있음. 이에 별도의 젠더문제로 분리하여 도시공간계획의 문제들을 검토한다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계획프로세스에 그 쟁점들을 녹여낼 수가 없음

○ 또한 대부분의 계획 프로세스상 전문가들의 풀이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계층, 젠더, 인종, 연령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함. 젠더문제를 프로세스전반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공식화시키는 노력 없이는 의사결정의 중심에 선 전문가들의 몰이해로 인하여 가치중립적 의사결정은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음. 정책결정상의 성 주류화 인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다양한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할 때 도시공간정책에 가장 민감한 그룹인 취업여성들이 요구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미취업여성의 대표성으로 포장되어 현실과 괴리되는 상황에 대한 주의깊은 인식이 필요함

□ **공간정책상의 자문, 참여, 승인의 과정들에서 젠더관련 심의 필요**

○ 한 도시의 특정장소에 대한 계획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규칙들을 반복 생산

하는 작업이 아닌 만큼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을 끌어내는 전문가들의 개별적 가치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 성평등적인 도시공간의 성취는 거주민 모두에게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혹은 접근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로 귀결됨.

○ 그런 의미에서 도시공간정책상 사회적 배제문제나 공동체의 대표성문제를 강조하는 정책이 성 주류화 정책과 맞 닿아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상의 자문, 참여, 승인의 과정들은 모두 젠더관련 심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 언제 공청회를 열어야하는지 누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직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도움이 됨[29)]

□ 도시공간 관련 젠더이슈의 성 주류화 필요

○ 성평등정책의 지속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된 맥락들을 살펴볼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도시에서 여성관련 정책들은 정부의 조직 내에서 다루어지기보다 별도의 여성전담조직에서 취급되어 온 것이 문제인데 이는 유능한 한 개인에 의존하여 일이 처리되곤 하여 해당인력이 다른 조직으로 옮겨 가는 순간 일의 지속성이 사라지는 상황에 주목해야 함. 결국 정부조직 내에서 젠더이슈는 성 주류화대신 주변화되며 전체 계획부서의 구조 속에 묻혀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도시공간 관련 젠더이슈의 법적 구속력 확보

○ 그 다음 주목할 만한 사항은 법적문제로 젠더이슈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의사결정에서 단순히 자료로만 취급되는 문제임. 일반적인 계획절차상 관련자에게 책임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의사결정에서 관철시켜야하는 명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29)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이러한 정책수립의 전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탑다운방식이나 난해한 계획문서, 전문가들의 장광설을 통한 일괄적인 접근보다는 점진적인 상호학습을 통한 정책결정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3.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 앞에서 살펴본 도시계획상 현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근린의 일상성이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근린이 돌봄과 일, 일과 여가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지의 여부, 이러한 도시구조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하여 도시의 일자리, 여가를 위한 어메니티가 있는 외부과 소통이 되는냐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됨

○ 결국 이러한 근린의 규모를 어떻게 분절하여야 스케일이 적절한가, 여성의 삶이 기반을 두게 되는 주거비용이 개인의 경제적 수용량을 넘지 않는가, 생업과 주거를 잇는 교통수단은 다양하며 부담가능한가, 생업과 돌봄의 동시성은 해결되는가,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일상이 운용되기 위한 안전은 보장되는가의 문제가 얽혀 있음

○ 이를 물리적인 계획으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현안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광역도시의 생활권이 대중교통수단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는 TOD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가?
- TOD로 개발된 대중교통시설의 결절점에 일상의 지역활동 허브로서의 커뮤니티서비스가 적절히 통합되어 있는가?
- 이러한 지역활동 허브와 개별의 주거들이 시간대에 제약없이 안전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가?
- 이러한 안전망내의 다양한 주거들이 여성가장을 포함한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가?

○ 결국 이러한 현안이 성평등 도시계획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개발계획이 자본주의의 논리로 지배되어 있느냐, 삶의 질을 고려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되고 이러한 결정의 단계에 거버넌스의 의사결정단계상 성평등의 원칙이 깔려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됨

○ 성 주류화의 담론없이는 대중교통수단 결절점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편리성

은 상업적인 시설들에 독점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나치게 과밀화된 개발전략은 커뮤니티 서비스 허브로서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입체공간으로 구현되어 일상과는 괴리를 만들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성평등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음의 원칙들을 함께 제시함.

▌표 Ⅱ-9▐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원칙
일·생활 통합 (Integration)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커뮤니티 허브를 통한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
열린 커뮤니티 (Access)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집중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마련
		근린 규모로 분절된 커뮤니티 서비스의 제공
생활안전 (Safety)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	Public Eye를 통한 일상공간의 안전성 확보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이동의 안전성 확보
이동성 (Mobility)	일상의 영위를 위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커뮤니티 허브의 연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시스템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다양한 주거공간의 제공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시설 및 오픈스페이스
참여와 제도 (Participation & Systam)	다양한 공간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 지원	도시공간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보장
		성평등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확보

○ Integration (일·생활 통합)

-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도시계획은 일이 있는 도심과 주거가 있는 교외를 구분하면서 공공영역의 남성과 사적영역의 여성을 분리하므로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즉 일이 있고 이를 통하여 생업을 유지하며 일상을 구가

한다는 도시민의 기본적인 전제 내에서 여성이 일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일과 생활의 통합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을 통하여 가능한 바 이는 관련된 시설 및 공간으로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도시 내 수많은 공간을 넘나들어야 하는 여성의 일상이 이를 고려한 인프라 내에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도시공간은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집약적인 교통노드와 안전한 네트웍으로 연결되는 커뮤니티 허브를 통하여 다양한 일상활동 공간이 연계되도록 컨텐츠를 기획하여야 함

○ Access (열린 커뮤니티)

- 여성이 일과 생활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에 있어 커뮤니티를 통한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므로 열린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언제 어디라도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구조의 재편이 필요함.
- 커뮤니티 내 생활을 지원하는 개별시설이 흩어져 있어서는 이동상 효율성이 떨어지며 돌봄을 위한 동반인이 함께 움지이게 되는 시민의 경우 개인차량이 없다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일정거리 내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집중된 공간계획이 필요함. 반경 500m 정도 근린 규모로 분절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집중시켜 커뮤니티 허브를 구성하되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활동과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

○ Safety (생활안전)

-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더 많은 도시 내 공간을 넘나들며 일과 돌봄이라는 일상을 유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짐. 특히 정규직에 편입되지 못하는 여성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이동하게 되거나 개인차량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영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커뮤니티허브와 교통의 노드를 통합하는 계획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 구조로 재편하여야 하며 Public Eye를 통한 자연감시가 오픈 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동 중에 항시 적용되어야 함. 또한 물리

적 지리적 환경의 안전문제뿐아니라 심리적 환경의 안전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생활안전의 개념을 확보하여야 함

○ Mobility (이동성)

- 일과 생활이라는 일상의 영위를 위해서 도시의 많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여성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출퇴근시간과 관계없는 파트타임직을 가지는 비율이 높은 여성에게 있어 본인이 사용가능한 교통수단에 제한이 많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결을 지원하여야 함. 때로는 이러한 이동 중의 여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함.
-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자동차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시스템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무리 없이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커뮤니티 허브 간에 이러한 이동성의 연계가 필히 보장되어야 함

○ Diversity (다양성)

- 도시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요구는 나이, 직업유무, 혼인여부, 장애유무, 동거가족 및 주거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며,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이러한 여성의 다양성과 시민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예측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함

○ Infra (참여와 제도)

- 여성과 시민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관련한 정책결정에 여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증진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라이프사이클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도시공간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제3절 도시기본계획 대한 성 분석 가이드라인

1.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 방향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논리를 반영한 실천적 집행 도구임. 현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해 계획의 내용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성별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

○ 계획의 경우 장기적일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모아진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을 위한 항목과 방법, 내용이 다르게 형성되어야 함. 특히 2030 서울플랜의 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을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도시공간원칙에 초점을 둔 성 분석 방향과 지침이 있어야 할 것임

▌표 Ⅱ-10▐ 여성가족부,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지침(2013년)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점검 point
Ⅰ.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Ⅱ. 전략 및 중점과제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성장배경, 거주 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점검 point
Ⅱ. 전략 및 중점과제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④ 법령 반영 계획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⑤ 예산 반영 계획	

□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 방향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존중하면서 앞에서 논의된 국내외 성평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논의,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은 첫째,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목표, 즉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도시공간과 관련하여 성별 요구의 차이와 젠더이슈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연계된 도시공간과 관련된 형평성의 개념이 젠더이슈와 관련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넷째, 참여절차와 참여내용에 대한 성형평성 분석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부문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표의 성평등관점에서의 개선사항이 제시되어야 함

▌표 Ⅱ-11▐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 방향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		구분	도시공간계획 성 분석 방향
구 분	평가항목		
Ⅰ.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목표와 원칙	①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목표, 원칙 제시
Ⅱ. 전략 및 중점과제	2. 성별 요구도	도시공간관련 성별차이와 젠더이슈 제시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요구 차이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		구분	도시공간계획 성 분석 방향
구 분	평가항목		
	3. 성별 형평성	도시공간의 형평성	③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연계된 성평등 도시공간의 형평성 요소 제시 (일·생활통합, 열린커뮤니티, 생활안전, 이동성, 다양성)
		참여의 형평성	④ 참여인원 및 절차, 내용
		제도의 형평성	⑤ 법령 및 지침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계획내용의 개선사항	⑥ 성평등 도시공간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 개선 사항 ⑦ 법령 및 행정적 개선 사항, 재정적 개선 사항 ⑧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표의 개선 사항

□ 특히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 분석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성분석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을 위한 참여와 제도적 기반 구축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금까지 지역정책은 기술-산업-경제혁신 측면에 강조점이 두어짐. 즉 발전, 개발이라는 화두아래 지역정책은 곧 지역의 산업발전, 경제발전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짐. 하지만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위치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진보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성장에 기초하고 있음(이종수 외, 2007). 따라서 생활터전을 살기 좋게 조성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된 지역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그런데 지역주민의 요구는 성별, 경제수준, 교육정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주민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도시공간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시공간에 성평등 원칙을 적용하여 구성한다는 것은 단지 여성에게 필요한 시설을 배치한다는 의미를 넘어섬. 이는 여성이 참여하여,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원리를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과 보살핌, 일과 삶의 조화, 공존을 위한

공간구성으로 그 원리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그들의 존재가 무시되지 않고 도시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정교하게 배치한다는 의미임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과정에서 젠더이슈가 일회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일상적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앞의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젠더이슈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즉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도시공간과 관련된 성별 요구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

○ 앞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성분석 방향을 적용하였을 때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제도적 인프라와 도시공간의 두 범주로 구분됨

○ 제도적 인프라는 도시공간정책이 다양한 시민의 참여(Participation)와 소통을 지원하고, 일상적으로 젠더이슈을 고려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System)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생활 통합(Integration), 열린 커뮤니티(Access), 생활안전(Safety), 이동성(Mobility),다양성(Diversity)의 다섯 가지 목표로 구성됨.

○ 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분석 가이드라인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을 위한 지침으로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공간의 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 가능함. 또한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행정공무원과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 관련하고 있는 MP(master planner), 전문가들이 활용가능할 것임

1) 제도적 인프라

□ 제도(System)

○ 제도는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목표와 원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실행되도록 하기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음. 성평등 도시공간을 가진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우선과제임. 특히 성평등 도시공간구축 과정은 도시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여성정책부서가 아닌 일반 정책부서에서 성평등의 가치와 원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음

□ 참여(Participation)

○ 도시공간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의 요구와 필요를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참여라고 할 수 있음. 여성이 배제되지 않고 정책이 성 주류화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음. 첫째, 논의와 결정의 주체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현실에서 도시계획 논의 및 결정과정인 위원회, 심의회, 평가회 등에 여성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둘째, 성평등한 도시공간계획을 위해서는 도시공간계획에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 참여자, 이해관계자 등이 성인지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함. 셋째, 실천주체로서 여성의 경험이 수렴되어 결정된 사항들을 여성 스스로 실천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이는 도시개발 및 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여성이 디자인하고 여성이 기획하며 여성이 설계하여 도시공간을 직접 만드는 형태로 나타날 것임

○ 이렇게 다양한 여성을 참여시키고 성인지 관점으로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견고한 권력구조를 해체시키는 시작 작업으로, 그동안 배제되고 거부되었던 여성집단이 그리고 여성집단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정책 결정과정에서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임. 기존 의사결정 세력에 대

한 도전인 만큼 힘들지만 도시공간을 성평등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

2) 도시공간

○ 도시기본계획 중 도시공간에 대한 성분석 가이드라인은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생활통합, 열린 커뮤니티, 생활안전, 이동성, 다양성의 다섯 가지 목표로 구성됨. 이러한 목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을 위한 항목들로 어느 도시에서나 도시공간의 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으로 활용 가능함

□ 일·생활 통합(Integration)

○ 첫 번째 목표인 일·생활 통합(Integration)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의 공간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이 돌봄활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간을 계획해야 하며, 주거, 업무, 쇼핑, 여가 등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이 연계되도록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해야 함.

○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허브는 주거 공간에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구축되어야 함. 돌봄을 비롯한 일상의 다양한 활동이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이 주거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여성들의 도시공간 이용에 많은 제약을 야기하기 때문임. 따라서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구축되고,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위계와 연계되어 구조화되도록 하는 것은 도시공간이 여성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열린 커뮤니티(Access)

○ 열린 커뮤니티(Access)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접근성을 강

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린 단위에서 소규모의 지역허브를 통해 돌봄, 쇼핑, 여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함

○ 커뮤니티 허브에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집중되도록 하고, 커뮤니티 허브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 이 때 중요사항은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이 일상생활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대한 스케일로 구성되는 것을 지양하고 근린의 규모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임. 큰 규모로 구축되는 고밀, 복합 공간은 일상활동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공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여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생활안전(Safety)

○ 안전은 재해, 재난, 범죄 등의 위험 뿐 아니라 생활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의 문제 또한 중요한 요소임.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남성들보다 강하고, 여성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활안전(Safety)은 중요한 이슈임

○ 도시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불안감 없이 활동이 가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심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가 구축되어야 함

○ 공간구조가 Public Eye를 통한 일상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자들의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 가구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안전요구를 반영하며,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및 이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이동성(Mobility)

○ 이동성(Mobility)은 일터와 근린을 위한 보행, 대중교통망을 이용한 이동 등 일상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이동의 연속성에 대한 것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근린에서의 이동의 시간과 횟수가 많으며, 이동수단, 이동시간, 이동거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단편적인 이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높음. 이는 돌봄과 가사 활동과 관련된 이동이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여성들의 단편화된 이동을 극복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허브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주거, 업무, 쇼핑, 여가 시설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시스템의 이용에 배제되는 그룹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이동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다양성(Diversity)

○ 다양성(Diversity)은 도시공간이 다양한 라이프사이클과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는 도시공간이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해야 하며, 공간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뜻함

○ 도시공간이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주거공간, 공공서비스 시설 및 오픈 스페이스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되고, 다기능 공간을 제공해야 함

○ 또한, 도시공간의 조성에 특정한 그룹의 요구가 배제되지 않게 하려면,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절차와 과정에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표 Ⅱ-12▐ 도시기본계획 성 분석 가이드라인(안)

구분	목표(가치)	전략 (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제도적 인프라	참여 (participation)	공간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 지원	도시공간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보장	•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절차와 과정에 성별, 연령, 계층 등에 따른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절차와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통계가 작성되었는가? • 시민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성인지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 성평등 인식을 위한 참여인력에 대한 성평등 훈련이 실시되었는가?

구분	목표(가치)	전략 (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제도 (system)	법적 구속력 확보	성평등 도시공간 조성 기반 구축	• 성별 할당 또는 성별 동등에 대한 조항내용이 있는가? • 도시공간조성과 관련된 성인지적 법령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 도시공간조성과 관련된 지침,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성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가?
도시 공간	일·생활 통합 (Integration)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 공적인 공간계획이 돌봄활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다양한 일상활동 공간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허브의 구축	• 주거,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커뮤니티 허브가 구축되어 있는가? • 커뮤니티 허브를 통해 일상 활동 공간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있는가? •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위계와 연계되어 구조화되고 있는가?
	열린 커뮤니티 (Access)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집중	• 커뮤니티 허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커뮤니티 서비스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집중되어 있는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계획	• 커뮤니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 커뮤니티 허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활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근린 규모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복합개발을 통해 제공되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근린의 규모로 분절되어 있는가?
	생활안전 (Safety)	일상 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	일상공간의 안전성 확보	• 공공공간이 Public Eye를 통한 자연감시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공공공간은 다양한 안전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 철거지역, 공사예정지, 공사지역 등 비활성 오픈스페이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동의 안전성 확보	• 다양한 이동수단, 이동시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버스쉘터, 지하철 역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구분	목표(가치)	전략 (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이동성 (Mobility)	일상의 영위를 위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교통수단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커뮤니티 허브가 연결되고 있는가? • 여러 교통수단 간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시스템	• 주거, 업무, 쇼핑, 여가 시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가능한가? • 공공 서비스 시설에 접근하는데 특정 교통수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교통시스템이 다양한 이동요구(이동수단, 이동경로, 이동시간)를 반영하고 있는가? • 제한된 이동수단에 의존하는 그룹이 존재하는가?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계획	• 토지이용계획이 다양한 라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있는가? •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니버설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다양한 주거공간의 제공	•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생활 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주택시설의 다양화)하고 있는가? • 적정 임대 비율을 유지하고 주거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시설 및 오픈 스페이스	• 공공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특정 이용자 그룹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공공 서비스 시설이 특정한 그룹의 특정한 이용방식(어린이, 아동동반,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 공원 등 공공 오픈 스페이스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가?

III

2030 서울플랜(안)

제1절 2030 서울플랜(안) 개요
제2절 2030 서울플랜(안) 추진체계와 주요내용
제3절 2030 서울플랜(안)의 특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2030 서울플랜(안)

제1절 2030 서울플랜(안) 개요

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체계

□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면서, 20년 후 서울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며, 공간계획이자, 행정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책계획임.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공간계획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과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표 Ⅲ-1▐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특징	내용
최상위 법정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 '단년도 실·국·본부 업무계획'의 기반이 되는 '법정 최상위 계획'
장기 종합계획	•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장기 비전계획' • 물리적 분야와 사회경제적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
공간계획	•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관련 서울시 공간 시책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는 '공간 전략계획' • 상위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 제시

특징	내용
행정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정책계획	• 특별, 광역시장,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승인하는 정책계획 • 시장과 공무원이 결정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시민의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개별건축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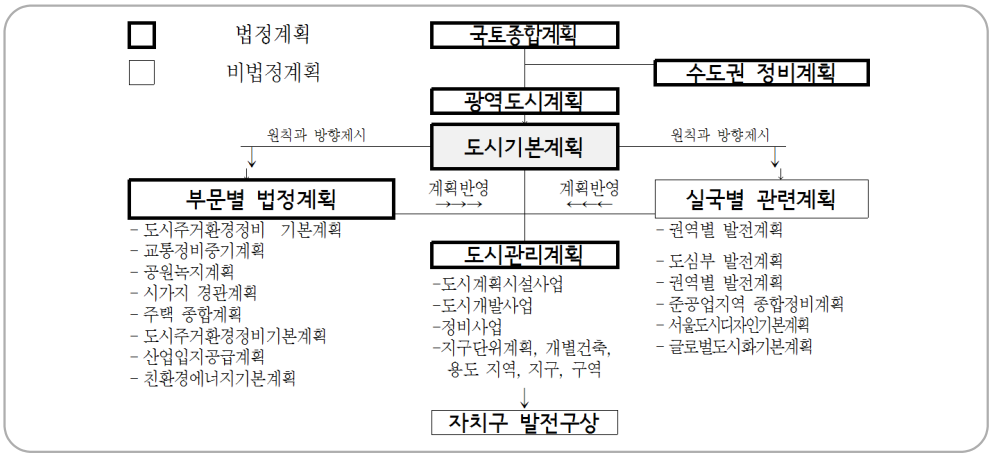
자료: http://citybuild.seoul.go.kr, 양재섭(2011)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시울시의 부문별 법정계획, 실국별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

-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임.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교통정비중기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도시개발을 위한 부문별 법정계획과 '권역별 발전계획', '도심부 발전계획'등 실국별 관련계획에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

- 성평등 도시공간구축을 위해서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단위건축과 단위시설로 이어지는 유기적 도시계획 시스템에 성평등 공간 개념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최상위 공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성평등 공간개념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그림 Ⅲ-1▐ 도시계획 체계

자료: 양재섭(2010), p.11

2. 2030 서울플랜(안) 수립 개요

□ 2030 서울플랜(안) 추진 경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되는 계획임

○ 서울시에서는 1990년 최초계획 수립 후 총3회 수립되었으며, 각각의 계획기조, 목표,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Ⅲ-2▐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경위

목표연도	2000	2011	2020
수립연도	1990년	1997년	2005년
계획기조	쾌적, 건강, 문화, 여유, 기능, 편리, 재정운용의 효율화	시민생활우선, 인간중심, 지역특성과 역할 중시, 환경친화도시	치유와 회복, 개발과 성장에서 삶의 질 향상
계획목표	• 시민모두에게 표준화된 편익과 생활환경제공 •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건설 • 문화도시로 육성 • 외부여건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 • 에너지 절약형 도시형성 • 국제화 정보화 시대로의 도시적 대응 • 고밀도 환경의 타당한 수용 • 자치단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위계획의 역할 반영	•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도시 • 교통이 편리한 도시 • 물과 공기가 좋은 도시 • 깨끗하고 푸르른 도시 • 살맛나는 문화도시 • 골고루 잘사는 도시 • 경제기반이 탄탄한 도시	•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도시' • 사울다움이 느껴지는 '문화도시' • 자연이 되살아나는 '생태도시' •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 • 통일 후에도 변함없는 한반도 '수도서울'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강남북 균형발전 • 다핵도시로 개편 • 도시철도망(13개 노선)과 도시고속도로망 계획)	• 2000년 계획의 수정·보완 • 지방자치 시대 도래 • 자치구 계획의 수렴 및 반영 • 상암, 용산, 뚝섬, 마곡지구 개발 구상 • 지역중심 설정	• 2011 계획의 수정·보완 • IMF 이후 여건변화 반영 • 행정수도이전 대응, 청계천 복원 등 반영 • GB 우선해제 변경 반영 • 자치구계획 폐지에 따른 생활권 계획 제시

자료: 서울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2011.9.), 전문가토론회 발표자료(2011.6.24) 재구성
서울연구원,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자료(2012.8.27)
http://citybuild.seoul.go.kr

□ 2030 서울플랜(안) 수립 개요

○ 2030 서울플랜의 의미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으로 '시민과 함께 만든다'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음

○ 2030 서울플랜의 범위

- 2030 서울플랜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체를 포함함. 내용은 서울의 미래상(비전)과 핵심이슈, 부문별 계획, 권역계획, 모니터링과 현실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Ⅲ-3▐ 2030 서울플랜(안)의 범위

구분	내용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0년 • 목표년도 2030년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체(약605㎢)
내용적 범위	• 서울의 미래상(비전) • 핵심이슈 및 부문별 계획 • 공간구조구상 및 생활권계획 • 모니터링 및 실현화 방안

자료: http://www.seoul.re.kr

○ 2030 서울플랜 수립방향

- 2030 서울플랜은 사람중림의 인문사회적 가치를 담고,[30] 시민, 전문가와 함께 계획의 내용을 선택하며, 서울의 미래 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최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들과 연계를 맺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으로 물리적 계획위주 내용 구성, 시 계획부

30) 도시를 바라보는 인문학적 관점은 도시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장소이며,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동체'정신임을 강조함. 최근에 거대해지고 비대해지는 고층건물들의 복합공간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이웃을 잃어버리는 현대적 삶의 현장을 비판하는 관점임. 또한 인문학적 관점은 도시가 아파트와 고층건물로 상징화되면서 소유권의 개념이 거주권의 개념을 억압하는 오만한 부의 천박한 모습을 비판하고, 나아가 공공성과 대중의 공공이익, 공동체 정신을 지향함(떼오또르 폴 김, 2009)

서 및 전문가 위주의 계획 수립, 최상위 법정계획임에도 하위계획과 연계성의 부족 등을 제시함. 이에 향후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공동체, 돌봄 등 새로운 가치와 인문사회적 요소를 반영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의 비전·추진전략 및 실행 과제를 시민이 직접 선택하며, 분야별·단계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함

- 이러한 변화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치는 기존 계획이 전문가 및 남성이 주도하여 효율성과 규모성을 강조한 경제기능을 창출하는 도시설계에 중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다양한 경험과 조건을 가진 도시생활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은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서울시 공간계획인 서울플랜에 어떠한 인문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그러한 인문사회적 가치가 도시공간구성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Ⅲ-4▐ 2030 서울플랜(안)의 수립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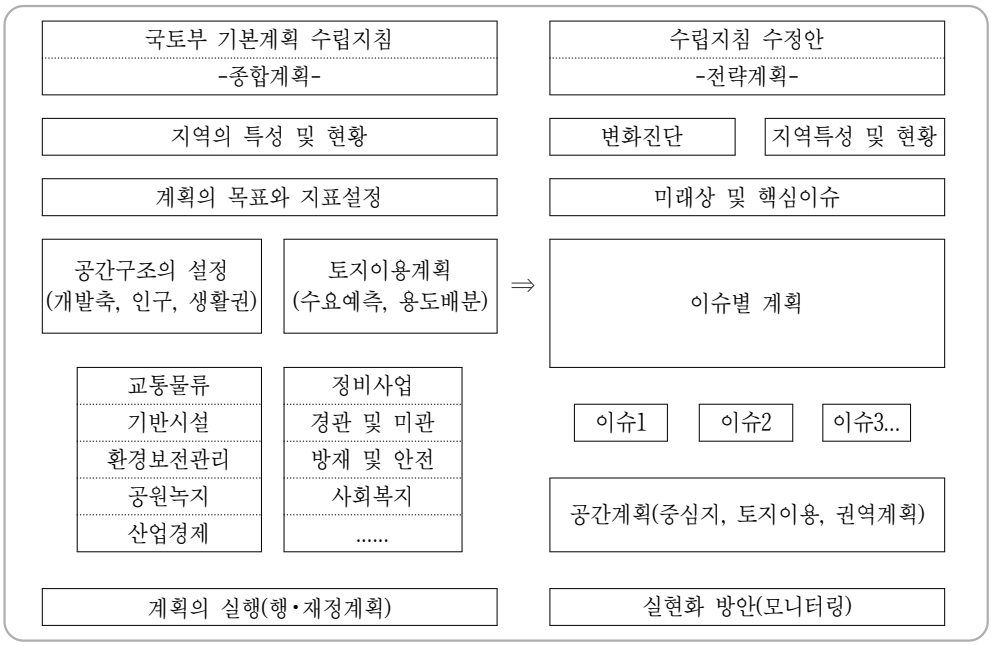
〈이전〉	〈2030 서울플랜〉
• 물리적 계획위주 내용구성	공동체 등 새로운 가치와 인문사회적 요소를 반영한 계획
• 시 계획부서, 전문가 위주 계획수립	비전, 추진전략 및 과제를 시민이 직접 선택
• 최상위 법정계획임에도 하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함	분야별·단계별 계획과 유기적 연계, 계획의 실행력 제고

자료: 서울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2012), 2030도시본계획 수립 2012년도 정책 자료집

○ 2030 서울플랜의 구성안

- 서울시는 이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립된 부문별 계획 내용을 요약, 취합한 형태로 시민공감이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부문별 계획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여 부문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운영계획과 별개로 세워지다보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실행력 있는 지침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2030 서울플랜은 핵심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 알기 쉽게 서술하고, 시민합의에 의해 지속가능한 가치와 이슈별/부문별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시정운영계획이 가지고 있는 전략계획적 요소와 재원계획 등 실행력을 가진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지속적 참여 및 평가와 반영으로 상시계획체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음(서울연구원, 2012)
- 이렇게 이슈별 계획 그리고 시정운영계획과 연계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2030 서울플랜에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여 반영하기는 더욱 수월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즉, 이전 기본계획은 재개발, 교통, 공원녹지, 경관, 환경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실국별, 부문별 계획이었음. 하지만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시정의 정책과 목표를 연계시키고자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의 주요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바로 '성평등 시정구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으로(서울시, 2012.1.9., 시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서울 마스터플랜),[31]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로 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음

31)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은 시장 취임 후 당선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지자체장의 임기동안 추진할 시정의 비전, 목표, 핵심프로젝트(시책), 계획, 사업 등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여 집약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기간은 짧지만 실행력까지 고려한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시정계획은 비법정계획이고 전적으로 시장의 계획재량으로 수립하는 업무계획이므로, 시장의 임기와 생명을 함께하는 계획임.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시정운영계획이 서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즉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계획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 20년 이후 도시의 장기비전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시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전략 계획적 요소와 재원 계획 등 실행력 제고를 위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그리고 시정운영계획 중 장기간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과 시정운영계획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김태현, 2012,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서울연구원)



▌그림 Ⅲ-2▐ 2030 서울플랜(안) 구성안

자료: 서울연구원(2012),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제2절 2030 서울플랜(안) 추진체계와 주요내용

1. 2090 서울플랜(안) 추진체계

□ **참여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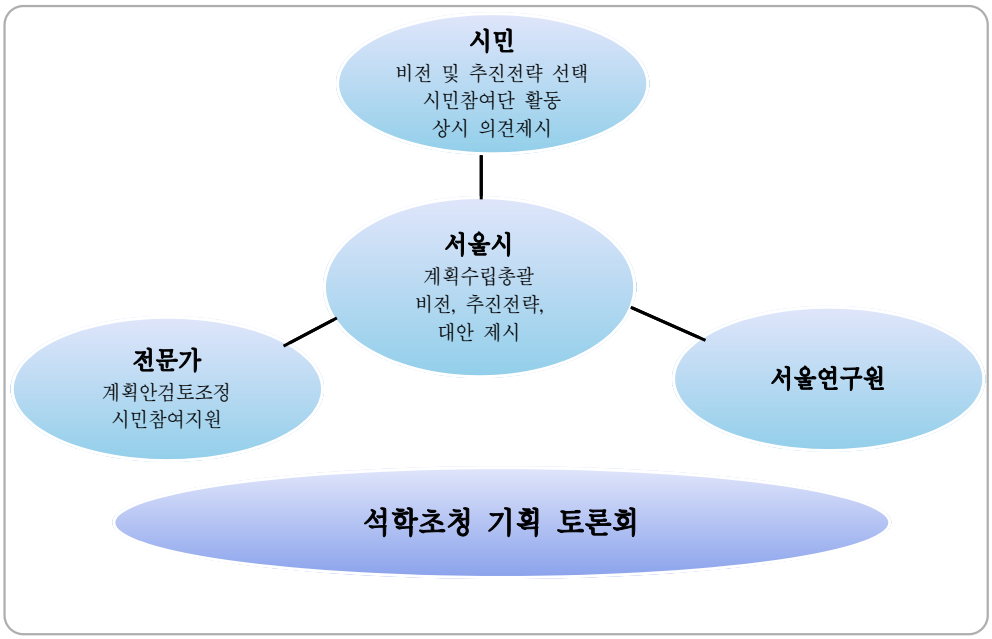
○ 전문가자문단이 기존계획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상 및 핵심이슈를 발굴하여 제공하면, 토론회를 통해 20년 후 서울의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과 추진전략을 구상함. 시민참여단은 시민투표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비전과 추진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서울시, 서울연구원 등이 TF를 구성하여 뒷받침함.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서울연구원은 토의내용을 정리하고, 계획의 분량, 범위, 구성 등을 확정하며, TF 분과를 구성하고 단계별 시민참여 방법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거침

○ 이러한 참여 과정에서 그동안 도시개발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도시생활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고, 남성과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삶의 조건을 고려하여 여성도 사회경제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Ⅲ-5▐ 참여자 구성 및 역할

구분		구성 및 역할
시민	시민참여단	•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명(랜덤 샘플링) • 숙의방식으로 2030년 서울의 미래상 및 핵심이슈(안) 도출 •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시민제안서 • 2030서울플랜 서울의 미래상- 제출
	온라인참여단	• 온라인 참여단 가입에 의한 모집 • 1,000~1,500명 • 온라인 설문, 자유의견 제시 등
	청소년참여단	• 서울 거주 19세 미만 16명 •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청소년 제안서·2030서울플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출
전문가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 6개분과(핵심이슈별 5개분과, 총괄조정분과)별 20명 내외 • 분과별 전문가, 시민위원, 시의원, 실·국·본부장, 서울연구원 참여
	전문가자문단	• 20명(여성2명) + 추가자문단13명(여성5명) •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MP 단	• 총괄책임계획가 서울시립대 권원용 교수 • 분과별 책임계획가 - 복지·교육·여성분과 허선 순천향대 교수 - 산업·일자리분과 김영수 산업연구원 팀장 - 역사·문화 분과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 환경·안전분과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 도시공간·정비 분과 최막중 서울대 교수 • 시민참여지원분과: 남부원 한국YMCA사무총장, 김환석 국민대교수 • 서울연구원: 계획안 검토조정, 시민참여 지원
	토론한마당 강연전문가	• 총5회 진행
	서울연구원	• 연구용역 수행(도시기본계획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주일, 김인희)
행정	서울플랜 공동위원장	• 김상범 행정1부시장, 문승국 행정2부시장, 권원용 총괄MP • 정효성 기획조절실장(총괄조정분과 위원)
	행정부서	•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시정계획팀 -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시정계획팀장, 담당주무관

자료: http://www.seoulplan.re.kr



▌그림 Ⅲ-3▐ 서울플랜 참여단의 협업체계

자료: 서울시, '시민참여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 방침서, 2011

○ 참여자의 협업체계

- 2030 서울플랜은 시민, 전문가, 서울시가 협업하여 대안을 만들고 시민이 직접 20년 후 서울의 미래를 선택하는 협업체계로 이루어짐

□ **수립절차**

○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을 위해 첫째, 계획수립준비로 미래구상 및 계획수립 방향을 설정하고('12. 6~7), 둘째, 미래비전을 설정하였으며('12. 7~8), 셋째,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12. 9~11), 넷째,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단계('12. 12~'13. 7)를 거치고 있음. 원래는 2013년 7월까지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해 시장의 대시민 발표 후 기자설명회 개최, 지역별 순회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현재에도 기획조정실에서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해 수정작업 중에 있으며, 9월 중 시장의 대 시민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후에는 공청회,

중앙부처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함

○ 시민참여단 및 시민투표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비전과 추진전략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서울시, 서울연구원 등이 TF를 구성하여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

▌표 Ⅲ-6▐ 서울플랜(안) 수립절차

단계	참여자	내용
1. 계획수립준비: 미래구상 및 계획수립 방향설정 ('12.6~7)	• 전문가 자문단	• 기존 계획의 한계진단, 계획수립방향 논의 미래상 및 핵심이슈 발굴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자문단 검토자료 준비
	• 석학초청 토론회	• 20년 후 미래예측, 비전 및 방향 구상
	• 시민참여단 (100명)	• 서울미래, 비전, 이슈에 대한 자유의견 제시 * 서울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서울시 (서울연구원)	• 토의내용 정리: 비전설정, 추진전략(안) 수립시 반영 • 계획형식 확정: 계획의 분량·범위·구성 등 확정 • 추진체계 확정: TF분과구성, 단계별 시민참여 구체화
2. 미래비전설정 ('12.7~8)	• TF 구성·운영	• TF구성: 전문가자문단, 서울시, 서울연구원, 시의원 등 참여(4개분과) • 분야별 현황·이슈 구상·정리→시민참여단에 토의자료로 제시 • TF회의자료는 관련 실무부서(총괄: 미래창안담당관)와 서울연구원이 준비
	• 복수의 비전(안) 마련	• 시민참여단 토의: 분임별 토의 후 의견제시(TF에서 토의과정 지원) • TF에서 복수의 비전(안) 마련: 시민참여단 의견, 석학초청토론회 결과 등을 정리하여 복수의 비전(안)작성
	• 일반시민 비전 결정	• 복수의 비전(안)에 대한 시민투표 실시 • 온라인투표(시 홈페이지), 현장투표 등으로 비전 결정

단계	참여자	내용
3.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안) 마련 ('12.9~11월)	• TF 운영 복수의 추진전략안 마련	• 분과별 복수의 추진전략안을 해당분과 실부부서, 서울연구원이 초안작성하고 분과 TF에서 검토·보완 * 실국본부별 중장기 계획과 연계 검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 • 작성된 추진전략(안)에 대해 총괄조정분과에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조정·보완 * 총괄조정분과 구성: 자문단장, 분과장(4),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관계자(1)
	• 시민참여단 선택	• 복수의 추진전략(안)의 성격, 쟁점사항 등 설명 • 시민참여단에서 분임토의 및 전체토론 후 투표를 통해 전략안 선택
4. 전체 도시기본계획(안) 작성 및 확정 ('12.12~)	• TF운영 전체 계획안 작성	• 공간구조, 권역별 구상 등 토지이용관련 계획안 검토·작성 * 자치구, 인접 광역지자체와 협의 및 의견 반영(관련 국장급 회의 개최) • 분야별 계획집행과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마련
	• 대 시민 발표	• 시민참여단 의견 반영하여 전체 계획안 최종 보완(총괄조정분과) • 기자설명회 개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 계획 확정	• 법정절차 진행(공청회, 중앙부처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자료: http://www.seoulplan.re.kr

□ 2030 서울플랜 근거 법령

○ 2030서울플랜은 다양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근거 계획이 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표에서 보듯이 도시계획사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이 방대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2030 서울플랜 수립의 직접적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도기계획조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함

▌표 Ⅲ-7▐ 도시계획사업의 종류와 관련 법령

(단위: 명, %)

구분	근거법령	종류	내용	근거법령	비고
도시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이란 7개 유형 53종의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시설 •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 1항 제2호	• 주택 및 산업단지 • 유통·관광·휴양·역사·문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정비사업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30 서울플랜의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제2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정의함
- 제18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계획의 목표 및 방향,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등 8개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정 확충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단계별 추진사항 등 7개 부문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되어있음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 '서울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32], 제5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33]임. 하지만 그 내용은 서울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임. 단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해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임

---

32)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구청장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33)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2. 2030 서울플랜(안) 주요 내용

□ 2030 서울플랜(안) 주요 내용의 구성

○ 2030 서울플랜(안)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울의 미래상과 비전, 핵심이슈 및 분과별 계획, 공간구조구상과 토지이용계획,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및 실현화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9월 시장보고 이전 2030서울플랜(안)의 전체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분과별 계획에 대한 내용만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임

○ 5개 분과의 구성은 시민참여단의 '시민제안서'에서 제시한 주요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과의 구성과 순서를 정한 것임. 즉 시민참여단은 복지·교육의 과제를 1순위로, 일자리문제를 2순위로, 역사문화보존과 경관관리의 문제를 3순위로, 환경과 안전문제를 4순위로 그리고 도시개발 문제를 5순위의 과제로 제시하였음. 이에따라 2030서울플랜에는 복지·교육·여성분과, 산업·일자리분과, 역사·문화분과, 환경·안전분과, 도시공간정비분과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과별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

○ 여기에서 2030서울플랜(안)에 특별히 '여성'분과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복지·교육분과에 참여한 여성전문가가 여성문제를 복지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과 평등의 관점에서 다루고, 형평성 이슈를 서울시가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마련되었음. 하지만 여성분과가 있다고 하여 2030서울플랜(안)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2030 서울플랜의 부문으로 여성대상 계획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2030서울플랜의 도시공간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서의 성인지 관점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각 분과의 구성은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에 제시된 영역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 즉 2012년 1월 9일 발표한 서울시정운영계획에는 5개 영역으로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함께 잘사는 경제',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 '안전하고 지속하능한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의 순서는 '도시공간정비분과'를 제외하면 2030서울플랜(안)의 5개분과와 순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분과별로 제시된 목표는 2012~2013년 서울시 각 실국에서 제시한 업무계획의 목표와 그 맥락이 같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복지교육여성'분과에서 제시된 '성평등 실현 및 보편적 돌봄의 조성'목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아래 제시하고 있는 '성평등한 시정구현', '마을공동체 안에서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재기술하고 있음. 그리고

○ 이러한 분과별 목표와 전략, 과제들이 시정운영계획 및 실국업무계획과 연동되면서 그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정의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연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공간계획인 2030서울플랜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운영계획과 실국업무 목표 중심으로 세워지면서 도시공간계획이 아닌 장기 시정운영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임. 이는 시정이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도시공간구성을 통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임. 즉 서울시 시정운영계획 및 실국업무목표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회적 경제활성화, 복지공동체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2030년을 향한 서울시 도시공간구성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임

□ **복지·교육·여성분과**

○ 핵심이슈: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 복지, 교육, 여성분과는 성, 연령, 지역 등의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소득·건강·교육 등에 있어서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도시는 만들겠다는 방향에서 전략과 과제가 제시됨.[34]

34) 각 분과별 전략과 과제의 발굴 방향은 2030서울플랜에 대한 9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임

▌표 Ⅲ-8▐ 복지·교육·여성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목표	전략	과제
1.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1-1.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 • 어르신 건강 유지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 편안한 노후 공동생활을 위한 다양한 거처 확보
	1-2.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어르신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회공헌활동 기회확대
	1-3.세대간 존중과 통합의 사회문화 조성	• 어르신들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지원 •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 세대 융합 문화활동 지원
2.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2-1.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게 구축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	• 생활권역별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형평사업추진 • 환자 안심병원, 재가 중증환자 지원 및 환자권리 보호체계 구축
	2-2.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산모,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지원 •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 민관협력을 통한 중장년 만성질환 건강관리 증진 •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건강관리 강화
	2-3.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시민먹거리 안전성 강화	•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 '건강서울 먹거리 전략' 등 시민 참여형 정책 수립 • 농·수·축산물, 가동식품 안전관리 강화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3.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연대 구축	3-1.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강화	• 차별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 교육권, 이동권 등 권리보장으로 사회활동 참여 증진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립·자활 목표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3-2.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사회안전망 구축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속 추진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역 및 가구특성에 맞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제공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3-3.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 '역량 있는 주민'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형성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내 복지네트워크 구축
	3-4.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문화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조성 • 외국주민이 살기편한 도시 인프라 조성

목표	전략	과제
4. 전생애 걸쳐 학습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4-1.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공동체적 대응 • 공교육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4-2.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 •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4-3.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능 회복	• 다양한 창의 인성 교육을 통한 재능 발견 기회 제공 • 학교 안전망 강화를 안심 배움터 실현
	4-4.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천	• 지역 내 교육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 교육재능 나눔 확산
5. 성평등 실현 및 보편적 돌봄의 조성	5-1.성 평등한 가족·사회문화 조성	• 가족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캠페인 확대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조직의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 깨기 등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5-2.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 및 취업지원 확대 •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 여성의 일하는 근로환경 개선
	5-3.아동·여성·노인 등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 위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위험·폭력 관련 캠페인, 교육 등 예방적 정책수단 강화
	5-4.지역사회돌봄공동체 구현	• 육아문제를 마을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공동육아의 활성화 •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대상에 대한 공동체의 보호기능 강화

□ **산업·일자리 분과**

○ 핵심이슈: 일하고 싶고 함께 잘 사는 세계도시 서울

○ 산업일자리분과의 전략과 과제는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가 열려있고, 경제주체, 지역 간 상생발전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표 Ⅲ-9▐ 산업·일자리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목표	전략	과제
1.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경제도시 실현	1-1.서울형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서울형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 신기술·제품·문화가 융복합된 창의산업 진흥 • 관광 및 전시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 차별화 요소의 개발 •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 거점 공간 창출
	1-2.창의적 인재 양성과 글로벌 혁신환경 구축	• 창의적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 구축 • 서울시의 문화, 교육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학습도시화 • SCL(Seoul Creative Lab)을 활용한 산학연계 활성화
	1-3.건강한 산업생태계 형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	•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 대도시권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2.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2-1.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전략분야 협동조합 중점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 • 협치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한 정책 일관성 유지
	2-2.소상공인의 협력적 성장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 활력있고 매력적인 전통시장 육성 • 상생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2-3.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 사회적경제 영역에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과 역할 위임 • 지역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특화지구 조성
3. 일자리와 생활이 조화로운 공간 창출	3-1.국가를 대표하고 동북아를 선도하는 공간 창출	• 세계적 기업을 위한 글로벌 경제활동 거점 공간 창출 • 국가 주요 거점과 연계한 경제 공간 구축 및 수도권의 광역적 일자리 연계의 효율화
	3-2.권역별 특화 육성과 산업집적지의 혁신적 활용	• 권역별로 직주 근접을 실현할 수 있는 산업 및 일자리 거점 육성 • 준공업지역 산업 활성화 종합관리방안 마련
	3-3.쾌적하고 차별 없으며 특색있는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 21세기형의 도시공간 유형 • 21세기형의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 압축, 복합, 입체형의 도시공간을 통한 인간성 회복

□ **역사·문화 분과**

○ 핵심이슈: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서울

○ 역사문화분과는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서울다움의 요체인 산, 강, 성곽,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역사자원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전략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함

▌표 Ⅲ-10▐ 역사·문화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목표	전략	과제
1.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도시역사 (역사보전)	1-1.각 지역의 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공간구조형성	• 강북지역을 역사문화중심지역으로 정립 •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도심으로 가꾸기
	1-2.시민의 역사자원접근성(내용적, 시각적, 물리적) 개선	• 주요 유적지의 역사문화거점 조성 • 다양한 역사문화프로그램과 축제 개발 • 역사문화 안내 및 홍보체계 마련
	1-3.역사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 시간의 확대 • 대상의 확대
	1-4.역사자원과 주변의 도시계획적 관리 강화	• 문화재 주변지역관리 방안 마련 •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소단위 정비방안 마련
	1-5.실행력 있는 역사보전의 추진	• 역사유산자재은행 설치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과 관광의 연계
2.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경관관리)	2-1.자연경관의 보호	• 산을 중심으로 한 경관관리 • 한강 등 주요 지천의 수변경관 관리 • 자연요소의 보호를 통한 생태벨트 및 경관축 검토
	2-2.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역사보전분야와 연계)	• 성곽도시 서울의 경관회복 • 시간적 층위가 중첩된 경관의 보호
	2-3.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 걷고 싶은 가로를 만드는 경관관리 • 주변과 조화하는 건물디자인 •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2-4.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 장소의 이야기가 있는 경관관리 • 시민참여 기회 확충 • 규제를 넘어 관계·완충·협력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목표	전략	과제
	2-5.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도시환경 질적 업그레이드	•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개선
3.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3-1.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 생활 속 문화공간 창출 • 온-오프라인 공동체 활동 활성화 • 차별없는 문화서비스의 제공
	3-2.다문화의 육성	• 다문화의 보전과 육성
	3-3.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 고유성에 기초한 특화된 지역발전 • 문화적 재생과 활성화
	3-4.문화생태네트워크 형성	• 전문화-특화된 문화시설 확충 • 문화밀집지역의 보전·육성

Ⅲ

□ **환경·안전 분과**

○ 핵심이슈: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 서울

○ 환경안전분과는 단절·고립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의 위기관리 인프라·역량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전략과 과제들이 주로 발굴됨

▌표 Ⅲ-11▐ 환경·안전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목표	전략	과제
1. 세계적인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1-1.공원 인프라 선도 도시로의 이행	• 공원의 개념과 역할의 확대 • 녹색 친화적 시민문화의 형성·발전 • Green 보존·보급 확대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제도)
	1-2.그린도시 구현으로 도시기후 최적화	• 도시표면(피복)의 친환경성 강화 • 열섬현상 저감·완화 •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
	1-3.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존 및 회복	• 도시생태계 보존·관리 • 도시생태계를 활용한 도시계획

목표	전략	과제
	1-4.도시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및 최적화	• 먼지·스모스 저감 • 실생활 환경요소 지표 강화 • 쓰레기 통합관리
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 순환 도시	2-1.에너지 위기 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 스마트에너지 관리체제 도입 •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대응시나리오 현실화
	2-2.저탄소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정착	• 저탄소 에너지의 확보·생산 • 에너지 사용 효율화 • 에너지 절약 교육 체계화
	2-3.자원 리사이클링 확대	• 물 재이용 확대 • 폐기물 활용 및 자원순환 확대 • 물품 재사용 문화 정착
3. 다함께 지켜주는 안심도시	3-1.위험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고도화	• 위험인지 기반 구축 및 활용 • 도시공간 안전평가 기반 마련
	3-2.조기대응 신속성 확보 및 역량 증진	• 비상출동 차선 관리 방식 개발 및 적용 • 위험감지 시스템 신뢰성 확보 • 구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3-3.기상 재난의 예방 및 피해경감 역량 향상	•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 대응역량 확대 • 사면재해 예방 확대
	3-4.민관 결합형 도시안전 거버넌스 확대	• 시민교육 파트너쉽 • 민간조직 역할 활성화 •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 기법(CPTED) 활용· • 동아시아 시민안전 선도도시
	3-5.생애주기별 생활안전 시스템 구축 및 실효성 제고	• 고령화 저출산 사회구조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 및 케어 • 생활안전 취약계층 및 지역 안전 프로그램 운영

□ **도시공간정비 분과**

○ 핵심이슈: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

○ 도시공간정비분과의 전략과 과제는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대하고, 편리한 녹색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집걱정, 통근부담이 적고, 공동체가 활성화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임

▌표 Ⅲ-12▐ 도시공간정비 분과의 목표, 전략 및 과제

목표	전략	과제
1. 함께 보듬는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서울	1-1.역세권 중심의 자족생활형 복합 토지이용	• 역세권 중심의 직주균형 자족생활권 형성 • 역세권의 고밀복합 토지이용 유도 및 관리
	1-2.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참여형 동네 만들기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다양한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주민참여형 살기 좋은 커뮤니티 활성화
	1-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자원의) 공익적 공간 창출	•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재생 • 공익성 증진을 위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1-4.부담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 확대	•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 자가주택 확대 • 부담가능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 주택재고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충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주택개량사업의 확대 • 고령자 및 장애인이 편안한 주택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 저층주택 밀집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2.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	2-1.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연계교통체계 구축	• 서울과 주변 도시를 통합한 광역교통망 구축 • 교통결절점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 •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 • 대중교통의 서비스 용량·확장성을 고려한 도시 정비 및 관리

목표	전략	과제
	2-2.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 직·주 근접을 통한 이동저감사회 구현 • 대중교통 서비스가 양호한 도심부의 승용차 접근 관리 강화 • 자동차 통행을 대규모로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
	2-3.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공간 재편과 생활환경 조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생활권 정비 •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Green) 도로 조성 • 단절없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3. 함께 보듬어 집걱정 덜어주는 주거안정도시	3-1.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 자가주택 확대 • 부담가능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3-2.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 주택재고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충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주택개량사업의 확대
	3-3.살기좋은 주택커뮤니티 조성	• 고령자 및 장애인이 편안한 주택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 저층주택 밀집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제3절 2030 서울플랜(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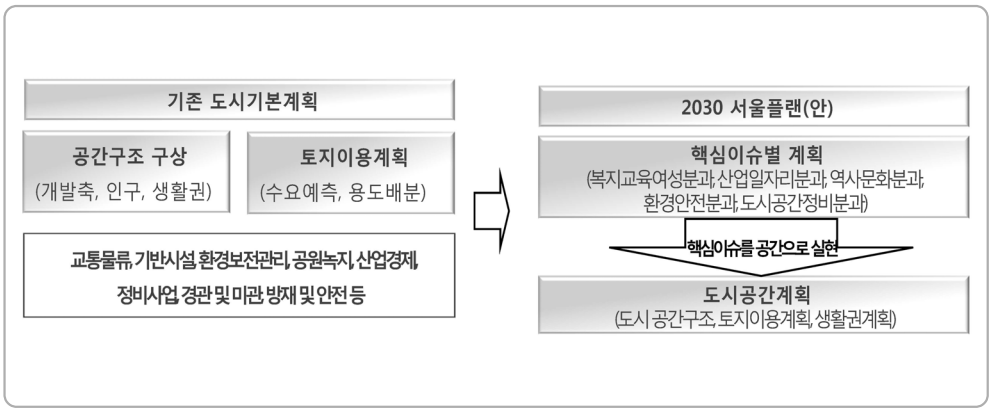
□ **시민과 함께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 2030 서울플랜은 계획의 초기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미래상 및 주요과제를 제시하였음.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요구조사 정도로 갈음되었지만,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에서는 시민이 서울시 행정 및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을 통해 참여하고,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계획수립 과정을 가짐

□ **분과별로 제시된 이슈, 전략, 목표 및 과제를 공간계획과 연계시키는 계획**

○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교통물류, 기반시설, 환경보전관리, 공원녹지, 산업경제, 정비사업, 경관 및 미관 등 12개의 부문별 계획이었음. 하지만 2030 서울플랜은 복지, 교육, 여성, 일자리, 산업, 역사, 문화 등 시민의 삶을 포괄하는 이슈계획으로 이러한 핵심이슈를 공간계획의 내용으로 담아내고자 하였음. 따라서 2030 서울플랜은 분과별로 제시된 핵심이슈와 전략, 목표, 과제 등이 도시공간계획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실현되도록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복지·교육·여성 분과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실현' 등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2030 서울플랜(안)의 공간구조구상, 토지이용계획,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및 실현화방안 부문 원고가 연구진에게 공개되지 않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과 관련된 젠더이슈,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여 2030서울플랜(안)의 분과별 핵심이슈, 전략, 목표 및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음



▌그림 Ⅲ-4▐ 핵심이슈를 도시공간계획으로 실현하는 2030 서울플랜 구성

□ 시정운영계획 및 서울시 실·본부·국의 정책계획과 연계된 도시공간계획

○ 서울시 시정운영계획과 서울시 실·본부·국에서 가진 정책계획이 연계되어 제시되고 있음. 즉 서울시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들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서울어르신종합계획', '서울시일자리정책종합계획',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공유도시서울추진계획',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계획' 등의 내용이 2030서울플랜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산업일자리분과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확대' 전략과 과제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Ⅳ

도시공간환경 요구와 성평등 미래상에 대한 성별 차이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
제3절 서울시 성평등 수준 및 도시생활 이슈
제4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도시공간환경 요구와 성평등 미래상에 대한 성별 차이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개요

□ **조사설계**

○ 본 조사는 만2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20년 후 서울시의 성평등 상태의 변화정도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고자 실시함. 이를 통해 2030서울플랜(안)의 도시공간과 관련된 내용 중 성별 차이를 인식하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도출하고, 20년 후에도 성평등 도시 서울이 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기초정보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조사대상은 만20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표집을 하였음. 여성은 단일한 조건의 여성이 아니라 혼인상태, 연령, 취업상태, 거주지역(중부권,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등 5대 권역) 등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 대한 비례할당표집을 수행함

▌표 Ⅳ-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20세 이상 서울시민
조사규모	400명(여성250명/남성15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온라인 패널 중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1,010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혼인여부별, 성별×연령별×취업여부별, 거주지역별 조사대상자를 추출하는 다단계층화무작위표집(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9%P
조사기간	2013년 7월 22일 ~ 동년 7월 31일 (10일간)
분석도구	SPSS 12.0k

○ 인구주택총조사(2010)의 서울시 거주 시민의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분포와 성별 연령별 취업상태별 인구분포를 적용하여 조사대상 400명에 대한 표본할당을 실시함. 단 여성의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여성 250명, 남성 150명을 할당하여 조사함

▌표 Ⅳ-2▐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표본 할당

(단위: 명, %)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성	비혼	32 (94.6)	5 (19.5)	7 (20.3)	4 (12.8)	4 (12.8)	52 (34.4)
	유배우	2 (5.4)	20 (80.5)	27 (79.7)	25 (87.2)	24 (87.2)	98 (65.6)
	계	34	25	34	29	28	150
여성	비혼	45 (88.1)	19 (34.7)	10 (19.0)	10 (21.3)	24 (48.6)	108 (42.6)
	유배우	6 (11.9)	35 (65.3)	41 (81.0)	36 (78.7)	25 (51.4)	143 (57.4)
	계	51	54	51	46	49	251
전체		85	79	85	75	77	400

자료: 성별 연령별 취업상태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2010)자료 활용

▌표 Ⅳ-3▐ 성별 연령별 취업상태별 표본할당

(단위: 명, %)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성	취업	18 (53.1)	22 (86.7)	30 (88.1)	24 (83.4)	11 (40.1)	108 (71.8)
	비취업	16 (46.9)	3 (13.3)	4 (11.9)	5 (16.6)	17 (59.9)	45 (28.2)
	계	34	25	34	29	28	150
여성	취업	31 (61.2)	33 (61.6)	31 (60.6)	22 (48.6)	8 (15.3)	125 (50.0)
	비취업	20 (38.8)	21 (38.4)	20 (39.4)	24 (51.4)	41 (84.7)	126 (50.0)
	계	51	54	51	46	49	251
전체		85	79	85	75	77	400

자료: 성별 연령별 취업상태 비율은 인구주택총조사(2010)자료 활용

□ 주요조사내용

○ 주요조사내용은 도시공간환경과 관련하여 도시공간 및 시설의 접근성, 생활시설 및 주거환경의 만족도,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설요구, 살기 좋은 지역의 중요요소 등에 대해 질문함. 또한 도시공간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서울시 성평등 도시공간정책의 필요성을 질문하였음. 마지막으로 도시공간과 관련된 젠더이슈 및 도시계획 이슈, 서울시 현재의 성평등 수준 및 2030년 미래 서울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예측 등을 조사함

▌표 Ⅳ-4▐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도시공간 환경	일·생활 통합	일과 생활의 조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필요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 돌봄활동 지원 필요사항 • 희망하는 직장 위치
	열린 커뮤니티	지역 생활편의시설	• 희망하는 생활편의시설 위치 • 지역에 최우선 필요 시설/공간 •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중요도
	생활안전	생활안전	• 전반적인 안전의식, 시설별·상황별 안전인식 평가 • 안전한 공간 확보 필요 사항
	이동	생활에서의 이동	•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 선택 요인 • 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사항 •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시 이용 시설 및 횟수
	다양성	생활시설 및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지역 생활환경 평가 • 거주지 선택 요인
제도와 참여		여성과 남성의 참여와 정책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과정에 양성동시고려를 위한 필요사항 • 서울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정책 정보획득 경로
도시기본 계획 미래상	서울시 도시생활 만족도	서울시 도시생활	• 서울시 도시생활환경 만족도 • 서울시의 가장 큰 도시 문제 •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현상 • 중요한 서울시 정책과제
	도시생활 이슈	도시기본계획 관련 이슈	• 복지, 여성, 교육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역사, 문화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환경, 안전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도시공간정비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2030 성평등도시 서울미래상	성평등 서울 모습의 예측	• 부문별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상황 평가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혼인상태, 학령별 자녀수 • 거주지역(區,) 월평균 가구소득 등

□ 응답자 특성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성별은 여자가 250명(62.5%), 남자가 150명(37.5%)이며, 연령은 40대(21.3%), 20대(21.3%)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0대(19.8%), 60대(19.0%), 50대(18.8%)의 순으로 나타남. 취업상태는 전체적으로 취업한 경우가 57.5%, 미취업이 42.5%로 나타났음.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50.5%, 비혼이 49.5%로 나타났으며,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50.5%, 동거 자녀가 없는 경우는 49.5%이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13.8%임

▌표 Ⅳ-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내용		전체
		여성	남성	
전체		250(100.0)	150(100.0)	400(100.0)
연령별	20대	51(20.4)	34(22.7)	85(21.3)
	30대	54(21.6)	24(16.7)	79(19.8)
	40대	51(20.4)	34(22.7)	85(21.3)
	50대	46(18.4)	29(19.3)	75(18.8)
	60대	48(19.2)	28(18.7)	76(19.0)
취업상태별	취업	125(50.0)	105(70.0)	230(57.5)
	미취업	125(50.0)	30(30.0)	170(42.5)
학력별	고졸 이하	67(26.8)	24(16.0)	91(22.8)
	전문대 및 대학 졸업	167(66.8)	105(70.0)	272(68.0)
	대학원 졸업 이상	16(6.4)	21(14.0)	37(9.3)
월평균 가구소득별[35]	200만원 미만	34(13.6)	14(9.3)	48(12.0)
	200~299만원	50(20.0)	24(16.0)	74(18.5)
	300~399만원	58(23.2)	31(20.7)	89(22.3)
	400~499만원	44(17.6)	40(26.7)	84(21.0)
	500만원 이상	64(25.6)	41(27.3)	105(26.3)
혼인상태별	유배우	143(57.2)	98(65.3)	202(50.5)
	비혼	107(42.8)	52(34.6)	198(49.5)

구분		내용		전체
		여성	남성	
동거 자녀 여부별	있다	114(45.6)	88(58.7)	202(50.5)
	없다	136(54.4)	62(41.3)	198(49.5)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8(11.2)	27(18.0)	55(13.8)
	없음	222(88.8)	123(82.0)	345(86.2)

3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 2/4분기 2인이상 도시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076,229원인 것으로 나타남

제2절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

1. 일·생활 통합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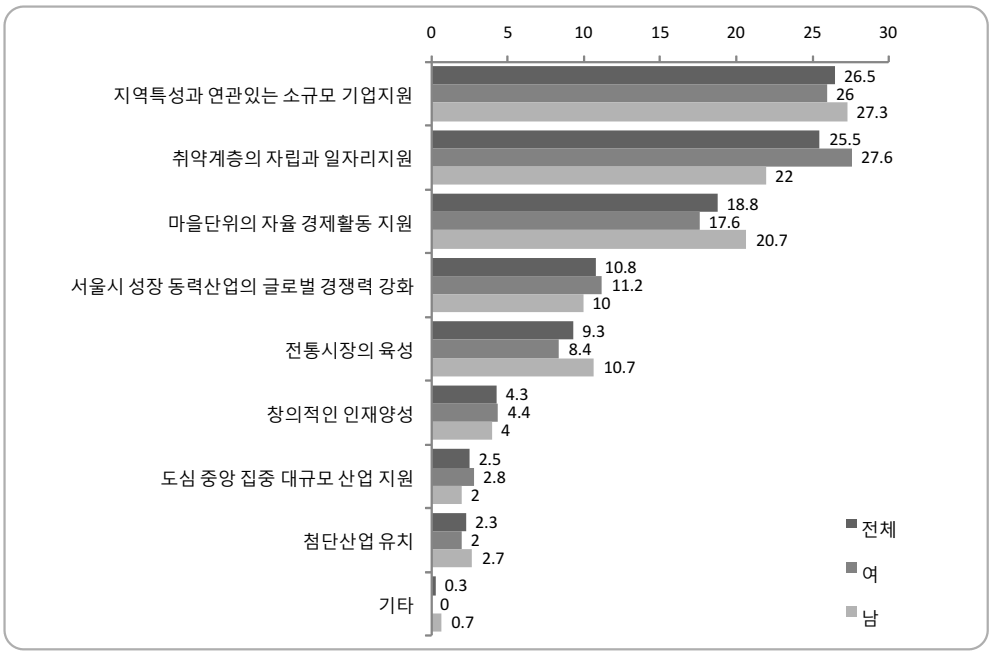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 취업 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 확충이 20.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6%,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여성 취업 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는 의견이 2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 21.8%,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21.3%)는 남성에 비해 취업 관련 훈련 기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30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45.6%)이, 40대와 50대는 여성 취업 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27.1%, 40.0%)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는 자녀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3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일·생활양립을 위한 양질의 보육시설 필요성을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취업지원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상황인 M자 커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욕구가 큼을 보여주는 것임

▌표 Ⅳ-6▐ 성별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필요사항(1순위+2순위 상위 5개 %)

구분			사례수 (명)	여성 취업 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의 확장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근로여건 등과 관련된 고충상담, 취업상담 시설 확충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직장이나 공공시설에 여성친화 시설 확보
전체			(400)	20.9	20.6	19.8	12.5	9.3
성별	남자		(150)	15.3	18.7	21.3	11.0	10.3
	여자		(250)	24.2	21.8	18.8	13.4	8.6
성별 * 연령별	20대	남자	(34)	10.3	17.6	19.1	14.7	8.8
		여자	(51)	21.6	15.7	20.6	20.6	10.8
	30대	남자	(25)	14.0	16.0	34.0	12.0	10.0
		여자	(54)	16.7	23.1	33.3	5.6	10.2
	40대	남자	(34)	13.2	17.6	23.5	8.8	17.6
		여자	(51)	30.4	28.4	15.7	8.8	4.9
	50대	남자	(29)	24.1	17.2	13.8	12.1	12.1
		여자	(46)	30.4	20.7	9.8	20.7	6.5
	60대	남자	(28)	16.1	25.0	17.9	7.1	1.8
		여자	(48)	22.9	20.8	12.5	12.5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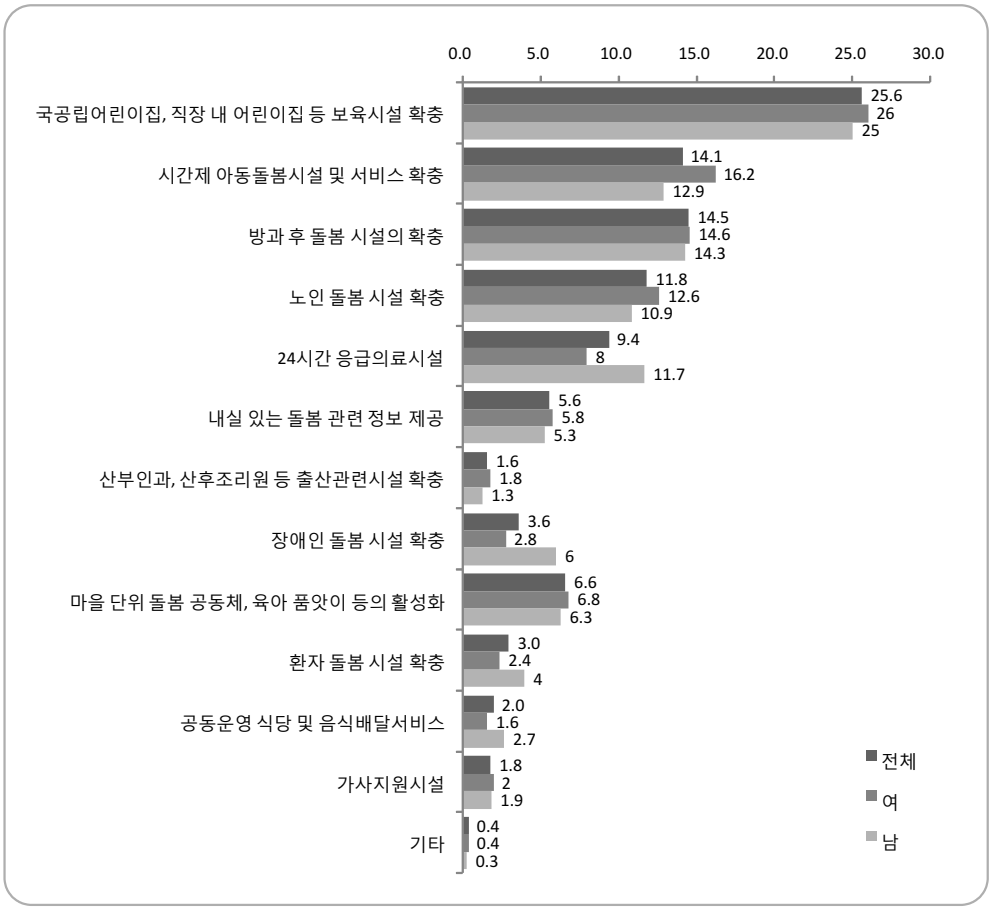


▌그림 Ⅳ-1▐ 성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필요사항(1순위+2순위 %)

□ 자녀 및 가족의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자녀나 가족의 돌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확충 14.5%, 시간제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충 14.1%, 노인 돌봄시설 확충 11.8% 등의 순으로 아동 돌봄 시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은 보육시설 확충 등 아동 돌봄 시설에 대한 요구에 이어 노인 돌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1.8%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 돌봄뿐 아니라 노인돌봄에 대한 지원요구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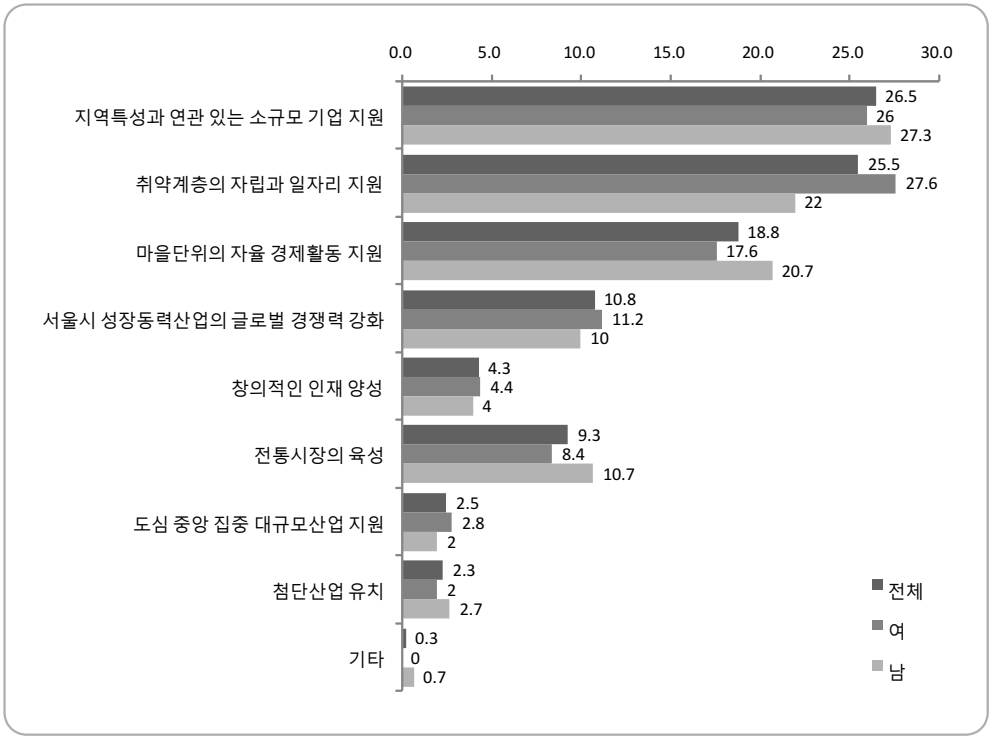


▌그림 Ⅳ-2▐ 성별 돌봄활동지원 필요사항(1순위 %)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일-가족양립, 일-삶의 통합을 위해 국외에서 성평등 도시계획요소로 항상 지적되는 사항임. 특히 다양한 돌봄 및 가사활동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이동동선이 확장되면서 일-가족, 일-삶의 통합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임

○ 지역경제 활성화(구 단위)를 위해 어떤 부문의 지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지역특성과 연관 있는 소규모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 23.5%, 마을단위의 자율경제활동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첨단산업, 대규모산업, 서울시 성장동력산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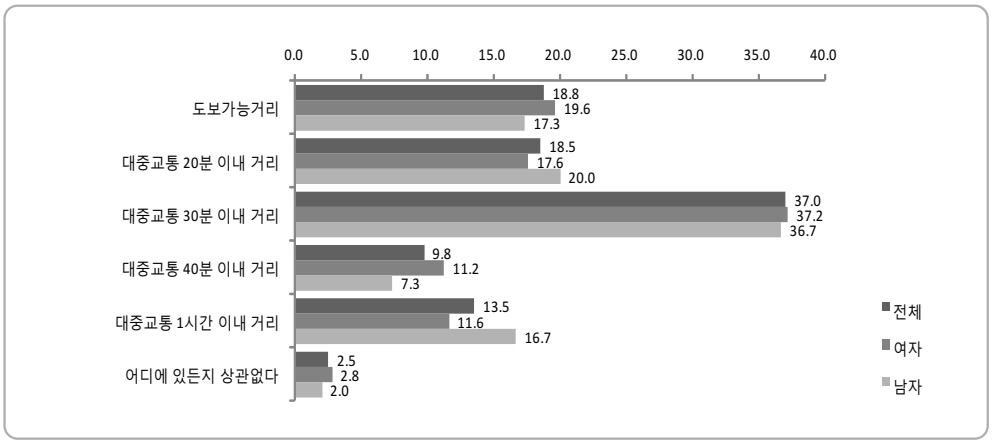
▌그림 Ⅳ-3▐ 성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1순위 %)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특성과 연관 있는 소규모 기업 지원 24.8%, 마을단위의 자율경제활동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적은 차이이긴 하지만 남성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대규모산업, 서울시 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직장의 위치

○ 희망하는 직장의 위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의 의견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보 가능거리 18.8%, 대중교통 20분 이내 거리 18.5%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의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도보로 가능거리 19.6%,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과 유사한 순으로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이는 가족돌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성이 주거지 근거리에서 직장을 가지는 비율이 높고, 출퇴근을 위한 이동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직장위치에 대한 희망임



▌그림 Ⅳ-4▐ 성별 희망하는 직장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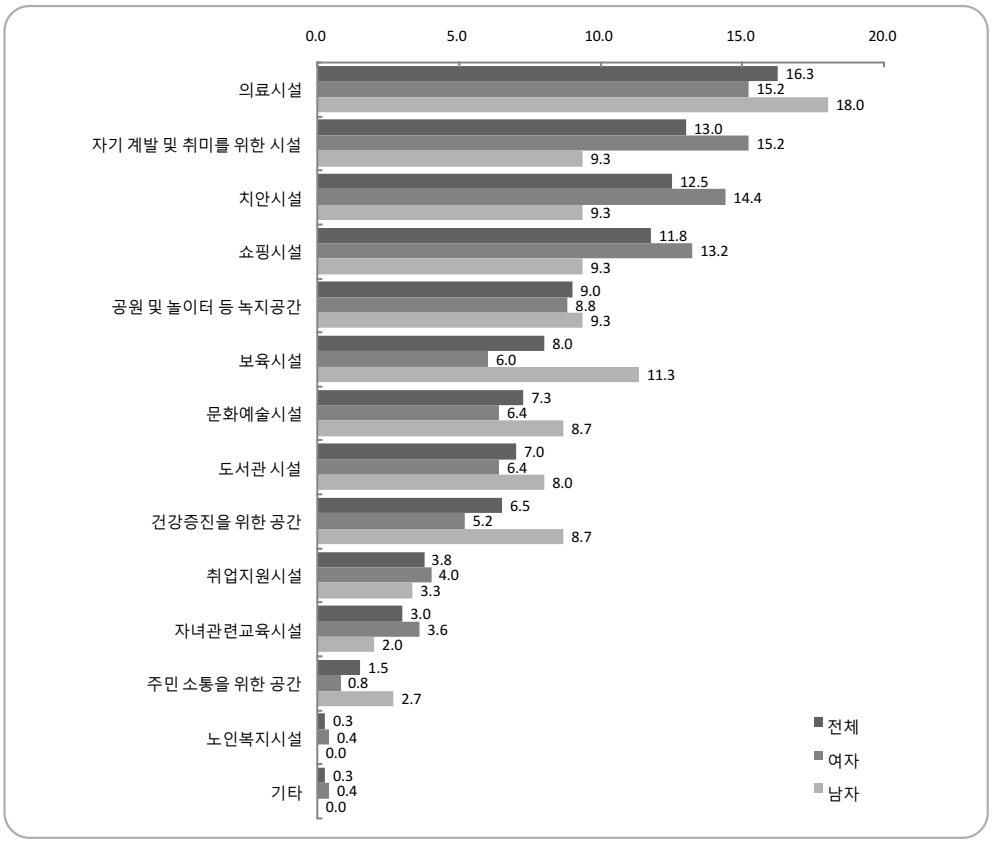
○ 이는 근린에서 일생활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시설을 배치하는 작업이 여성만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며,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함. 또한 적절한 보수와 노동조건이 갖추어진 일자리가 있다면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와의 거리에 대한 고려는 남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2. 열린 커뮤니티

□ **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공간**

○ 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공간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1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기 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 13.0%, 치안시설 12.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의료시설, 자기 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15.2%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치안시설 14.4%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자기 계발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와 안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의료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어 여성과 차이를 보임. 이는 남성들이 주거지역의 단위를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근린지역에서 응급서비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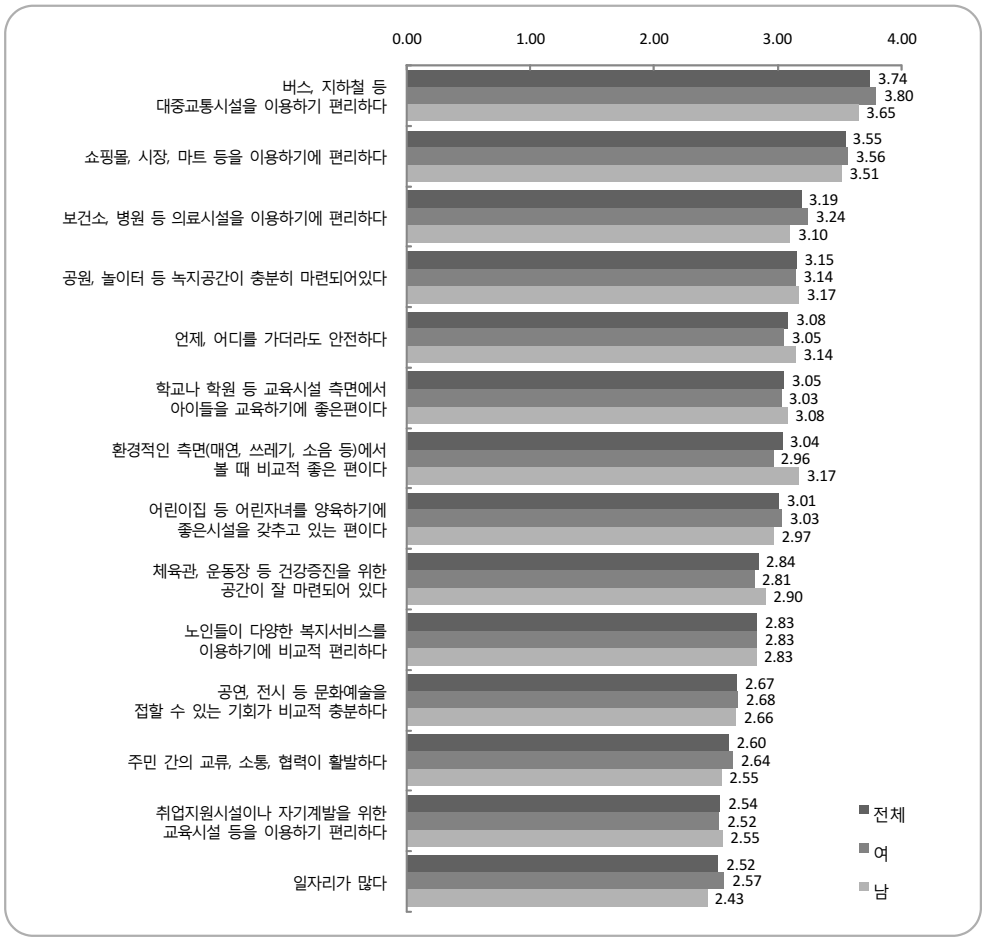
▌그림 Ⅳ-5▐ 성별 지역에 우선 필요 시설/공간(1순위 %)

□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평가가 5점 만점에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몰, 시장. 마트 등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3.5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임

○ 주거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3점(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일자리가 많다 2.52점, 취업지원시설이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2.54점, 주민 간의 교류·소통·협력이 원활하다 2.57점,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67점, 노인돌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2.83점, 체육관·운동장 등 건강증진을 위

한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다 2.84점 등인 것으로 나타남. 결국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취업지원시설, 주민소통공간, 노인복지서비스 공간, 건강증진 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Ⅳ-6▐ 성별 주거지역 생활환경 만족도(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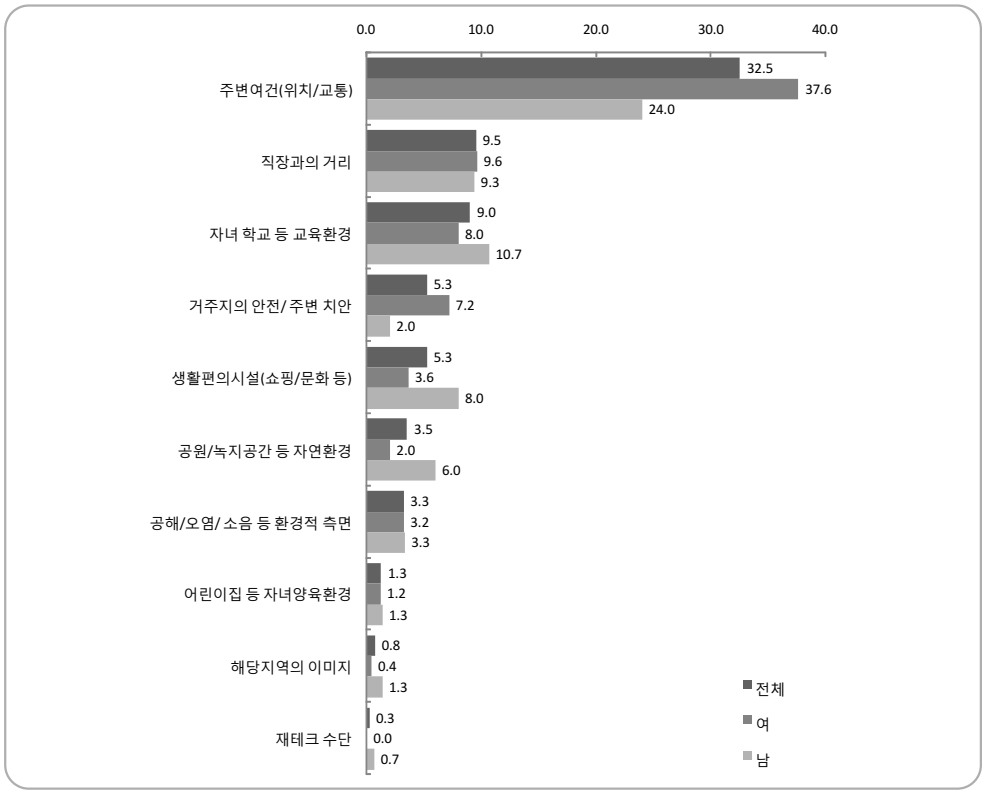
□ 거주지 선택 요인

○ 거주지를 선택할 때 전체적으로 주변여건(위치, 교통 등)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건 29.5%, 직장과의 거리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변여건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 (37.6%)이 많

았던 반면, 남성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거주지 선택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거주지 선택 시 안전 및 치안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생활편의시설이나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자 50대와 여자 60대에서는 주변여건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각각 50.0%, 41.7%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자 20대와 남자 30대에서는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각각 50.0%, 48.0%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옴. 한편 여자 30대에서는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20.4%로, 남자 40대에서는 자녀 학교 등 교육환경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35.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Ⅳ-7▐ 성별 거주지 선택 요인(1순위 %)

▌표 Ⅳ-7▐ 성별 연령별 거주지 선택 요인(1순위 상위 5개 %)

구분			사례수 (명)	주변여건	경제적 여건	직장과의 거리	자녀 학교 등 교육환경	거주지의 안전/주변 치안
전체			(400)	32.5	29.5	9.5	9.0	5.3
연령별	20대	남자	(34)	26.5	50.0	11.8	0.0	0.0
		여자	(51)	39.2	31.4	13.7	0.0	13.7
	30대	남자	(25)	8.0	48.0	16.0	4.0	8.0
		여자	(54)	29.6	33.3	20.4	3.7	5.6
	40대	남자	(34)	20.6	20.6	2.9	35.3	0.0
		여자	(51)	29.4	23.5	3.9	27.5	7.8
	50대	남자	(29)	27.6	31.0	13.8	10.3	0.0
		여자	(46)	50.0	26.1	6.5	4.3	4.3
	60대	남자	(28)	35.7	17.9	3.6	0.0	3.6
		여자	(48)	41.7	20.8	2.1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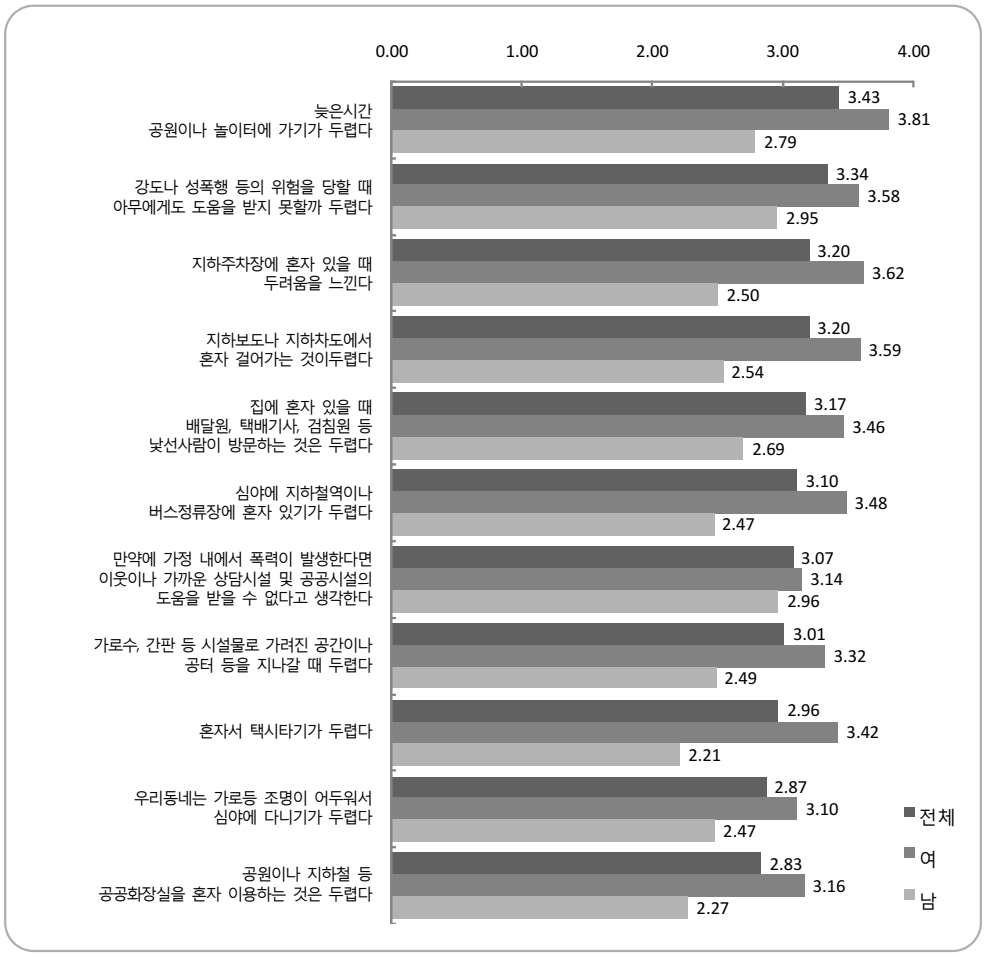
3. 생활안전

□ 전반적인 안전의식 평가

○ 전반적인 안전의식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늦은 시간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기가 두렵다는 것에 대한 공감점수가 5점 만점에 3.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늦은 시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를 혼자 걸어가는 것은 두렵다 3.38점,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험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3.34점, 지하주차장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3.20점, 지하보도나 지하차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두렵다 3.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은 늦은 시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를 혼자 걸어가는 것이 두렵다 3.82점, 늦은 시간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기가 두렵다 3.81점, 지하주차장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3.62점, 지하보도나 지하차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두렵다 3.59점,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험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3.58점, 심야에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기가 두렵다 3.48점,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두렵다 3.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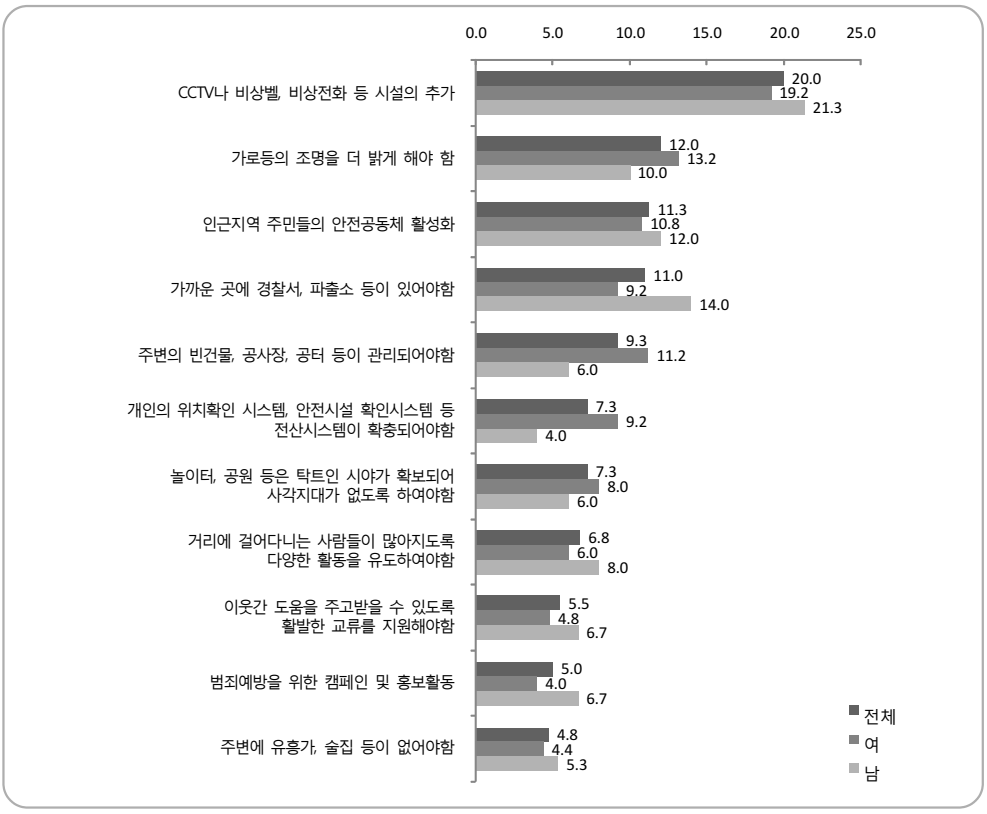


▌그림 Ⅳ-8▐ 성별 전반적인 안전의식 평가(5점 만점)

□ **안전한 공간 확보 방안**

○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CCTV나 비상벨, 비상전화 등 시설의 추가라는 의견이 2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로등의 조명을 더 밝게 해야 함 12.0%,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공동체 활성화 11.3%, 가까운 곳에 경찰서, 파출소 등이 있어야함 11.0%, 주변의 빈건물 공사장, 공터 등이 관리되어야 함 9.3%, 놀이터, 공원 등은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함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단지 CCTV, 비상벨, 가로등 등과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높다는 점임

○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별로 살펴보면, CCTV나 비상벨, 비상전화 등 시설의 추가라는 의견이 남자(21.3%)와 여자(19.2%)에서 모두 많이 나왔으며, 특히 여자는 주변의 빈 건물, 공사장, 공터 등의 관리(11.2%)와 놀이터나 공원 등의 탁 트인 시야확보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됨(8.0%)이 남자에 비해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남성과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간 및 범위가 다른 것으로, 여성은 여성범죄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기존 도시공간이 관리되는 것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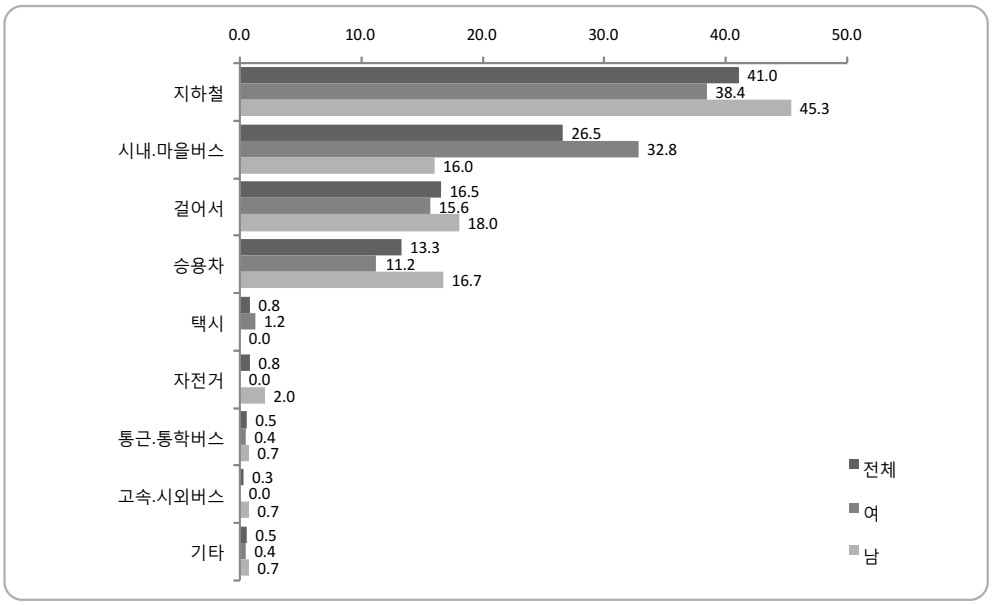
▌그림 Ⅳ-9▐ 성별 안전한 공간 확보 필요 사항(%)

4. 이동

□ 외출 시 주이용 교통수단

○ 외출 시 주이용 교통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내/마을버스 26.5%, 걸어서 16.5%, 승용차 13.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45.3%로 여성의 38.4%보다 높고,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비율도 16.7%로 여성의 11.2%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여성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32.8%로 남성의 16.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그림 Ⅳ-10▐ 성별 외출 시 주이용 교통수단(%)

○ 외출 시 주이용 교통수단을 성별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한 남성의 경우 지하철 46.7%, 승용차 21.0% 이용비율이 여성의 40.8%와 14.4%보다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32.8%로 남성의 17.1%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미취업자들의 경우 걸어서 외출하는 경우가 취업자들보다 남녀 모두 월등하게 높아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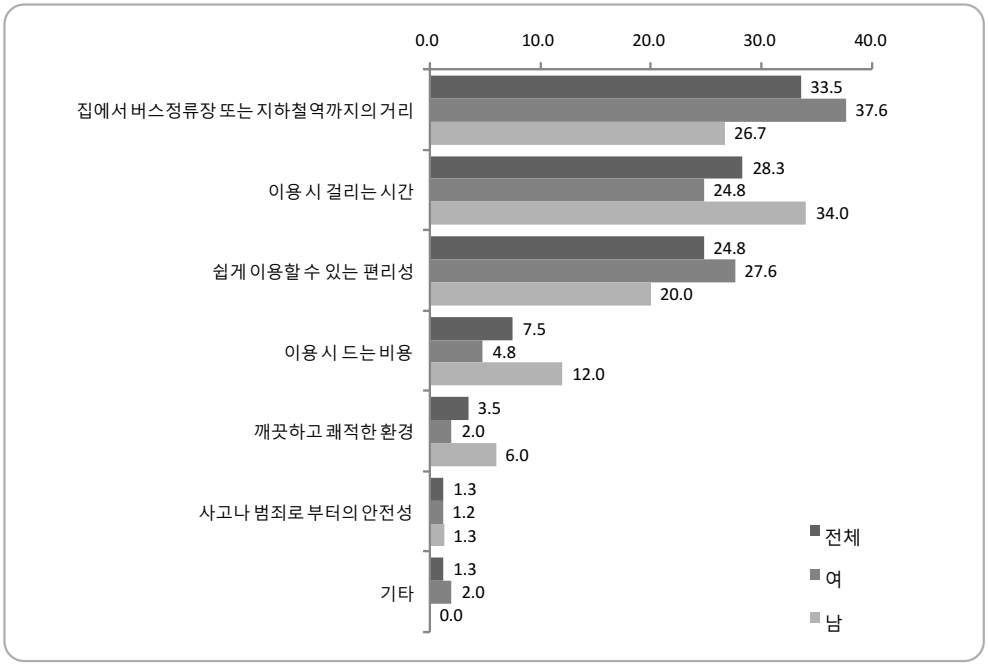
▌표 Ⅳ-8▐ 성별 취업상태별 외출 시 주이용 교통수단(%)

구분			사례수 (명)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걸어서	승용차	택시
전체			(400)	41.0	26.5	16.5	13.3	0.8
성별	남자		(150)	45.3	16.0	18.0	16.7	0.0
	여자		(250)	38.4	32.8	15.6	11.2	1.2
취업 상태별	취업		(230)	43.5	25.7	10.4	17.4	0.4
	미취업		(170)	37.6	27.6	24.7	7.6	1.2
성별 취업 상태별	취업	남자	(105)	46.7	17.1	11.4	21.0	0.0
		여자	(125)	40.8	32.8	9.6	14.4	0.8
	미취업	남자	(45)	42.2	13.3	33.3	6.7	0.0
		여자	(125)	36.0	32.8	21.6	8.0	1.6

□ **교통수단 선택 요인**

○ 교통수단 선택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인 경우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용 시 걸리는 시간 28.3%,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24.8%, 이용 시 드는 비용 7.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집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37.6%로 남성(26.7%)에 비해 10%p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남성은 이용 시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교통수단의 주 선택요인임에 반해 여성은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주 선택요인으로 나타남. 이것은 동반아동이나 쇼핑 등으로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 및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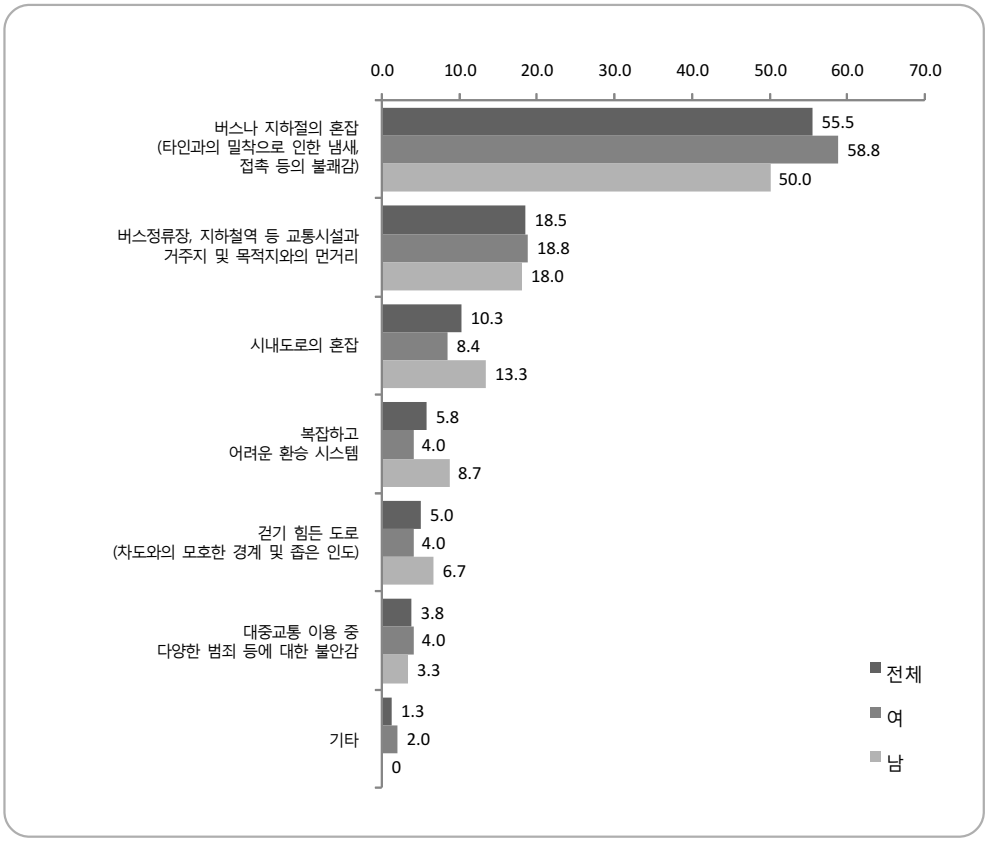


▌그림 Ⅳ-11▐ 성별 교통수단 선택 요인(%)

□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사항**

○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나 지하철의 혼잡함이 가장 불편하다는 의견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통 시설과 거주지 및 목적지와의 거리 18.5%, 시내도로의 혼잡 10.3%,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 시스템 5.8%, 걷기 힘든 도로 5.0%, 대중교통 이용 중 다양한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버스나 지하철이 혼잡하여 불편하다는 응답이 58.8%로 남성의 50.0%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은 시내도로가 혼잡하여 불편하다는 응답이 13.3%로 여성의 8.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성의 승용차이용률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됨



▌그림 Ⅳ-12▐ 성별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사항(1순위 %)

□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중 방문한 장소

○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중 한번이라도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장소는 쇼핑/장보기가 7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 65.5%, 문화시설 30.5%, 공원/놀이터 26.0%,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치료시설 22.36%, 세탁소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쇼핑/장보기가 80.4%로 남성(62.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탁소의 경우도 여성은 22%로 남성(11.3%)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은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들린 곳이 없다는 비율이 50.0%로 여성의 36.6%보다 높음

○ 반면 남성이 여성보다 지난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고, 외출을 하면서 들렀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공간은 체육시설 18.7%(여자 14.8%), 취미활동시설 21.3%(여자 14.4%)로 나타남

▌표 Ⅳ-9▐ 성별 시설별 방문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보육시설	자녀관련 학원	음식점	세탁소	쇼핑/ 장보기	환자 돌봄시설	본인 및 가족을 위한 치료시설
전체		(400)	25(6.3)	45(11.3)	262(65.5)	72(18.0)	295(73.8)	15(3.8)	89(22.3)
성별	남자	(150)	7(4.7)	11(7.3)	92(61.3)	17(11.3)	94(62.7)	3(2.0)	23(15.3)
	여자	(250)	18(7.2)	34(13.6)	170(68)	55(22)	201(80.4)	12(4.8)	66(26.4)
$\chi 2$ (sig)			1.03	3.68*	1.84	7.23**	15.23***	2.04	6.64*

* p<.05 ** p<.01 *** p<.001

▌표 Ⅳ-9▐ 성별 시설별 방문여부(계속)

구분		사례수 (명)	자기계발 및 취미	체육시설	도서관	취미활동 시설	공원/ 놀이터	문화시설	들른곳 없음
전체		(400)	65(16.3)	65(16.3)	61(15.3)	68(17.0)	104(26.0)	122(30.5)	164(41.0)
성별	남자	(150)	24(16.0)	28(18.7)	15(10.0)	32(21.3)	33(22.0)	37(24.7)	75(50.0)
	여자	(250)	41(16.4)	37(14.8)	46(18.4)	36(14.4)	71(28.4)	85(34.0)	89(35.6)
$\chi 2$ (sig)			0.11	1.03	5.12*	3.12	1.99	3.85*	8.04**

** p<.01

▌표 Ⅳ-10▐ 성별 방문시설 수(곳)

구분		사례수 (명)	출근, 등교, 외출 시 방문 시설수(A)	퇴근, 하교, 귀가 시 방문 시설수(B)	평균 방문 시설수 ((A+B)/2)
전체		(400)	(400)	1.85	2.23
성별	남자	(150)	(150)	1.31	2.02
	여자	(250)	(250)	2.17	2.35
	t-값(sig)		-4.327*** (.000)	-1.710(n.a)	-3.948*** (.000)

*** p<.001

□ 전체응답자의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한번이라도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

○ 지난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한번이라도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쇼핑 및 장보기가 2.02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1.86회, 공원/놀이터 0.7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0.5회), 자녀관련학원(0.43회) 등의 자녀 양육을 위한 시설에 남성(0.17회, 0.19회)보다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는 체육시설, 음식점, 취미관련 등의 장소에 여성보다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쇼핑 및 장보기와 세탁소 등의 가사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여성이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가사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 방문장소의 횟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표 Ⅳ-11▐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전체)

구분	남성	여성	전체	t-값(sig)
보육시설	0.17	0.50	0.37	-2.19*
자녀관련학원	.019	0.43	0.34	-2.08*
음식점	1.91	1.84	1.86	.34
세탁소	0.14	0.33	0.26	-3.24**
쇼핑/장보기	1.28	2.47	2.02	-6.81***
노인,장애인,환자돌봄시설	0.02	0.10	0.07	-2.19*
본인 및 가족 치료	0.23	0.53	0.42	-3.34**
자기계발 및 취업	0.36	0.50	0.45	-1.15
체육시설	0.60	0.52	0.55	.54

구분	남성	여성	전체	t-값(sig)
도서관	0.29	0.35	0.33	-.57
취미관련시설	0.44	0.35	0.38	.87
공원	0.63	0.75	0.70	-.82
문화시설	0.39	0.49	0.45	-1.23

*p<.05 **p<.01 ***p<.001

□ 시설에 방문했다고 응답한 시민들의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

○ 각각의 장소에 대해 한번이라도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시민들의 지난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를 보면, 보육시설 6회, 자녀관련 학원 3.04회, 음식점 2.84회, 쇼핑 및 장보기가 2.74회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6.94회), 자녀관련학원(3.18회) 등의 자녀 양육을 위한 시설과 쇼핑 및 장보기(3.06회) 등 가사를 위한 시설에 방문하는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많이 방문한 장소가 음식점 3.10회, 체육시설 3.21회, 도서관 2.87회, 공원 2.84회, 문화시설 1.56회 등으로 나타나 개인활동과 관련된 시설에 방문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표 Ⅳ-12▐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 방문한 장소별 방문 횟수(방문한 사람의 평균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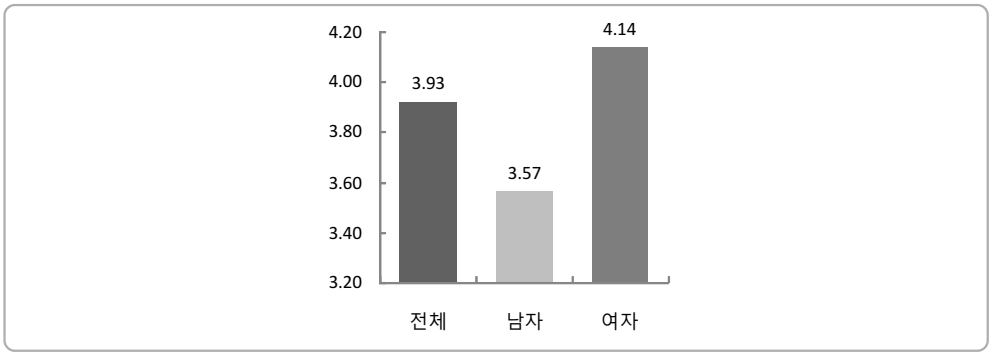
구분	남성	여성	전체	t-값(sig)
보육시설	3.57회	6.94회	6회	-2.32*
자녀관련학원	2.64회	3.18회	3.04회	.82
음식점	3.10회	2.70회	2.84회	1.80
세탁소	1.29회	1.51회	1.46회	-1.46
쇼핑/장보기	2.04회	3.06회	2.74회	-5.61***
노인,장애인,환자돌봄시설	1.0회	2.08회	1.87회	-2.49*
본인 및 가족 치료	1.52회	2.02회	1.89회	-1.87
자기계발 및 취업	2.25회	3.05회	2.75회	-1.80
체육시설	3.21회	3.49회	3.37회	-.51
도서관	2.87회	1.89회	2.13회	1.86
취미관련시설	2.06회	2.42회	2.25회	-1.02
공원	2.84회	2.63회	2.70회	.58
문화시설	1.56회	1.44회	1.48회	.51

*p<.05 **p<.01 ***p<.001

5. 다양성

□ 도시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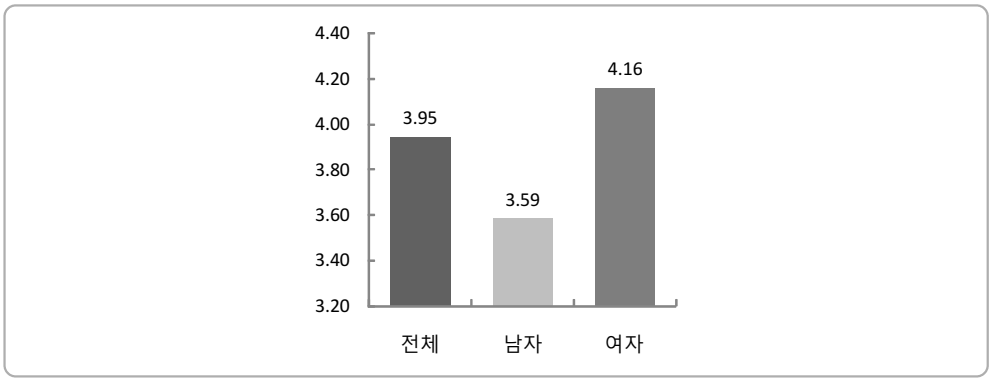
○ 도시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어느정도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3.93점이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4.14점으로 남성 3.57점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Ⅳ-13▐ 성별 도시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5점 척도)

□ 서울시 정책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

○ 서울시민에게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책운영과정에서 여성을 고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함. 이에 대해 여성은 4.16점으로 남성 3.59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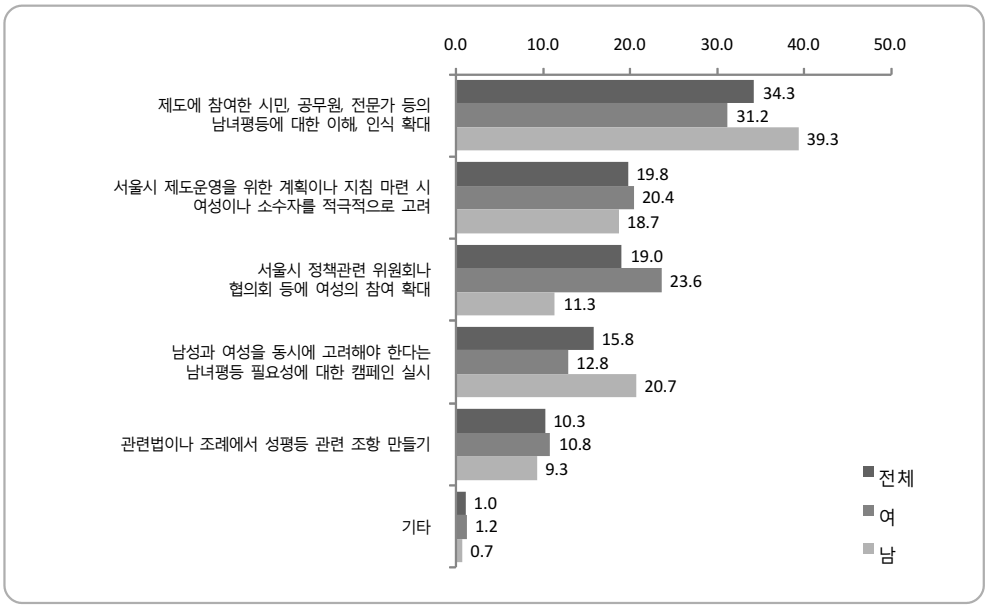
▌그림 Ⅳ-14▐ 성별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5점 척도)

6. 참여와 제도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참여 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의 남녀평등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도시공간 제도운영을 위한 계획이나 지침 마련 시 여성이나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이 19.8%,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함이 19.0%,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남녀평등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실시가 15.8%,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성평등 관련 조항 만들기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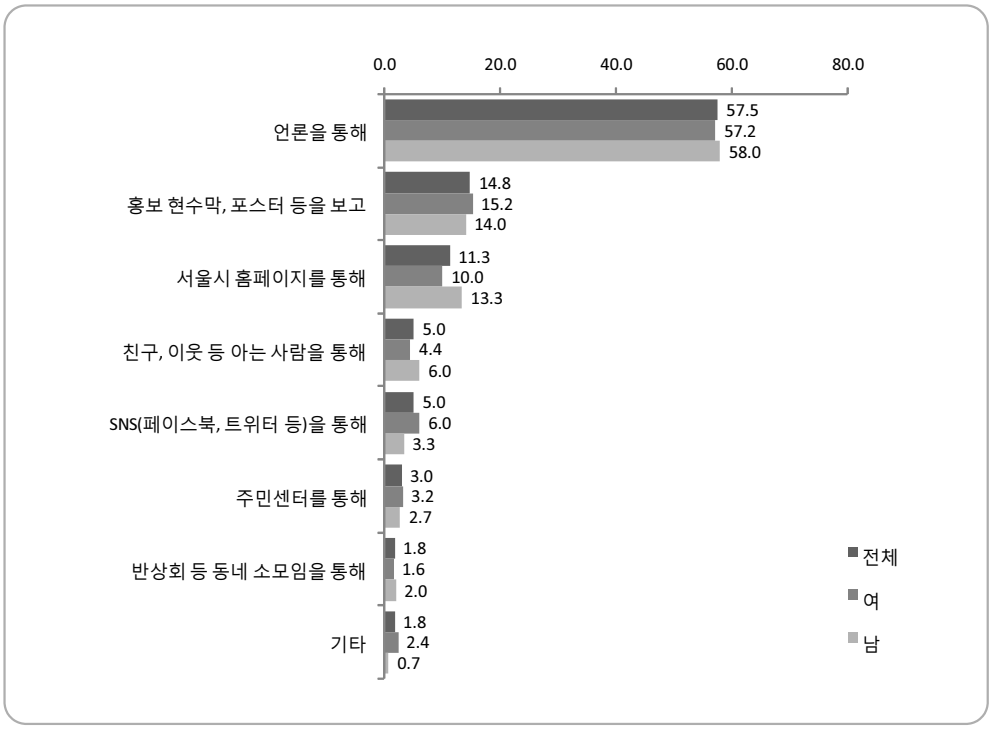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23.6%가 공감한 반면, 남성은 11.3%에 그쳐 항목 별 가장 큰 성별 의견 차이를 보임



▌그림 Ⅳ-15▐ 성별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에 양성 동시 고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정보획득 경로**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에 참여하기위해서는 정책관련 정보를 먼저 획득하여야 함. 이에 도시공간관련 정보(도시개발, 도시계획, 주거정비사업, 도로정비 등)를 어떻게 획득하고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질문함. 응답결과를 보면 언론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홍보 현수막, 포스터 등을 보고 14.8%,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11.3%,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을 통해 5.0%, SNS를 통해 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되고 있는 시정방향 및 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성별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음



▌그림 Ⅳ-16▐ 성별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정보 획득 경로(%)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정보 획득 경로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언론을 제외하고 남녀 20대에서는 SNS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SNS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젊은 층의 관심 유도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계층은 남자 4~50대로 쏠려있어, 시정 행사 및 시민참여 등을 위한 홍보를 시홈페이지에 주로 할 경우, 다양한 계층과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임을 보여줌

▌표 Ⅳ-13▐ 성별 연령별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정보 획득 경로(%)

구분			사례수 (명)	언론을 통해	홍보 현수막, 포스터 등을 보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을 통해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주민 센터를 통해	반상회 등 동네 소모임을 통해	기타
전체			(400)	57.5	14.8	11.3	5.0	5.0	3.0	1.8	1.8
연령별	20대	남자	(34)	61.8	14.7	2.9	8.8	11.8	0.0	0.0	0.0
		여자	(51)	49.0	23.5	3.9	2.0	15.7	0.0	0.0	5.9
	30대	남자	(25)	56.0	24.0	4.0	4.0	0.0	4.0	8.0	0.0
		여자	(54)	64.8	13.0	3.7	9.3	5.6	1.9	1.9	0.0
	40대	남자	(34)	50.0	11.8	26.5	5.9	0.0	2.9	0.0	2.9
		여자	(51)	64.7	9.8	13.7	3.9	0.0	2.0	2.0	3.9
	50대	남자	(29)	55.2	6.9	24.1	3.4	3.4	6.9	0.0	0.0
		여자	(46)	56.5	19.6	10.9	2.2	6.5	4.3	0.0	0.0
	60대	남자	(28)	67.9	14.3	7.1	7.1	0.0	0.0	3.6	0.0
		여자	(48)	50.0	10.4	18.8	4.2	2.1	8.3	4.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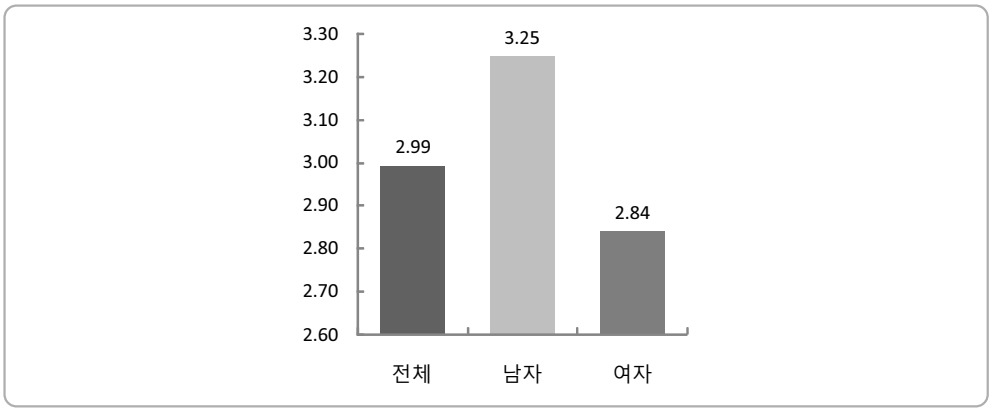
제3절 서울시 성평등 수준 및 도시생활 이슈

1.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1) 전반적 성평등 수준

□ **서울시 현재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평가**

○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점수는 5점 만점에 2.99점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84점으로 남성 3.25점보다 낮아 성평등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그림 Ⅳ-17▐ 성별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평가 (5점 만점)

○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점수와 앞에서 보았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 점수 및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음. 그 결과 현재 서울시가 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할수록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 및 서울시 정책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14▐ 성평등 수준과 정책운영과정에 여성고려 중요도와의 관계

(단위: 명, %)

	성평등 수준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	정책운영과정에 여성 고려의 중요도
성평등 수준	1		
여성의 경험과 요구 반영 중요도	-.190***	1	
정책운영과정에 여성 고려의 중요도	-.132**	.689***	1
M	2.99	3.93	2.93
SD	.88	.83	.87

** p<.01 *** p<.001

2) 서울시 부문별[36] 현재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와 203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예측

□ **자립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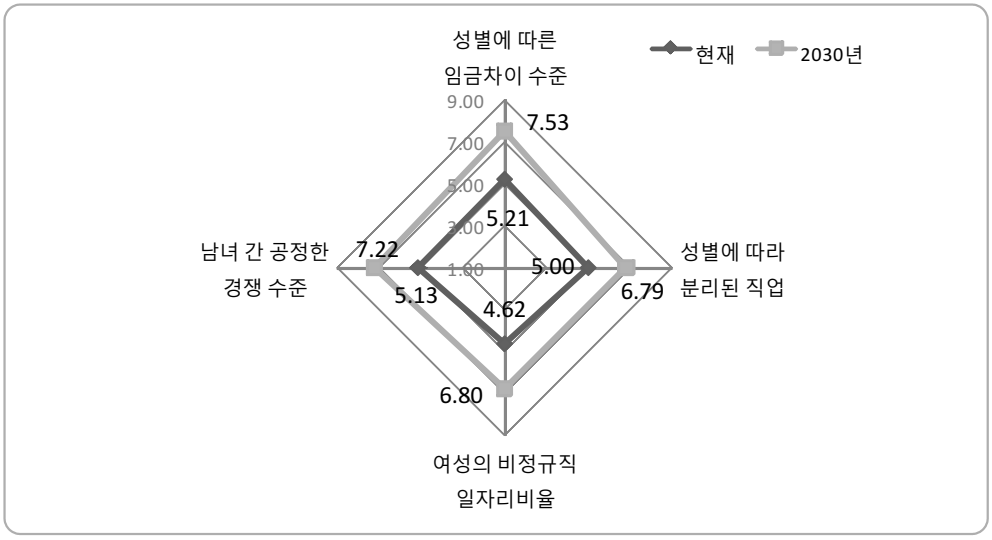
○ 자립부문에서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와 203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예측은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수준,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직업, 여성의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 남녀 간 공정한 경쟁 수준 등에 대한 10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함

○ 그 결과 먼저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해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수준이 10점 만점에 5.21점으로 가장 높아 성별 격차가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녀 간 공정한 경쟁 수준 5.13점,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직업 5.00점, 여성의 비정규직 일자리비율 4.62점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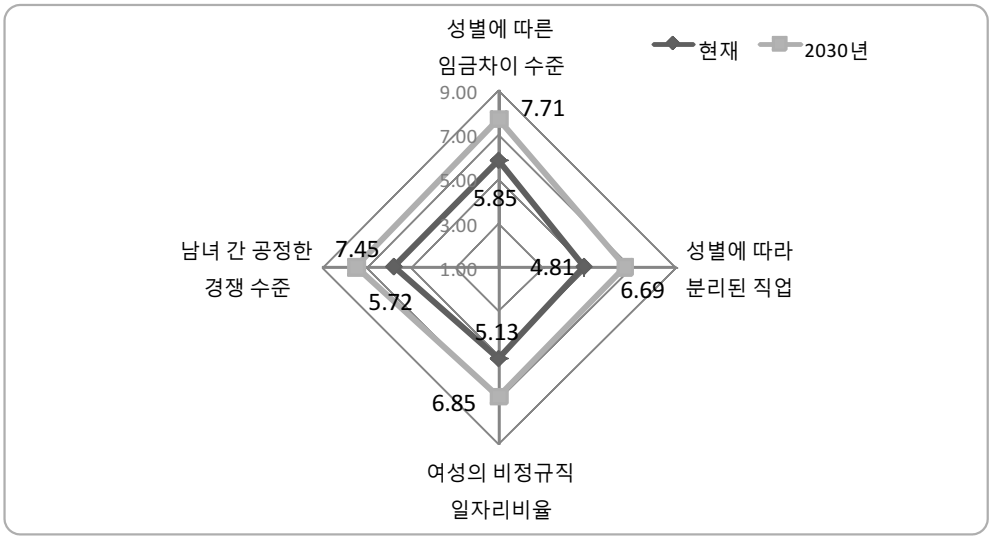
○ 성별로 나누어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 남녀 간 임금의 격차 부문(남자 5.82점, 여자

36)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부문은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의 성평등 전략 '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에 나타난 성평등 영역과 과제(경제적 자립, 노동시장, 정책참여, 폭력, 대외정책 등), 유럽연합의 '2010년 이후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견해'에 나타난 성평등 영역과 과제(계속되는 과제: 경제적 자립, 일-생활 조화, 동등한 의사결정, 성폭력과 인신매매, 교육의 성평등, 도전과제: 환경과 지속가능성, 재정위기, 다문화와 통합, 건강증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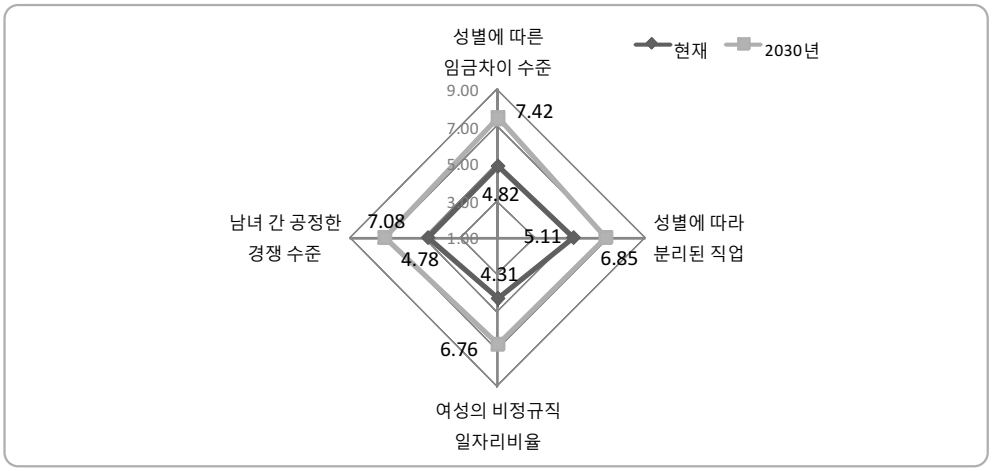
4.82점)으로, 남성은 성별 임금에 격차가 없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여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여성이 가장 성평등하지 않다고 평가한 부문은 비정규직 일자리비율(4.31점)로 이는 여성 노동자의 46.3%가 비정규직인 현실(한국노동연구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림 Ⅳ-18▐ 자립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그림 Ⅳ-19▐ 자립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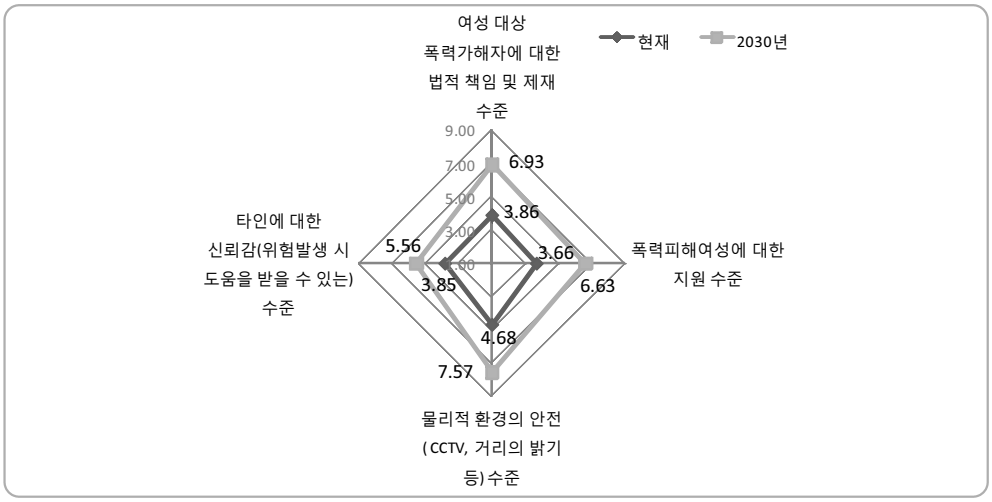
▌그림 Ⅳ-20▐ 자립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 안전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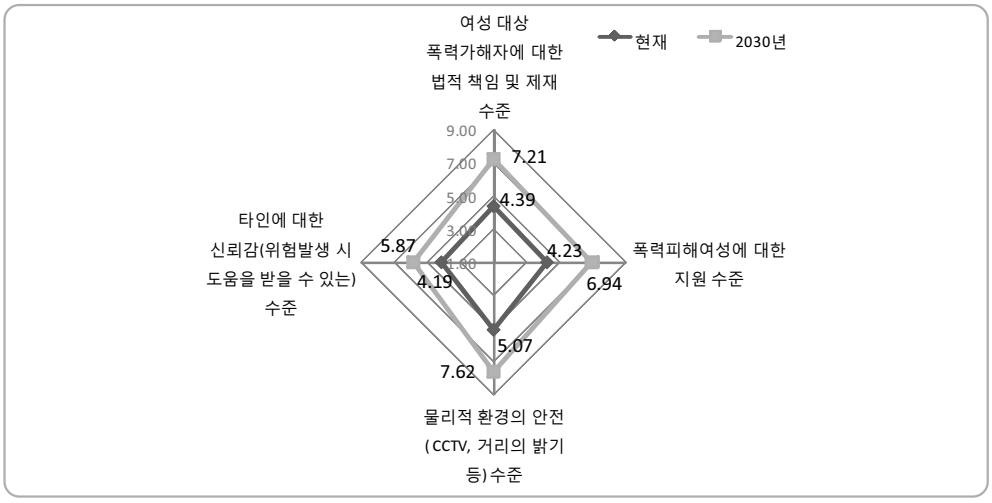
○ 안전부문에서 현재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그결과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안전 (CCTV, 거리의 밝기 등) 수준이 10점 만점에 4.6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 대상 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 수준 3.86점, 타인에 대한 신뢰감(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 3.85점,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 3.66점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5점미만의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특히 여성은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3.32점), 여성대상 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수준(3.54)에 대해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 안전부문의 203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예측에서도 전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의 안전(CCTV, 거리의 밝기 등)수준이 10점 만점에 7.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 대상 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 수준 6.93점,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 6.63점, 타인에 대한 신뢰감(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수준 5.56점 순으로 나타나, 현재보다 2030년에 성평등 상황이 10점 만점에 약 3점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예측했음. 그러나 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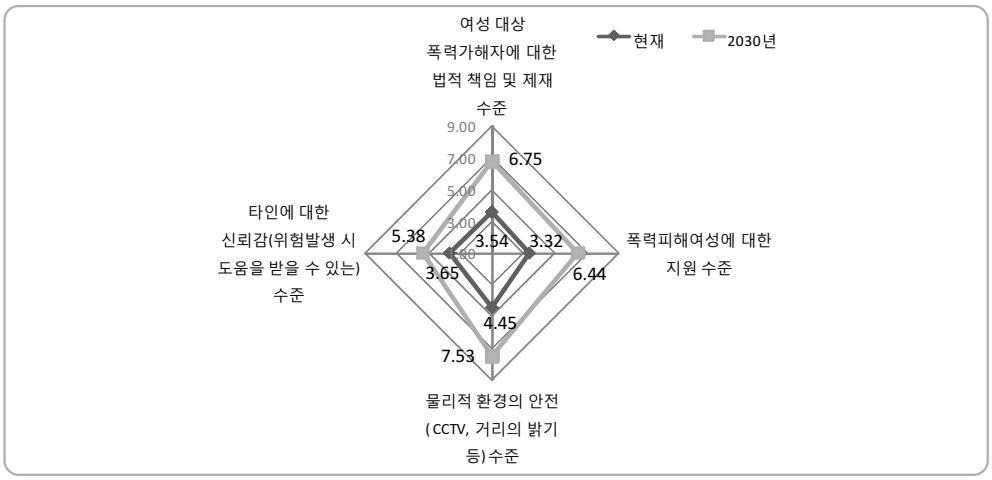
에 대한 신뢰감(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2점미만 개선될 것으로 예측함으로써 안전부문에서 개선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안전부문에서 물리적인 안전성뿐 아니라 타인과의 신뢰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신뢰감 및 친밀도를 향상시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음



▌그림 Ⅳ-21▐ 안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그림 Ⅳ-22▐ 안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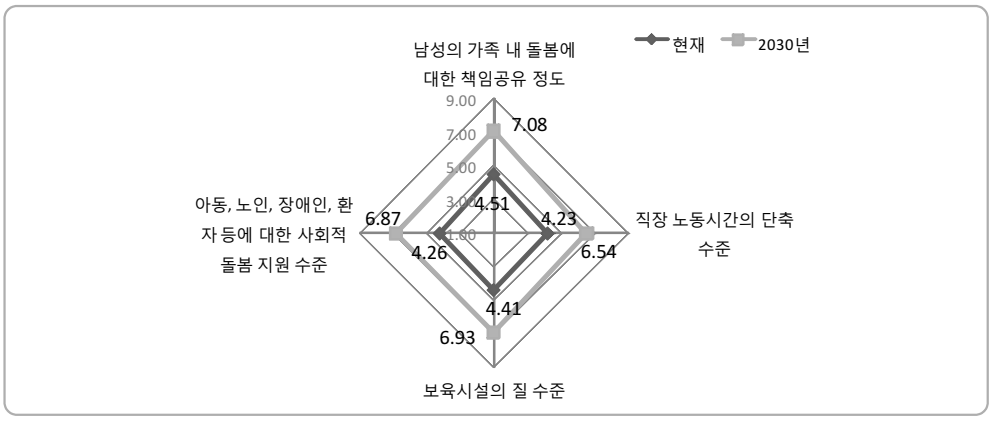


▌그림 Ⅳ-23▐ 안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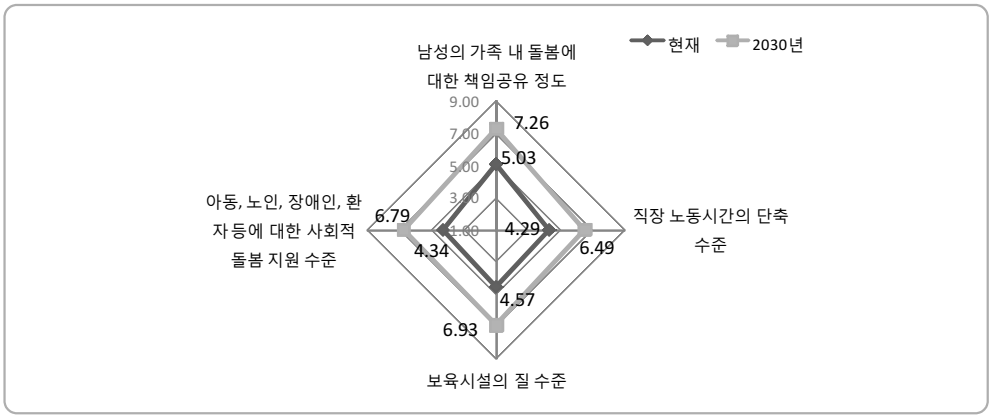
□ 돌봄 부문

○ 돌봄부문에서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책임공유 정도가 10점 만점에 4.5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4.41점,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원 수준 4.26점, 직장 노동시간의 단축 수준 4.23점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남성의 경우는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책임공유 정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5점미만의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음. 남성과 여성은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책임공유 정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돌봄의 책임정도를 남녀가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어린 자녀의 주 양육기인 30대 여성은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책임공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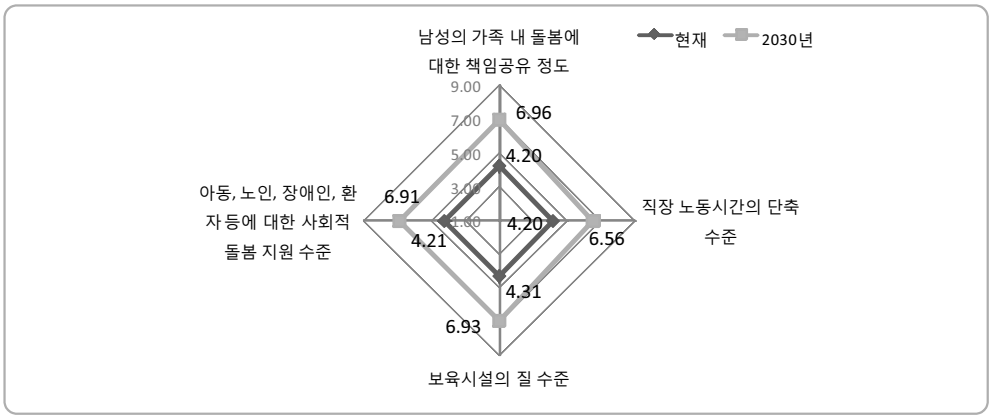
○ 돌봄부문의 203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예측에서도 전체적으로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책임공유 정도가 10점 만점에 7.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또한 2030년에는 남성의 가족 내 책임공유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긍정적인 예측을 보여줌. 또한 소통 및 다양성부문이나 참여 부문보다 돌봄부문이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그림 Ⅳ-24▐ 돌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그림 Ⅳ-25▐ 돌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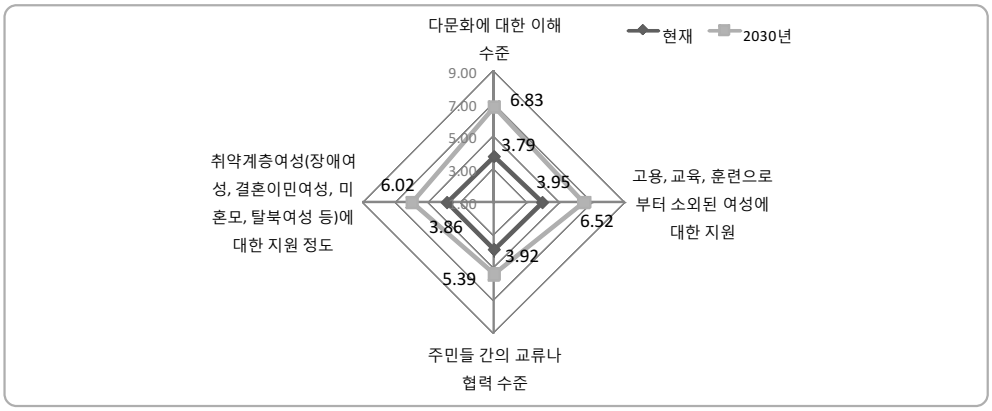


▌그림 Ⅳ-26▐ 돌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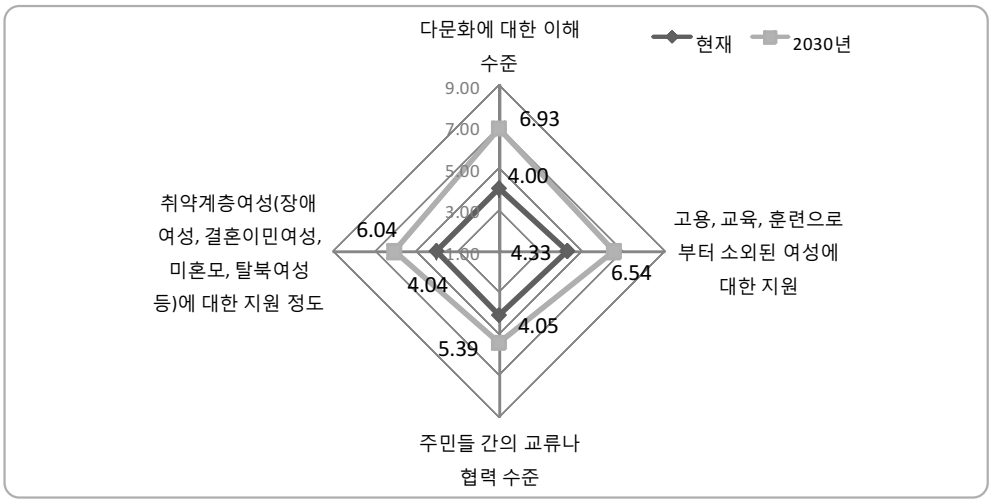
□ **소통 및 다양성부문**

○ 소통 및 다양성부문의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이 10점 만점에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 수준 3.92점,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지원 정도 3.86점,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3.79점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모든 항목에서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4점 내외로 낮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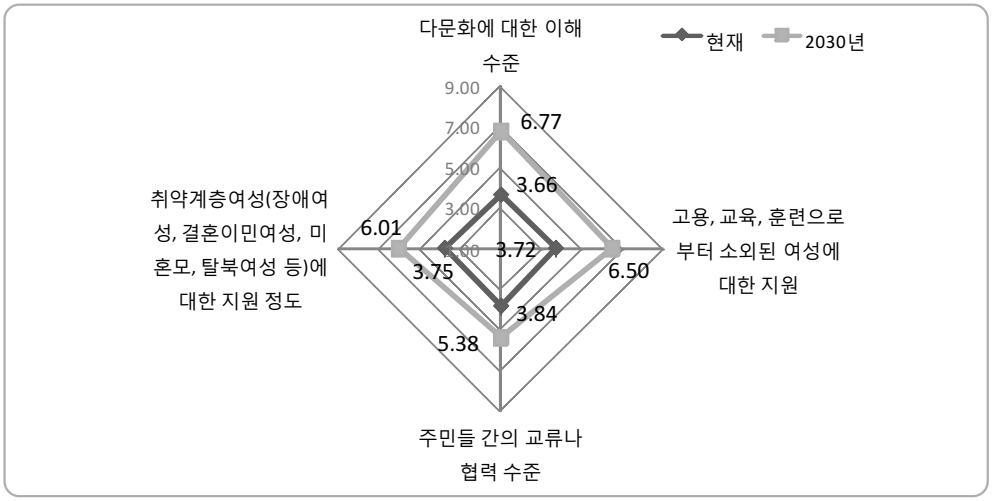
○ 소통 및 다양성부문의 203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예측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이 10점 만점에 6.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용, 교육,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 6.52점,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지원 정도 6.02점,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 수준 5.39점 순으로 나타나, 현재보다 2030년에 성평등 상황이 10점 만점에 약 2~3점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은 약 3점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 수준은 약 1.4점 가량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음.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및 제도의 마련 등을 통해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음. 성별 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고용, 교육,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 부문으로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여성을 위한 지원에 성별 차이가 나타남



▌그림 Ⅳ-27▐ 소통 및 다양성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그림 Ⅳ-28▐ 소통 및 다양성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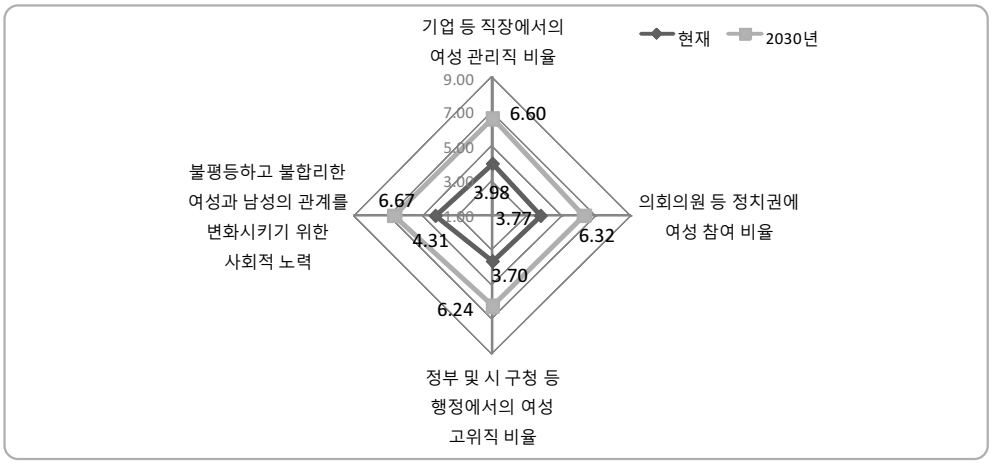


▌그림 Ⅳ-29▐ 소통 및 다양성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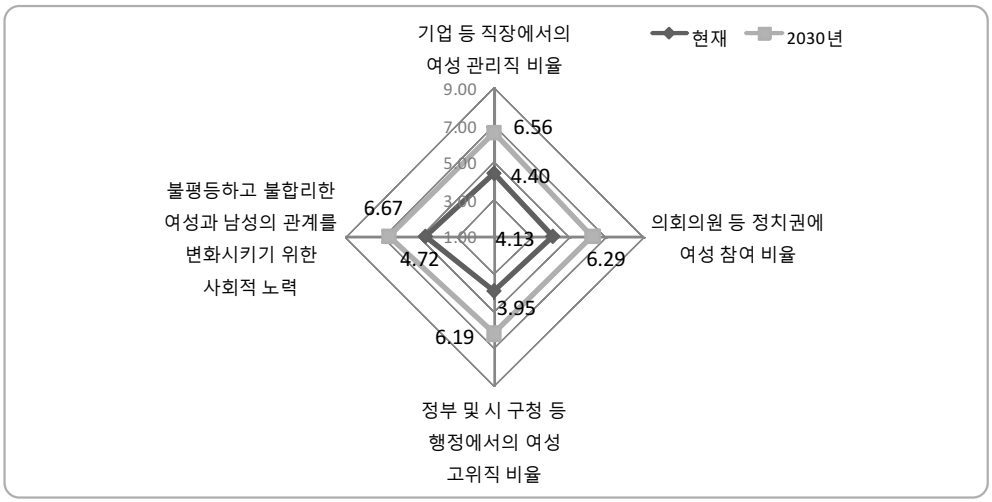
□ **참여 부문**

○ 참여 및 제도부문에서 현재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정부 및 시구청 등 행정에서의 여성고위직 비율(3.70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음. 그 다음으로는 의회의원 등 정치권에 여성참여비율 3.77점, 기업 등 직장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에 대한 평가가 3.98점,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4.31점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5점 이하로 성평등 달성정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또한 여성은 모든 항목에 대해 3점대로 현재 참여 및 제도 부문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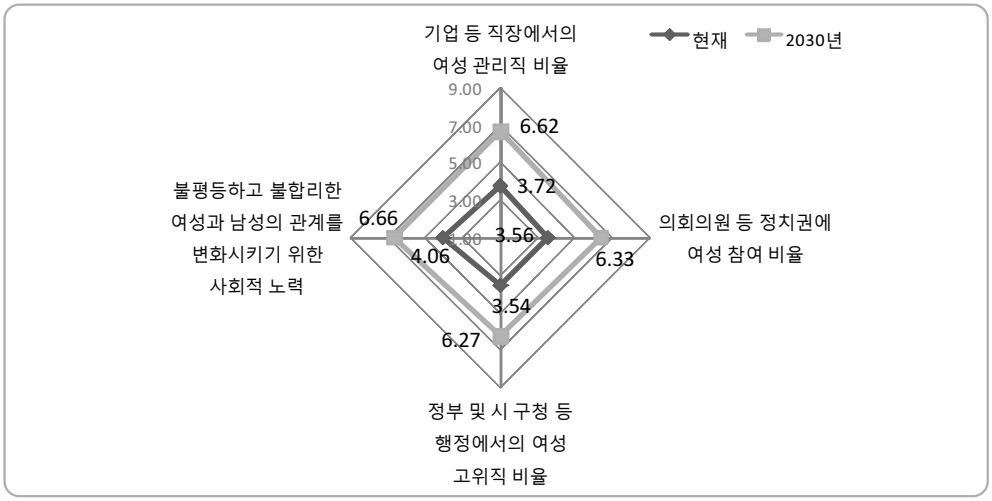
○ 참여 및 제도부문의 2030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10점 만점에 6.67점으로 가장 좋아질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 등 직장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 6.60점, 의회의원 등 정치권에 여성 참여 비율 6.32점, 정부 및 시 구청 등 행정에서의 여성 고위직 비율 6.24점 순으로 나타나, 현재보다 2030년에 성평등 상황이 10점 만점에 약 2점 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 살펴보면, 의회의원 등 정치권에 여성 참여 비율과 정부 및 시 구청 등 행정에서의 여성 고위직 비율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예측했음



▌그림 Ⅳ-30▐ 참여 및 제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전체



▌그림 Ⅳ-31▐ 참여 및 제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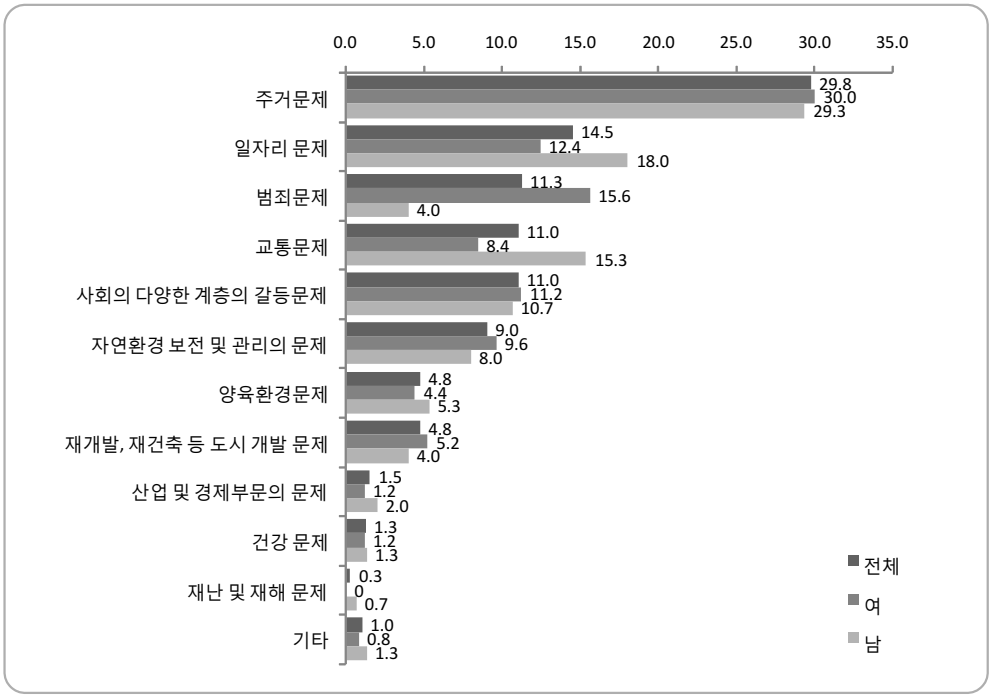
▌그림 Ⅳ-32▐ 참여 및 제도부문 서울의 현재와 2030년의 성평등 평가/예측(10점 만점) : 여자

2. 서울시 도시생활 이슈

1) 전반적 도시생활 이슈

□ 서울시의 가장 큰 도시 문제

○ 서울시의 가장 큰 도시 문제는 전체적으로 주거문제라는 의견이 2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 15.1%,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갈등문제 13.4%, 범죄문제 12.9%, 교통문제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역시 전체 결과와 같이 주거문제라는 의견이 19.2%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범죄문제 16.4%, 일자리 문제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교통문제 15.3%, 일자리 문제14.7%)에 비해 치안관련 범죄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남녀 모두 주거문제를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로 선택한 것은 도시생활에서 주거환경의 불안정과 이슈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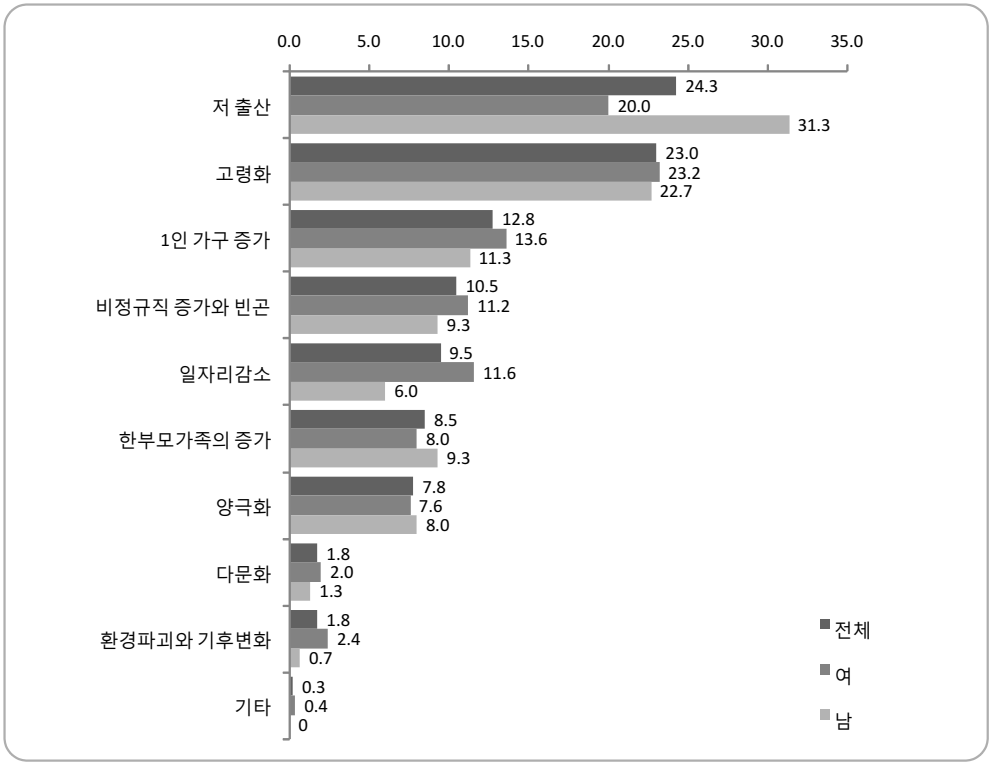


▌그림 Ⅳ-33▐ 성별 서울시의 가장 큰 도시 문제(1+2순위, %,)

□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

○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로는 전체적으로 저 출산이라는 의견이 2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령화 23.0%, 1인 가구 증가 12.8%, 비정규직 증가와 빈곤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고령화라는 의견이 2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 출산 20.0%, 1인 가구 증가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저 출산이라는 의견이 31.3%로 단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령화 22.7%, 1인 가구 증가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여성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1.6%로 나타나(남자 6.0%), 사회적 일자리 감소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성의 관심을 보여줌



▌그림 Ⅳ-34▐ 성별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 (1순위 %)

○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현상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20대와 40대에서 저 출산이라는 의견이 각각 52.9%, 38.2%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자 60대, 여자 50대와 60대에서는 고령화라는 의견이 각각 39.3%, 34.8%, 37.5%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여자 20대에서는 1인 가구 증가라는 의견이 25.5%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자 50대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와 빈곤이라는 의견이 17.2%로, 여자 30대에서는 일자리 감소라는 의견이 14.8%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Ⅳ-15▐ 성별 연령별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현상(1순위 상위 5개 %)

구분			사례수(명)	저 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비정규직 증가와 빈곤	일자리감소
전체			(400)	24.3	23.0	12.8	10.5	9.5
연령별	20대	남자	(150)	31.3	22.7	11.3	9.3	6.0
		여자	(250)	20.0	23.2	13.6	11.2	11.6
	30대	남자	(34)	52.9	17.6	8.8	2.9	2.9
		여자	(51)	27.5	11.8	25.5	15.7	9.8
	40대	남자	(25)	20.0	24.0	16.0	8.0	4.0
		여자	(54)	25.9	13.0	14.8	9.3	14.8
	50대	남자	(34)	38.2	11.8	17.6	11.8	11.8
		여자	(51)	19.6	21.6	5.9	13.7	9.8
	60대	남자	(29)	17.2	24.1	6.9	17.2	3.4
		여자	(46)	10.9	34.8	6.5	15.2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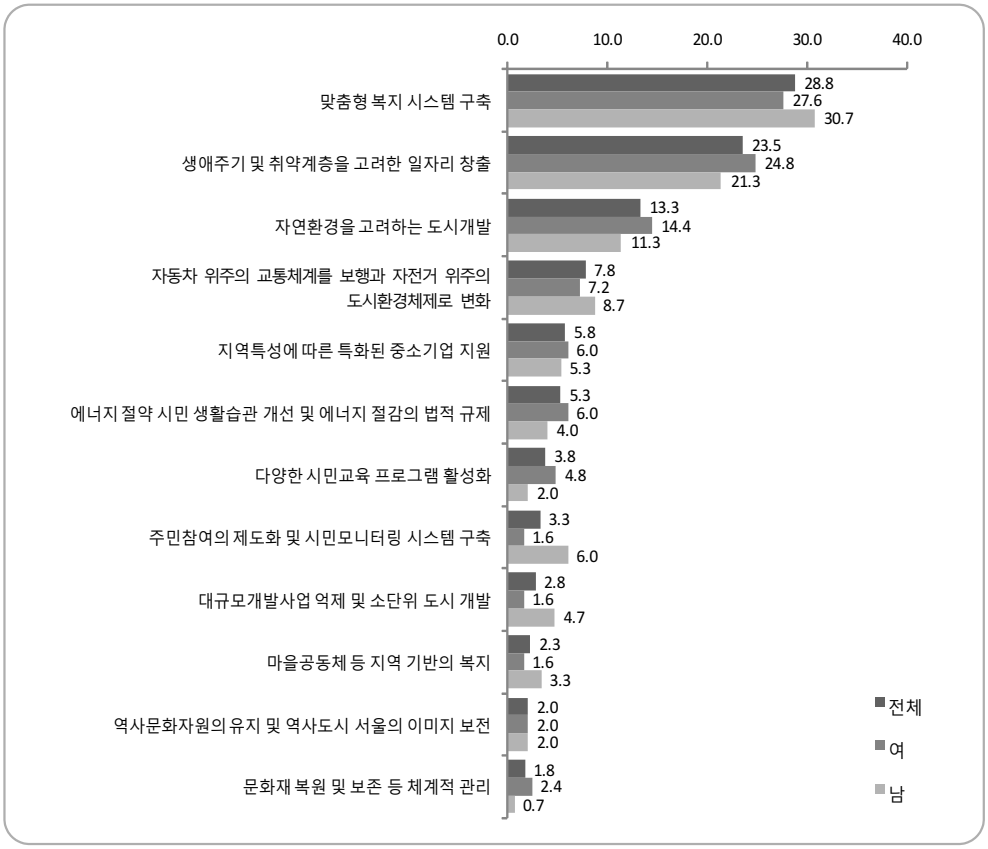
2) 서울시 부문별 도시생활 이슈

□ 시민제안 이슈

○ 서울시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이슈들에 대해 일반시민들에게 그 중요도에 대해 질문함. 이는 시민참여단이 고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슈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도시생활 이슈가 같은 경향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임

○ 그 결과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의견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생애주기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23.5%,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도시개발 13.3%, 자동차위주의 교통체계를 보행과 자전거 위주의 도시환경 체제로 변화 7.8%,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이슈 중'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시민참여단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였으나, 설문조사결과에서는 그 중요정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하지만 다른 이슈들의 중요 순서에 있어서는 같은 것으로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4.8%로 남성의 21.3%보다 약간 높고,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도시개발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14.4%로 남성의 11.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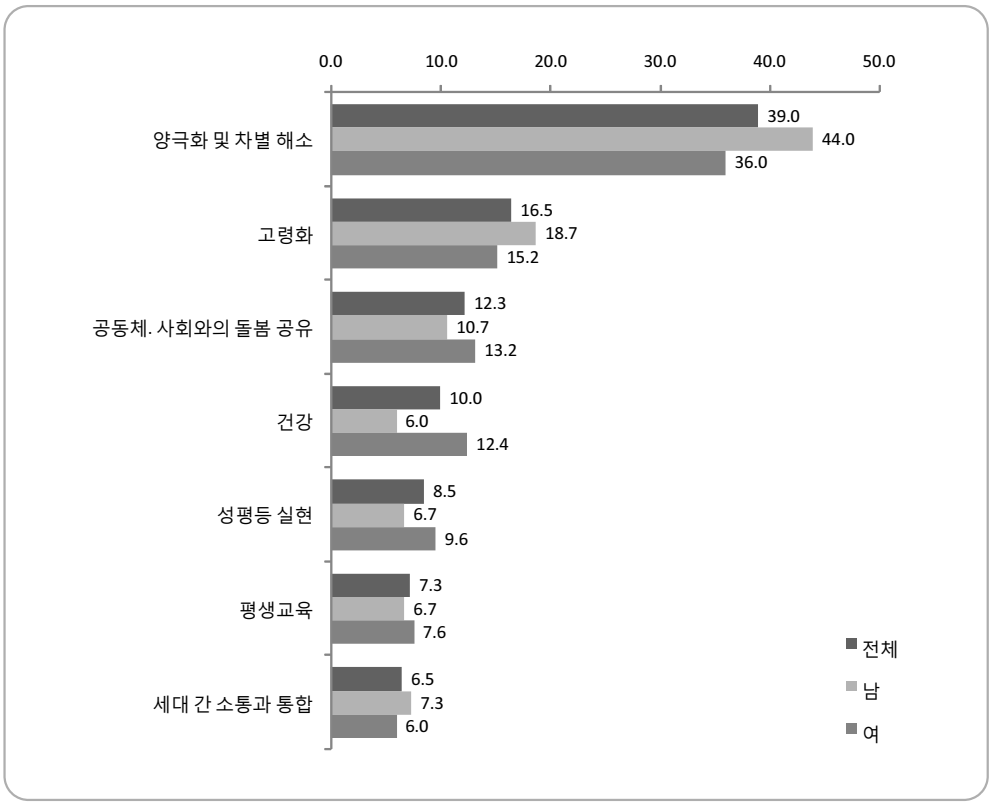


▌그림 Ⅳ-35▐ 성별 중요한 시민제안 이슈 (1순위 %)

□ **복지, 여성, 교육 분야 이슈**

○ 복지, 여성, 교육 분야에서 우선시할 이슈는 전체적으로 양극화 및 차별 해소라는 의견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령화 16.5%, 공동체, 사회와의 돌봄 공유 12.3%, 건강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슈는 양극화 및 차별해소의 경우 남성은 44.0%가 우선시할 이슈로 선택한 반면, 여성은 36.0%만이 선택하였고, 여성은 공동체·사회와의 돌봄공유 이슈를 13.2%, 건강이슈를 12.4%, 성평등 실현이슈를 9.6% 선택한 반면 남성은 각 이슈에 대해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10.7%, 6.0%,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36▐ 성별 복지, 여성, 교육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산업 및 일자리 분야 이슈**

○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우선시할 이슈는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의견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35.8%,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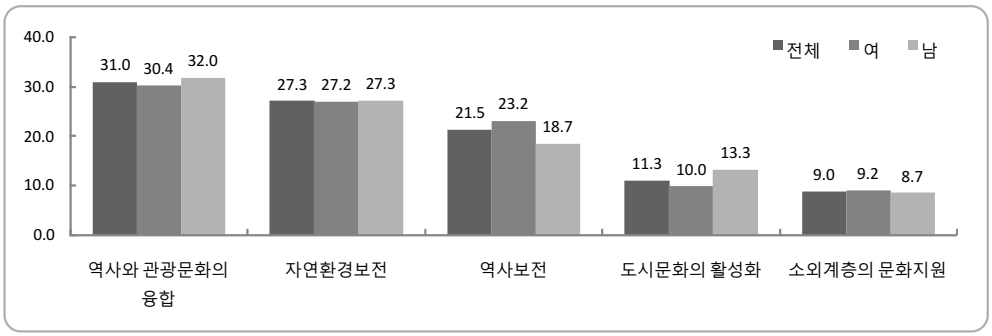
○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우선시할 이슈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20대와 여자 20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라는 의견이 각각 50.0%, 60.8%로, 남자 30대와 여자 50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라는 의견이 각각 44.0%, 45.7%로 상대적으로 많았음. 여자 30대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견이 27.8%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초기인 경우가 많은 30대에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음

▌표 Ⅳ-16▐ 성별 연령별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구분			사례수 (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글로벌 경제도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마을 단위 경제 활성화
전체			(400)	39.0	36.8	13.3	6.0	5.0
성별	남자		(150)	38.7	36.7	12.7	6.7	5.3
	여자		(250)	39.2	36.8	13.6	5.6	4.8
연령별	20대	남자	(34)	50.0	29.4	8.8	8.8	2.9
		여자	(51)	60.8	33.3	5.9	0.0	0.0
	30대	남자	(25)	40.0	44.0	16.0	0.0	0.0
		여자	(54)	27.8	35.2	27.8	5.6	3.7
	40대	남자	(34)	29.4	29.4	20.6	8.8	11.8
		여자	(51)	39.2	35.3	13.7	3.9	7.8
	50대	남자	(29)	48.3	41.4	6.9	0.0	3.4
		여자	(46)	34.8	45.7	13.0	4.3	2.2
	60대	남자	(28)	25.0	42.9	10.7	14.3	7.1
		여자	(48)	33.3	35.4	6.3	14.6	10.4

□ 역사, 문화 분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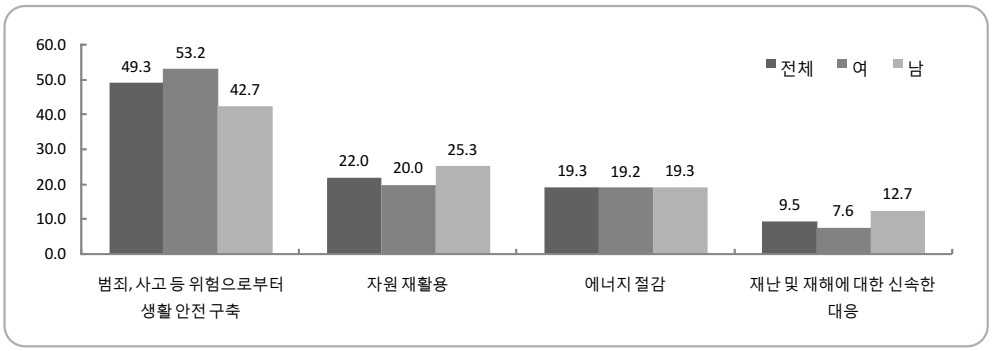
○ 역사, 문화 분야에서 우선시할 이슈는 전체적으로 역사와 관광문화의 융합이라는 의견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연환경보전 27.3%, 역사보전 21.5%, 도시문화의 활성화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성은 역사보존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3.2%로 남성의 18.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그림 Ⅳ-37▐ 성별 역사, 문화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환경, 안전 분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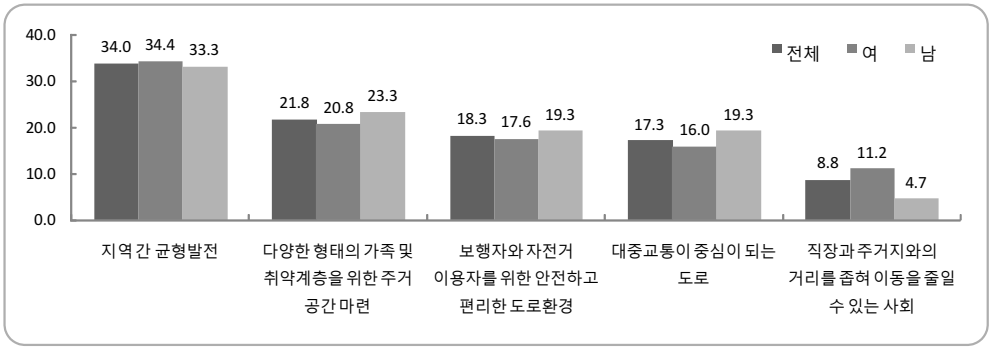
○ 환경, 안전 분야에서 우선시할 이슈는 전체적으로 범죄,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전 구축이라는 의견이 49.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원 재활용 22.0%, 에너지 절감 19.3%,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범죄,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전 구축이라는 의견이 여성은 53.2%로 남성 42.7%에 비해 10%p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에서의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여성의 관심 및 요구가 큰 것으로 보임



▌그림 Ⅳ-38▐ 성별 환경, 안전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 도시공간정비 분야 이슈

○ 도시공간정비 분야에서 우선시할 이슈는 전체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의견이 3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21.8%,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 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직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를 좁혀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도시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여성(11.2%)이 남성(4.7%)에 비해 더 큰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Ⅳ-39▐ 성별 도시공간정비 분야에서 우선시 할 이슈(%)

제4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성별 요구의 차이

○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성별 요구와 만족도의 차이는 도시공간 관련 정책이 왜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경험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여성 취업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특히 4~50대 여성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또한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25.4%)이 기혼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일·생활 양립을 위한 직주근접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 및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여성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반면, 남성은 첨단산업, 대규모산업, 서울시 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은 주거지역을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취업지원시설, 주민소통공간, 노인복지서비스 공간, 건강증진 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또한 거주지 선택 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 및 치안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생활편의시설이나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특히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공간으로 남녀모두 40대에서 의료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였으며, 20대 여성은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 젊은 여성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안전 정책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또한 여자 30대에서는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알아본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물리적인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두려움 외에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험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려운 것과 집에 혼자 있을 때 위험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비교적 크게 나온 것은 이웃과의 교류부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기에, 안전정책에서 이웃과의 소통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 및 공간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여성은 CCTV, 비상벨, 가로등과 같은 시설 못지 않게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공사장이나 빈 공터 등의 관리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정책에서 단순히 안전관련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을 시사함

○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내/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은 지하철과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교통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이동시 걸리는 시간(34.0%)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집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37.6%)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37.6%)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함. 이는 여성은 이동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여성은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의 이용 시설 및 횟수는 남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쇼핑/장보기, 음식점, 치료, 자녀관련시설, 세탁소 등 들르는 곳이 많았고, 또한 들르는 횟수도 남성에 비해 많았음. 이는 도시내 여성의 이동동선이 남성에 비해 더 복잡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의 동선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함. 즉, 생활시설 및 공간의 배치가 단순한 편리성이 아닌, 여성의 생활주기와 관련된 동선을 고려해야함

○ 도시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의 반영 중요도 및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두 영역 모두 남성은 여성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함. 반면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고 평가함. 그러나 여성의 경우 아직도 성평등 정도

가 높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여성의 요구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또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여성은 도시공간정책관련 위원회나 협의회에 여성의 참여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성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성평등에 대한 이해제고와 성평등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에 대한 정보의 획득 경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으로 나타남(34.2%). 또한 서울시가 대부분의 정책 전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홈페이지의 경우, 남성 40~50대 외에는 큰 전달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서울시 도시생활 이슈에 대한 성별 차이**

○ 서울시 도시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20.2%),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 15.1%,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갈등문제 13.4%, 범죄문제 12.9%, 교통문제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젊은 여성은 범죄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남자 60대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로 여성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여성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옴

○ 서울시 도시생활에서의 우선시 할 이슈는 복지, 여성, 교육 분야에서 양극화 및 차별 해소(39.0%),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39.0%), 역사, 문화 분야에서 역사와 관광문화의 융합(31.0%), 환경, 안전 분야에서 범죄,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전 구축(49.3%), 도시공간정비 분야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34.0%)으로 나옴. 성별, 연령별 차이가 없는 이슈도 있지만,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여성 30대의 경우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

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직장기혼여성을 고려한 일자리 문화가 필요함을 보여줌. 또한 환경, 안전 분야에서 여성은 생활에서의 범죄 및 위험에 따른 안전 보장을 중요 이슈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함

□ 서울시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의 성별 차이

○ 자립, 안전, 돌봄, 소통 및 다양성, 참여 부문에서 현재 서울의 성평등 수준과 2030년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음. 그 결과 현재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모든 부문에서 남녀 모두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이 5점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모두 2030년에는 현재보다 성평등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030년에는 성평등 수준의 개선정도가 더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 수준 3.35점,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 3.66점, 의회의원 등 정치권에 여성참여비율 3.77점, 정부 및 시구청등 행정에서의 여성고위직 비율 3.79점,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3.79점 등의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자립부문에서의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수준 5.21점, 남녀 간 공정한 경쟁수준 5.13점 등임

○ 2030년 성평등 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주민들간의 교류나 협력수준 5.39점, 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감수준 5.56점으로 사람들 간의 연대와 신뢰수준에 대해서 암울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30년에 가장 큰 개선정도를 보일 것으로 평가한 항목은 현재 성평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던 여성대상 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수준(3.07점 향상),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3.03점 향상),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3.04점 향상) 등임

▌표 Ⅳ-17▐ 성평등한 서울의 현재 모습 및 2030년 예측

성평등한 서울의 모습		현재			2030년			개선정도 △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자립	•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수준	5.85	4.82	5.21	7.71	7.42	7.53	1.86	2.60	2.32
	•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직업 (예, 초등교사의 여성 편중)	4.81	5.11	5.00	6.69	6.85	6.79	1.88	1.85	1.79
	• 여성의 비정규직 일자리비율	5.13	4.31	4.62	6.85	6.76	6.80	1.72	2.45	2.18
	• 남녀 간 공정한 경쟁 수준	5.72	4.78	5.13	7.45	7.08	7.22	1.73	2.30	2.09
	평균	5.38	4.75	4.99	7.17	7.03	7.09	1.80	2.30	2.10
안전	• 여성 대상 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 수준	4.39	3.54	3.86	7.21	6.75	6.93	2.82	3.21	3.07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	4.23	3.32	3.66	6.94	6.44	6.69	2.21	3.12	3.03
	• 물리적 환경의 안전 (CCTV, 거리의 밝기 등) 수준	5.07	4.46	4.68	7.62	7.53	7.57	2.55	3.16	2.88
	• 타인에 대한 신뢰감(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	4.19	3.65	3.35	5.87	5.38	5.56	1.68	1.91	2.21
	평균	4.47	3.74	3.89	6.91	6.53	6.69	2.31	2.85	2.80
돌봄	•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책임공유 정도	5.03	4.20	4.51	7.26	6.96	7.08	2.23	2.76	2.57
	• 직장 노동시간의 단축 수준	4.29	4.20	4.23	6.49	6.56	6.54	2.20	2.36	2.31
	• 보육시설의 질 수준	4.57	4.31	4.41	6.93	6.93	6.93	2.36	2.62	2.52
	•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원 수준	4.34	4.21	4.26	6.79	6.91	6.37	2.45	2.70	2.11
	평균	4.56	4.23	4.35	6.87	6.84	6.73	2.31	2.61	2.38
소통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4.00	3.66	3.79	6.93	6.77	6.83	2.93	3.11	3.04

성평등한 서울의 모습		현재			2030년			개선정도 △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및 다양성	• 고용, 교육,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	4.33	3.72	3.95	6.54	6.50	6.52	2.21	2.78	2.57
	•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 수준	4.05	3.84	3.92	5.39	5.38	5.39	1.34	1.54	1.47
	• 취약계층여성(장애여성, 결혼이민여성, 미혼모, 탈북여성 등)에 대한 지원 정도	4.04	3.75	3.86	6.04	6.01	6.02	2.00	2.26	2.16
	평균	4.11	3.74	3.88	6.22	6.17	6.19	2.12	2.42	2.31
참여	• 기업 등 직장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	4.40	3.72	3.98	6.56	6.62	6.60	2.16	2.90	2.62
	• 의회의원 등 정치권에 여성 참여 비율	4.13	3.56	3.77	6.29	6.33	6.32	2.16	2.77	2.55
	• 정부 및 시 구청 등 행정에서의 여성 고위직 비율	3.95	3.54	3.70	6.19	6.27	6.24	2.24	2.73	2.54
	•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4.72	4.06	4.31	6.67	6.66	6.67	1.95	2.20	2.36
	평균	4.30	3.72	3.94	6.43	6.47	6.46	2.13	2.65	2.52

□ **성평등 도시공간계획에 가지는 의미**

○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서울시가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함. 예를 들어 맞춤형 복지시스템과 생애주기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이슈를 도시공간 구축 과정에서 실행할 때에는 안전한 도시공간환경 안에서 주거지 인근에 일자리와 취업지원시설을 마련하고, 특히 지역특성과 연관있는 소규모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현재의 성평등 수준이나 도시생활 이슈를 고려하면서도, 20년 후 서울시의 성평등 상황에 대한 예측을 고려하면서 도시공간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함. 즉 본 조사결과는 현재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안전, 소통 및 다양성 부분에서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도시공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더 나아가 2030년에도 여전히 성평등 상태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인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축 과정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V

2030 서울플랜(안) 성 분석 결과

제1절 일·생활 통합(Integration)
제2절 열린 커뮤니티(Access)
제3절 생활안전(Safety)
제4절 이동성(Mobility)
제5절 다양성(Diversity)
제6절 참여와 제도(Participation & System)
제7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2030 서울플랜(안) 성 분석 결과

○ 2030 서울플랜(안)의 도시공간계획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의 성 분석 지침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침의 각 목표 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37]

제1절 일·생활 통합(Integration)

□ **성별 요구와 경험의 차이**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은 여성 취업 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 확충이라는 의견이 2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 21.8%,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고 거주지 선택 시 직장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고려하며, 4~50대 여성은 취업지원 및 훈련 시설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은 자녀 돌봄이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 성장에 따른 재취업에 대한 요구를 보여줌. 또한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25.4%)이 기혼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고, 거주지를 선택할 때 여성은 주변여건을 많이 고려하는 반면(37.6%) 남성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37.6%), 특히 여자 30대에서는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한

37) 참여와 제도 부분에 대한 성 분석 결과는 3장에서 제시함

다는 의견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과 연관 있는 소규모 기업 지원(26.8%), 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23.5%), 마을단위의 자율경제활동(18.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협동조합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함

○ 돌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확충(25.6%),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확충(14.5%), 시간제 아동 돌봄 시설 및 서비스 확충(14.1%) 등의 순으로 아동 돌봄 시설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은 아동 돌봄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이어 노인 돌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1.8%로 나타남.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 및 노인 돌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더불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도시외곽의 요양원 위주의 노인서비스 시설의 확대보다는 지역 커뮤니티 안에 주간돌봄센터 등을 추가 확대해야 하며, 더불어 노인 돌봄 부양자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운영시간 및 긴급 돌봄 센터 등도 고려해야 함

○ 여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이슈로 여성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여성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1.6%로 남성의 6.0%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2030서울플랜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제안 한 이슈 중에서 여성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4.8%로 남성의 21.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이는 돌봄 활동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여성에게 일자리의 문제가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의 단절을 해소할 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중요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돌봄활동과 함께 경제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의 경제활동기반을 활성화함은 물론 문화, 쇼핑, 레저, 의료 등 일과 생활을 통합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함

□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및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허브의 구축**

○ 2030 서울플랜(안)은 복지교육여성 이슈의 목표 중 하나로 '성평등과 보편적 돌봄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이슈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도시공간계획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돌봄 관련 정책이 도시공간계획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돌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구축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각 복지대상 집단별로 건립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대신하여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을 확대하고,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개방형 주민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계획이 필요함. 또한, 대규모의 복합시설보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소규모의 작은 공간들이 마련되어 지역 단위의 세대 통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 및 취업지원 확대를 꾀하는데 있어,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기계발 및 취업 관련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기계발 및 취업훈련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을 커뮤니티 허브를 통해 연계시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고령자 및 장애인이 편안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저층주택 밀집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노인시설 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이 커뮤니티 허브에 집중되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가 조성되어야 함.

□ **2030서울플랜(안)에 대한 분석결과**

○ 일·생활통합 관련 도시기본계획 성평등 지침내용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일·생활 통합 (Integration)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 공적인 공간계획이 돌봄활동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 주거,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커뮤니티 허브가 구축되어 있는가? • 커뮤니티 허브를 통해 일상 활동 공간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있는가? •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위계와 연계되어 구조화되고 있는가?

○ 복지교육여성 분과

• 전략3-2 | 지역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나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임. 방문복지, 사례관리 등 주민센터 기능개편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혁신을 통한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최일선 공공·민간 전달체계 간 상호 기능보완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내 거점기관을 마련할 경우, 복지전달체계가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위계와 연계되도록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달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략4-4 |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교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 교육자원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 박물관,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

→ 개선방향 : 학교의 구내식당, 체육관, 돌봄교실, 도서실, 보건실이 커뮤니티

의 시설로 인식되도록 학교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함.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의 허브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 장소이며 근린의 핵으로 가장 적절한 스케일의 공공시설임. 때문에, 이미 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산업·일자리 분과

- 전략3-1 |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전략 중 하나로 지역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꾀함.

  → 개선방향 : 지역 내 사회적 경제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돌봄의 가치와 사회적 경제의 저평가가 해소될 때 가능한 대안임. 또한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사고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의 가치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음. 이에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경제의 자립과 순환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을 커뮤니티 허브 내에 마련하여 직주근접한 지역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직주근접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함.

- 전략3-3 |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전략은 21세기형의 도시는 생활과 일자리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보행 중심의 도시(Walkable City)로 명시하고, 지역사회 기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생활-일자리 통합공간을 지향함. 소지역 단위 통합 순환형 공동체 경제(일자리 중심)로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사회적기업 등을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통합·연계화하고자 함.

  → 개선방향 : 통합공간이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은 사회적 경제가 이후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와 함께 공간의 슬럼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통합공간은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의 노드에 허브형식으로 자리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와 보행, 대중교통수단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함.

○ 도시공간

- 전략1-2 |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참여형 동네 만들기 전략 중 하나는 주민참여형 살기 좋은 커뮤니티 활성화임. 공동주택 커뮤니티와 저층주택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함.

  → 개선방향 : 이 전략은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주거지뿐만 아니라 업무가 이루어지는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허브의 구축도 중요하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커뮤니티 허브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과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전략3-3 | 살기좋은 주택커뮤니티 조성 전략 중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는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증설·복합화하고,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를 위해 인센티브 및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임.

  → 개선방향 :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는 자칫 폐쇄적이고 고립된 단지를 유도하여 오히려 지역의 통합을 저해하고 단지 경계부에 안전 사각지대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지역 통합을 위해서는 단지 중심보다 지역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변 혹은 초등학교 중심으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게이티드 커뮤니티화하는 고급 브랜드아파트 단지의 주민공용시설을 가로변에 위치하도록 하여 생활가로를 유도하고, CPTED 등의 안전한 도시공간설계기법을 통해 자연감시역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생활통합 분야 분석결과 종합

목표	지침	핵심 이슈	전략	개선방향
일·생활 통합	돌봄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허브구축	복지 교육 여성	3-2. 복지공동체 형성 위한 지역 내 거점기관 설치	커뮤니티 허브 중심의 공간 위계와 연계
			4-4. 지역 내 교육자원 활용 교육네트워크 구축	학교의 구내식당, 체육관, 돌봄교실, 도서실, 보건실을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 기존 초등학교 중심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허브 구축 가능
		산업 일자리	3-1.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은 지역경제의 자립·순환 측면 접근. 직주근접 일자리 공간 구축.
			3-1.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특화지구 조성	안전과 대중교통 연계가 원활한 지역에 특화지구 조성 및 커뮤니티 허브와 연계
			3-3.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소지역 단위 공동체경제의 지역생활권 중심 통합·연계	통합공간은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의 노드에 허브형식으로 구축.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함.
		도시 공간	1-2. 주민참여형 살기 좋은 커뮤니티 활성화	주거지뿐 아니라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 커뮤니티 허브 구축 필요.
			3-3.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증설·복합화	게이티드 커뮤니티화 방지 위해 단지중심보다 지역중심 커뮤니티 형성 필요.

▌그림 Ⅴ-1▐ 일-생활통합 부문 분석결과 종합

제2절 열린 커뮤니티(Access)

□ **성별 요구와 경험의 차이**

○ 생활편의 시설의 희망 위치는 남녀모두 도보가능거리(76.0%)를 원하고 있었으며, 직장은 대중교통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길 희망하는 의견(37.0%)이 가장 많이 나옴. 이는 남녀 모두 생활편의 시설이나 직장으로의 이동시간이 짧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역 커뮤니티 안에 생활편의 시설 및 직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함

○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공간으로는 의료시설(16.6%), 자기 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13.0%), 치안시설(12.3%) 등이 나옴. 여성은 의료시설과 자기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 다음으로 치안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남성은 의료시설과 보육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함. 또한 남녀모두 40대에서 의료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중년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응급상황 및 자녀 건강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한편 20대 여성은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 젊은 여성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공간들을 살펴보면 근린지역 내 의료시설, 보육시설, 자기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 치안시설, 쇼핑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이 연결되어 모든 주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함

○ 서울시민의 주거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점이하로 낮은 항목은 취업지원시설 및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시설, 주민 간 교류·소통·협력, 문화예술 향유, 노인복지서비스, 건강증진공간 등으로 나타남. 이에, 주거지 인근의 공간계획이 취업지원시설, 주민소통공간, 노인복지서비스 공간, 건강증진 시설 등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함

○ 현재 서울시의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수준에 대한 평가는 3.91점으로 낮은 상황임(10점 리커트척도). 2030년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 수준은 약 1.4점 가량 개선된 5.39점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보다도 개선정도가 낮게 나타남. 커뮤

니티 활성화 방안 및 제도의 마련 등을 통해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근린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집중**

○ 큰 스케일의 고밀복합공간은 일상에서의 이동거리를 길어지게 하며, 보행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배려를 간과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의 입체복합화 개발은 지하공간을 초래하며, 이는 시야의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범죄취약지역이 될 우려가 큼. 이에, 대안으로서 작은 스케일의 커뮤니티 허브의 형태가 요구됨

○ 통합공간은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의 노드에 허브형식으로 자리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와 보행, 대중교통수단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함. 또한 큰 스케일의 고밀복합공간은 일상에서의 이동거리를 길어지게 하며, 보행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배려를 간과할 우려가 있음. 또한 공간의 3차원적 이용은 안전사각 지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연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저층의 작은 규모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지역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내 거점기관을 마련할 경우, 복지전달체계가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위계와 연계되도록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달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거점기관을 통해 다양한 자원 공유,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 활동 촉진,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이 이루어질 때,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의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함.

□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계획**

○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직주근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허브에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공동체와 연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을 커뮤니티 허브 내에 제공함으로써 직주근접한 지

역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만들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함.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일과 생활의 양립이 더 어렵고, 직주근접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의 지역일자리 공급은 별도 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 마을예술창작소, 북까페, 휴까페, 마을미디어센터 등의 지역 마을문화 기반시설을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하여 커뮤니티 허브에 포함하고, 각 대상별 여가활동시설과 통합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원이나 빈터, 가로 등 일상생활 공간에 누구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그룹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개발될 수 있어야 함.

○ 보통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주거지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커뮤니티 서비스의 이용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업무가 이루어지는 산업지역에서도 필요함.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커뮤니티 허브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과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2030서울플랜(안)에 대한 분석결과

○ 열린커뮤니티 관련 도시기본계획 성평등 지침내용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열린 커뮤니티 (Access)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집중	• 커뮤니티 허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커뮤니티 서비스가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집중되어 있는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계획	• 커뮤니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가? • 커뮤니티 허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활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근린 규모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복합개발을 통해 제공되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근린의 규모로 분절되어 있는가?

○ 복지교육여성 분과

- 전략1-1 |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 어르신 건강 유지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음.

  → 개선방향 : 근로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공공일자리는 지역 가까이에 제공되어야 함. 또한, 소득 없어도 안정된 노인 주거를 보급할 때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이 충분히 보급되어야 함. 어르신 건강 유지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지역 가까운 곳,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략1-3 | 세대간 존중과 통합의 사회문화 조성 전략 중 하나로 세대간 통합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 있음. 현재 각 복지대상 집단별로 건립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대신하여 다양한 연령계층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을 확대하고,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개방형 주민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계획임.

  → 개선방향 :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개방형 주민복지시설을 커뮤니티 허브 내에 다양한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구축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와 통합을 꾀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세대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략3-3 | 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전략에 따르는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계획은 통, 반장 등 지역주민과 접촉이 많은 주민이 사각지대 발굴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점기관 마련, 거점기관을 통해 다양한 자원 공유,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 활동 촉진,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지역 내 거점기관은 지역사회 복지공동체의 활동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략5-2 |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 및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주시별 고용활성화 맞춤 프로그램 운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 특화 창업 지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을 활용한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자 함. 특히, 여성 경력단절 방시를 위한 취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장맘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꾀함.

→ 개선방향 :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자기계발 및 취업 관련 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이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허브에 자기계발 및 취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허브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과 연계시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과 취업이 지역 내에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일자리 분과

- 전략1-2 | 창의적 인재 양성과 글로벌 혁신환경 구축 전략 중 하나로 서울시의 문화, 교육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학습도시화가 있음. 서울시의 국제기능중심지(1차), 광역고용중심지(2차), 생활문화중심지(3차) 뿐만 아니라 동네 단위로도 크고 작은 도서관과 정보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학습의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개선방향 : 동네 단위의 작은 도서관과 정보문화센터 등의 학습지원시설은 커뮤니티 허브 시설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략2-3 |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은 다양한 사회적 협력을 지역 기반으로 구체화하여 협력의 경제 인프라를 조성하고,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클러스터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지역과 동네 단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육 협동조합,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생협 활성화, 협동조합형 주택공급방식을 통한 커뮤니티 복원 외 다양한 협동조합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개선방향 : 이러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은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허브에 포함하여 유기적으로 공동체와 연계되도록 하여, 직주근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전략3-1 |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전략 중 하나로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특화지구를 조성하고자 함. 지역일자리 특화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방치된 국공유지 및 지역재생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계획임.

→ 개선방향 :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일자리 공급은 별도 지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속에 녹아들도록 해야 함.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일과 생활의 양립이 더 어렵고, 직주근접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략3-3 |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전략의 내용 중 하나로 압축, 복합, 입체형의 도시공간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꾀하고자 함. 압축도시의 장점을 최대화 하면서 동시에 비배타적이며(inclusive), 포용적이고(embracing), 시민들이 도시에서 삶과 일을 누리는 비용이 적절한 도시를 제시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여성가장이나 독거여성들의 경제적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쉬프트나 공공임대주택을 대중교통수단의 집결지에서 보행거리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대중교통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가로 인해 역세권에서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사각지대에 소외계층의 공공주거가 위치하는 경향이 강함. 이에 공공주택의 위치 선정시 거주자들의 대중교통시스템의 이용을 고려하고, 대중교통이용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따라야 함.

• 전략3-3 |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전략은 21세기형의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위한 압축, 복합, 입체형의 도시공간을 제시하고 있음. 공간의 3차원적인 이용을 통해 보행자 안전, 보차분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의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입체복합화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큰 스케일의 고밀복합공간은 일상에서의 이동거리를 길어지게 하며, 보행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배려를 간과할 우려가 있음. 대안으로서 작은 스케일의 커뮤니티 허브의 형태가 요구됨.

○ 역사문화 분과

- 전략3-1 |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전략은 문화환경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속 문화공간 창출하고 온-오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특히 다양한 지역 마을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단위 문화활동을 꾀함.

  → 개선방향 : 마을예술창작소, 북까페, 휴까페, 마을미디어센터 등의 지역 마을문화 기반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커뮤니티 허브 공간 안에서 문화활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상별 여가활동시설과 통합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가 있음.

○ 도시공간

- 전략2-2 | 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전략의 하나로 직·주 근접을 통한 이동저감사회 구현을 제시함.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주요 교통결절점을 고밀·복합·입체 개발하여 집과 직장,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이 가까운 직주근접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재택근무제 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개선방향 : 스마트워크센터는 지역 내에 설치하여 돌봄과 가사로 인해 직주근접과 유연근무, 재택근무의 요구가 더 높은 여성들이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일상 활동과 연계를 고려하여 커뮤니티 허브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남성들도 일상 속에서 돌봄활동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전략3-3 | 살기좋은 주택커뮤니티 조성 전략은 고령자 및 장애인이 편안한 주택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저층주택 밀집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개선방향 : 주택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시설 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들이 커뮤니티 허브에 집중되어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가 조성되어야 함.

• 전략1-1 | 역세권 중심의 자족생활형 복합 토지이용 전략으로 역세권의 고밀 복합 토지이용 유도 및 관리 방안은 위의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과 같은 맥락의 계획으로 볼 수 있음.

□ 열린 커뮤니티 부문 분석결과 종합

목표	지침	핵심이슈	전략	개선방향
열린 커뮤니티	커뮤니티 서비스 집중	복지 교육 여성	1-1.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노인공공일자리, 돌봄서비스의 커뮤니티 허브 중심 제공 필요.
		산업 일자리	1-2. 문화,교육자원 활용극대화 통한 학습도시화	작은 도서관, 정보문화센터 등 학습지원시설의 커뮤니티 허브 통합
		도시 공간	2-2. 주요 교통결절점의 고밀·복합·입체 개발, 재택근무제 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및 이용 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는 커뮤니티 허브에 포함. 돌봄과 가사로 인해 직주근접, 유연근무, 재택근무의 요구가 많은 여성 특성 반영.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간 계획	복지 교육 여성	1-3. 세대간 통합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세대통합형, 지역사회 개방형 주민복지시설을 커뮤니티 허브 내 다양한 복지시설과 연계
			3-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계획	지역 내 거점기관은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 구축. 다양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확보 필요.
		산업 일자리	2-3.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지역기반 경제 인프라 조성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허브에 포함하여 공동체와 연계.
			3-1.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공공유휴공간 활용 지역일자리 특화지구 조성	취약계층의 지역일자리 공급 지역을 별도 지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속에 통합되도록 함.
		역사 문화	3-1. 생활 속 문화공간 창출, 온-오프 공동체 활동 지원, 다양한 지역마을문화 기반시설 확충	마을예술창작소, 북까페, 휴까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지역마을문화 기반시설은 커뮤니티 허브에 통합. 각 대상별 여가활동시설과 통합 고려.
		도시 공간	3-3.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저층주택 밀집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노인시설 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커뮤니티 허브에 집중·연계.
	근린 규모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산업 일자리	3-3.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압축, 복합,입체형 도시공간 제시, 공간의 3차원적인 이용	입체복합화의 규모 검토 필요. 이동거리 및 보행약자의 이동 특성 고려, 작은 스케일의 커뮤니티 허브 필요.
		도시 공간	1-1. 역세권 중심의 자족생활형 복합 토지이용, 역세권 고밀복합 토지이용 유도 및 관리	대중교통수단의 노드 중심 설치, 고밀복합 토지이용시설을 근린 규모의 허브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Ⅴ-2▌ 열린 커뮤니티 부문 분석결과 종합

제3절 생활안전(Safety)

□ **성별 요구와 경험의 차이**

○ 안전부분에 대한 현재 서울시 성평등 수준을 여성은 3.74점, 남성은 4.47점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소통 및 다양성부문의 전체평균 3.89점에 이어 전체평균 3.89점으로 가장 낮은 성평등 수준의 영역으로 조사됨(10점 리커트 척도).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서 우선시할 이슈로 여성은 범죄·사고 등 위험으로부터의 생활안전 구축이라는 의견이 53.2%로 남성의 42.7%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남

○ 앞의 조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많이 지니고 있음. 늦은 시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단지(3.82점), 늦은 시간 공원이나 놀이터(3.81점), 지하주차장(3.62점), 지하보도나 지하차도(3.59점),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험(3.58점), 심야의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3.48점),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의 방문(3.46점) 등 모든 항목에서 두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거주지 선택 시 안전 및 치안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특정한 위험에 대한 안전의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도시공간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함

○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자는 주변의 빈 건물, 공사장, 공터 등의 관리와 놀이터나 공원 등의 탁 트인 시야확보를 통한 사각지대의 방지를 남자에 비해 더 필요로 하고 있음. 이처럼 여성과 남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간 및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도시공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여성은 도시정책에서 단순히 안전관련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간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음

□ **일상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 보행 공간은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며, 식재나 시설물 등으로 인해 시야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휠체어나 목발, 유모차 및 아동동반자, 고령자의 보행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도의 단차와 경사도 고려 등 보행환경의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요구됨

○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설치는 자칫 폐쇄적이고 고립된 단지를 유도하여 오히려 지역의 통합을 저해하고 단지 경계부에 안전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음. 지역 통합을 위해서는 단지 중심보다 지역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변이나 초등학교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이 더 바람직함. 특히 고급 브랜드아파트 단지의 게이티드 커뮤니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공용시설을 가로변에 위치하도록 하여 생활가로를 유도하고, CPTED 등의 안전한 도시공간설계기법을 통해 자연감시역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주간에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생활공간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안전 문제, 다문화 가정의 문화 차이 및 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취약문제, 고령자(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안전취약성 등에 대한 접근이 간과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맞춤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과 함께 커뮤니티 공동체를 통한 데이케어 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설계 기법(CPTED) 활용은 안전도시의 지향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안요소까지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범죄와 관련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인 안전시설설치 뿐 아니라 자연감시가 가능한 공간의 조성이 필수적임. 범죄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안전환경의 구축이 필요함. 어린이, 장애인, 아동동반자,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물리적으로 안전한 도시공간의 조성, 두려움을 주는 공간(우범지역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심리적 안전성 강화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public eye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됨

□ 이동의 안전성 확보

○ 위험,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노인 등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위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때,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안전계획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야 함. 파트타임 근무가 많은 여성들은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 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이동 시간대에 따라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의 정거장과 24시간 시설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이동시간대에 따른 안전 문제 등 이동 특성에 따른 안전의 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public eye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요구됨.

□ 2030서울플랜(안)에 대한 분석결과

○ 생활안전 관련 도시기본계획 성평등 지침내용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생활안전 (Safety)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	일상공간의 안전성 확보	• 공공공간이 Public Eye를 통한 자연감시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공공공간은 다양한 안전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 철거지역, 공사예정지, 공사지역 등 비활성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동의 안전성 확보	• 다양한 이동수단, 이동시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버스쉘터, 지하철 역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 복지교육여성 분과

• 전략2-2 |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전략의 하나로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방안이 있음. 이는 신체활동 유형의 다양한 지역자연 치유자원(숲, 텃밭, 동물, 도심농사 등)을 활용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만드는 것임.

→ 개선방향 : 지역자연 치유자원의 입지와 관련하여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따로 떨어진 지역이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외진 장소일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전략5-3 | 위험,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노인등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위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촘촘한 안전망 구축임. 서울의 도시 및 건축 공간 물리적 환경을 설계함에 있어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또는 변경하고, 대중교통안전망 구축, 안전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함.

  → 개선방향 : 많은 여성들은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과 다른 시간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존재함. 이동 시간대에 따라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중교통수단의 정거장과 24시간 시설의 연계 등을 통해, 업무시간대가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그룹의 이동시간대에 따른 안전 문제 등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public eye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요구됨.

○ 산업·일자리 분과

- 전략3-1 |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전략 중 하나로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특화지구 조성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일자리 특화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방치된 국공유지 및 지역재생이 필요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함.

  → 개선방향 : 공공유휴공간은 위치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사각지대임. 여성들에게는 안전측면에 치명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입지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전략3-3 |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전략은 21세기형의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위한 압축, 복합, 입체형의 도시공간을 제시하고 있음. 공간의 3차원적인 이용을 통해 보행자 안전, 보차분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의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입체복합화의 방법, 규모로 인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공간을 3차원적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의 입체형 복합개발이 여성에게 치명적인

공간이 된 해외의 사례에서처럼 안전 사각 지대가 초래될 우려가 있음.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오히려 시간대에 따라 취약계층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저층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많은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출퇴근 시간과 다른 시간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범죄사각지대화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연감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개발이 요구됨.

○ 역사문화 분과

- 전략2-3 |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전략 중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빛 공해를 방지하며 녹지지역,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권역에 따른 조명을 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 수립임.

  → 개선방향 : 야간조명계획시 지역 특성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에너지 사용 및 빛 공해를 우선으로 할 경우 야간 안전 취약 지역이 생길 우려가 있음. 빛 공해와 안전성의 상충되는 야간 조명의 요구를 조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됨.

- 전략2-3 |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전략 중 하나로 걷고 싶은 가로를 만드는 경관관리가 있음. 보행을 유도하는 가로의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골목길, 보행밀도가 높은 가로 등의 전신주 지중화, 대각선 보행횡단로 도입, 아름다운 가로수목 식재 등을 시행하고, 건축물 전면보도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일상적 가로경관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개선방향 : 가로의 경관관리 계획 시 보행약자가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보행 공간은 개방된 공간이어야 하며, 식재나 시설물 등으로 인해 시야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재료, 패턴, 색상 등을 이용하여 도로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휠체어나 목발, 유모차 및 아동동반자, 고령자의 보행을 제약하지 않도록 보도의 단차가 없고 경사도가 낮도록 하는 등 보행환경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함께 요구됨.

○ 환경안전 분과

- 환경안전의 목표3은 다 함께 지켜주는 안심도시임. 기상이변과 도시기능의 발달로 도시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재해가 복합화·대형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적 시각에서 도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를 통해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개선방향 : 안전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정의가 필요함. 안전에는 식품안전, 재난안전, 범죄, 폭력에 대한 안전 뿐 아니라 도시공간의 물리적 안전, 심리적 안전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전략1-1 | 공원 인프라 선도 도시로의 이행 전략 중 공원의 개념과 역할의 확대가 있음.

  → 개선방향 : 옥상, 학교, 골목, 가로, 공개공지 등을 공원개념으로 접근할 때 외지거나 인적이 드물어 위험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략3-3 | 도시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확대 전략 중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설계 기법(CPTED) 활용은 안전도시의 지향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안요소까지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개선방향 : 범죄와 관련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단지 물리적인 안전시설설치 뿐 아니라 자연감시가 가능한 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생활안전 강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안전환경의 구축이 필요함. 어린이, 장애인, 아동동반자, 고령자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물리적으로 안전한 도시공간의 조성, 두려움을 주는 공간(우범지역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에 대한 심리적 안전성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public eye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됨.

- 전략3-3 | 도시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확대 중 또 하나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및 지역 안전 프로그램 운영임. 재난의 속성상, 재난이 발생하면 저소득층 등 사회의 취약계층이 재난의 영향을 더욱 받는 재난의 불평등성이 있음. 재난안전

정책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과 지원이 그 내용으로 함.

→ 개선방향 : 재난 뿐 아니라 생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한부모 가정 등에서 낮에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가사활동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안전 문제, 다문화 가정의 문화 차이 및 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취약문제, 고령자(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안전취약성 등에 대한 접근이 간과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통한 데이케어 프로그램, 맞춤식 안전 교육 프로그램,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도시공간 분과

• 전략1-1 | 역세권 중심의 자족생활형 복합 토지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직주근접을 통한 집약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직주균형의 자족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업과 주거 등 다양한 용도를 복합적으로 유도하고 입체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것임.

→ 개선방향 : 대규모의 입체복합화 개발은 지하공간을 초래하며, 이는 시야의 사각지대로 예비범죄지역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소화하여 개발하여야 함.

□ 생활안전 부문 분석결과 종합

목표	지침	핵심 이슈	전략	개선방향
생활 안전	일상공간 안전성 확보	복지 교육 여성	5-3. 위험, 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노인 등이 안전한 환경조성	파트타임 종사자가 많은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시간을 지닌 사람들의 이동시간대에 따른 안전문제 등 다양한 이동안전요구 고려. public eye 제공 공간계획 필요.
		산업 일자리	3-3.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압축,복합,입체형 도시공간 제시, 공간의 3차원적인 이용	큰 규모의 입체복합개발시 안전사각지대 초래 우려. 자연감시기능 작동할 수 있는 공간규모 및 구조 요구.
		역사 문화	2-3.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방지. 권역에 따른 조명 관리	지역 특성에 따른 안전성 문제 함께 고려. 빛 공해와 안전성의 측면에서 상충되는 야간 조명 요구의 조화 방안 필요.
		환경 안전	3-3.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설계 기법(CPTED) 활용, 시민들의 불안요소까지 고려	범죄 안전을 위한 물리적인 안전시설설치 뿐 아니라 자연감시기능 활성화 공간계획이 요구됨.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안전환경 구축 필요.
			3-3. 생활안전 취약계층 및 지역 안전 프로그램	재난 뿐 아니라 생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지 않도록 함. 낮에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문화 차이 및 소통으로 인한 안전취약, 고령자, 장애인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한 안전문제 등.
		도시 공간	1-1. 역세권 중심의 자족생활형 복합 토지이용, 역세권 고밀복합 토지이용 유도 및 관리	대규모의 입체복합화 개발로 인한 지하공간이 시야사각지대를 초래할 우려. 규모의 축소 필요.
	오픈 스페이스 안전성 확보	복지 교육 여성	2-2.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지역자연 치유자원 활용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 활동 유도	지역자연 치유자원의 입지가 따로 떨어진 지역이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외진 장소일 경우, 안전성 확보 계획 필요.
		산업 일자리	3-1.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유휴공간 활용 지역일자리 특화지구 조성	공공유휴공간은 위치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사각지대임. 안전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필요.
		환경 안전	1-1. 공원의 개념과 역할의 확대	옥상, 학교, 골목, 가로, 공개공지 등을 공원개념으로 접근할 때 안전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이동 안전성 확보	역사 문화	2-3. 걷고 싶은 가로를 만드는 경관관리	보행약자가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함. 자연감시기능 강화. 보행공간의 물리적 안전성 및 편의성 고려 요구.

▌그림 Ⅴ-3▐ 생활안전 부문 분석결과 종합

제4절 이동성(Mobility)

□ **성별 요구와 경험의 차이**

○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남녀 모두 지하철(41.0%) 및 시내/마을버스(26.5%)로 나타남. 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내버스/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성은 자가용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교통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이동시 걸리는 시간(34.0%)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집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37.6%)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37.6%)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함. 이는 여성은 이동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교통수단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주로 나 홀로 이동을 하는 남성에 비해 동반자 및 휴대물품(유모차, 시장바구니 등)이 많은 여성은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1주일 간 출퇴근, 등하교, 외출 시의 이용 시설 및 횟수는 남녀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여성의 경우, 쇼핑/장보기, 세탁소 등 가사활동을 위한 방문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으며,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 자녀학원 등의 자녀 양육을 위한 시설의 방문도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들이 가사와 돌봄 활동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동의 횟수가 많음을 보여줌. 이렇듯 여성들이 가사와 돌봄을 위한 근거리 이동활동과 다양한 생활시설 이용이 많음을 고려하면, 지역 내에 일상의 영위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집중을 통해 이동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남성들의 경우, 가사 및 돌봄과 관련된 생활시설 방문의 횟수가 적음. 여성들의 경우는 취업여성의 경우도 출퇴근 시 가사 및 돌봄 시설에 방문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따라서 주거 뿐 아니라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및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취업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돌봄 참여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조성이 요구됨

□ **교통수단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시스템**

○ 근거리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와 돌봄을 위한 이동이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통수단의 연계 및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된 커뮤니티 허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아동이나 노인 등 돌봄대상자의 동반을 위한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함. 이는 생활시설 및 공간의 배치가 단순한 편리성이 아닌, 여성의 생활주기와 관련된 동선을 고려해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공간구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여성의 경우 아이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동반을 위한 차량 사용,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생업을 위한 이동,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써 차량 이동 등의 경우가 많음. 이처럼 승용차의 이용이 불가피한 이용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대중교통 중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교통수요에 대한 성별통계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단순한 대중교통수단 끼리의 연계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연계에도 안전문제, 접근성문제 등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

□ **2030서울플랜(안)에 대한 분석결과**

○ 이동성 관련 도시기본계획 성평등 지침내용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이동성 (Mobility)	일상의 영위를 위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교통수단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커뮤니티 허브가 연결되고 있는가? • 여러 교통수단 간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시스템	• 주거, 업무, 쇼핑, 여가 시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가능한가? • 공공 서비스 시설에 접근하는데 특정 교통수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교통시스템이 다양한 이동요구(이동수단, 이동경로, 이동시간)를 반영하고 있는가? • 제한된 이동수단에 의존하는 그룹이 존재하는가?

○ 복지교육여성 분과

- 전략3-1 |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 강화하는 전략의 하나로, 사회적 약자의 교육권, 이동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무장애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개선방향 : 다양한 계층의 이동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도시공간 분과

- 전략2-1 |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전략 중 교통결절점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 방안은 외곽지역의 주요 결절점에 P&R (Park&Ride :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 환승이 이뤄지는 환승시설) 기능을 수행하는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것임. 대중교통이 불편한 서울시 외곽지역에서는 승용차로, 서울시 진입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유도하는 방안임.

  → 개선방향 :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환승센터 구조의 측면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차 및 휠체어 등의 이용객이나, 아동동반객, 고령자 등의 이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의 구조 및 편의성 검토가 요구됨. 한편,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여성의 경우 도시의 여러 곳을 아이나 노인을 동반하여 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생업을 위하여 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한 대중교통수단 우대정책은 성평등 측면에 우려가 있음.

  → 개선방향 :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여성의 경우 환승주차장에서 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순한 대중교통수단 끼리의 연계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연계에도 안전문제, 접근성문제 등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전략2-2 | 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전략은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개선방향 : 성별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그룹의 이동 특성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이동경로, 이동시간, 이동 수요자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함. 파트 타임으로 도심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시간외에 대중교통수단의 혜택을 못 받는 시간대에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안전을 위한 자동차 이용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이동성 부분 분석결과 종합

목표	지침	핵심이슈	전략	개선방향
이동성	교통수단 네트워크	도시공간	2-1.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편리한 환승 지원	돌봄활동을 위해 차를 이용하게 되는 여성 고려. 보행,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이용의 연계 필요. 모든 교통수단을 통해 커뮤니티 허브에 접근가능해야 함.
	다양한 요구반영 교통 시스템	복지 교육 여성	3-1. 사회적약자의 교육권, 이동권 등 권리보장 통한 사회활동 참여증진. 무장애 사회환경 구축	다양한 계층의 이동요구 반영. 주야간 생활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이동 환경 조성
		도시공간	2-1.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P&R 기능 수행 환승센터 설치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한 그룹에 대한 고려, 대중교통 이용 제약 원인 파악 및 해소 노력 요구. 보행약자 고려한 환승센터 구조 및 편의성 검토 필요함.
			2-2. 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정책 재검토	성별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다양한 그룹의 이동 특성 파악이 우선. 이동수단, 이동경로, 이동시간, 이동 수요자 등에 대한 검토 요구.

▌그림 Ⅴ-4▐ 이동성 부문 분석결과 종합

제5절 다양성(Diversity)

□ **성별 요구와 경험의 차이**

○ 서울시 도시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문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20.2%),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 15.1%,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갈등문제 13.4%, 범죄문제 12.9%, 교통문제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젊은 여성은 범죄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며, 남자 60대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도시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의 반영 중요도에 대해 여성은 4.14점, 남성은 3.57점으로 나타나고,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운영과정에서 여성 고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여성 4.16점, 남성 3.59점으로 나타남. 반면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고 평가함. 즉 남성은 3.2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고, 여성은 2.84점으로 보통보다 낮음(5점 리커트 측도). 특히 여성들은 기업,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가장 불평등한 부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음(3.72점)

○ 서울시민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고용·교육·훈련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지원 정도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고려한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가 3.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10점 리커트 척도). 이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정도에 대한 평가가 보통정도라고 할지라고 다양한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다양성 반영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에 대한 정보의 획득 경로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 것으로 나타남(34.2%). 언론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언론의 종류에 따른 정보 획득정도를 파악하여 서울시 정책 정보가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서울시가 대부분의 정책 전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홈페이지의 경우, 남성 40~50대 외에는 큰 전달 수단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나타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정보 획득 및 참여를 위해서 시홈페이지를 주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다양한 주거공간의 제공**

○ 소외계층은 대중교통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그룹임에도 높은 지가로 인해 역세권에서 먼 교통 사각지대에 이들의 공공주거가 위치하는 경향이 강함. 이에 공공주택의 입지선정에 거주자들의 대중교통시스템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따라야 함. 특히, 대중교통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이나 독거여성들의 이동 특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대중교통수단의 집결지에서 보행거리 내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시설 및 공간이용자들이 참여지원**

○ '주민참여'의 대상, 참여방법, 의견소통의 구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제 선정 등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해당 지역 거주민의 인구구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 계층, 가구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반영이 중요함.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 및 지역활동가 교육 등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활동가 양성에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여성 참여는 여성과 남성의 도시공간 경험 차이, 성별 다른 요구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인식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 **2030서울플랜(안)에 대한 분석결과**

○ 다양성 관련 도시기본계획 성평등 지침내용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계획	• 토지이용계획이 다양한 라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있는가? •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니버설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목표(가치)	전략(방법)	도시공간의 구성	지침
		다양한 주거공간의 제공	•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생활 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주택시설의 다양화)하고 있는가? • 적정 임대 비율을 유지하고 주거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서비스 시설 및 오픈 스페이스	• 공공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특정 이용자 그룹이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가? • 공공 서비스 시설이 특정한 그룹의 특정한 이용방식(어린이, 아동동반,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 공원 등 공공 오픈 스페이스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가?

○ 복지교육여성 분과

- 전략1-2 |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전략으로 어르신의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사회공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대 공급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식당, 영화관, 기원, 만담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어르신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됨.

  → 개선방향 : 청소년,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세대 융합 문화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설이 커뮤니티 허브시설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전략이 함께 계획되어야 함.

- 전략2-1 | 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생활권역별로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됨.

  → 개선방향 : 공공병원은 무료간병서비스, 호스피스 병동, 장애인 및 노인 치과진료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인, 한방, 아동 등에 대한 전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병원으로 개편시, 출산시설, 여성전문병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전략3-4 |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전략으로 다문화의 보전과 육성방안인 다문화를 위한 활동공간 창출이 포함되어 있음.

→ 개선방향 : 외국인만 이용하는 공간,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개념은 자칫 분리정책으로 갈 수 있음. 분리가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다문화 가정을 지역중심으로 끌어내야 함. 공간 또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허브와 통합하여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지역 공동체 속에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이 녹아들 수 있도록 통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에 맞는 시설 및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문화 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돌봄을 위한 상부상조의 지원장소가 되어야 함.

○ 역사문화 분과

• 전략1-2 | 시민의 역사자원접근성 개선 전략은 역사문화 안내 및 홍보체계 마련 방안을 포함함. 시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을 중심으로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방향 : 안내 내용 및 방식에 외국인 뿐 아니라 다양한 그룹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함. 점자안내판, 촉지도식(그림도면) 안내판, 음성안내지원장치 등 정보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 필요.

• 전략2-3 |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전략 중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도시환경 질적 업그레이드가 제안됨.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다양한 가로시설물, 도시의 색채, 서체, 도시상징물 등 공공부문의 디자인을 개선함.

→ 개선방향 : 가로변 벤치 등의 시설물 디자인에 장애인, 아동, 아동동반자, 고령자 등 신체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행 및 사용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함.

• 전략2-4 |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전략은 장소의 이야기가 있는 경관관리, 시민참여 기회 확충, 규제를 넘어 관계·완충·협력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됨.

→ 개선방향 : 경관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절차와 과정

속에 소외되는 그룹이 생기지 않고 다양한 공간이용자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함.

- 전략3-1 |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전략은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 문화공간 창출을 포함함. 공원이나 빈터, 가로 등 다양한 일상 생활공간에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함.

  → 개선방향 : 공원이나 빈터, 가로 등 일상생활 공간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그룹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개발될 수 있어야 함

○ 도시공간 분과

- 전략3-1 |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전략으로서, 1·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원룸 등의 질 향상,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의 경우 주거환경·안전기준 또는 최소한의 거주수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개선방향 : 주택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특히, 1인 가구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20-30대의 1인 여성 가구 및 독거노인 거주가구 등 서로 다른 안전 요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 전략1-2 |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참여형 동네 만들기 전략은 양적 주택 공급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성 위주, 전면철거 위주, 소유자 위주의 주거지 정비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동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참여형 살기 좋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주민참여'의 대상, 참여방법, 의견소통의 구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제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배제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성별, 연령, 계층, 가구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함.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 및 지역활동가 교육 등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활동가 양성에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양성 부문 분석결과 종합

목표	지침	핵심 이슈	전략	개선방향
다양성	다양한 주거 제공	복지 교육 여성	1-1.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방안	주거생활 안정 위한 고령자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필요.
		산업 일자리	3-3. 압축,복합,입체형의 도시공간을 통한 인간성 회복, 삶과 일을 누리는 비용이 적절한 도시	공공주택의 위치 선정시 거주자들의 대중교통시스템 의존도 고려, 대중교통이용시설 근접 배치 필요.
		도시 공간	3-1.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거의 질 향상, 준주택 주거기준 마련	다양한 주택의 공급 및 주거기준 등에 주택의 안전성 고려 필요. 20-30대의 1인 여성 가구, 독거노인 거주가구 등 서로 다른 안전요구 반영 필요.
	다양한 이용자 고려 공공 서비스 시설 및 오픈 스페이스	복지 교육 여성	1-2. 고령인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공급	청소년,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세대 융합 문화활동 지원 필요. 커뮤니티 허브에 포함되는 공간 계획 필요.
			2-1. 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생활권역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출산 및 영유아 진료서비스를 추가, 특성화 병원으로 개편시 출산시설, 여성전문병원도 함께 고려 필요.
			3-4.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조성, 다문화 활동공간 창출	외국인만 이용하는 공간,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개념은 자칫 분리정책이 될 우려. 커뮤니티 허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 조성 필요.
		역사 문화	1-2. 시민의 역사자원접근성 개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을 중심으로 안내체계 구축	안내 내용 및 방식에 외국인 뿐 아니라 다양한 그룹의 요구 고려. 정보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 필요.
			2-3.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도시환경 질적 업그레이드	시설물 디자인에 장애인, 아동, 아동동반자, 고령자 등 보행약자 특성 고려. 보행 및 사용에 제약 없도록 배려.
			3-1.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일상 생활공간 속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공원이나 빈터, 가로 등 일상생활 공간에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다양한 그룹의 요구 반영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공간 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 지원	역사 문화	2-4.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주민참여'의 대상, 참여방법, 의견소통의 구조,사업 주제 선정 등의 과정에 성별, 연령, 계층, 가구특성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중요.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활동가 교육에 성인지적인 관점 포함. 지역활동가 양성에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
		도시 공간	1-2. 주민참여형 살기 좋은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의 절차와 과정 속에 소외 그룹 없이 다양한 공간이용자들의 의견 반영 가능한 의견수렴기구 필요.

▌그림 Ⅴ-5▐ 다양성 부문 분석결과 종합

제6절 참여와 제도(Participation & System)

□ **참여**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전문가자문단'은 도시계획, 주택, 교통, 산업,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가자문단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핵심이슈를 발굴·정리하여 시민참여단의 토의내용으로 지원하거나, 서울플랜(안)의 내용을 검토·수정·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전문가자문단은 원래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자문단 13명을 추가로 구성하였음. 결국 총33명의 전문가자문단 중 여성은 5명으로 15%의 참여비율을 보임. 전문가자문단의 전문분야는 대부분 도시설계,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주택, 교통, 환경, 토목, 경제 등의 전문가임. 이외 인문·사회적 가치를 담보하기 위한 여성, 복지, 미래학, 사회학, 문화, 역사 전문가들이 배치되긴 하였음
- 단순 여성의 참여비율보다는 전문가자문단의 운영내용이 더욱 중요함.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전문가자문단 운영 회의 동영상을 보면, 도시공간정책에 공동체 및 인문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음. 하지만 어떤 인문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고, 또 인문사회적 가치를 도시공간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인문사회적 가치를 도시공간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 도시공간을 바라보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전문가자문단이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중요한 서울시의 정책이슈(시정운영계획 및 실국업무계획)를 도시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지점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38]

---

38) 이러한 결과로 2013년 9월 26일 발표한 2030서울플랜(안)의 내용에는 5개 분과별 전략과 과제가 도시공간구조, 공간계획의 세부과제 및 권역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도가 보이고 있지 않음

- 또한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표 Ⅴ-1▐ 전문가 자문단 운영 내용

구분	일시	내용
제1회	2012년 6월 18일	1. 자문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 2. 2030 도시기본계획 개선방향 및 자문단 운영사항 등 논의
제2회	2012년 6월 27일	1.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방안 (국민대 김환석 교수) 2. 자문단 운영과 향후 TF 구성방안 (세종대 변창흠 교수 발제) 3. 청주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주민참여 사례(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 3. 석학초청 토론회 개최방안
제3회	2012년 7월 9일	1. 시민참여방안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 추가 논의 2. 기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진단 (서울연구원 김인희 박사) 3. 도시기본계획의 형식과 편제 (서울대 최막중 교수)
제4회	2012년 7월 16일	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반영해야할 인문,사회학적 가치 (서울대 전상인 교수, 전효관) 2. 시민참여방안, 자문단 역할과 기능 등 추가 논의
제5회	2012년 7월 23일	1. 계획수립 추진체계, 시민참여방법과 절차 등 확정 2. 미래서울이 지향해야 할 가치·철학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방안 등
제6회	2012년 8월 27일	1. 바람직한 서울의 미래모습에 대한 분야별 키워드 발굴(커뮤니티/공동체, 형평/평등, 복지, 역사·문화·자연, 안전(재해)·방재, 지속가증성, 경제·활력, 다양성/창의성, 쾌적성/편리)
제7회	2012년 9월 22일	1. 전문가입장에서 서울의 미래상 및 분야별 핵심이슈 발굴, 투표를 통해 결정

자료: http://citybuild.seoul.go.kr

○ 서울플랜 토론한마당(서울플랜 콘서트)

- '석학초청토론회'는 분야별로 최고의 석학을 초청하여 20년후 서울미래를 예측하고,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설정에 반영하고자 진행하였음.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진행되었음
- 하지만 초청된 석학이 모두 남성전문가이며, 토론내용 또한 도시공간과 관련된 형평성, 평등, 성평등, 여성의 삶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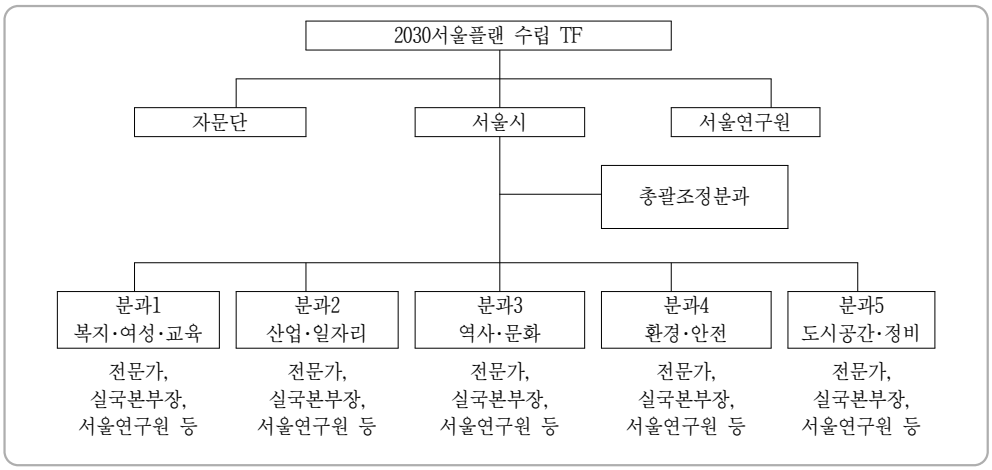
▌표 Ⅴ-2▌ 서울플랜 토론한마당 운영 내용

구분	일시	내용	발표자
제1회	2012년 8월 31일(금)	2030서울플랜의 인문·사회과학적 비전	전상인 (서울대 교수)
제2회	2012년 9월 5일(수)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공간의 변화와 서울 2030의 대응	박삼옥 (서울대 교수)
제3회	2012년 9월 12일(수)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위기와 서울 2030의 대응	박진희 (동국대 교수)
제4회	2012년 9월 18일(화)	첨단기술과 미래사회, 그리고 서울의 변화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제5회	2012년 9월 27일(목)	서울로 가는 길: 서울연구의 시공간적 확장을 위한 시론	최종현 (한양대 교수)

자료: http://citybuild.seoul.go.kr

○ 서울플랜 수립 TFT

-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TFT'는 자문단, 서울시 행정, 서울연구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시민참여단 토론내용의 확정, 비전·전략(안) 등의 마련, 세부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지표 및 관리방법 등을 검토·작성하기 위해 운영됨. 이때 서울시는 소관분야 비전과 중장기계획을 검토하여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추진전략(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서울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 전면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2030서울플랜 수립과정의 세부행사 및 논의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또한 전문가자문단은 논의 주제별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여 장·단점 분석 및 서울시에 적용가능방안을 심층토의하여 계획서의 구성과 형태 등에 대해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TFT 참여 전문가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총괄 MP와 각 분과별 MP의 명단 정도가 공개되어 있음. 서울시에서 복지·여성·교육분과를 제1분과로 구성한 이유는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핵심키워드가 바로 복지와 교육이었기 때문임. 여기에 여성 내용이 삽입된 것은 제1분과에 참여한 여성전문가가 서울플랜의 내용에 형평성과 평등에 대한 논의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



▌그림 Ⅴ-6▐ 서울플랜 수립 TFT 운영 체계

○ 시민참여단의 참여

-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역할

• '시민참여단'은 계획수립 전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임. 시민공모(50명) 및 지역 및 직능대표성을 가진 시민(50명)을 추천받아 선정하였으며, 계획수립 전 과정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계층별 도시계획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시민참여 과정으로 진행한 것은 '전문지식과는 달리 시민지식(lay Knowledge)은 일상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에 의한 지식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포함한 포괄적 지식을 갖춘 주체'이기 때문에 전문가지식과 시민지식의 협력 및 상호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임(김환석, 2012). 또한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시민참여단 총100명 중 여성이 51명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약간 높음. 하지만 이는 전업주부로서 여성이 16명이며, 기업인, 노인, 장애인 등의 분야에서 여성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보임.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60대 이상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보임. 또한 시민참여단의 직업별 구성을 대학생, 전업주부, 직장인, 기업인,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서울시민의

직업분포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 서울시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포괄성을 가진 계층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민참여단 100명이 성별, 연령, 계층, 지역 등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정에서도 논의되었지만 '한명이 한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표 Ⅴ-3▐ 성별 계층별 시민참여단의 구성

성별	합계	대학생	전업주부	직장인	기업인	자영업	노인	장애인	외국인
계	100	13	16	39	7	14	6	3	2
남	49	7	-	19	6	9	4	3	1
여	51	6	16	20	1	5	2	-	1

▌표 Ⅴ-4▐ 성별 연령별 시민참여단의 구성

연령대	남	여	계	연령대	남	여	계
20대	9	11	20	50대	10	15	25
30대	7	10	17	60대 이상	8	4	12
40대	15	11	26	계	49	51	100

자료: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정책자료집, 서울시, 2012

- 시민참여단 활동방법

- 2회의 예비회의와 1회의 본회의를 운영하였으며, 회의는 10명 단위 10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분임별 워크숍 및 숙의(熟議, deliberation)방식[39]으로 진행하였음. 시민이 직접 20년 후 미래 서울의 핵심이슈 및 미래상을 선정하여 '시민제안서'의 형태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울시에 전달하였음

39) 숙의는 '참여자들이 학습과 토론,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지식을 형성하고 판단을 변화시켜나가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숙의적인가, 비숙의적인가는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의 형성 및 발휘과정에서 시민이 얼마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남(김환석, 2012)

- 시민참여단 활동 일정

• 1차 예비회의 : 2012년 9월 1일(토), 비전을 말하다, 75인 참석

주요내용		발표자
출범식 및 위촉장 수여		
서울 이야기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합의회의 진행방식	김환석(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을 둘러싼 주요 변화	이주일(서울연구원 박사)
	도시와 인간의 삶, 2030서울의 미래	변미리(서울연구원 박사)
내가 느끼는 서울의 좋은 점과 문제점 도출		
브레인라이팅 “내가 꿈꾸는 2030서울의 미래는 (　　)다.“		

• 2차 예비회의 : 2012년 9월 15일(토), 이슈를 말하다, 73인 참석

주요내용		발표자
브레인라이팅 분석결과 보고		
서울 이야기	기후변화와 서울의 도시계획	이주일(서울연구원 박사)
	미래산업과 일자리	김영수(산업연구원 박사)
	서울교통의 새로운 비전과 도시계획	민만기(노색교통운동 이사)
	서울의 매력	정석(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서울의 주택과 주거지역	홍인옥(한국도시사회연구소 소장)
2030년까지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도출		
핵심과제(핵심이슈) 도출		

• 본회의 : 2012년 10월 6일(토)~7일(일), 비전과 이슈를 만들다, 73인 참석

주요내용		발표자
주요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		
시민강좌	마을만들기와 시민의식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처장)
핵심이슈별 과제 우선순위 설정		
2030 서울의 미래상 숙의 및 도출		
시민제안서 작성: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		

-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시민제안서-2030서울플랜 서울의 미래상

• 시민이 제안한 시민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핵심이슈로, 복지, 일자리, 역사문화경관, 기후변화·환경, 도시개발 및 정비를 선택함. 또한 주요과제의 우선순위로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순위),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2순위),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3순위) 등을 선택함. 결국 교육, 복지, 일자리의 이슈가 시민들이 선택한 2030 미래서울이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여할 과제로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민제안서의 내용은 시민이 상충되는 가치에 대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의견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즉, 재산권이 제한되더라도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할 것인가를 시민스스로 선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예를 들어 역사문화보전을 하게 될 경우 시민에게는 개인재산권을 제약해도 된다는 수락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최막중, 2012)

•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활동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시민제안과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시민제안서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형평성, 여성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

▌표 Ⅴ-5▐ 시민참여단의 시민제안서 내용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소통, 공존, 배려, 상생, 건강)	
분야별 이슈	정책방향	주요과제(우선순위 3~4위 이내)
복지	지역특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실현	•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2순위) • 실질적인 복지재원 확보와 투명한 예산집행 절차 구축 •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
일자리	서민형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중소기업 육성	• 특화된 중소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3순위) • 자영업, 골목상권 육성지원을 통한 서민형 일자리 창출 활성화
역사문화·경관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경관 관리	•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유지 • 역사도시 '서울' 이미지 보전을 통한 스토리 있는 서울만들기 -한강변 고층주거 개발 제한
기후변화·환경	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 및 친환경 녹색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	• 시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실질적 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 • 에너지 절감과 대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및 정비 • 친환경 생활제품, 고효율·단열자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 강화 • 공공기관, 기업체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
도시개발 및 정비	도시개발 방식의 전환을 통한 지역특성 보존	• 주변 환경과 공존하는 개발로의 전환 • 대규모 통합개발을 지양하고, 소단위 개발을 지향 •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사업 억제 • 투명한 도시개발과 시민재산권 보호
기타1: 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및 시민의식 강화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순위) • 공교육 활성화
기타2: 소통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권리의 보장 및 소통 시스템 구축	•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 전반에서의 시민참여 권리 보장 • 내실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창구 설치 • 주민참여의 활성 제도화

○ 청소년참여단의 참여

- 청소년참여단의 구성

• 청소년 참여단은 전체 16명 중 여학생이 10명으로 남학생보다 많이 참여함. 하지만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높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홈스쿨링 학생의 참여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표 Ⅴ-6▐ 청소년 참여단의 구성

성별	합계	중학생	고등학생	홈스쿨링
계	16	2	13	1
남	6	1	4	1
여	10	1	9	0

- 청소년이 선정한 서울의 핵심이슈: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청소년 제안서-2030서울플랜의 바람직한 미래상-

• 청소년이 제시한 서울시의 핵심이슈는 빈부격차 해소, 문화산업활성화, 역사·문화서울, 환경, 모두와 함께하는 서울 등의 이슈임. 또한 청소년 미래상으로는 청소년참여 활성화,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 노동권리보장,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핵심이슈로 제시함

• 하지만 역시 서울시의 청소년 참여단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에는 청소년과 청소녀의 서로 다른 이슈와 과제에 대한 의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요구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는 상황임. 또한 과제 내용에서도 형평성 증진, 여성, 청소녀와 관련된 특별한 이슈나 과제가 제안되고 있는 것은 아님

▌표 Ⅴ-7▐ 청소년참여단의 청소년제안서 내용

구분	핵심이슈	과제
1. 발전하는 서울	(1)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경제성장	①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위주의 지원
		② 각 분기별 중소기업제품 3일 직거래 장터
		③ 청년사업, 아이디어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꿈꾸는 청년가게 확대)
	(2) 서울만의 문화산업 활성화	① 서울만의 문화를 만들어 경제이윤 창출
		② 서울시 지역사회 랜드마크
2. 함께하는 서울	(1) 역사-문화재가 함께하는 서울	① 철저한 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
		② 시민의 휴식을 책임지는 문화재
	(2) 환경과 함께하는 서울	① 환경사업 및 연료낭비 줄이기
		② 자연친화적 개발 및 디자인
	(3) 모두와 함께하는 서울	① 지역구 격차해소(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
		② 시립 보육시설 확대
		③ 장애인 콜택시 수 증가
3. 2030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	(1)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①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 제정
		② 실제적인 청소년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피드백, 모니터링 필수)
		③ 청소년 정책 포럼 실시 및 확대 운영
		④ 청소년 참여기구 및 발언기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홍보
	(2) 청소년 활동 활성화	① 양질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
		② 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기획하는 활동프로그램 확대 운영
		③ 다수의 청소년활동사이트 통폐합
	(3) 노동의 권리 - 근로청소년	① 청소년일자리 권리 및 인식 필요(시급, 노동계약서 등)
		② 시 차원의 청소년 일자리 제도 정착
	(4)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 모색	①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교육감 선거 나이 하향 조정
		② 정규교육에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③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실시

○ 온라인 참여단

- 서울시는 이외에도 '온라인' 즉, 서울시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 SNS 등을 활용하여 주제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시민이나 전문가 대상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정대상별 의견수렴을 확대하고자 하는 과정을 거침
-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참여한 시민이나 전문가의 성별참여비율이나 설문조사 분석결과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일반시민에 대한 의견조사

- 서울연구원은 2009년 10월~11월 2개월 동안 시민,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대상은 만20세 이상 서울시민과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와 관련 행정가로 총 1,940명이 조사되었음

▌표 Ⅴ-8▌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시 민 : 만20세 이상 서울 시민 전문가 : 도시계획 관련 각 분야 전문가 공무원 : 서울시 본청 근무 과장 및 팀장
표본수	시 민 : 1,500명 전문가 : 200명 공무원 : 240명
표본 할당 및 추출	시 민 : 실사 진행시 25개 구별 60표본씩 동수 할당 분석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전문가/공무원 : 리스트 내 체계적 추출
조사방법	시 민 : 개별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전문가/공무원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시민, 전문가/공무원으로 구분(서울의 모습, 미래상 등은 공통)
조사기간	시 민 : 2009년 10월 8일 ~ 10월 26일 전문가/공무원 : 2009년 10월 23일 ~ 11월 23일

- 주요조사내용은 서울의 현재 모습과 장래상, 서울의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 서울시 생활환경 만족도, 자치구 생활환경 만족도, 부문별 계획의 정책방향,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으로 이루어짐
- 하지만 이 조사내용 또한 서울시에서 2030서울플랜 안을 발표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료로 본 연구에서 분석할 수 없음

○ 전문가 및 일반시민 참여절차의 시사점

- 전문가 참여절차의 시사점
  - 전문가의 참여절차를 살펴보면 전문가 자문단 중 여성비율이 15%로 참여자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여성의 참여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가 아니라 아직도 여성과 복지, 사회 등의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가치와 철학이 2030 서울플랜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즉,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와 인문사회적 가치가 2030서울플랜의 내용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 형평성, 성평등의 관점과 도시공간의 관련성 및 여성과 성평등의 가치를 도시공간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일반시민 참여절차의 시사점
  - 시민참여단이나 청소년참여단의 경우 절대적인 여성의 참여비율이 높이 나타남. 이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을 조정하였기 때문임. 하지만 이들의 논의 내용에 대해 성별로 제안한 내용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별 요구의 차이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임
  - 또한 시민참여단이나 청소년참여단의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나 청소녀의 특수한 지위, 경험, 요구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있지 않음. 이는 여성이 많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특별히 여성과 성평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함. 또한 2030서울플랜이 최상위도시공간계획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이 서울시의 도시공간배치 및 구축에 대해 어떤 경험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음.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제안내용은 대부분 사회적 정책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정책 목표를 도시공간에 구현하는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놓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평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일반시민이나, 행정, 전문가 등 모두에게는 서울시의 지향가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제2조, 제18조와 제19조 이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음. 하지만 제3조[40]에서 제시된 법률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원칙을 살펴보면 여전히 효율성과 경제활동, 그리고 환경의 관점에서만 국토개발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삶의 질도 주거의 측면에서만 보고 있으며, 문화유산보전, 균형발전 정도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을 뿐임. 즉, 아직까지 국토개발과정에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형평성과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다양한 주민의 개발에 대한 요구파악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알 수 있음

---

40)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추구하여야 할 인문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 도시공간 안에서 살고있는 시민이 어떤 도시공간이 구축되길 원하는지 알고자 하는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함

○ 2030 서울플랜 관련 행정지침

- 서울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에서는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과 관련된 2012년 정책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2-3). 여기에는 '시민참여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서'를 비롯하여, TF운영, 자문단운영, 추진위원회 운영, 시민참여단 운영, 토론한마당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계획서가 제시되어 있음
- 하지만 행정지침의 어디에도 2030서울플랜 수립시 성평등 가치를 고려하여 세우도록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특히 서울시장까지 결재를 득한 '시민참여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서'를 보면, 사전검토항목의 기타고려사항으로 '성인지'항목을 체크하고 있지 않아 2030서울플랜 수립과정에서 행정이 성평등 가치의 고려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 민 :	유 ■ (시민참여단 등 참여)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간담회 등 개최, 의견수렴)	무 □
	● 전 문 가 :	유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 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시민참여단으로 위촉)	무 □
	● 기 업 :	유 ■ (시민참여단으로 위촉)	무 □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 관 계 기 관 :	유 □ ( )	무 ■
	● 관 련 단 체 :	유 □ ( )	무 ■

▌그림 Ⅴ-7▐ 2030 서울플랜 수립계획서 검토항목

○ 관련 법규와 행정지침의 시사점

- 근거 법규의 내용은 공간정책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을 제공함.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도시공간정책 및 도시계획의 개선안은 대체로 성인지적 내용을 도출하게 되고 실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는 도시공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두 법규 모두 여성의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집단의 참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사회 각 계층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자문회의 및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위촉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위원이 40%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여성이 참여할 때에는 항상 여성이나 복지계의 여성을 찾고 있지만 건축,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 등의 분야에서 여성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
- 또한 도시공간구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양성간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결핍과 차별을 채워나가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요구를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도시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7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 **역세권 중심의 입체화 고밀복합 개발 방식의 개선과 일상활동 공간의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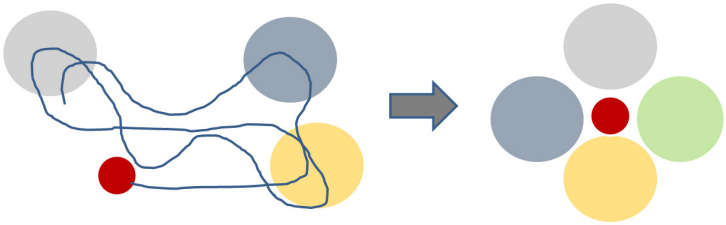
○ 자원 및 교통에너지 절약을 위한 역세권 중심 대규모 복합고밀 도시공간구조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권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 및 교통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역세권 중심의 대규모 복합고밀 시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도시공간이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근거리에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서비스의 제공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이에 따라 지원하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는 필요 시설 간의 이동의 증가를 야기하여 토지자원과 교통에너지의 절약에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다양한 돌봄 및 가사 활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는 현실에서 이동 동선의 확장은 여성의 도시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돌봄과 가사로 인한 노동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남성에 비해 비정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고, 일과 돌봄의 병행이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과 생활의 병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구조는 도시공간의 성형평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슈임. 집안에서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과 생활의 영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활동 거점이 도시 공간 속에 촘촘히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병원, 자녀의 학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녹지 공간, 소규모의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커뮤니티 공간이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커뮤니티 허브는 대규모의 복합시설로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근린 규모의 작은 스케일로 구축하고, 도시 전반에 촘촘하게 분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과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자원과 교통에너지의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음.

여성의 일상적인 요구를 해결할 시설들이 한 장소에 모여 원스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필요함. 이는 요건에 부응할 수 있는 근린 주구 내 초등학교시설과의 연계도 고려대상이 됨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보도, 자전거, 자동차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노드에 위치
- 스케일이 과다하지 않도록 근린의 규모조절 필요
- 항시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도록 자연감시가 가능한 공간구성
- 돌봄과 관련된 보육시설, 주간보호센터 포함
- 의식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집적(쇼핑, 클리닝, 현금지급기, 우편관련 시설, 각종 수리/렌탈샵, 주거유지관리샵 등)
- 건강관리를 위한 소규모 클리닉, 피트니스센터/체육시설
- 커뮤니티행사에 활용 가능한 다용도 공간(옥내/옥외)



▌그림 Ⅴ-8▐ 집중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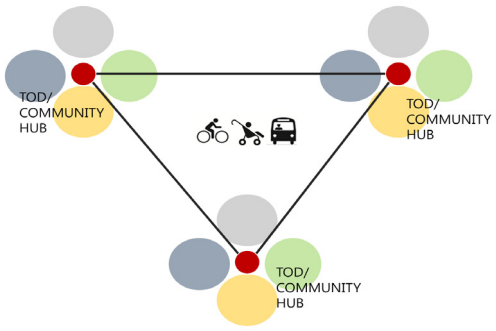
□ **보행자 우선 배려 및 대중교통위주의 토지이용 추구를 넘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및 커뮤니티 허브 간 이동 네트워크의 구축**

○ 보행자 우선 배려 및 대중교통위주의 토지이용을 추구하되, 근린에서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커뮤니티 허브 구축

- 보행자의 우선적 배려와 대중교통위주의 집약적인 토지이용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효율 및 공간과 건물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임. 여성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고, 보행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위주의 토지이용은 여성들의 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대중교통 결절점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고밀복합용도의 개발이 대규모의 입체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경우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
- 첫째로, 공간의 안전성 문제임. 교통과 보행의 분리, 입체 차도 등으로 인해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는 public eye를 통한 자연감시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도시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됨.
- 둘째, 입체화된 공간은 이용자의 행태를 반영하기에 규모와 형태가 적절치 못함.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단거리의 잦은 이동 패턴을 보이는 여성의 이동 경향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복합시설은 여성의 이동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행거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아동을 동반하거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을 고려하면 대규모, 입체화 공간 속에서의 수직, 수평 보행거리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함.
- 셋째, 승용차 이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함.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토지이용은 승용차의 이용 지양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자동차 중심의 토지이용이 도시공간의 분리에 영향을 주었으며, 여성과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존성이 높은 그룹의 공간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은 사실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잡한 동선을 갖는 여성의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되 보행이동이 가

능한 거리 안에 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근린 규모로 개발하고,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계획을 우선시하면서 환승 등을 통한 자동차 관련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됨

- 주거지 근린에서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허브가 교통의 노드에 마련되어 일정거리마다 구성되는 네트워크계획이 필요함
- 이러한 허브들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보도, 자전거, 자동차로 모두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시간대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 이동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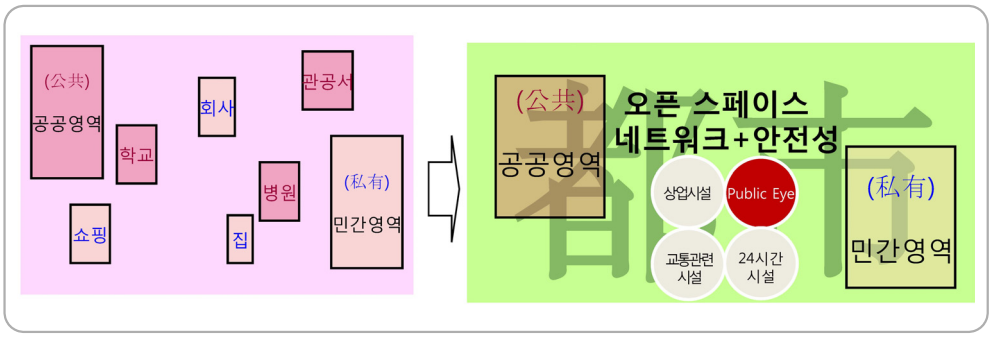
▌그림 Ⅴ-9▐ 네트워크의 원칙

□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구조 창출

○ CPTED개념을 도입하여 서울시 도시 및 건축의 공간 물리적 환경을 설계함에 있어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Public eye를 통한 일상공간에 대한 자연감시, 오픈 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이동수단·경로·시간대 등에 따른 이동안전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벨기에의 옐로우디자인재단에서는 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적용하여 밝고 넓은 통로나 길을 확보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공 공간은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즉,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CCTV, 조도, 시야 등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서 신문과 잡지를 읽을 수 있고 음악을 듣고 기다리면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지루하지 않게 이동할 때라는 것임 (옐로우디자인재단, 공공공간의 여성화프로젝트, 2004)

○ 이를 위해서는 생활가로 상에 가시적인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시선(Public eye)이 존재할 때 도시공간의 안전성이 높아지므로 시설들은 시간대별로 이용에 끊어짐이 없도록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상업시설, 24시간 시설, 치안시설등)을 집약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Ⅴ-10▐ 오픈스페이스의 안전성

□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함. 서비스 시설이 집중된 커뮤니티 허브 속에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의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협동조합 등의 활동공간,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여기서 지역 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할 수 있음.

○ 지역 내 일자리 뿐 아니라 재택근무를 위한 오픈오피스, 병원, 자녀의 학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녹지 공간, 소규모의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커뮤니티 허브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통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도시계획의 핵심이슈들이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커뮤니티 허브와 커뮤니티 허브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도시공간의 위계와 통합되어 운영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장소성과 주민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 창출

○ 대규모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장소성과 주민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환경의 창출은 주거에 대한 다양한 그룹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요구가 증가되는 1인 가구 주택,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경제적 이유로 주택시장의 공급에서 간과되기 쉬운 다양한 평면과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계획이 필요함.

○ 특히, 여성가구주, 모자가정, 여성 독거노인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음. 이러한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에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높은 역세권에서 먼 거리에 거주할 수밖에 없음. 이에, 임대주택의 공급시 적정 임대 비율을 유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고려한 위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함. 또한 주거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다양하게 요구됨.

□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 사회적 합의 도출

○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이해당사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임. 도시공간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임. 특정한 이용대상이 있는 경우는 수혜자의 예측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일반적인 도시공간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수혜자의 예측이 어려움. 이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이 성별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경향도 존재함.

○ 그러나 이용자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한 이용 그룹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성별, 연령, 계층,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지닌 공간이용자들이 모두 수월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대부분의 도시공간 조성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고, 또한 전문가들의 구성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다양한 공간이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성별, 연령, 계층, 신체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하여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됨.

Ⅵ

결 론

제1절 2030 서울플랜 반영 성평등 제언 사항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진 사항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Ⅵ 결 론

제1절 2030 서울플랜 반영 성평등 제언 사항

1. 2030 서울플랜(안) 반영 제언 사항

□ 2030 서울플랜(안) 반영 제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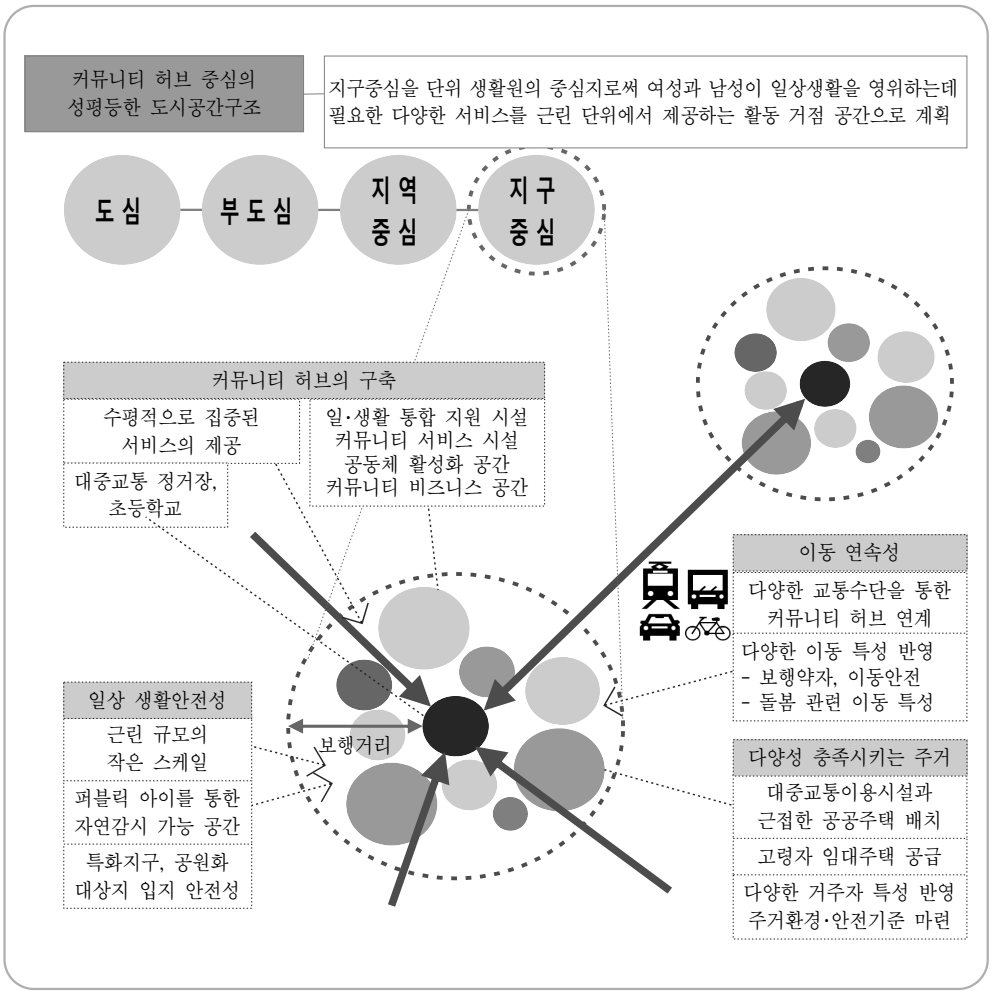
○ 성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선방향을 기반으로 2030 성평등 도시 서울의 도시공간계획에 대한 반영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반영사항은 근린규모 커뮤니티 허브의 구축,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이는 공간구조 구축,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다양한 주거의 제공, 도시계획 결정 구조의 개선,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여섯 가지임

▌표 Ⅵ-1▐ 2030서울플랜(안) 성 분석결과 반영 제언사항

도시공간 젠더이슈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	2030서울플랜(안) 성 분석 결과 정책제언사항
일·생활 통합 (Integration)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	• 역세권중심의 입체화 고밀복합 개발방식 변경 → 생활동선, 안전성 고려 저층의 다양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허브로의 전환
열린 커뮤니티 (Access)	커뮤니티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대규모 복합고밀시설 계획 → 일상활동 연계 근린의 소규모 공간으로 지역내 접근성과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 허브 구축과 연계
생활안전 (Safety)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공간구조	• CPTED 개념 수용 → Public Eye 를 통한 일상공간에 대한 자연감시, 공공유휴지·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 안전성 확보, 다양한 이동수단·경로· 시간대 등에 따른 이동안전성 확보
이동성 (Mobility)	일상의 영위를 위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 자원 및 교통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집약적 토지이용 → 보행, 대중교통,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및 커뮤니티 허브 간 이동 네트워크 구축
다양성 (Diversity)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도시공간 계획	•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 인구 및 생활양식 다양화 반영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역세권과 연계된 공공주택의 입지확보
참여 (Participation)	다양한 공간이용자들의 참여와 소통 지원	• 전문가참여단 여성 15%, 시민참여단 100명 중 여성 51명 → 참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필요, 여성계 전문가뿐 아니라 도시계획·건축·교통 등의 분야에서 여성전문가 참여 필요
제도 (system)	성평등에 대한 일상적 고려기반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서 여성전문가 참여 명시, 도시공간사용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요구파악 필요

□ 성평등한 도시공간계획을 위한 서울 2030 계획의 개선 방향

○ 이러한 정책제언사항을 가시적인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Ⅵ-1▐ 성평등 도시공간구조 및 세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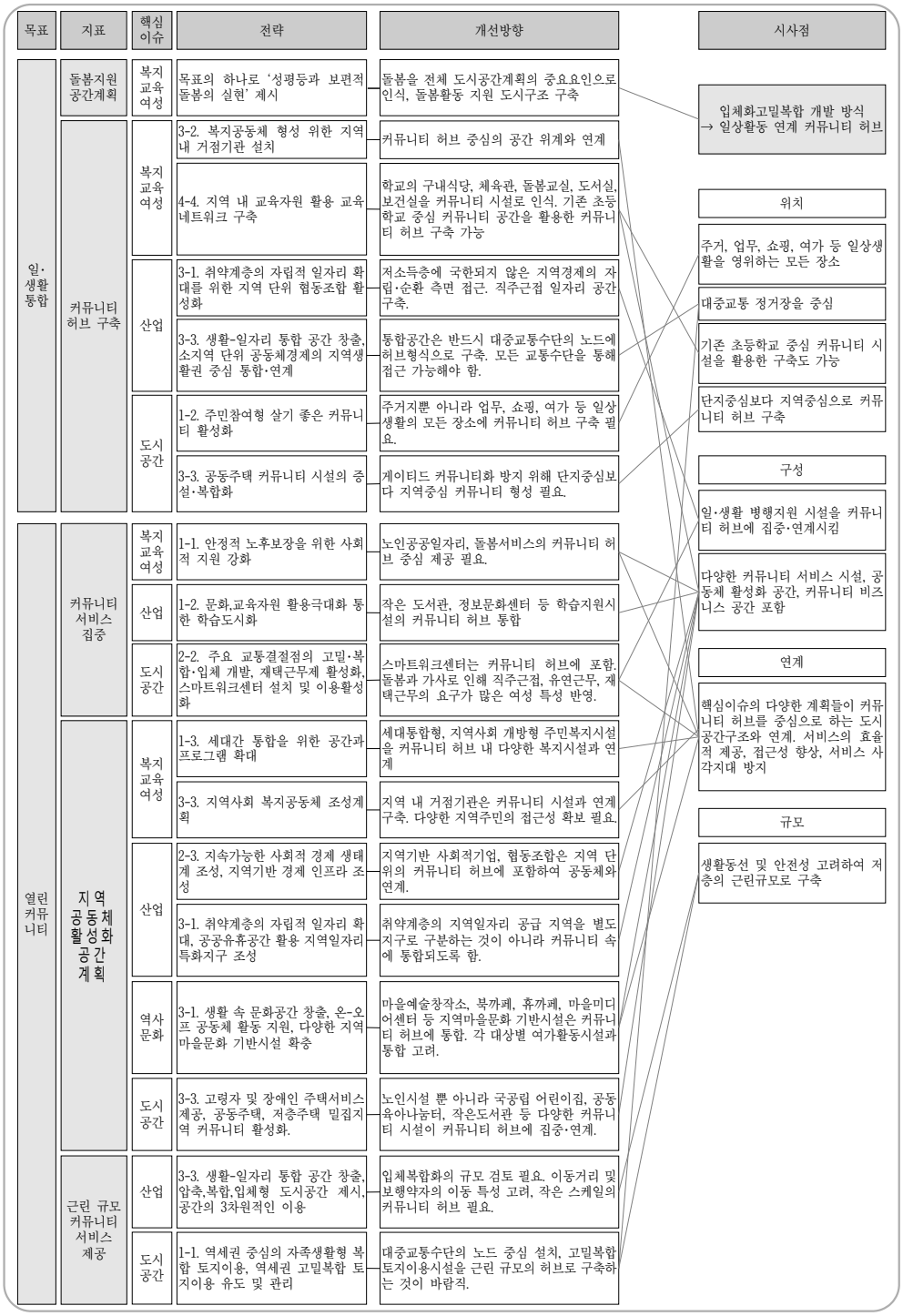
□ 커뮤니티 허브 구축

○ 역세세권 중심의 입체화 고밀복합 개발 방식이 지닌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 활동 공간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허브로의 전환을 제안함.

- 위치: 남성과 여성 모두 근거리에서 수월하게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주거 뿐 아니라 업무, 쇼핑, 여가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

에 커뮤니티 허브의 구축이 필요함. 대중교통 정거장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를 커뮤니티 허브로서 활용할 수 있음.

- 규모: 대규모의 입체화된 구조가 아니라 생활 동선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저층의 작은 규모가 되어야 함. 커뮤니티 허브를 근린 규모로 구축함으로써 지역 단위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함.
- 구성: 일과 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커뮤니티 허브와 연계, 집중되어야 함.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시설, 공동체 활성화 공간,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직주근접의 일자리 환경을 마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임.
- 서비스의 연계: 2030 성평등 도시공간계획의 핵심이슈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계획이 커뮤니티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구조와 연계되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커뮤니티 허브 사이의 촘촘한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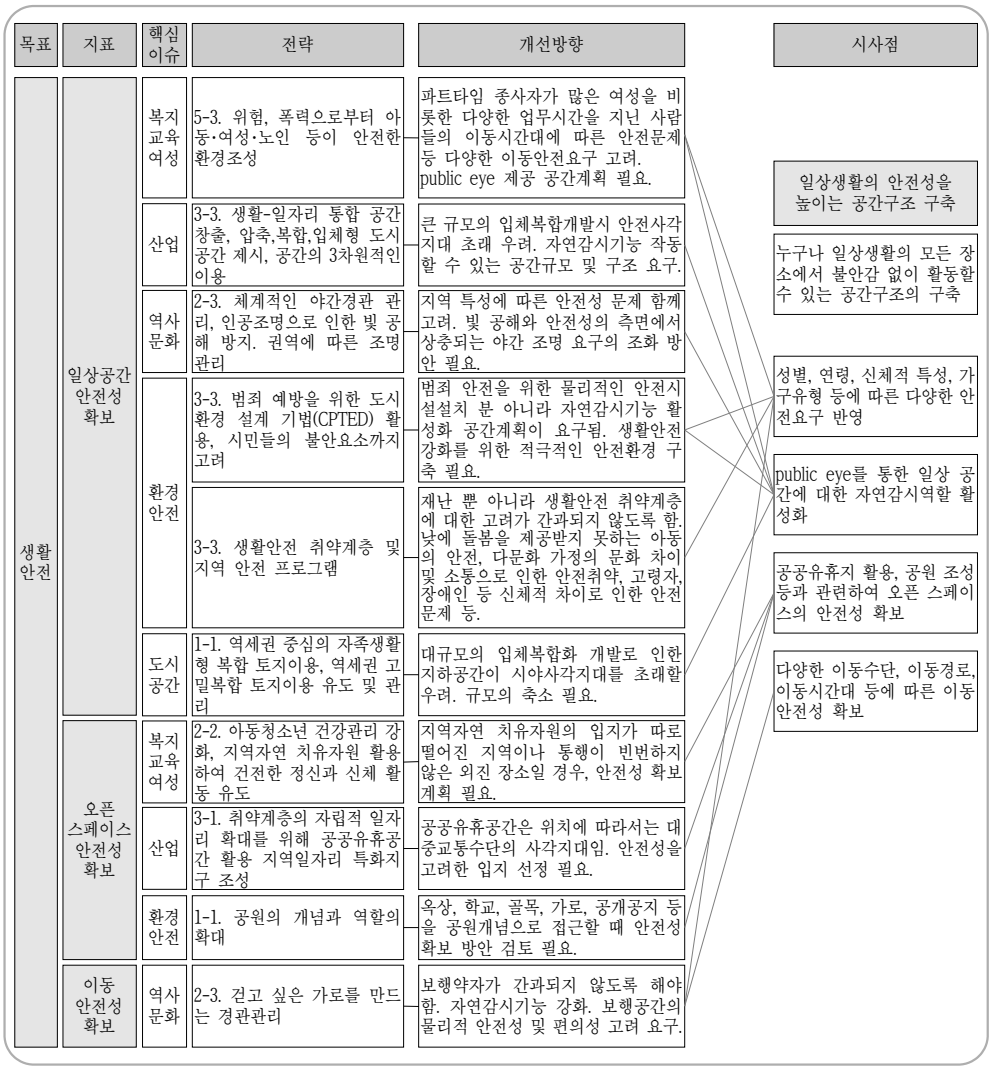
▌그림 Ⅵ-2▐ 커뮤니티 허브 구축 방안

□ **일상생활의 안전성 확보**

○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이는 공간구조 구축

- 누구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불안감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구조의 구축이 필요함.
- 도시공간은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 가구유형 등에 따른 다양한 안전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에 대해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일상에서의 생활안전의 확보를 위해, ① public eye를 통한 일상 공간에 대한 자연감시역할 활성화[41], ② 공공유휴지 활용, 공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오픈스페이스의 안전성 확보, ③ 다양한 이동수단, 이동경로, 이동시간대 등에 따른 이동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41) 생활가로 상에 가시적인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시선(public eye)이 존재할 때 도시공간의 안전성이 높아지므로 시설들은 시간대별로 이용에 끊어짐이 없도록 안전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집약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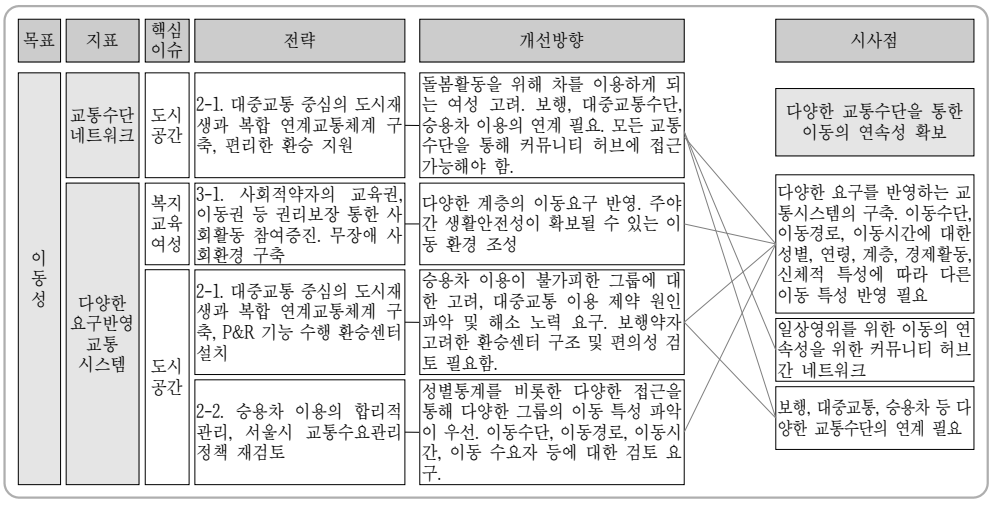


▌그림 Ⅵ-3▐ 일상생활의 안전성 확보 방안

□ **이동의 연속성 확보**

○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연속성 확보

-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교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동수단, 이동경로, 이동시간, 이동 수요자 등에 대해 성별, 연령, 계층, 경제활동, 신체적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이동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돌봄과 가사 활동과 관련된 단편적인 이동이 많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한 커뮤니티 허브 간 네트워크가 요구됨.
- 보행, 대중교통,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함. 특히, 승용차의 경우, 무조건적인 배제보다는 돌봄으로 인한 아동이나 노인 동반객이 있는 여성들의 사용 등 불가피한 승용차 이용 그룹을 고려하여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 방안도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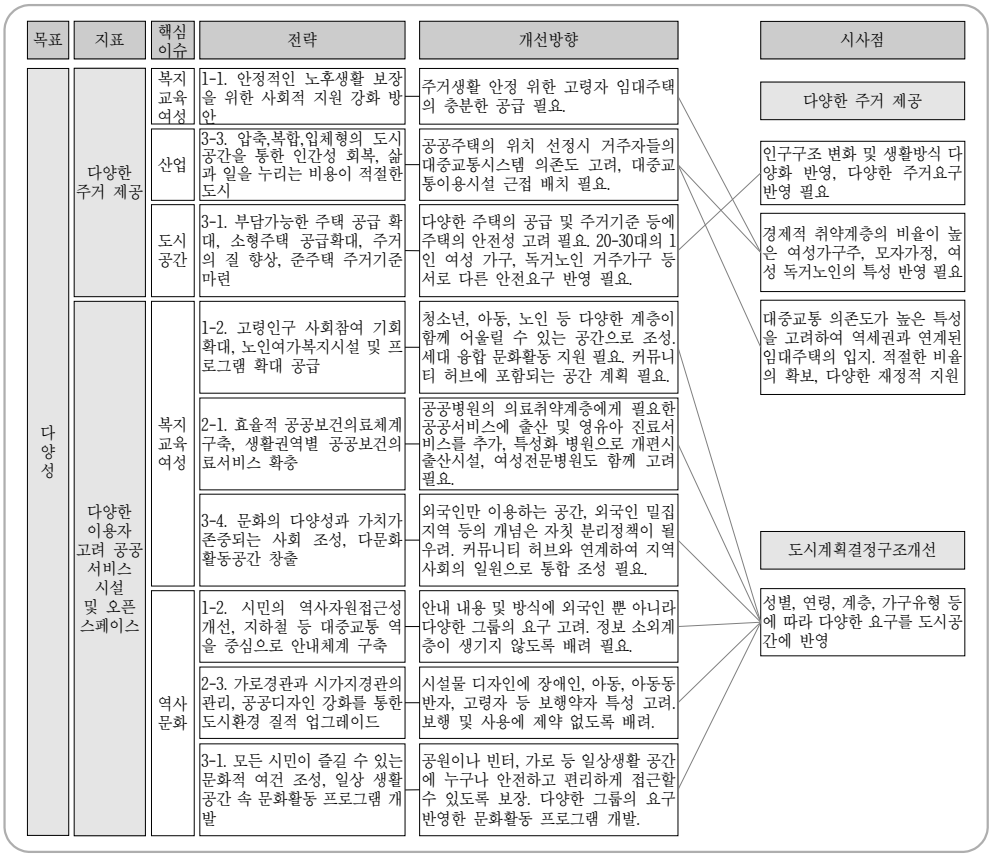


▌그림 Ⅵ-4▐ 이동의 연속성 확보방안

□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주거**

○ 다양한 주거의 제공

-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생활 방식 다양화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 증가되는 1인 가구의 주거나 한부모 가구, 고령자 가구 등 가구유형에 따라 다양한 평면과 규모, 안전요구, 생활패턴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여성가구주, 모자가정, 여성 독거노인 등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으며, 이들의 생활 특성 및 주거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역세권과 연계된 임대주택의 입지와 적절한 비율의 확보, 이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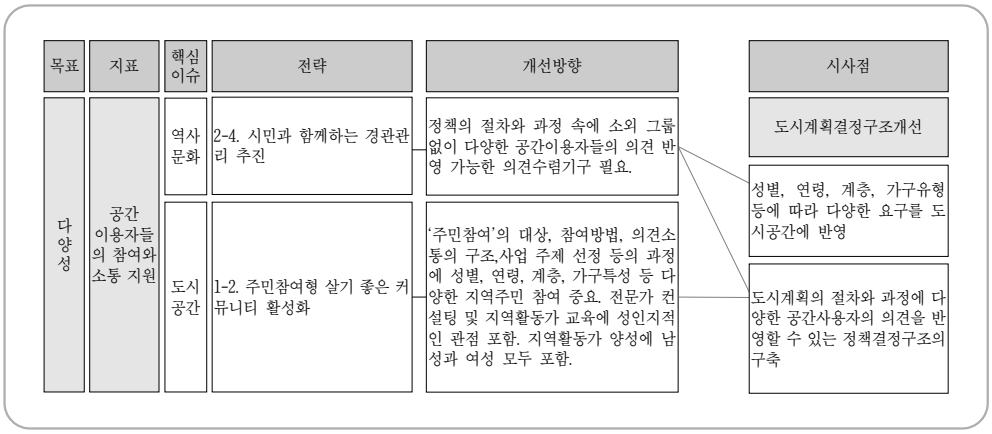


▌그림 Ⅵ-5▐ 다양한 주거의 제공 방안

□ 도시계획 결정 구조의 개선

○ 도시계획의 절차와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 보장

- 성별, 연령, 계층, 가구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도시공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절차와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함.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 남성 위주의 전문가 뿐 아니라 여성 전문가 및 다양한 공간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그림 Ⅵ-6▐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개선

□ 제도적 기반 확보

○ 성평등 도시공간 정책의 법규 개정

- 성평등 도시공간을 가진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우선과제임. 특히 성평등 도시공간구축 과정은 도시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므로 여성정책부서가 아닌 일반정책부서에서 성평등의 가치와 원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규정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시 '여성과 남성의 도시생활에 대한 요구의 차이를 파악'하도록 제언함. 또한 도시계획위

원회 운영과정에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여성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언함[42)]

▌표 Ⅵ-2▐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④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생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의 사회·문화적 요구,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 (구성 및 운영) ③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7.30>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개정 2008.7.30, 2010.1.7>	제57조 (구성 및 운영) ③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7.30>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성평등·문화·정보통신 도시설계 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 21명 이하

자료: 손문금 외(2012),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모델개발 연구

42) 2012년 '마곡지구 성평등 도시개발모델 개발 연구'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제언하였던 부분을 재인용함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추진 사항

□ **2030 서울플랜(안) 중 도시공간구조의 목표 및 과제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못함**

○ 계획의 실현 방안, 공간구조구상, 생활권계획 등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 서울시에서 2030서울플랜(안) 중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실행할 수 없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조 및 생활권계획을 분석하고, 2030 서울플랜 공간구조구상과 생활권계획의 목표 및 과제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평등 사항에 대해 분석·제언하였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음

○ 2030 서울플랜(안)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의 도시'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도시공간구조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차별화된 이용방식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장애, 나이, 성, 경제사정 등에 상관없이 지역공동체, 도시서비스, 인프라, 대중교통 등의 도시공간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임

○ 2030서울플랜이 최상위도시공간계획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이 서울시의 도시공간배치 및 구축에 대해 어떤 경험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었음.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제안내용은 대부분 5개 분과별로 사회적 정책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정책 목표를 도시공간에 구현하는 내용과 방법은 여전히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놓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는 공간계획은 여전히 전문가의 몫이며, 일반시민이 검토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정책적 과제와 달리 도시공간 관련 과제는 다양한 집단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중립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도시계획들 간의 위계에 따른 단절 극복 필요**

○ 도시기본계획 아래로는 부문별 법정계획, 도시관리계획, 실국별 관련계획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계획들 간에는 서로 상위 계획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간극이 존재함. 따라서 2030서울플랜에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이 반영된다고 할지라도 하위 도시계획에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의 원칙을 따르리라는 보장은 없음. 그러하기 때문에 하위계획들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함께 서울시의 공식적인 문서이면서, 최상위 도시공간계획인 2030서울플랜에 성평등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하위 도시계획이 성평등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 검토가 필요함

□ **관련 전문가, 행정가 및 시민에 대한 교육 필요**

○ 2030서울플랜은 성별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함.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이 참여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를 고려한 공간계획이나 성별 도시공간사용의 차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인문사회적 가치를 통합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시공간과 관련된 인문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공간과 가지는 관계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연구결과가 2030서울플랜 수립 관련자들에게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성평등 도시공간구성에 대한 맥락을 알고 검토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고 검토할 때의 결과는 다를 수 있음. 따라서 2030서울플랜 관련자들에게 성평등 도시공간과 관련된 교육과 설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함

□ **성평등 관점의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이 지역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의 성평등 관점 반영이 단지 그동안 소외되어온 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고 참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성장에 꼭 필요한 관점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

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지역개발정책에서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낙후되거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통해서였음. 즉,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현재 상태와 비교해서 미래에는 보다 완벽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조건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산출하는 것으로 정의함. 그런데 성평등 관점이 지속가능한 성장 개념에 통합될 때 기존의 경제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바라보고, 인구유출이 없는 보다 강한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임(김양희 외, 2007). 이는 도시공간을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는 일생생활 영위자들에 대한 고려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요소이며, 여성이 그 주요 주체임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 또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에서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서울시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에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후 성평등 관점을 고려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이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생활환경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결과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20년 후 미래계획임에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간구성 방안에 대한 내용이 강함**

○ 2030서울플랜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모습을 만들기 위한 계획임. 따라서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방안에 대한 제언사항들도 20년 후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면서 설명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도시공간이 가진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것처럼 기술된 측면이 강함. 이는 2030년 서울의 성평등한 도시의 모습은 서울시가 당면한 성평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년 후 서울의 성평등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함

○ 하지만 여전히 성평등 도시공간구성 원칙이 적용되었을 때 서울시의 도시공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가시적인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즉 한 마을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돌봄시설, 공원과 녹지, 주거공

간과 소통공간, 사회적경제 및 첨단산업 일자리의 분포 등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참고문헌

강홍빈·김광중·김기호·김도년·양승우·이석정·정재용 공역(2010), Matthew Carmona et.al, 『도시설계: 장소만들기의 여섯차원』, 대가.

강현주(2010),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권상우(2007),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형평성 분석』,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년·신혜경·이경희·최재순·홍형옥 편역(1995), 『여성의 삶과 공간환경』, 한울아카데미.

김양희·김경희·류연규·장윤선·권선필·문태훈·이춘아·최경숙·이영세·문경희(2008),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영화(2010),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 공간의 정치에서 복지의 공간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1).

김왕배(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김재인·박성정·정경아·정윤수(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현(2012),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구축 방향』, 서울연구원

김환석(2010), "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통권 85호.

린다멕도웰(2010),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매튜 카모나 외(2009), 강홍빈 외 옮김, 『도시설계: 장소만들기의 여섯 차원』, 대가.

박경환(2009), "교차성의 지리와 접합의 정치: 경계 넘기의 지도그리기와 페미니스트 지리학", 「발전의 시대, 공간의 젠더정치」, 2009년 한국여성학회 제25차 춘계학술대회.

박명진·정준영·이영욱·양은경·김용호·손병우·김연종·김창남 편역(2007),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변미리(2012),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2009),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시민여론 및 전문가 설문조사』.

손문금·강선미(2010),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증진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젠다 포럼.

손문금·이재림·이순희·이민주(2012), 『마곡지구 성평등도시개발모델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도식(2008),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 통권325호.

양재섭·김상일·이재수·김선웅·정희윤·김인희·이주일·신상영·김태현·맹다미(2011), 『선도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향』, 서울연구원.

이상문·김경희·전영옥(2006),『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협성대학교.
이선영·김혜란·류전희·박성신·이원아(2006),『여성친화도시 서울: 방향과 과제』, (사)여성건설인 협회.
이선영·김혜란·김희옥·박성신·이원아(2012),『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설명서』, LH공사
이종수·전성우·이명진·강병진·송원경(2007),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방안 연구",『환경정책연구』, 6(3).
장미현(2013),『도시 및 건축분야의 성인지적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미현·차은아·강미선(2007), "건축 및 도시분야 성별영향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향-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10).
주디 와츠맨(2001), 조주현옮김,『페미니즘과 기술』, 당대.
질리언 로즈(2011), 정현주 옮김,『페미니즘과 지리학』, 한길사.
최막중(2012), "시론: 도시공동체의 다품종, 소량의 장소 만들기"『도시문제』, 47(520).
한국여성건설인협회(2003),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건설" 세미나 자료집.
떼오도를 폴 김(2009),『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시대의 창.

Assessment of the GLA's impact on Gender Equality, 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Assessment%20of%20GLA%20impact%20on%20LGB%20equality, pdf.
Clara Greed et. al. 2002. *Report on gender auditing and mainstreaming.* http://www.rtpi.org.uk/media/6340/Gender-Mainstreaming-Toolkit-Case-Studies-and-Pilots-2002, pdf.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2011), *Gender1 Guidance Note: Urban rehabilitation and transport projects.*
GTZ. Sustainable Transport: A Sourcebook for Policy-Makers in Developing Cities Module 7a Gender and Urban Transport: Smart and Affordable.
Henri Lefebvre(1991),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h.*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MA Black well.
Jaeckel, Monika and Marieke van Geldermalsen(2005), *Gender Sensitive Urban Planning,Urnanisim & Gender. A necessary vision for all. Barcelona*, Aplil 27th and 29th, http://monikajaeckel.com/wordpress/wp-content/uploads/2009/08/15b-principles-of-gender-sensitive-urban-planning. pdf.

Jo Beall(1996), *Urban Governance*: Why Gender Matters.

Judith A. Garber et.al. 1995. *Gender in Urban Research* SAGE Publications.

Kanishaka Goonewardena et. al(2008), *Space, Difference, Everyday Life*: Reading HenriLefebvre. Routledge.

Kristine B. Miranne et.al(2000), *Gendering the City: Women, Bounaries, and Visions of Urban Life*. Rowman & Little Field Publishers.

L. McDowell(1983),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gender division of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1(1), pp59-72.

Lisa Smyth(2008), *Gender and Public Space in Divided Cities*: dynamics of everyday urban life http://works.bepress.com/lisa_smyth/14.

London, UK : Greater London Authority(2011), http://www.london.gov.uk/priorities/planning/london-plan.

Martina Low. (trans. from German by Paul Knowlt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 and Gender",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3(2), pp119-133.

Monika Jaeckel(2006), "Gender Equality and Urban Development: Building Better Communities for all", *Global Urban Development Magazine*, 2(1).

Natalie Collie(2013), "Walking in the city: urban space, stories, and gender", *Gender Forum and Internet Journal for Gender Studies*

OECD/DAC(1998), *Dac Source Book on Concepts and Approaches Linked to Gender Equality*, Paris.

Richard Milgrom, Lucien Kroll, *Design, difference, everyday life from Kanishka Goodewardena et. al. Space, Difference, Everyday Life*: Reading Henri Lefebvr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http://www.mom.arq.ufmg.br/mom/babel/textos/lefebvre_space_everyday. pdf

RTPI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2007), *A place for everyone*: Gender equality and urban planning.

RTPI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2007). *Good practice note on Gender and Spatial Planning.*

Senate Department for Urban Development, Berlin(2011), *Gender Mainstreaming Urban Development,*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soziale_stadt/gender_mainstreaming/download/gender_broschuere_englisch. pdf

Susan S. Rainstein et. al(2005),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Rutgers University Press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2008), *Gender in Local Government- A Source book for Trainers* pp69-78

William H. Whyte(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Rediscovering the Center,1988. Anchor Books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20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0)
서울시, 서울서베이(2011)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2012)
2030 서울플랜 관련 행정서류
- 시민참여형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계획 방침서 (2011)
-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시민 제안서
-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청소년 제안서
-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별칭 : 2030서울플랜 수립)
-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2012년도 정책자료집
서울연구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자료(2012)
서울특별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2011)
서울특별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 전문가 토론회 발표자료(2011)
여성가족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Abstract

An Gender Analysis of the 2030 Seoul Plan

Son Moon-Geum

This study aims to analyze Seoul's urban plan, the "2030 Seoul Plan", by applying gender analysis guidelines developed for the 2030 Seoul Plan

To that end, I have examined various gender-related issues found though given exampl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women-friendly city. And I surveyed gender-based differences in demands regarding Seoul's urban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have examined differences in the use of urban public spa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ir gender-specific demands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urban planning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this study, I suggest 15 gender-based principles of urban spatial formation in areas such as work-life integration, open community, safety, mobility, diversity, participation and system. Also, I create the gender analysis guidelines developed for the 2030 Seoul Plan in accordance with the gender-based principles of urban spatial formation and apply these guidelines to the 2030 Seoul Plan. As a result, I suggest some measures to be reflected in the 2030 Seoul Plan for gender equality. These measures are: creation of a community hub, formation of a spatial structure that improves safety in everyday life, easy access to diverse means of public transportation, provision of public housing near public transportation,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for participants in urban planning projects, a guarantee of women's participation, and a revision of Seoul's urban planning ordinance.

The 2030 Seoul Plan is Seoul's top official spatial plan and, at the

same time, a political project that carries legal binding force. In this respect, the project is designed to take gender equality into consideration as part of the criterion for policy enforcement for urban planning. Also,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cluded in the 2030 Seoul Plan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Seoul's urban spatial policy.

부 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도시공간환경에 대한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설문조사	ID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도시공간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 및 정책적 요구사항을 조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2013년 7월

깨끗하고 투명한 일처리로 청렴 재단, 청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손문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윤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위촉연구원
연 락 처	주 소: (156-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층 e-mail: starnoir@seoulwomen.or.kr 전화: 810-5023 팩스: 810- 5197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알앤씨 전략사업본부 김장호 차장(jkim@nicerc.co.kr), 전화 : 02) 2122-8784

선문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선문2. 귀하의 연령대는?

①20세~24세 ②25세~29세 ③30세~34세 ④35세~39세 ⑤40~44세
⑥45세~49세 ⑦50세~54세 ⑧55세~59세 ⑨60세~64세 ⑩65세 이상

선문3. 귀하의 취업상태는? (※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부업 및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1시간 이상 일**을 하신 경우와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도와준** 경우 모두 **취업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취업 ②미취업

□ **다음은 생활에서의 이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활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가거나 외출할 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갈아타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두 곳만 표시합니다.
※ 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만 출근/통근/통학 하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집에서 나와, 걸어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가서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는 경우에는 걸어서는 표시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에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 (두번째 :)

① 걸어서 ② 승용차 ③ 시내・마을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고속・시외버스 ⑥ 지하철 ⑦ 기차 ⑧ 택시
⑨ 자전거 ⑩ 기타(_____)

2. 귀하의 집에서 대중교통 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버스정류장(마을버스 제외)과 지하철 역, 각각에 응답해 주십시오.

버스 정류장까지 ( )	지하철역까지 ( )
① 도보로 10분미만	① 도보로 10분미만
② 도보로 20분미만	② 도보로 20분미만
③ 도보로 20분 이상	③ 도보로 20분 이상

3.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② 집에서 버스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③ 이용 시 드는 비용 ④ 사고나 범죄로 부터의 안전성
⑤ 이용 시 걸리는 시간 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4. 서울시내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불편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버스나 지하철의 혼잡함(타인과의 밀착으로 인한 냄새, 접촉 등의 불쾌감)
② 대중교통 이용 중 다양한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③ 걷기 힘든 도로(차도와의 모호한 경계 및 좁은 인도)
④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 등 교통시설과 거주지 및 목적지와의 먼 거리
⑤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시스템
⑥ 시내도로의 혼잡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출퇴근길 또는 등하굣길 및 외출 시 귀하가 지난 1주일간 한 번 이상 들린 모든 시설을 출근,등교시, 외출 및 퇴근,하교, 귀가 시 모두 각각 표시해 주시고 몇 회 들르셨는지 횟수(숫자)를 적어주십시오.

※ 출퇴근 또는 등하교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지난주에 외출 시 한번 이상 들린 시설과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이 때 목적지로 나가는 길에 들린 시설에만 표시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들린 시설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출퇴근, 등하교, 외출 중 귀하의 지난 주 이동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출퇴근	등하교	외출

구분	출근 / 등교 / 외출 시		퇴근 / 하교 / 귀가 시	
	방문여부	방문횟수	방문여부	방문횟수
보육시설	□	주 ( ) 회	□	주 ( ) 회
자녀 학교/학원	□	주 ( ) 회	□	주 ( ) 회
음식점	□	주 ( ) 회	□	주 ( ) 회
세탁소	□	주 ( ) 회	□	주 ( ) 회
쇼핑/장보기	□	주 ( ) 회	□	주 ( ) 회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시설	□	주 ( ) 회	□	주 ( ) 회
본인 및 가족의 치료	□	주 ( ) 회	□	주 ( ) 회
자기 계발 및 취업	□	주 ( ) 회	□	주 ( ) 회
체육시설	□	주 ( ) 회	□	주 ( ) 회
도서관	□	주 ( ) 회	□	주 ( ) 회
취미활동시설	□	주 ( ) 회	□	주 ( ) 회
공원/놀이터	□	주 ( ) 회	□	주 ( ) 회
문화시설(극장,공연 등)	□	주 ( ) 회	□	주 ( ) 회
기타 ( )	□	주 ( ) 회	□	주 ( ) 회
기타 ( )	□	주 ( ) 회	□	주 ( ) 회
기타 ( )	□	주 ( ) 회	□	주 ( ) 회

□ **다음은 지역의 생활편의시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6. 귀하는 생활거점(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보육시설, 병원, 파출소, 학교, 문화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길 원하십니까?

① 도보가능거리 ② 대중교통 20분 이내 거리
③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 ④ 대중교통 40분 이내 거리
⑤ 대중교통 1시간 이내 거리 ⑥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7. 귀하는 직장이 주거지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길 원하십니까?

① 도보가능거리 ② 대중교통 20분 이내 거리
③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 ④ 대중교통 40분 이내 거리
⑤ 대중교통 1시간 이내 거리 ⑥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8. 현재 귀하의 주거지역에 우선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필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② 의료시설 (보건소, 병의원 등)
③ 치안시설 (파출소 등)
④ 자녀관련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⑤ 자기 계발 및 취미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기관, 학원, 문화센터 등)
⑥ 도서관 시설
⑦ 취업지원시설 (취업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⑧ 문화예술시설 (극장, 공연장, 전시관 등)
⑨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
⑩ 쇼핑시설 (슈퍼, 재래시장, 마트 등)
⑪ 공원 및 놀이터 등 녹지공간
⑫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 (주민 사랑방, 쉼터 등 공공 교류 장소)
⑬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체육관, 운동시설, 운동장 등)
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다음은 지역의 생활시설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9.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洞)의 생활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목 별로 느끼시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전반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동네는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동네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동네는 쇼핑몰, 시장, 마트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동네는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동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동네는 공원, 놀이터 등 녹지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동네는 취업지원시설이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동네는 보건소,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동네는 체육관, 운동장 등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 잘 마련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동네는 환경적인 측면(매연, 쓰레기, 소음 등)에서 볼 때 비교적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동네는 어린이집 등 어린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동네는 학교나 학원 등 교육시설 측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동네는 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비교적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동네는 주민 간의 교류, 소통, 협력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가 거주지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경제적 여건 ② 자녀 학교 등 교육환경 ③ 주변여건(위치/교통)
④ 직장과의 거리 ⑤ 어린이집 등 자녀양육환경 ⑥ 거주지의 안전/주변 치안
⑦ 생활편의시설(쇼핑/문화 등) ⑧ 재테크 수단 ⑨ 해당지역의 이미지
⑩ 공해, 오염, 소음 등 환경적 측면 ⑪ 공원 등 녹지공간 등 자연환경 ⑫ 기타( )

□ **서울시 공간 및 시설에서의 생활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귀하의 전반적인 안전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에 혼자 있을 때 배달원, 택배기사, 검침원 등 낯선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에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웃이나 가까운 상담시설 및 공공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험을 당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혼자서 택시타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지하주차장에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공원이나 지하철 등 공공화장실을 혼자 이용하는 것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가로수, 간판 등 시설물로 가려진 공간이나 공터 등을 지나갈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지하보도나 지하차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동네는 가로등 조명이 어두워서 심야에 다니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심야에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늦은 시간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늦은 시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를 혼자 걸어가는 것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② 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여야 함
③ 이웃 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를 지원해야 함
④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공동체(밤길 마을 지킴이 등) 활성화
⑤ 개인의 위치확인 시스템, 안전시설 확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확충되어야함
⑥ 주변의 빈 건물, 공사장, 공터 등이 관리되어야함
⑦ 주변에 유흥가, 술집 등이 없어야함
⑧ 가까운 곳에 경찰서, 파출소 등이 있어야함
⑨ CCTV나 비상벨, 비상전화 등 시설의 추가
⑩ 가로등의 조명을 더 밝게 해야 함
⑪ 놀이터, 공원 등은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함
⑫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여성 취업 지원센터나 훈련 등을 위한 시설의 확장
②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③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 창출
④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
⑤ 마을단위의 자율 경제활동(마을기업, 협동조합, 벼룩시장 등) 지원
⑥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돌봐주는 시설 확충
⑦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직장이나 공공시설에 여성친화시설 확보
⑧ 일가족 양립, 여성의 근로여건 등과 관련된 고충상담, 취업상담시설 확충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중 어떤 부문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지역특성과 연관 있는 소규모 기업 지원
② 마을단위의 자율 경제활동(마을기업, 협동조합, 벼룩시장 등) 지원
③ 전통시장의 육성
④ 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
⑤ 도심 중앙 집중 대규모산업 지원
⑥ 디자인, 관광, 엔터테인먼트, 바이오메디컬 등 서울시 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⑦ 창의적인 인재 양성
⑧ 첨단산업 유치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5. 돌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중 어떤 부문의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출산관련시설 확충
② 국공립어린이집, 직장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③ 시간제 아동돌봄시설(영유아플라자 등) 및 서비스 확충
④ 방과 후 돌봄 시설의 확충
⑤ 노인 돌봄 시설 확충
⑥ 장애인 돌봄 시설 확충
⑦ 환자 돌봄 시설 확충
⑧ 24시간 응급의료시설
⑨ 공동운영 식당(마을식당 등) 및 음식배달서비스
⑩ 가사지원시설(세탁소, 반찬가게 등)
⑪ 내실 있는 돌봄 관련 정보 제공
⑫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커뮤니티), 육아 품앗이 등의 활성화
⑬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6. 귀하는 살기 좋은 지역(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각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주거, 교육, 의료, 보육 등 생활서비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② 지역 내 생활의 치안, 방범 등 안전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④ 지역고유의 테마를 만들어 상품화하는 지역전략산업 아이템 선정 및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⑤ 지역 내 여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위한 돌봄·복지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⑦ 결혼이주여성, 미혼부모 등 다양한 소수자 집단 및 다문화의 수용	①	②	③	④	⑤
⑧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및 복지안전망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⑨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퇴치를 위한 정책 및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⑩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 (부녀회, 부모커뮤니티 등)	①	②	③	④	⑤
⑪ 시의 행정에 여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확대	①	②	③	④	⑤
⑫ 교육과 강좌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인적자원개발	①	②	③	④	⑤
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간과 공원 확대 및 정비	①	②	③	④	⑤
⑭ 매연, 소음, 쓰레기 등이 없는 깨끗한 환경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서울시 도시생활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7. 귀하는 서울시 도시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8. 귀하가 생각하는 서울시의 가장 큰 도시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주거문제
② 양육환경문제
③ 일자리 문제
④ 산업 및 경제부문의 문제
⑤ 범죄문제
⑥ 교통문제
⑦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의 문제(쓰레기, 매연, 소음 등)
⑧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개발 문제
⑨ 재난 및 재해 문제
⑩ 건강 문제
⑪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갈등문제 (세대간, 빈부계층 간, 지역 간 등)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9.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20. 다음은 예측되는 도시생활의 큰 변화흐름입니다. 여성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흐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흐름을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고령화
② 저 출산
③ 1인 가구 증가
④ 다문화
⑤ 양극화
⑥ 비정규직 증가와 빈곤
⑦ 한부모가족의 증가(이혼 등)
⑧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⑨ 일자리감소
⑩ 기타(구체적으로_____)

21. 다음은 시민이 직접 고른 도시 생활과 관련 있는 서울시의 정책 과제들입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①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
② 마을공동체 등 지역 기반의 복지
③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
④ 생애주기 및 취약계층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⑤ 에너지 절약 시민 생활습관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의 법적 규제
⑥ 자동차위주의 교통체계를 보행과 자전거 위주의 도시환경 체제로 변화
⑦ 역사문화자원의 유지 및 역사도시 서울의 이미지 보전
⑧ 문화재 복원 및 보존 등 체계적 관리
⑨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도시개발
⑩ 대규모개발사업 억제 및 소단위 도시 개발
⑪ 주민참여의 제도화 및 시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⑫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분과별 이슈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22. 복지, 여성,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슈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고령화
② 건강
③ 양극화 및 차별 해소
④ 평생교육
⑤ 성평등 실현
⑥ 공동체·사회와의 돌봄 공유
⑦ 세대 간 소통과 통합

23. 산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슈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글로벌 경제도시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③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
④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마을 단위 경제 활성화
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24. 역사 문화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슈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역사보전
② 자연환경보전
③ 역사와 관광문화의 융합
④ 도시문화의 활성화
⑤ 소외계층의 문화지원

25. 환경 안전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이슈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에너지 절감
② 자원 재활용
③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④ 범죄,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전 구축

26. 도시공간정비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이슈를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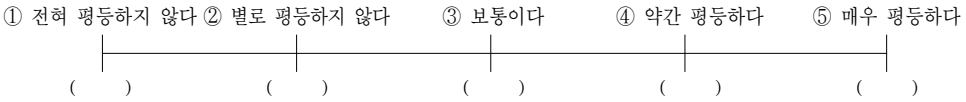
① 지역 간 균형발전
②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마련
③ 대중교통이 중심이 되는 도로
④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⑤ 직장과 주거지와의 거리를 좁혀 이동을 줄일 수 있는 사회 구현

□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한 현재 상태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문항들입니다.**

27. 귀하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운영과정에서 여성을 고려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중요 ② 약간 중요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28. 귀하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29. 귀하는 서울시 도시공간정책운영에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성평등 관련 조항 만들기
② 서울시 제도운영을 위한 계획이나 지침 마련 시 여성이나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고려
③ 서울시 정책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 여성의 참여 확대
④ 제도에 참여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의 남녀평등에 대한 이해, 인식 확대
⑤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남녀평등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실시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0. 귀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주거정비계획 등에 관련된 정책정보를 주로 얻게 되시나요?

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② 홍보 현수막, 포스터 등을 보고
③ 반상회 등 동네 소모임을 통해 ④ 언론을 통해
⑤ 주민센터를 통해 ⑥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을 통해
⑦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1. 다음은 성평등한 서울의 모습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서울의 모습과 2030년 서울의 모습을 예측하여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0점 : 전혀 성평등하지 않은 상태를, 10점 : 매우 성평등한 상태). 해당 질문에 0~10사이의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립	현 재	2030년
•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 수준	점	점
• 성별에 따라 분리된 직업(예, 초등교사의 여성편중)	점	점
• 여성의 비정규직 일자리비율	점	점
• 남녀 간 공정한 경쟁 수준	점	점

안 전	현 재	2030년
• 여성 대상 폭력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제재 수준	점	점
•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수준	점	점
• 물리적 환경의 안전 (CCTV, 거리의 밝기 등) 수준	점	점
• 타인에 대한 신뢰감(위험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	점	점

돌 봄	현 재	2030년
• 남성의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책임공유 정도	점	점
• 직장 노동시간의 단축 수준	점	점
• 보육시설의 질 수준	점	점
•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지원 수준	점	점

참여 및 제도	현 재	2030년
• 기업 등 직장에서의 여성 관리직 비율	점	점
• 의회의원 등 정치권에 여성 참여 비율	점	점
• 정부 및 시 구청 등 행정에서의 여성 고위직 비율	점	점
•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점	점

소통 및 다양성	현 재	2030년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점	점
• 고용, 교육, 훈련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에 대한 지원	점	점
• 주민들 간의 교류나 협력 수준	점	점
• 취약계층여성(장애여성, 결혼이민여성, 미혼모, 탈북여성 등)에 대한 지원 정도	점	점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SQ1. 귀하의 학력은?(재학/중퇴 포함)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 및 대학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SQ2. 귀하의 혼인상태는?

① 미혼　② 유배우자**(☞ SQ2-1번으로)**　③ 기타(별거, 이혼, 사별 등)

SQ3.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 여부

① 있다**(☞ SQ3-1번으로)**　② 없다

SQ3-1. 귀하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동거 자녀 수
미취학	(　　) 명
초등생	(　　) 명
중학생	(　　) 명
고등학생	(　　) 명
대학생 이상	(　　) 명

SQ4. 귀하의 거주지역은?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SQ5. 귀댁 전체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 임대수입 등 **세금 공제 후 모든 동거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①200만원 미만　②200~299만원　③300~399만원　④400~499만원　⑤500만원 이상

※ 조사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참여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①일반전화　(　　) - (　　) - (　　)
②휴대전화　(　　) - (　　) - (　　)

2013 정책연구-03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성 분석(gender analysis)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손문금, 이선영, 장미현
발행일 2013년 10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02-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